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는 조국앞에 도래한 준엄한 난국을 총대의 위력으로 타개하시며 혁명과 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군령도의 위대성을 형상하고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군군인들이 진행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은 적들과의 포성없는 대결전이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이였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때를 같이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고립 압살책동, 반만년이래 처음 당해보는 민족의 대국상, 적들이 떠벌이고있는 공화국의 《조기붕괴설》, 연거퍼 들이닥친 대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식량난,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 우리 혁명대오안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난 패배주의…

바로 이러한 사태를 누구보다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쑤들과 판가름을 할 결심을 안고 인민군군인들속으로 들어가신다.

조국수호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를 믿고 해야 한다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이 결심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참으로 현명하고도 정당한 결심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인민군장병들속에서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육탄자폭정신이 높이 발양된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조선말이 아니라는것은 군인들의 투쟁속에서 실천으로 증명된다. 공사에서 가장 난문제로 제기되였던 모래를 석비레로 해결하는 세부 하나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잘 알수 있다.

경비함 《101》호 성원들이 자폭으로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는 장면은 눈물없이 볼수 없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어떻게 고수되고 승승장구하는가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그들의 투쟁모습에 원쑤들은 전률하며 스스로 자기네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것이다.

소설은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이 모든 혁명적군인정신의 근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이 놓여있으며 군인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그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편집부

주요 인물

심철범　조선인민군 장령, 안변청년발전소 건설현장 총지휘관

리완수　조선인민군 대좌, 안변청년발전소 건설현장군부대 정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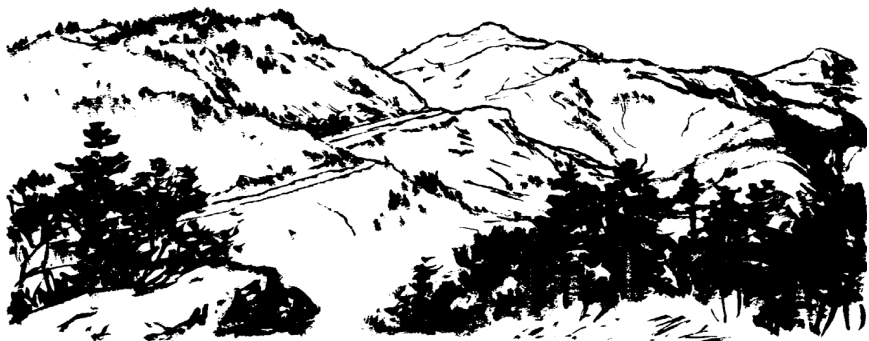
전호진　조선인민군 장령, 안변청년발전소 건설현장군부대 참모장

김남철　안변청년발전소건설현장군부대 군인건설자

김동환　조선인민군 해군대좌, 김남철의 아버지

야조브　이전 쏘련국방상

보브 돌　미국강경보수세력의 우두머리

1

동지도 지나고 세밀추위가 들이닥칠무렵 옥천휴양소가 자리잡고있는 골짜기에는 이상하게도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가 멎으며 뭉게구름이 들리더니 서산에 진 해가 갑자기 피빛노을을 화염처럼 뿜어 올렸다.

잠시후 노을은 사라지고 사위는 다시 어두워졌다. 컴컴한 먼 공간에서 우뢰소리가 둔중하게 들려 왔다. 온 나라 인민이 피눈물을 뿌렸던 7월이후로 자주 보게 되는 자연의 이상현상이였다.

국상을 치른지도 100일이 넘었건만 자연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호곡하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는 수백수천만사람들의 마음에는 물론 이 나라의 하늘과 땅에도 깊은 상처를 남긴듯싶었다.

군부대 참모장인 심철범장령은 야전용승용차의 앞자리에 앉아서 차창에 이마를 바투 대고 때 아닌 폭우에 후줄근해 진 수림을 내다보고 있었다. 골짜기 량옆을 덮고 있던 흰 눈이 폭우에 녹아 내려서 거밋거밋한 땅이 험상한 상처처럼 드러나 보였다. 옥천휴양소의 푸릿한 정원등을 바라보는 장령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였다.

인민무력부장의 호출을 받고 평양에서 출발한 그 순간부터 장령의 머리를 꽉 채운것은 오직 한가지 생각— 치료휴양을 하고있는 무력부장이 왜 찾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도 무력부장이 중병을 앓고 있으며 일체 집무를 금지 당하고 있다는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원등을 바라보는 지금 장령의 눈앞에는 지난 4월의 봄밤이 떠올랐다. 그때 저 외등밑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군장령들을 만나주시였다. 이 순간 심철범에게는 그날 긴박한 국제정세를

분석하시며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받들라는 간곡한 당부를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생생히 되살아 나고 뿌잇한 망막에는 그 밤 정원을 꽉 채웠던 해빛 같은 미소가 어른거리는것이였다.

휴양소마당에서 오진우원수가 심철범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방에 들어 가 기다리시오.》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심철범을 본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인사를 받으며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심철범은 우뚝 선채로 굳어 져 버렸다. 수백리길을 가슴을 조이며 달려 온 사람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도 간단하고 딱딱했다.

오진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꼿꼿이 앞만 바라보면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온몸을 두툼한 군용털외투로 감쌌지만 강마른 체구와 목우로 앙상하게 솟아 오른 두어깨가 알렸다. 늙은 원수는 무섭게 수척했다. 심철범은 그의 몸을 못 쓰게 만든것이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타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진우가 거처하는 방으로 먼저 들어 온 심철범은 그가 몹시 측은하게 생각되였다. 불과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봄밤만 해도 오진우는 얼마나 원기가 왕성했던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자리에서 그는 젊은이처럼 챙챙한 목소리로 대답 올렸고 수령님의 교시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정자로 또박또박 수첩에 적어 넣군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기가 전혀 없어 보였다.

사람이 저렇게 달라 질수 있는가. 수령님의 서거는 항일의 로투사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7월이후 몇달사이에 정정하던 항일투사들이 여러명 세상을 떠났다.

심철범은 무력부장에 대하여 별반 아는것이 없었다. 오진우가 자신에 대한 말을 잘하지 않기때문이였다. 그는 표정으로조차 자기를 나타낸적이 별로 없었다. 오진우는 강대처럼 메마른 인상을 주었다. 세상은 그를 눈물도 웃음도 노래도 없는 인간으로 알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직후 오진우는 련사흘 눈물을 쏟으며 울었다.

어디에 그런 눈물이 있었던가. 처음 보는 정경앞에서 가족들

조차 놀랐었다.

오진우는 식음을 전폐했다. 물 한모금, 밥 한숟가락 들지 않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 그를 부인과 막내인 외동딸이 겨우 돌려 세웠다. 그러고보면 그는 눈물이 많아도 아주 많은 사람이였다.

알려 지지 않은 한가지 일화가 있다. 아들 4형제를 연거퍼 둔 그는 딸을 무척 그리워 했는데 늘그막에 딸 하나를 보았다. 그 딸이 너무도 귀해서 젖 떨어지자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애지중지 하였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어떤 때에는 자기 사무실 책상우에까지 앉혀 두고 보았다는것이다.

심철범이 이 방에 들어 왔을 때 중년의 녀성이 차를 들고 들어와 권하고 나갔는데 그가 바로 그 딸이였다. 치료휴양기간에도 오진우는 전문간호원들을 다 물리치고 딸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

원수의 딸은 손님에게 웃음을 지으며 례절을 차렸지만 수심만은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딸인들 아버지의 건강때문에 얼마나 상심하고 있겠는가. 하지만 누구누구해도 오진우의 건강을 두고 제일 마음을 쓰시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후 많은 사람들이 그이의 곁에 오진우와 같은 항일의 원로들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었다.

심철범도 례외가 아니였다. 그런데 오진우가 저 상태이니 그이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는가. 심철범은 한숨을 쉬며 방안을 둘러 보았다.

큰 방 한가운데 널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다. 미색 비단벽지를 바른 방안은 촉수 높은 백색등에 조명되여 푸른 하늘밑에 있는듯한감을 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좋아 하시던 채광이였다. 묻지 않아도 이 방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쓰시던 방임을 알수 있었다.

오진우가 이 방에 든것은 **김정일**동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오진우의 건강을 두고 얼마나 깊이 마음쓰시는것인가.

심철범은 무거워 지는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오진우가 불치의 병에 걸렸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물론 그의 서기나 부관도 모르며 이 세상에서 오직 의료일군들과 그이께서만이

알고 계신다는데 대하여서는 짐작도 할수 없었다.

밖에서 가벼운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나더니 이어 발동소리가 가까와 왔다. 심철범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진우에게 자기 말고 다른 손님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는 쏘파에서 움쭉 일어섰다. 그때에야 비로소 평양을 떠나면서 머리를 지배했던 의문이 새삼스러워 지며 더 커졌다. 무력부장이 왜 호출했을가?

《응접실로 오시랍니다.》

오진우의 딸이 들어 와 심철범에게 알리였다. 그는 방안의 벽지와 같은 색갈의 미색주단을 깐 복도를 거쳐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문앞으로 심철범을 안내하였다.

《중장동지, 들어 가십시오.》

그 방에는 외투를 벗어 놓아서 수척한 몸이 그대로 드러난 오진우와 령장에 커다란 원수별을 단 우람한 체구의 외국군인이 앉아 있었다.

심철범은 오진우에게 관자노리에 손을 붙여 인사를 한 다음 그 사람에게도 같은 동작으로 인사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가 누구인지는 인차 알아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전 쏘련국방상이였던 드미뜨리 야조브원수임을 알아 본것은 다음순간이였다. 심철범은 무력부장이 자기를 부른 용건과 이 외국손님의 출현이 무슨 련관이 있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인차 머리를 저었다. 자기는 야조브원수와 그 어떤 사업상 련관도 없기때문이였다.

그런데 그가 왜 이곳에 나타났을가? 중병을 앓고 있는 오진우를 방문하는 손님은 극히 제한되였다.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뒤에는 더욱 제한하였다. 간혹 총참모장이라든가 최고사령부 성원들의 방문이 허용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였다.

심철범은 저으기 긴장한 심정으로 오진우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야조브쪽으로 시선을 돌리군 하였다.

쏘련이 해체된후 이전 쏘련의 정계, 군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자주 방문하고 있었다.

야조브와 관련하여 오진우에게 사전통보된 내용은 쏘련의 해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가 한 나라 국방상의 자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부장의 병문안을 열렬히 희망한다는것, 이 희망이 **김정일**동지께 보고되여 실현되였다는것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오진우는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10년전 뜻밖의 사고로 중태에 빠진 오진우는 쏘련국방성의 원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때 야조브는 여러차례 문병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두사람은 매우 친밀해 졌다.

오진우가 흥분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김정일**동지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야조브가 옥천휴양소에 머물게 되였으니 그와 말동무를 하면서 지내라는것, 그가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심철범중장을 동행시키기로 하였는데 무력부장이 그를 불러 직접 과업을 주라는것이였다.

이러한 경위를 알길 없는 심철범은 여전히 긴장한 마음으로 오진우를 지켜 보고 있었다. 그를 한참 마주 보던 오진우가 천천히 시선을 야조브에게로 돌리고 호흡기질환환자들에게서 흔히 듣게 되는 쌕쌕하는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원수동지, 중장을 소개합니다.》

심철범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 섰다. 그리고 군인의 례법대로 힘차게 보고했다.

《조선인민군 중장 심철범.》

심철범은 자기를 소개한후에도 그냥 자리에 서 있었다. 자기가 외국손님에게 왜 소개됐는지 또 어떤 과업을 받게 되겠는지 알아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두사람은 그를 더는 쳐다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서로 안부를 물었으며 간단간단히 회포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에야 오진우는 심철범을 바라보며 여전히 쌕쌕하는 숨소리가 섞였으나 매우 명료한 어조로 말했다.

《심철범동무, 원수동지가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그와 동행하시오.》

《알았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오진우는 그의 대답에 못 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손을 홱 내저으며 말했다.

《동무는 나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사령관동지의 지시를 집행한단 말이요!》

심철범은 선 자리에서 몸을 꼿꼿이 펴며 바지혼솔에 손을 대고 차렷자세로 오진우를 바라보았다.

자기에게 이 뜻밖의 과업을 주신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알고 싶었던것이다.

그러나 오진우도 그것을 알수 없었다.

방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2

심철범은 중키인데 앙바틈한 목과 쩍 벌어 진 어깨는 그를 실지보다 더 작아 보이게 하였다. 몹시 과묵한 그는 언제 봐도 입을 꽉 다물고 다니였다. 그러나 이따금 그 입이 열리면 호랑이와도 같은 무서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심갈범이라고도 했다. 칼날 같은 규률과 무조건적인 실천만을 요구해야 하는 참모장으로서는 제격인셈이였다. 그가 직무에 어울리지 않게 외국인 의례사업에 동원되였다는 사실이 알려 지자 사람들은 의아해 하였다.

사흘동안 야조브를 안내하여 평양시안의 명승고적들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돌아 본 그는 지방참관을 떠나려고 아침 일찌기 야조브를 찾아 갔다. 야조브는 현관앞에 나와서 심철범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덥석 끌어 안으며 몹시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방금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오늘중으로 시간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을 뒤로 미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다급히 열리고 호리호리하고 깨끗하게 생긴 대위령장을 단 군인이 뛰여 나왔다. 인민무력부 외사국의 통역이였다. 대

위가 류창한 어조로 서둘러 야조브의 말을 우리 말로 옮겨 놓기 시작하였다.

그날 오후, 그들을 태운 승용차는 룡성교외도로로 해서 평양중심거리를 향해 달리였다.

김정일동지의 접견은 오후 6시로 예견되여 있었다.

승용차의 앞자리 운전사결에는 대위가 앉고 뒤좌석에 심철범이 야조브와 함께 앉아 있었다. 옥천휴양소를 떠나 평양으로 달려 오는 동안 심철범의 철색이 도는 얼굴은 눈에 알리게 상기되여 있었다. 그는 줄곧 흥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심철범은 최고사령부가 주관하는 장령들의 회의나 국가적인 행사들에서 **김정일**동지를 여러번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참모장의 자격으로 그이께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해드리는 행운도 가졌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몇명, 몇십명이 참가하는 집체적인 접견이였다. 이러한 접견들은 그이의 집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들에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심철범은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가고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기발대에는 일년열두달 하루도 빠짐없이 낫과 마치와 붓을 새긴 당기가 날리고 있었다.

시내중심을 통해 출근하게 되는 사람들은 일부러 당중앙위원회 청사쪽을 바라보면서 가군 하였다. 당중앙위원회를 향해 가면서 이제 불과 몇분후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뵙게 된다고 생각하는 심철범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수령님을 잃은후 우리 나라에는 엄혹한 정세가 도래하였다.

수도의 거리들은 물론 지방도시들과 공장, 기업소안의 구호들과 선전차들은 《결사옹위》, 《결사관철》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의 이 호소에 호응하는 준엄한 맹세의 빛이 어리고 있었다.

거리들에서 점차 화려한 옷차림들이 사라지고 그대신 보위색으로 지은 작업복과 적위대복차림이 많아 졌으며 군용배낭을 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렬을 지어서 어디론가 부지런히 움직여 가

고 있었다. 거의 집집마다에서 그 누군가가 군대로, 이동작업으로 떠나갔다. 가족중에서 누가 퇴근해 오지 않으면 저녁식사를 들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마끔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른 새벽에 서로 얼굴을 못 보고 뿔뿔이 일터로 흩어 져 갔다.

신문들과 방송들에는 《봉쇄》, 《고립》, 《질식》이라는 낱말들이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긴장시키였다. 신문과 방송들은 사회주의의 보루를 지키자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이나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와 전후의 어려운 나날들보다 더 엄혹한 정세가 나라앞에 도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의 예후는 벌써 수령님의 생존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수령님께서 계시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갑자기 서거하시였다. 근 한세기동안 리권을 다투는 세계대국들의 정치권안에서도 나라를 끄떡없이 자주의 길로 이끌던 기치를 잃은 사회주의조선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과 그 불패성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믿음은 **김정일**동지에 대한 믿음과 끊을수없이 련결되여 있었다. 그렇게 된것은 바로 그이께서 나라의 위대한 변혁의 시기, 사회주의 전면적건설의 시기에 당중앙위원회를 선두에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였다. 사람들이 당중앙위원회청사를 그려 보며 거기 집무실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가 하고 상상하는데 습관된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였다.

심철범은 그이께서 나라에 조성된 정세로 하여 더욱 무거워 진 사업부담때문에 이 하루도 여념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중하를 걺어 지고 계시였다.

심철범은 지난 사흘동안 외국손님을 안내하면서 뜻밖의 체험을 하였다.

드미뜨리 야조브의 우리 나라 방문목적이 참관에 있지 않다는것을 심철범은 알고 있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던것이다. 참

관이 기본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되였다, 모든것을 책임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그 전화를 받고 심철범은 자기가 이번 일에 동원되면서 가지게 되였던 의혹을 다시 가지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무슨 리유로 대외사업하고는 인연이 없는 작전일군을 이 일에 선발하시였는가?

그러나 다음순간 야조브가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올것을 목적하고 있는데 그 리유는 무엇인가, 인사나 나누자고 먼 길을 와서 분초가 바쁘신 그이를 뵙자고 할 실 없는 손님은 아닐테니 그가 목적하는바는 과연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안내통역은 야조브가 노래도 있고 시도 있고 웃음도 있는, 군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다정다감한 성격이라고 하였다.

실지 야조브는 숙소에서 밤마다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좋아 하는 로씨야고전음악을 수록한 록음테프를 가지고 다니였다. 차안에서도 그 음악을 듣고 식사할 때나 오락장에서 휴식할 때도 들었다.

그는 출생지인 쏘련의 옴스크주 오꼬네슈니꼬브구역 야꼬브촌에서 제2차세계대전을 맞이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였다. 그는 파쑈도이췰란드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전 인민적인 전쟁에 뛰여 들었다. 만일 전쟁만 아니였더라면 그는 자기가 희망하던 고리끼문학대학으로 갔을것이며 대학을 졸업하고는 작가로 되였을것이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할 때 그는 시 한수를 읊었다.

내
청동의 모습으로
영생은 못해도
대돌이 되여 너를 받들리
내 너를 위해
죽을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대돌이 되리

사랑하는 뻬뜨로
뻬뜨로(레닌그라드)여！

어느 시인이 지은 시인지 아니면 자작시인지는 몰라도 매우 비조가 짙었다.

심철범은 그를 데리고 주체사상탑 전망대에도 올라 갔다. 평양을 한눈으로 부감할수 있는 그리로 올라 가면 그의 무거운 마음이 확 트일가 해서였다. 그러나 거기서도 구름이 꽉 낀 그의 얼굴은 좀체로 밝아 지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전망대의 원형란간을 한바퀴 돌고 나더니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1941년 가을에 모스크바의 하늘에도 포연은 없었지…》

숙소로 돌아 오는 차안에서 심철범은 통역에게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야조브에게 물어 보라고 하였다.

대위가 앞자리에서 뒤돌아 보며 로어로 몇마디하자 야조브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심철범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심철범은 그를 마주 보며 대위의 통역에 귀를 기울이였다.

《1941년 가을…》

1941년 가을 히틀러는 백만이상의 군대, 1,700여대의 땅크와 공격수단들 그리고 거의 1,100여대나 되는 비행기로 모스크바를 공격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점령한후 그것을 어떻게 할 작정이였는가? 그는 모스크바를 물에 침수시켜 이 도시가 800년동안 서 있던 자리를 바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였다. 히틀러가 내린 특별명령에는 모스크바를 침수시키기에 앞서 한명의 로씨야병사도 한명의 주민도 그가 비록 녀자나 지어는 늙은이나 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 나올수 없도록 빽빽이 포위망으로 둘러 쌀것이 예견되여 있었다.

이 명령을 준비하면서 히틀러는 얼마동안 모스크바에 한발의 포탄이나 폭탄도 떨구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스크바의 하늘에는 포연이 서리지 않았다. 그 맑은 하늘아래 도시는 숨 막히는 정적에 묻

히였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정적이였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것은…》 하고 야조브는 다음 말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심철범은 야조브가 다음말마디를 고르는 동안 한마디 끼였다.

《오늘 우리 나라가 그때의 모스크바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물론입니다!》 하고 야조브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고 나서 무거운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나 제가 말하자는 본질적이야기는 거기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보다 깊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장동지가 허락하신다면 말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원수동지의 편의를 봐줄데 대한 임무를 받은것만큼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심철범은 야조브의 방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그의 일생이 함축된 이야기였다.

드미뜨리 찌모페예비치 야조브는 1924년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열한형제의 막내아들로 출생하였다. 레닌이 서거한후였다. 하지만 한번도 본적 없는 레닌의 이름은 사회주의의 견인력이 비할바없이 높았던 당시 어린 소년의 가슴에 깊이 새겨 졌다. 레닌에 대한 믿음은 가난한 자기 가정에 행복한 생활을 약속해 주는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절대적인것으로 되였다.

이러한데로부터 야조브는 레닌의 위업을 계승한 쓰딸린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쓰딸린에 대한 믿음은 그자신이 병사로,지휘관으로 참가한 파쑈도이췰란드를 격멸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서 최절정에 달하였다. 강철의 령장인 쓰딸린이 있어 쏘련인민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야조브에게 있어서 쓰딸린은 그대로 승리였고 승리는 곧 쓰딸린이였다. 쓰딸린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위력이였다.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이 믿음은 쓰딸린 이후의 쏘베트공화국의 지도자들이였던 흐루쑈브와 브레쥬네브, 고르바쵸브에게로 이어 졌다. 그는 마치 두갈래의 철길우에 올라 선 기관차와도 같이 그들이 이끄는 길을 따라 끊임없이 줄달음쳐 왔다. 그러다가 도태,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복귀라는 엄혹한 현실에 부닥치고서야 정신을 차리였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그자신이 적지 않게 변질되였던것이다. 이 변질이 1991년 8월사변에서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다른 성원들과 함께 우유부단성을 나타냄으로써 사회주의의 좌절을 막아 내지 못하고 그자신은 국가반역죄로 감옥에 끌려 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것은 야조브에게 있어서 인생의 파멸이였다.

그는 감옥에서 두번에 걸쳐 자결을 기도하였다. 한번은 국가비상사태위원회 성원이였던 자기 참모장이 사무실에서 문가림천의 나이론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고 다른 한번은 크레믈리에서 사회주의의 상징인 붉은 기발이 끌내내리워 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그러나 자살도구가 변변치 않았던 관계로 두번 다 실패하고 말았다. 1년반후 출옥하여 자기 집에서 세번째 자살을 기도하였다. 국방상이였던 그에게는 세자루의 호신용권총이 있었다. 그중 두 자루는 당국에 회수 당하고 한자루가 남아 있었다.

그 한자루는 자루에 빨간 빛으로 된 세 글자가 새겨 져 있는 권총이였다. 자결을 결심하고 권총을 틀어 쥔 순간 그 세개의 글자가 야조브의 눈을 찔렀다.

《**김일성**》이라는 세 글자였다.

야조브는 원동군관구 사령관으로 있을 때 쏘련국방성의 대표단성원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국광복 4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김일성**동지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다.

세상을 하직하려고 결심한 그 비장한 시각에 야조브의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존함이 새겨 진 그 권총을 직접 수여하신분은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이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총은 배반할줄 모릅니다. 우리 이 총을 틀어 쥐고 사회주의리념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갑시다!》

배반, 그렇다, 이것은 배반이였다. 그는 자기의 자결기도를 이

렇게 평가하였다. 그 순간 야조브의 힘을 주었던 팔에서 맥이 쑥 빠져 나가고 권총을 틀어 쥔 손은 아래로 축 늘어 졌다.

그는 죽어도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한번 꼭 만나뵙고 싶었다. 그는 사회주의리념을 믿고 싶었고 그 승리를 보고 싶었다.

그는 기회를 기다렸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이 **김일성**동지의 급서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 졌다.

또다시 좌절, 희망의 상실, 늙은 원수는 비탄에 잠겼다.

한동안 조문파동이 지나가고 세계는 조선의 《변화》와 《붕괴》를 고아대기 시작했다.

야조브는 이것을 다는 믿지 않았지만 수령이 서거한후 혁명운동이 겪는 시련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었다. 맑스의 서거후 시련을 겪은 제1국제당, 엥겔스의 서거후 제2국제당, 쓰딸린 서거후의 자기 나라가 겪은 시련과 그 시련뒤끝에 도래한 사회주의좌절이라는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외면할수 없었다. 야조브는 고민하였다. 이 고민의 나날 그는 자기 운명이 조선과 그 사회주의와 끊을래야 끊을수없이 련결되여 있다는것을 알았다. 조선이야말로 희망이고 미래였으며 그의 여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조선이 어떠한 시련을 겪을것인가. 제국주의자들은 《고립》, 《압살》을 운운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에서의 수령의 서거를 계기로 그 정책을 더욱 집요하게 추구할것이며 몇십배로 강화할것이였다.

실지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다.

야조브는 정치, 경제, 군사적측면에서 그것을 고찰하여 보았다. 세계의 제일 가는 군사대국의 무력을 총괄하고 있던 그는 다른것은 몰라도 군사면에서는 상당한 예리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제국주의무력의 움직임을 살펴 보았다. 로씨야군부에는 그의 이전 부하들이 많았다. 그는 그들의 도움으로 많은 자료를 입수할수 있었다. 그 자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보면 볼수록 위구심과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그의 시점으로 볼 때 조선은 중과부적이였다.…

야조브는 응접실의 쏘파에서 일어 나 방안을 거닐며 흥분으로

하여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물론 2차세계대전시기 쏘련도 중과부적이였습니다. 쏘련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던 모스크바에서 붉은군대가 가지고 있던 무력은 적의 수중에 있는 무력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80대의 쏘련땅크들이 1,700대의 히틀러땅크들을 상대로 하여 맞서고 있었으며 545대의 쏘련비행기들이 거의 1,000여대에 달하는 도이췰란드전투폭격기, 추격기, 습격기들과 대항할수 있었을뿐이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현재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대비에 비하면 량호한 편이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쏘련은 동상이몽하는 벗이긴 해도 미국과 영국을 자기 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국의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쏘련이 건재했던 때조차 당신들은 충분한 방조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마저 기대할수 없지 않습니까?》

《…》

야조브는 말을 끊고 잠시 심철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는것 같지는 않았다. 체념에 잠겨 모든것을 포기한듯 싶었다.

심철범은 야조브의 팔을 끌어다가 자리에 앉히고 나서 입을 열었다.

《너무 락심하실건 없습니다. 원수동지가 말한것처럼 당신들의 비극은 쓰딸린동지의 서거후 쏘련에 참다운 수령이 없었던데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십니다.》

《물론입니다.》 야조브는 벌떡 일어 나 늙은이답지 않게 다시 흥분하며 웨치듯 계속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이께 기대를 걸고 찾아 왔습니다. 저는 그이께 저의 운명,사회주의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모스크바에서 개별적으로 그이께 편지를 보내였습니다. 그러나 그이와의 상봉은 고통스러운것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당신들의 처지는 다시 말하지만 너무나도 중과부적이니까요. 저의 말이 리해됩니까?》

《예, 리해됩니다. 그러나…》

《잠간.》

야조브는 서둘러 응접실에서 나갔다가 타자친 종이 몇장을 접철로 접은 무슨 문건 같은것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 왔다.

《이건 미중앙정보국이 국방성과 국무성 등 행정부의 대조선기관들에 비밀리에 내려 보낸 〈최근 북조선정세와 대북조선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된 극비자료입니다. 출처에 대하여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신빙성은 제가 담보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보는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야조브는 그 문건을 마치 당장 터지려는 시한탄이라도 되는듯이 두손에 받쳐 들고 조심조심 심철범에게 넘겨 주었다. 이때 그의 표정은 몹시 무거웠고 침울하였으며 불안에 차 있었다. 그러고보면 노상 그의 얼굴을 덮고 있는 그림자가 그것때문에 오는가 싶었다.

반면에 그 문건을 받아 든 심철범의 얼굴표정은 그저 덤덤하였다.

그러나 자기 방으로 돌아 와 탁상등밑에서 한장한장 문건을 번져 가는 그의 표정은 편안치 않았다.

미중앙정보국의 비밀문건은 《1. 최근 북조선정세, 2. 대북조선정책방향》으로 되여 있었다. 《1》에서 문건은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특히는 수령님의 서거후 우리 나라의 이른바 《정세》를 분석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그들이 가소롭게도 우리 나라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것이였다. 문건은 그 요인을 렬거하면서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기》를 들고 있었다. 특히 식량난 등 우리 나라의 경제적난관을 상세히 분석하고는 우리 식 표현대로 《배하고는 타협할수 없다》고 하면서 《북조선주민들은 이제 더는 사회주의와 타협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문건은 《2》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미행정부의 대북조선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전력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붕괴》를 가속화할것을 지령하고 있었다.

처음에 심철범은 《붕괴》요, 《위기》요 하는 표현들이 눈에 들어 왔을 때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성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이름을 그런 상상할수 없는 표현들과 결부시키는데 대하여 격분하였다.

그에게서 사회주의위업은 절대적이였으며 그 불패성에 대하여서는 꿈에도 의심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 지지 않을수 없는것은 적들이 우리를 오판하고 있는 조건에서 분별을 잃고 달려들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적들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수 있었다. 그 몽둥이란 잘 준비되고 정예화된 무력이며 최신무기들이였다.

미중앙정보국의 문건은 우리의 《붕괴》를 3년내의 일로 확고히 단언하고 있었다. 3년, 이 3년이라는 수자는 미국방성의 강경보수세력들에게는 리성을 잃을만큼 현란한 수자일것이다. 그들은 기뻐서 고함을 치며 미친듯이 달려 들수 있었다. 3년, 3년만 견디여보자! 라고 하면서 저들의 정치, 군사,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할수도 있었다. 미중앙정보국의 문건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지금 당기발이 사시장철 펄럭이고 **김정일**동지께서 집무를 보시는 사무실이 있는 청사의 계단을 오르는 심철범의 눈앞에는 3년이라는 수자가 자꾸만 밟혀 오는것이였다.

두말할것도 없이 3년은 우리 당과 인민, 군대에게 있어서 엄혹한 시련의 시기로 될것이다. 하다면 그 수위에 서계시는 **김정일**동지의 심려는 얼마나 클것인가.

심철범은 이러한 생각에 파묻혀서 청사현관에서부터 안내하는 한 젊은 군관을 따라 책임서기의 방에 어떻게 들어 섰는지 알지 못하였다.

×

오후 6시 2분전이였다.

《들어 가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젊은 군관에게서 손님들을 인계 받은 책임서기 곽무선이 나직이 말하였다.

그는 손님들의 앞에서 어쩐지 좀 조심스럽게 살며시 문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겼다. 그리고는 곧 세사람의 손님을 돌아 보면서 들어 가라고 눈짓하였다.

야조브가 앞서고 심철범과 통역인 대위가 거의 동시에 문턱을 넘어 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에서 몇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계시였는데 먼저 들어 온 야조브가 자신에게로 다가서자 침착한 어조로 몇마디 말씀하시고 나서 손을 내미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그들의 등뒤에서 누군가가 로어로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여 반갑다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 본 야조브와 심철범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기름한 얼굴에 금테안경을 낀 중년의 사나이를 보게 되였다. 그이의 통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앞탁 한쪽 가운데 평의자에 앉으며 손님들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야조브는 그이와 마주한 책상 한쪽에 앉고 심철범은 그와 나란히 앉았다. 두 통역은 **김정일**동지와 그들 두사람뒤에 얼마간 거리를 두고 각각 서 있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야조브가 말씀 드리였다.

《무엇보다먼저 저는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저 합니다.》

야조브는 자리에서 일어 나 고개를 숙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쯤 몸을 일으켜 그의 조문을 받으시였다.

《감사합니다.》

그이께서는 심철범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물으시였다.

《손님이 불편해 하는 점은 없습니까?》

《예, 숙소조건도 그렇고 오진우무력부장동지와 함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만족해 합니다.》

야조브는 자기와 관련한 그 이야기에는 끼여 들지 않고 줄곧 **김정일**동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이의 모습이 10여년전

권총을 선물 받던 때보다 많이 변모되였다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하고 있는 고통, 이 나라가 겪고 있을 그 위험의 그림자가 그이의 얼굴에 비끼지 않았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이의 얼굴에 번민의 흔적이나 불안한 기색이라도 있다면?…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안광도 변치 않았고 얼굴표정도 태연자약하였으며 억양 역시 침착하시였다. 게다가 평양체류기간의 생활을 물어 주시면서 웃음까지 보여주시였다.

야조브는 조용히 납작한 서류가방을 자기앞으로 끄당겼다.

이때 《야조브동지.》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먼저 말꼭지를 떼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조브가 열기 시작한 서류가방에 눈길을 주시면서 계속하시였다.

《동지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문건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겠습니까?》

《예, 바로 이것을…》 야조브는 동작을 좀 빨리하여 가방에서 미중앙정보국의 문건을 꺼내 그이께 넘겨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문건을 받아 들고 한장한장 넘기시였다.

순식간에 마지막장을 넘기신 그이께서는 그것을 탁 소리가 나게 책상우에 놓더니 심철범을 건너다 보시였다.

《심철범동무!》

《예?!》

심철범이 벌떡 일어 섰다.

《이것을 동무도 보시오.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수록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문건을 심철범앞으로 밀어 놓으시였다. 심철범이 그것을 받아 들고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모든것은 순식간에 진행되였다.

야조브에게는 **김정일**동지께서 자기가 모스크바로부터 가슴을 조이며 가져 온 그 문건, 그를 줄곧 괴롭히고 있던 그 문건을 전혀 보시지 않은채 심철범에게 넘겨 주신것처럼 생각되였다. 외형상으로 볼 때 야조브가 가져 온 문건을 **김정일**동지께서 읽지 않고 심철

범에게 넘겨 주시였기때문이였다. 그러니 이 접견이 심철범에게 미중앙정보국의 문건을 넘겨 주기 위해 필요했단 말인가.

심철범의 머리에는 오진우로부터 장군님의 지시를 집행하게 된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떠오른 의혹이 다시 되살아 났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오래 하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쯤 일어 서서 집무탁우에 무드기 쌓인 문건들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들고 말씀하시였기때문이다.

《이것을 보십시오.》

야조브와 심철범은 그 말씀을 듣고 동시에 그이를 바라보았다.

김정일동지께서 문건을 야조브앞으로 쑥 내미시였다. 그것을 받아 든 야조브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원수동지, 제가 드린 그 자료를 먼저 보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그다음에 나누기로 합시다.》

야조브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풀지 못하자 그이께서 가볍게 웃으시며 다시 말씀하시였다.

《야조브동지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하여 저도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모스크바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동지를 초청하도록 해당 부문에 지시를 주었던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제가 방금 드린 그 자료를 보신 다음에 나누기로 합시다. 저는 동지가 필요하다면 아무때나 시간을 내겠습니다. 래일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야조브는 그이로부터 받은 문건을 서류가방에 넣으면서 동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심철범에게 한마디 하시였다.

《심철범동무도 함께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야조브의 건강을 묻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동맥경화에 주의를 해야 한다시면서 그 치료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보아서는 그들중 어느 한사람도 최근 이틀동안에 그이께서 다 해서 네시간이나 다섯시간도 눈을 붙여 보지 못하시였으며 그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는 총참모장 최광이

적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 무력을 집중하고 있다는것과 다량의 삐라와 교란물자를 떨구고 있다는 보고자료를 드리였다는것을 상상할수 없었다.

야조브는 물론 심철범도 그이께서 주신 문건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후보인 미상원 공화당원내총무인 보브 돌과 미중앙정보국장이 우리 나라의 《붕괴》를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앞당길데 대한 모의를 한 사실이 적혀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응접실에 금강산발전소건설문제와 최근에 더욱 긴장해 진 나라의 식량문제에 대한 결론을 받으려고 온 부총리들이 **김정일**동지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는것은 더욱 몰랐다. 그이께서는 매우 온화한 자세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야조브와 헤여지시면서 심철범에게 손님과 관련한 전화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에게 직접 걸라는 지시를 주시였다. …

그날 밤 12시가 다 되여서 심철범은 전화로 **김정일**동지께 야조브의 반영자료를 보고 드리였다.

야조브는 돌아 오자 즉시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문건을 보았으며 심철범자신도 보았다는것, 그것이 천만사람을 놀래우는 번개라면 야조브 자기가 가지고 갔던 문건은 밤길손이나 놀래울 반디불이였다는것, 그런데도 장군님께서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였는데 그렇다면 그이께서는 무엇을 믿으시는가 한다는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말마디를 쏟아 놓듯이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하시였다.

《그 대답은 동무가 주게 될것이요. …》

3

이해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담보서한》을 세상에 발표한 직후의 어느 날 오전 10시경,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중앙정보국의 뒤문으로 좌석뒤에 짐칸이 달린 누가 보아도 짐차 겸 승용차라고 할수 있는 소형자동차 한대가 들어서고 있었다.

자동차의 창유리는 수은을 먹이여 밖에서는 들여다 볼수 없었다.

차에는 70대의 늙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이 뒤문으로 들어 오는 손님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철칙으로 되여 있는 눈가리개가 씌여져 있었다.

그 사람은 보브 돌이였다.

보브 돌은 미상원 공화당원내총무로서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목된 현 대통령 빌 클린톤의 경쟁자였다.

이날 이른 새벽 돌이 집에서 한창 잠을 자고 있을 때 머리맡의 소탁자에서 전화종이 울렸다. 그는 누운채로 기지개를 하듯 팔을 쭉 펴서 송수화기를 집어다 귀에 대고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요?》

《비행장 안내원이예요. 뉴욕행 비행기는 정확히 낮 2시에 떠납니다.》

조용히 울리는 녀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은 돌을 단번에 잠에서 깨우는데 충분하였다. 이불을 밀어 제끼고 두다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우고 실내화를 찾느라 더듬거리면서 돌은 한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 흥분의 도수가 얼마나 높았던지 송수화기를 들고 있는것도 잊어 버리고 앉아있었다.

이윽고 돌은 기쁨과 잘못 듣지 않았나 하는 위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송화구에 대고 성급히 물었다.

《그게 정말이요?》

《네, 당신의 동행인은 오전 10시에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겠다는것을 알려 주라고 했습니다.》

돌은 송수화기를 어떻게 놓았는지 몰랐다. 의수를 찾아 팔에 끼우고 다리를 절면서 방안을 거닐었다. 그는 웰남전쟁에서 오른팔을 잃고 왼다리를 부상 당하였다.

돌은 성한 한쪽 손으로 의수를 거머쥐고 머리우로 쳐들면서 혼자소리로 웨치듯 말하였다.

《내가 이겼소！ 클린톤씨,전쟁기피자！ 내가 당신한테 질줄 알았는가？》

안해인 엘리자베스 돌이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돌을 미칠듯 한 환희속에 몰아 넣은 그 전화는 미중앙정보국장 허리먼이 자기의 녀서기를 시켜서 건것이였다. 그 전화에서 중요한것은 《2》라는 수자였다.

잠 자는 보브 돌의 방에서 전화종소리가 울리기 방금전 조선의 《위기》상황을 프로그람화하여 넣은 미중앙정보국 기술처의 한 콤퓨터의 형광판에는 허리먼과 그 측근 요원들이 지켜 보는 속에 《2》라는 흰 글자가 새겨 졌다. 2년후에 조선의 《종말》이 온다는것이였다.

허리먼은 눈을 감고 잠시 까딱 않고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을 가까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한낱 미국의 안보에 충실한 유능한 정보실무가이며 당리당약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수 있다. 한두해가 지나간후에 공화당선거위원회성원들은 선거에서 패한 자기들의 책임을 되도록 덜려고 애 쓰면서 무소속감투를 쓰고 있던 허리먼을 공화당의 악질당원이라고 불렀다. 한때 미중앙정보국 《한국》지국장을 한바 있는 몸매가 다부지고 얼굴생김이 막스러운 이 사람은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어느 편에도 기울어 지지 않았다. 그 대신 반공광증으로 말하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것이였다. 그는 반공사상에 투철한 사람이라면 당소속에는 관계없이 그를 끌어 당기기도 하고 또 자기가 끌려 가기도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콤퓨터앞을 떠나자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잠 자는 또 한명의 반공광신자를 깨웠던것이다. 그들의 수중에는 집권당인 민주당을 공격할수 있는 주패장이 쥐여 진셈이였다.

돌은 문가에 서 있는 처에게 위풍 있게 말하였다.

《나를 혼자 있게 해주오. 엘리자베스.》

그는 혼자서 기쁨을 실컷 맛 보고 싶었던것이다. 엘리자베스가 나가자 돌은 허리먼의 전화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10시에 만나자고 했지. 그때까지 무얼 한다？ 그는 의수를 뽑아 던지고 침대에

벌렁 누워서 자기가 좋아 하는 록크곡을 휘파람으로 불면서 구불구불한 뱀부각을 한 천정을 바라보았다.

전반적으로 정치적리념으로서의 동방이 없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년간 그를 불안케 하고 괴롭힌 모든것 즉 사회주의조선의 건재와 이 자그마한 사회주의보루앞에 굴복하고 《미조기본합의문》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된 미국의 체면손상 그리고 조선문제에서 군사적개입을 주장하는 자기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은근한 조소, 차기대통령선거유세가 시작된 지금 온몸을 사로잡는 렬세감, 이 모든것이 새로운 결정적승리앞에서 뒤로 사라졌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졌던것이다. 그러나 이 행복한 순간에 한가지 일만은 사라지지 않고 자루속의 송곳처럼 아물려고 하는 상처를 찌르려는것이였다. 그는 그 일을 생각하면 모욕감으로 하여 지금도 온몸이 떨리였다. 돌은 얼마전에 있었던 일을 눈앞에 그려 보았다. 그가 공화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금방 선거유세에 나서려던 때였다.

미상원합동청문회가 열리였다. 연탁에는 그의 경쟁자인 현 대통령이 나섰다.

대통령은 최근년간 미국과 조선사이에 《핵문제》가 폭발하고 그것이 《미조기본합의문》의 채택으로 해결되게 된 결과를 보고한 다음 공화당의원들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어른이 아이들을 대상할 때 보여 주는 너그러운 표정을 짓고 말하였다.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고 우리는 그사이 여론의 압력과 조소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였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지난 일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다, 다만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은것은 대조선정책에서 고압은 시기상조라는것이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공화당좌석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보브 돌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그 순간 돌이 불끈하여 일어 섰다. 그는 장내를 쩡 울리는 큰소리로 냅다 쏘았다.

《각하께서는 웰남전쟁때처럼 아직도 전쟁을 겁내는가요?》

웰남전쟁때 초모를 기피했다는 추문이 나돌고 있는 클린톤에 대한 인신공격이였다. 돌은 이 공격을 들이대면서 자기의 의수를 성

한 손으로 잡았다. 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미국을 위한 전쟁에서 피를 흘린 공신이라는것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클린톤은 물론 그 뜻을 제꺽 알아 차렸다. 그는 여전히 너그러운 표정을 짓고 아량 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리득이 없는 전쟁에서 팔을 잃은것은 자랑으로 될수 없지요. 반대로 나는 성한 팔을 자랑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아무때건 총을 잡을수 있으니까요.》

누구에게 퍼부어 지는것인지 모를 폭소가 장내에 터졌다. 돌은 자기가 클린톤에게 지고 있다는것을 의식하면서 또 한마디 하였다.

《당신은 백전풍이 든 그 팔이 그리도 아깝습니까?》

보브 돌은 입밖에 내뱉은 자기 말의 유치한 뜻을 이 말이 이미 쟁쟁한 소리로 울리고 있을 때에 비로소 깨달았다.

장내에는 더욱 큰 폭소가 터졌다. 그것이 자기에게 퍼부어 지는 조소임을 안 돌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이 패배를 만회하려고 조선에 군사적개입을 건의하는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표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며칠후 있은 표결에서 돌은 또다시 패배를 당하였다.

지워 지지 않는 이러한 사실을 회고하면서 지금 돌은 스스로 자신에게 웨치는것이였다. 《내가 이겼다!》 그는 자기에게 조소를 퍼붓던 겁쟁이제씨들이 지금 자기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하고 심술궂게 생각하였다.

《뭐 아직 시기상조라고? 기다릴테면 너희들이나 기다려라, 콤퓨터는 과학이다!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 바싹 조이자! 나는 국민에게 호소할것이다. 클린톤, 나는 너를 이길것이다!》

보브 돌은 이 말을 소리내여 웨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물론 지금 자기 말을 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좋다, 10시에 내 말을 듣게 될것이다!

돌은 자기가 중앙정보국의 밀실에 나타나 비밀리에 모여 앉은 사람들앞에 2년이라는 수자를 공개하는 순간을 희열에 넘쳐 생각해 보았다. 자, 누구든 하루밤 자고 나면 대통령이 될 이 사람의 종국적인 정당성을 의심할테면 의심해보라! 그들, 바로 그들, 조선

사람들의 예견치 않았던 저항을 구실로 삼고 있는 그 무능하고 쓸모없는 민주당패거리들때문에 미국은 세계앞에서 만신창이 되고 조선은 아직도 검질기게 살아 있다. 그러나 결정적시기가 닥쳐왔다. 우리가 좀 더 강경하게 나갔더라면 좀 더 일찌기 찾아 왔을 그 시기가 드디여 왔다. 조선을 파멸시키는것은 이제는 식은죽먹기다.

오전 10시, 중앙정보국의 《Z》표가 붙은 밀실에 뒤늦게 들어와 상좌에 앉은 보브 돌의 기분은 시종 매우 좋았다.

이러한 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해 온 국방장관대리로 참가한 합동참모본부의 부의장 죤스, 국무성 차관 씨번, 미련방수사국의 부국장 디퍼, 이 집단의 모사이기도 한 카네디기금 상급연구사 호케르는 돌이 그렇게도 의기양양한것을 그들의 프락찌야가 구성된 3년전의 첫 며칠간을 내놓고는 일찌기 본적이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비범한 배우라고도 할수 있는 보브 돌은 밖으로 막 터져 나오려는 기쁨을 가까스로 억제하고 있었다. 그는 콤퓨터의 계산이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리 학수고대하던것이였다 하여도 그런 티를 앞으로 자기 정권의 요직을 차지할 사람들앞에서 나타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는것은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것으로 되기때문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돌은 자기의 억누를수 없는 기쁨을 말로도 표정으로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의 인사에 건성 손을 쳐드는것으로 대답한 그는 자리에 앉자 보고를 하라고 허리먼에게 언권을 주었다.

언권을 받은 허리먼이 일어 섰다.

물론 정보국장의 보고에서는 콤퓨터의 계산결과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는 첩보원들과 위성정찰의 자료에 의한 북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기상황이 프로그람에 입력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중점은 경제적위기에 두었다. 중요경제지표들을 렬거한 다음 이 모든것은 자력회복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고 그를 례증하면서 1990년 이후 5년 련속 경제가 미누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하여서와 최저수준에 이른 국민총생산액과 대외무역액을 들었다. 다음 에네르기사정의 악화로 경제전반이 위축된 결과 공장가동률이 매

우 낮다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의 저하로 식량사정이 막다른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그 결과 북조선국민들이 더는 사회주의와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추측을 말하였다.

《북조선경제가 이렇게 된데는 그들이 의거하고 있던 사회주의경제시장이 완전히 없어 졌고 우리의 경제봉쇄로 서방시장에로의 침투가 불가능하였다는데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경제봉쇄를 더욱 철통같이 하고 군사적압력을 가속화한다면 그들의 질식은 가까운 장래의 일로 될것입니다. 그에 대하여서는 콤퓨터가 정확히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에 보브 돌이 발언하였다. 그는 콤퓨터의 프로그람에는 북조선위기를 더욱 촉진시킬 **김일성**주석의 서거는 반영되여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것만 반영하였다면 콤퓨터의 형광판에는 보다 낮은 수자가 표시되였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으며 뭔가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는것을 의식하였다. 그것은 북조선에 **김일성**주석을 대신하고 있는 **김정일**령도자가 있다는 사실이였다.

최근년간 그의 뇌리에는 그 사실이 더 자주 떠올랐으며 이날 새벽 침대에 벌렁 누워 행복에 한껏 취해 있을 때에조차 그 사실이 상기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보브 돌은 갑자기 커다란 담벽앞에 마주 선 때처럼 가슴이 답답해 져서 숨 가쁘게 말하였다.

《여하튼 북조선의 붕괴는 기정의 사실이요. 그러므로 제씨들은 총력을 다하여 그를 가속화해야 하오. 북조선을 괴멸시키는데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면 충분하오!》

그는 잠간 말을 멈추었다가 표독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씨들은 클린톤행정부에서도 실권자들이지만 앞으로 나의 행정부에서도 실권자로 될것이요. 두려울것이 없소. 강행하시오. 승리는 우리의것이요!》

그는 성한 손으로 의수를 틀어 잡고 흔들었다.

엄숙한 정적이 깃들었다.

허리먼은 번개처럼 생각을 굴리였다. 어떻게 하면 북조선에 변절자들을 더많이 만들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내분을 촉진시키겠는가? 남조선의 《안기부》를 다 내던져도 좋다. 북조선을 무너뜨린 다음에야 그것을 해서 무엇하랴? 그다음? 그다음에는 또 써먹을 무엇이 없는가?

그의 얼굴에 회심의 웃음이 지나갔다. 까마득한 옛날에 박아넣은 값 눅은 첩자들의 이름이 고문서에 적혀 있던것이 생각났던것이다.

돌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돌은 두가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하나는 중앙정보국장인 허리먼 자기로 하여금 불과 한달전에 만들어 내려 보낸 대북조선정책방향을 수정하여 다시 내려 보내되 이번에는 폭을 넓혀 남조선과 서방의 동맹국들에도 보내며 해외공관들에도 보내라는것이였고 또 하나는 여론을 전개하되 그 앞장에는 자기가 서겠다는것이였다.

다음날 선거유세에 나선 보브 돌의 목소리가 텔레비죤방송과 소리방송의 파장을 타고 전 세계에 울리였으며 활자로 되여 미국의 중요신문들에 실리였다.

《빠리콤무나의 바리케트에 지나지 않는 사회주의의 보루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며 그 불이 꺼질 때 자유세계는 더욱 밝아 질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수치인 〈미조기본합의문〉은 절대로 시행될수 없으며 시행되여서는 안된다. 나는 클린톤의 전철을 밟지 않을것이다. 나는 대조선문제를 강력하게 다룸으로써 훼손된 미합중국의 명예를 회복할것이라는것을 국민앞에서 엄숙히 공약하는바이다. …》

4

《경애하는 장군님.》

《…》

《저… 장군님.》

《…》

《**김정일**동지！》

묵묵부답이시던 **김정일**동지께서 보던 문건에서 시선을 드시였다.

키가 작지는 않으나 몸매가 앙바틈해 보이는 사람이 죄송스러워 하는 표정을 짓고 앞에 서 있었다. 곽무선이였다.

그는 몇번 손기척을 냈으나 응답이 없어 그냥 들어 섰고 몇번 존칭으로 찾다가 나중에는 존함을 불렀던것이다.

《왜 그러오?》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곽무선은 그 물으심이 자기의 죄송스러워 하는 표정을 보고 하시는 물음인지 아니면 용건에 대한 물음인지 몰라 인차 입을 열지 못하고 이미 지었던 표정을 풀지 못한채 어정쩡해서 서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군님》이라고 부르는것을 질색하시였다. 그러한 존칭은 수령님과만 결부되여야 한다고 여기시는 그이이시였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항일투사들이 먼저 그 존칭을 쓰더니 약속이나 한듯이 전체 인민이 따라 쓰기 시작하였다.

온 나라 인민을 일일이 따라 다니며 막을수 없는 일이여서 측근의 일군들만이라도 쓰지 못하도록 엄하게 타이르시였다.

우리 인민은 벌써 반세기전부터 수령님을 장군님으로 불러 왔다, 그후 더 높은 존칭은 없겠는가 하는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가 주석이라는 존칭으로 받들어 올렸다, 그러니 일체 존칭은 수령님과만 결부되여야 한다, 나는 오직 동지라고 부르면 된다, 나는 동지라는 말이 제일 친근하고 좋다, 그러니 동무들부터 그렇게 하라. 이렇게 타일러 오시였다.

그런데도 일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책임서기도 마찬가지였다.

간혹 그이의 엄한 요구에 못 이겨 존함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고나서는 지금처럼 죄송스러워 하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왜 그러오?》 하고 재삼 물으시여서야 곽무선은 그이께서 용건을 물으신다는것을 알고 자세를 똑바로 하며 말씀 올렸다.

《허성렬부부장동지가 만나뵙겠다고 찾아 왔습니다.》

《그 동문 외국으로 떠나게 되여 있지 않소?》

《그렇습니다. 한데 떠나기에 앞서 꼭 말씀 드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후 체소하나 강기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집무실에 들어 섰다. 그는 집무실에 들어 서자마자 장군님의 손에 들려 있는 문건부터 알아 보았다. 지난 밤 자기가 올린 문건이였다. 그 문건은 적들이 떠들어 대는 우리 공화국의 《조기붕괴》설을 집약한것이였다.

허성렬은 기회가 좋지 않을 때 찾아 들어 왔다는것을 의식하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 올렸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류송직의장동지가 장군님을 만나뵙도록 주선해 달라는 청입니다.》

《그런데 동무가 왜 그 청을 맡아 나섰소?》

《책임서기에게서는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음…》

장군님께서는 류송직의장이 최근에 무슨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였다. 이해가 다 가고 있다. 어떻게 하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치르고 이해안으로 추대문제를 성사시키려는것이였다. 수천수만통의 인민군병사들과 로동자, 협동농민들의 편지와 함께 그자신도 거듭 편지를 보내왔고 전화도 걸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동의하실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책임서기에게 그 문제때문이라면 찾아 오지 못하게 하라고 일러 두시였던것이다.

허성렬이 그이께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장동진 저보고 동무도 대의원이 아닌가, 그러니 의장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강박하다싶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줄 알면서도…》

《허허…》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웃고 나서 허성렬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동무생각은 어떻소? 의장이 나를 만나자는 의도를 짐작하겠는데.》

허성렬은 침묵하고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나직이 한숨을 쉬시였다.

허성렬이까지 나를 리해하지 못하는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누구도 자신을 리해하려고 안했고 오히려 설복하려고만 들었다.

며칠전 그이께서는 병중에 있는 오진우무력부장에게 전화를 거시였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당일날 비상정치국회의 뒤에 당정치국상무위원인 그에게만은 자신의 의도 즉 3년전에는 절대로 추대는 없을것이라는것을 귀뜸해 주고 동의까지 받았으니 그만은 자신의 마음을 리해하리라고 믿었는데 뜻밖에도 병자 같지 않게 큰 목소리로 추대사업은 더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이였다.

《장군님…》

허성렬의 목소리에 장군님께서는 답변을 주어야 한다는것을 의식하시였다.

《나도 대의원이니 어쩌겠소. 의장이 만나자면 만나야지…》

이튿날 류송직의장을 마주하게 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절로 마음이 젖어듦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수령님과 그와의 류다른 인연이 생각되시였기때문이였다.

전선에서 소환되여 백송리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던시절 수령님과 낯을 익힌 류송직은 그 인연으로 수령님께서 차려주신 결혼식상을 받게 되였다.

그날이 바로 전승의 전날밤이였다.

마음이 어질고 감정이 여린 류송직은 결혼식 전 과정에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눈물을 거두라, 승리의 축포가 오르기전에 결혼식상을 받은것은 의의가 있다, 아마 미국놈들이 알면 기절초풍할게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시며 그를 달래이시였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밤에 결혼식을 하느냐. 대낮에 해도 일없을텐데. 판이 이렇게 된바치고는 백촉짜리 전등을 환히 켜라. 미국놈의 비행기가 이젠 얼씬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미국놈을 완전히 짓눌러 놓았으니 마음을 놓고 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어라!》

류송직은 비로소 눈물을 걷고 신부와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령님께서 눈굽을 적시시였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애의 눈물, 친어버이의 축복이였다. …

《장군님.》

류송직이 찾아 온 용건을 말씀 드리려고 한발 나섰다.

《**김정일**이라고 하십시오. 나도 그저 류의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좋습니까. 류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의장밑에 있는 대의원이지요. 허허허…》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물없이 말씀하며 웃으시였다.

의장이 찾아 온 목적을 아는만큼 좋게 리해시켜 돌려 보내려는 의도이시였다.

류송직은 여전히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 올렸다.

《다른 나라들에서 공직 계승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알아 보라고 해서 제가 보고 드린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 보고자료를 보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1883년 3월 로동계급의 첫 수령이였던 맑스의 묘앞에서 조상을 한 엥겔스도, 1924년 1월 크레믈리궁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영결사를 한 쓰딸린도, 1953년 3월 같은 장소에서 쓰딸린과의 영결사를 한 말렌꼬브도 선대수령이 맡았던 당과 국가의 공직을 며칠내에 인계 받았습니다. 그것도 국가지도부범위에서 비상회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류송직이 얼른 그이의 말씀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이미 말씀하신대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반추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또 얼마만 한 시일이 지체되겠습니까. 이해를 넘겨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의장이 양보할 심산이 아님을 느낀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어성을 높이시였다.

《무슨 상관입니까. 류의장,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

신다는 구호는 우리가 피눈물속에서 내놓은것이 아닙니까. 그 구호의 의미를 류의장은 누구보다 잘 알겠는데요. 수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상 추대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류송직은 말이 없었다. 기어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힘들게 찾아 온 걸음인데 왜 말씀 드릴것이 없겠는가. 원래 말수더구가 적고 지식인출신 일군으로서 리해력이 깊은 그는 어떤 문제에서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리해하는데 습관되여 있었다.

지금도 의장은 장군님의 길지 않은 말씀에서 그이의 깊은 심중을 충분히 리해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기름한 그는 오랜 세월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국상을 당한 이 몇달어간에 몰라 보게 수척했고 늙어보였다. 타고 난 순한 얼굴만은 여전했는데 거기에는 어린애와도 같은 간절한 소망이 비껴 있었다.

그의 천품을 잘 알고 있는 장군님께서는 이 순간 그 얼굴에서 수만마디의 말을 읽으시였다.

갑자기 눈굽이 뜨거워 지시였다.

그를 진정시키고 리해시키고 싶으시였다.

《류의장.》

다정히 부르고 나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의장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선거를 하고 국가수반추대를 추진시킬 직분을 맡고 있는만큼 매우 조급할것이라는것도 리해합니다. 숱한 일군들이 의장에게 매일과 같이 제기하고 있으리라는것도 짐작합니다.》

《그런데 일군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인민들이 수령님을 잃은 상실을 장군님을 국가수반의 공직에 모시는것으로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을 외면한다면 저는 의장의 자리를 지킬수 없을것입니다.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요？》

《예！》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됨을 봐서 그가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시였다.

또다시 눈굽이 뜨거워 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얼마나 진실하고 순박하고 량심적인 일군들과 함께 일하시였는가. 그들은 한사람 한사람 더없이 귀중한 일군들이다.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보살펴야 할것이다.

갑자기 수령님생각이 간절해 지시였다.

가슴속에 피눈물이 고이는것을 의식하며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령구앞에서 목 놓아 울던 인민들의 비분이 아직도 가셔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전에 쟁쟁한데 당과 국가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고 어떻게 만세를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의장동지, 절대로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류송직은 그 말씀에 목이 메인듯 더는 입을 열지 못하였다.

어느덧 장군님께서는 차근차근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겠는가 하는데만 머리를 써야 합니다. 나의 말을 인민들에게 죄다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류의장을 밀어 내자고 할것이 아니라 종신의장을 시키자고 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옆에 앉은 류송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의 기름한 얼굴에 두줄기의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어서 눈물을 닦으십시오.》

민망스러운듯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가더니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령수가 서거하여 100여일이 지나도록 그 후계자추대문제를 미루어 온 그런 례는 세상에 있어 본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새 여러 나라들의 법률제도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사회주의사상과 도덕을 지도리념으로 하던 이전 사회주의나라들도 그러하였지

만 부르죠아법률이나 종교법률을 비롯하여 세계 100여개 나라의 각이한 법률은 모두 국가수반이 사망하거나 실각 당하면 비상회의를 하거나 긴급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웠습니다. 그건 그 나라 법률의 요구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고 서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류송직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곁에 나란히 앉아 계속하시였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나라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헌법을 채택할 당시 어버이수령님을 믿고 따르며 받드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너무도 강렬했기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국상에 대하여 상상이나 할수 있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후계자추대문제를 헌법조항에 박지 않은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조항이 있었다면 이 **김정일**이도 지금과 같이 자기의 주장을 고집할수 없을것입니다. 누구든 법에는 복종해야 하니 말입니다. 의장동지, 그렇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류송직은 떠듬거리며 겨우 한마디 대답을 올렸는데 말수더구가 적어서가 아니라 할 말을 완전히 잃었던것이다. 아니, 잃었다기보다 그이앞으로 찾아 오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 온 모든 말마디들이 이 순간 완전히 녹아 없어 져 버렸다.

그것은 집무실에 들어 선 첫 순간부터 자기의 몸을 휩싼 태양의 복사열과도 같은 뜨거운 열풍때문이였다. 당과 인민이 21세기의 태양으로 받들어 올리려고 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그 뜨거운 열원은 과연 무엇인가? 선대수령에 대한 도덕과 의리였다. 추대사업을 미루어 온 리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것을 더 깊이 깨닫는 순간 류송직은 집무실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것이 무리이며 비도덕적이며 철부지와도 같은 억지행동이라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였다. 그래서 황망히 물러나오고 말았다.

뒤미처 허성렬이 집무실에 들어 섰다. 하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 장군님…》

일이 글러 진것을 알자 그는 장군님앞이라는것도 잊고 흥분하

였다. 그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동문 또 뭐요?》

장군님께서는 류송직을 대할 때와는 달리 엄하게 그를 바라보시였다.

하지만 허성렬은 잠시 무춤했을뿐 인차 자세를 잡더니 거의 불손하다고 할 정도의 큰소리로

《저는 그 문제가 결론되기전에는 외국출장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올렸다.

장군님께서 최근시기 전선과 후방의 현지시찰 때 누구보다 많이 데리고 다닌 그를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파견하기로 하신것은 대상나라들에서 그를 우리 당의 권위를 대표한다고 여길것이라고 보시였기때문이다.

물론 허성렬자신도 그것을 잘 알것이고 그만큼 출장의 의의를 당의 신임으로, 자기의 어깨에 지워 진 중대한 과업으로 여길것이였다.

그런데 그런 과업까지 뒤로 미루겠다고 하면서 뻗대자 장군님께서는 그를 쉽게 굽힐수 없으리라고 여기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설복할것인가 하고 생각하시며 잠시 대답을 피하고 손에 짚이는대로 집무탁우의 문건을 집어 들고 거기에 시선을 박으시였다.

그러자 허성렬이 그이의 앞으로 한발 나서며 여전히 당돌한 어조로 말씀 올리였다.

《제가 어저께 올린 자료에 있는것처럼 지금 정세가 매우 편안치 않습니다. 이런 때 당과 국가수반의 공직이 비여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에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한 걱정을 하지 마시오!》

장군님께서는 문건을 놓고 허성렬을 쳐다보시였다. 하지만 허성렬은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였다. 그는 또 한발자국 그이앞으로 더 나서며 《제가 공연한 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렇소. 수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던것처럼 우리가 〈봉쇄〉속에 있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소?》

《그러나 지금의…》

《됐소！》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그의 말을 밀막고 나서 계속 하시였다. 《빨리 동무가 맡은 과업이나 수행하시오. 평양선언에 서명한 당들도 찾아 보고 아직 사회주의리념을 버리지 않은 나라들도 찾아 보시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성렬이 또 말하려 하자 이번엔 단호히 손을 홱 내저으며 잘라 말씀하시였다.

《됐소！ 나에게는 최고사령관이란 공직이 있단 말이요.》

노상 가까이에서 일하는 허성렬이조차도 아직은 그이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였다. 다만 추대문제를 더는 고집할수 없게 되였다는 난감한 생각으로 못 박혀 서 있을뿐이였다.

5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제 저 종이 열두점을 다 치고 나면 새해 1995년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국상을 치른 서글픔속에서도 희망을 가진다.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이래 장구한 기간 별로 고생을 모르고 살아 온 우리 인민이였다. 광복직후와 전쟁시기, 전후의 년대들을 거쳐 온 로세대들을 내놓고는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의 대다수 사람들이 《압살》, 《질식》을 아직도 먼 지경밖의 일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상점에 상품이 적고 식량공급소에서 자주 쌀이 떨어 지는것을 보고도 미처 실어 오지 못해 그렇겠거니, 려객렬차가 자주 연착되는것을 보고도 어디서 사고가 나서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였다. 농민시장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 나고 거기에 《생활전선》이 펼쳐 지고 있는데 대해서 자기들

과는 거리가 먼 일로, 일부 리기주의에 물 젖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것으로 여기였을뿐 그것이 《봉쇄》의 어쩔수 없는 후과이고 사회주의에 치명적인 위협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으며 또 느낄수도 없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행복에 취해있었고 전진과 승리만을 알았다. 우리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은 아직도 교과서나 학습장에 써놓은대로 있을뿐이였다.

그리하여 《이해에는》 하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당에서 그 어떤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면 모든것은 정상화될것이다.》… 그들에게서 당이란 다름 아닌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렇다. 그들은 전대미문의 이 어려운 나날들에 그이를 《운명의 신》으로 믿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집무실의 문발을 걷어 올린 창문앞에 서서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계시였다.

종소리는 서탁우에 놓여 있는 라지오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종소리가 멎자 그이께서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해에는…》 하고 마음속으로 뇌이시였다. 그다음 라지오를 끄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집무탁을 두손바닥으로 짚으며 마음속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정세가 더욱 엄혹해 질것이다!》

그이의 집무탁우에는 최근 미중앙정보국 강경보수파들이 각이한 장소들에서 떠들어 댄 발언들과 선거유세장을 비롯한 여러 장소들에서 한 연설의 원문들도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위기》요, 《종말》이요 하는 과장된 표현들이 있지만 진실이 있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청맹과니는 아닌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경제적난관이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우고 정치와 군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지는 그들의 평가보다 나라의 정세가 더욱 엄혹하였다.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이 작성한 콤퓨터의 프로그람에는 본질적의미를 가지는 일련의 사실들이 빠져 있었다. 례컨대 그들은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을 념두에 두고 저들이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는 프로그람에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미기본합의문》이 리행되여 《경제제재》가 취소된다고 해도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되여 있는 미국무성의 《대북조선제재완화》조치의 대략적인 내용만 보아도 그렇다. 그것은 1. 미국에서 시작되거나 종결되지 않은것을 조건부로 하는 우리 거래들에 대한 미딸라결재, 미국은행체계의 리용, 2. 마그네샤크링카를 비롯한 내화물의 미국에로의 수출, 3. 정기통신망의 직접적련결 및 그와 관련한 설비구입, 4. 미국인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려행, 5. 려행과 관련한 거래, 6. 경수로 관련 에네르기부문거래, 7. 련락사무소개설과 관련한 사업, 8. 간접적인 방법으로 동결된 자산의 건당해제 등이였다. 이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할수 있는 상품은 마그네샤크링카를 비롯한 내화물 한개 지표로 국한되여 있는데 이는 미국의 리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 나라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제네랄 모터스회사, 칼텍스원유회사, 광물기술회사, 코메랄회사, 베이커내화물회사, 스텐톤그룹, 미국은행을 비롯한 재단들과 자문회사들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경제제재》의 완화도 해제도 아니였다. 뿐아니라 미국무성의 《대북조선경제제재》완화조치는 서방경제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 간접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콤퓨터의 프로그람에는 이런것들이 전혀 기입되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일 프로그람에 이 모든것이 입력되였더라면…》 하고 생각하시였다. 콤퓨터는 우리의 《질식》을 2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당겨 질것으로 계산하였을것이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미국의 정보원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의 정신적측면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대오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배주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적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속에서 숨은 형태로, 지어는 공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난관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였다. 그런 사람들은 근로대중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지휘성원

들, 간부들속에 있었다. 이것이 무서운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문제의 엄중성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조브와 심철범을 접견한 직후에 있었던 홍경봉 부총리와의 담화를 잊지 않고 계시였다. 그 담화에서는 지금까지 인민군대가 맡아서 진행해 온 금강산지구의 대수력발전소건설 문제가 토의되였는데 홍경봉은 급진적으로 악화된 경제형편에서 정무원은 어떤 대책을 취하려는가 하는 그이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어 그는 당분간 중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 없는 의사까지 표시하였다. 정무원 책임일군의 한사람인 그의 의사는 경제부문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배주의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 일이 지금도 가슴에서 내려 가지 않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금전에 야조브를 데리고 금강산발전소건설장을 돌아 보고 있는 심철범이 현지에서 보낸 서면보고를 읽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하고 심철범은 썼다. 《오늘 야조브 이전 쏘련원수는 물길굴공사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수만명의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근 10년간 지하에서 전대미문의 거창한 공사를 진행해 온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진짜 위력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있다, 그것은 인민군대의 위력이다, 나는 **김정일**동지께서 믿으시는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였다, 나는 당신들이 소문없이 해온 이 공사가 완공되여 세상에 공개된다면 조선이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를 시험한것으로 되리라고 본다, 나는 이 공사가 완공되기를 사회주의와 나의 운명을 걸고 바라마지 않는다. …》

힘과 신심을 주는 보고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을 읽고도 마음이 가볍지 않으시였다. 정세는 너무도 엄혹하였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서면보고를 되새겨 보며 집무탁주위를 마저 돌아 의자에 와 앉으시였다. 그리고 깊은 상념에 잠기시였다. 그이의 뇌리에는 심철범이 써보낸 서면보고의 《완공》,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 등 표현들이 불꽃을 튕기며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의자의 팔걸이를 잡은 두손에 꽉 힘을

주시였다. 그렇다! 인민군대의 위력으로 오늘의 난국을 헤치자! 적들과 총포성 없는 전쟁을 하자! 그이의 이 결심은 그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결코 아니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상을 당하신후 견딜수 없는 슬픔속에서도 수령님의 70성상의 혁명력사를 갈피갈피 들추면서 하나하나 총화해 보시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시종일관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견지해 오시였다는 사실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장한 적을 때려 부시고 조국을 광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있다는 사상을 내놓으시고 먼저 항일유격대부터 창건하시였으며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당도 국가도 창건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오늘 사회주의운명도 나라의 안전과 평화도 다 총대우에 있었다. 군대가 강하면 설사 당이 무너진다 해도 다시 조직할수 있지만 군대가 약하면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할수 없는것은 물론 당도 유지할수 없으며 국가와 인민의 운명도 지켜 낼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였다. 세기와 더불어 흘러 온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총대를 틀어 쥐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의 이 총화를 수령님의 유훈으로 받아 들이시였다. 지금 다지시는 그이의 결심은 감성이기전에 리성이며 의지이며 선대수령의 유훈을 무조건 받들려는 충성이며 도덕의리였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의 단순한 계승만을 생각하신것은 아니였다.

그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정치가이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엄혹해 지는 정세속에서 사회주의정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열쇠가 필요했으며 사회주의정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필요했다. 그이의 뇌리에는 《새로운 정치방식》이라는 말마디가 섬광처럼 번쩍였다. 그것은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

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벌써 국상을 당하신 첫날에 이 생각을 하시였다. 그때 비상정치국회의뒤에 오진우를 비롯한 몇명 일군들에게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생각해 보라고 이르시였다. 물론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내오는 문제는 류의장이나 허성렬이 재촉하고 있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된 다음에 결정될것이였다. 그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혁명의 기둥으로서 인민군대가 정신령역에서 새로운 봉화를 들어야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상념에서 깨여 나시였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신 다음 책임서기 곽무선을 불러 빠른 어조로 분부하시였다.

《차를 준비시키시오. 수령님께 가겠소.》

곽무선이 나갔다가 손에 진회색의 닫긴깃양복을 받쳐 들고 들어 왔다. 그이께서는 곽무선이 거들어 드리려는것을 마다하고 손수 잠바옷을 벗고 그것을 갈아 입으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는 금성거리를 달리였다. 새해에 들어 와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첫차였다. 승용차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정문을 소리없이 미끄러져 들어 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령안실이 있는 계단을 오르시였다. 호위병들이 령안실앞에 그린듯이 서 있다가 첫 새벽에 찾아 오신 그이를 보고 다급히 영접들어총을 하였다. 생전에 수령님을 호위하던 병사들이였다.

순간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이 시각 설인사를 드리려고 어버이수령님을 찾아 오던 일이 상기되시였다. 그리고 지금 자신께서 령안실이 아니라 수령님께서 반갑게 마주 걸어 나오실듯 한 집무실로 들어 간다는 착각이 드시였다.

×

이날 오전,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교외도로로 해서 시

내로 달려 오고 있었다. 세척기가 동작하고 있는 앞차창을 내놓고 좌우차창에는 진흙이 뒤섞인 얼음버캐가 묻어 있었다. 차는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식전에 금수산기념궁전을 떠난 즉시로 그이께서는 다박솔초소를 돌아 보시였다. 이 시찰소식은 이튿날 중앙의 신문과 방송으로 크게 보도되였다. 한것은 그것이 새해에 나라가 나아갈 방향,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이의 결심과 의지를 시사해 주기때문이였다.

그 구분대에 대한 시찰을 끝마치신 그이께서는 돌아 오는 길에 해군사령부소속 한 부대에 들리시였다. 신문과 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은 방문이였다. 거기에서 설명절을 맞으며 준비한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부르는 자작노래에 매우 크게 감동하시였다. 그리하여 지금 돌아 오는 차안에서 그 노래에 대하여 생각하시는것이였다.

가사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었다.

내 그대 위해 불에 탄다면
붉은 연기로 피여 오르리
내 그대 위해 불에 탄다면
붉은 재로 남으리
장군님이시여 내 그대 위해
아 육탄병사가 되리
…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노래를 듣고 병사들에게 노래를 누가 지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들은 김동환대좌라고 대답하였다.

대좌를 만나시였다. 무대에 불리여 나온 대좌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50대의 장년이였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군인형이였다. 그를 처음 보는 순간 그의 어디에 그런 강렬한 감정이 있었을가 싶으시였다. 그래서 말을 시켜 보시였다. 그는 노래를 자기가 지은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병사들이 일제히 합창이

라도 하듯이 《아닙니다! 대좌동지가 지었습니다!》 하고 웨치였다. 그 웨침소리에는 대좌에 대한 병사들의 믿음과 신뢰가 울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가사의 구절들은 대좌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였는데 병사시인이 그것을 가사화한것이였다. 그것이 더욱 귀중하시였다. 결국 가사는 머리를 짜내고 손끝으로 지은것이 아니라 심장의 토로이며 분출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좌가 대견하시였다. 김동환은 우연히 만난 인민군대의 수많은 지휘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가 지었다고 하는 노래, 아니 노래라기보다 심장의 웨침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의 표징을 보시였다. 김동환과 같은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자신의 병사들을 보시였다.

이날 아침 병사들에게서 들은 그 노래는 어려운 새해의 전투를 시작하시는 그이를 힘 있게 고무해 드리였으며 그이로 하여금 인민군대에 의거하기로 한 자신의 결심이 백번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시게 하였다.

하여 그이의 귀전에는 이날 첫 새벽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나누시였던 마음속의 대화가 되살아 나는것이였다.

《최고사령관이 이 어려운 때 군대를 틀어 쥐기로 한것은 매우 정당한 결심이요. 나는 절대 찬성이요! 최고사령관이 나의 뜻을 잊지 않고 있으니 나는 마음을 놓겠소!》

눈굽이 뜨거워 지시였다.

돌이켜 보면 수령님께서는 군대를 넘겨 주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련이어 맡겨 주시고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1994년 건군절에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자신의 존함이 새겨 진 권총을 수여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가슴속에는 수령님에 대한 걷잡을수 없는 감사의 정이 끓어 번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운전사옆에 앉아 있는 부관에게 오늘 아침에 내보

낸 수령님의 신년사를 듣자고 하시였다.

그러자 부관이 카세트를 골라 록음기에 끼웠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들리더니 목소리를 가다듬는 귀에 익은 소음이 들리였다. 뒤이어 라지오에서는 수령님의 잊을수 없는 육성이 울려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날 아침 라지오와 텔레비죤앞에 앉아 있던 조선인민들 모두는 수령님을 우러렀을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신년사를 하실것으로 믿고 있던 그들은 잠시 어리둥절했다가 손벽이 아프게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것이였다. 실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당정치국에 건의하시였으며 당정치국은 그대로 실행하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육성은 승용차가 당중앙위원회 정원에 들어 와서도 계속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목소리를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야 차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 가시였다. 집무탁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종이 한장을 꺼내놓고 마찌크를 드시였다. 잠시 생각하고 나서 활달한 필체로 이렇게 쓰시였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아갑시다.

1995. 1. 1

김정일》

이 친필서한은 곧 서기실에 전달되였으며 전국의 각이한 단위의 책임일군들에게 모사전송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곽무선에게 단호하고도 의미심장한 어조로 《심철범장령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오.》 하고 지시를 주시였다.

장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이께서는 어은병원에 전화를 걸어 오진우의 병상태를 문의하시였다. 이 병원의 원장인 군의근무장령은 일흔이 지났는데도 젊은이와도 같이 챙챙한 목소리로 환자의 림상상태를 보고해 왔다.

원장은 환자가 옥천휴양소에서 옮겨 온후 병이 더욱 악화되여

현재 침상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며 숨이 몹시 차서 말도 변변히 할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환자에게 야조브를 붙여 놓았던 일이 후회되시였다. 고독해 할것 같아서 말동무라도 하라고 한 일이였는데… 그래서 원장에게 그 말을 했더니 원장은 그런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상태가 워낙 중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일체 면회를 금지시켜 특별히 승인했던 사람들이 찾아 오는것도 엄금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일동지께서 《알겠소. 사실은 전화로나마 설인사를 나누자고 찾았는데 그만 두겠소.》 하고 전화를 놓으려 하시자 원장이 다급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화를 해주신다면 환자에게는 백가지 약보다 더 큰 효험이 있을거라고 제사 기뻐서 웨치듯 큰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리로 가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기쁨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원장이 그렇게 되면 환자가 지나치게 충격을 받을수 있으므로 전화정도가 좋을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환자더러 누운채로 전화를 받게 하라고 원장에게 당부하며 환자와 련결하라고 이르시였다. 오진우가 이 사실을 알면 필시 군복을 착용하고 일어 서서 전화를 받을것이라고 여겨 져서 하시는 당부였다.

잠시후 환자와 전화가 련결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극히 짧게 말마디를 아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설날 아침에 오진우가 최고사령관동지와 주고 받은 전화내용은 그후 력사에 두페지도 되지 않게 기록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1995년 1월 1일 오전 10시 30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 하신 전화

최고사령관동지: 《무력부장동지, 새해를 축하합니다.》

오진우: 《…》

최고사령관동지: 《일어 서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전화를 놓고 말겠습니다.》

오진우: 《죄송합니다. 먼저 새해의 인사를 올리지 못하

고 이렇게…》

최고사령관동지: 《새해에는 털고 일어 나야 합니다. 최소한 내 옆에 앉아만 있어도 나는 좋겠습니다. 수령님께서 가신 지금 무력부장동지마저 없으면 이 **김정일**이 견디지 못합니다.》

오진우: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제 기어이…》

최고사령관동지: 《그래야지요. 나는 방금 새해를 맞으며 동지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무력부장동지에게는 보내지 않았는데 병중이라는 고려도 있지만 따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오진우: 《고맙습니다. 어서 그 말씀을 주십시오. 제 아직은…》

최고사령관동지: 《나는 수령님을 잃은 다음 그이의 혁명력사를 총화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총대로 시작하고 총대로 개척해 온 력사였습니다. 나의 결심은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선렬들의 위업을 끝까지 이룩하자는겁니다.》

오진우: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니, 진정… 감사… 감사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러므로 부장동지는 하루빨리 완치되여 나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내가 부탁하자는건 바로 그겁니다.》

오진우: 《옛, 최고사령관동지, 제 반드시 일어 나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래야 합니다. 그럼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손길이 가늘게 떨리였고 안광에는 알리지 않게 눈물이 고이였다. 자신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던 로투사의 목소리가 귀전을 계속 맴 돌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오진우가 끝없이 미덥고 고마우시였다.

그때 마침 곽무선이 들어 와 심철범장령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하였다.

6

금강산발전소건설 현지지휘관인 최중권상장은 송수화기를 귀에 댄채 오래도록 서 있었다. **김정일**동지의 말씀이 계속된다고 여겨진 모양이였다.

잠시후 옆에 서 있는 리완수대좌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에게 최고사령관동지의 《공사지휘를 심철범장령에게 인계하시오.》라는 전화명령을 받아 쓴 자기 수첩을 넘겨 주고는 초점없이 방황하는듯 한 눈길로 모여 앉은 사람들을 둘러 보며 입을 열었다.

《지휘관동무들, 우리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 새 지휘관이 오게 되였소. 이젠 도착할 때가 되였을거라고 하오.》

최중권은 이 말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서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였다.

자신이 드러낸 나약성에 화를 내면서 최중권은 확고하게 명령조로 말하였다.

《회의는 새 지휘관의 집행하에 계속하겠소!》

금강산발전소건설지휘부건물의 2층에 있는 최중권의 방문이 갑자기 열리고 심철범과 함께 두명의 장령이 문앞에 서게 된것은 최중권의 이 말이 끝남과 거의 동시에 벌어 진 일이였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지도와 수첩, 야전가방들이 널려 있는 좁고 긴 책상을 마주하여 두줄로 앉아 있던 군부대대호대신에 불리우는 금강산발전소관리국 참모부와 정치부의 지도일군들, 관리국관하 려단들의 려단장들과 정치위원들, 정무원 일군들과 공사와 관련이 있는 큰 기업소의 지배인들이 모두 얼떨떨해서 말없이 벌어 진 사태를 살피고만 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방금 들은 소식에 깜짝 놀랐으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하였다. 그들중 어떤 사람들은 슬며시 정치위원 리완수를 쳐다 보았다.

눈을 내리뜨고 앉아 있던 리완수정치위원은 옆줄에 앉아 있는 참모일군들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참모일군들중 누군가가 벌떡 일어 나 벽가에 놓여 있는 의자 하나를 서둘러 심철범에게 가져다 주었다.

《앉으십시오.》

최중권이가 심철범에게 말하면서 웃자리를 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심철범은 그것을 보지 못한듯 아직도 출입문옆에 서 있는 군인들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최고사령부에서 두명의 동무들이 함께 왔습니다. 장령동무들, 앉으시오.》

두 장령들중 한명은 총정치국대표 차인중이였다. 그들이 자리잡는것을 보고 나서야 심철범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회의참가자들을 뚫어 지게 둘러 보았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라 없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군정간부회의는 무엇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최중권의 한쪽옆 리완수와 대칭되게 앉아 있던 관리국의 참모장 전호진소장이 약간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대답하였다.

《공사를 앞당길데 대한 문제입니다.》

심철범은 아마도 이 대답을 최중권에게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였다. 그는 전호진에게 머리를 돌리고 마뜩잖게 쳐다보면서 물었다.

《앞당긴다구요?》

이번에는 리완수가 대답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아닙니까. 중장동지, 수령님께서는 바로 서거하시기 이틀전에도 우리 일을 걱정하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위원동무.》 하고 심철범은 천천히 한마디한마디 무게를 달면서 말하였다. 《군정간부회의를 일시 중단하자는것을 제의합니다. 난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였다. 《반대 없겠지요, 정치위원동무?》

리완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심철범이 선포하였다.

《부국장들과 통신부장은 남으시오. 려단지휘관들은 자기 위치에 가 있으시오. 곧 부르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방에서 마지막사람이 물러 가고 문이 닫기자 심철범은 전호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묻는듯 한 시선에 전호진이 일어 섰다.

《관리국 참모장 소장 전호진입니다.》

《알고 있소. 작전지도가 어데 있습니까? 여기 말대로 하면 공사지도겠지요.》

전호진소장은 긴장해졌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지휘간부들중에서 불안 비슷한 감정을 제일 많이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호진이였을것이다. 공사에 대하여 최중권이 다음 책임을 지고 있는것은 그자신인것이였다. 최중권의 교체가 최근 앉은걸음을 하고 있는 공사때문이라면 그도 무사할수 없는것이였다. 그가 려단장으로 있을 때 상급참모부 작전부장이였던 새 지휘관과 그 사이에는 일종의 《충돌》이 있었던것이다.

려단장시기에 그는 군부대적인 지휘관조상학에서 작전상 문제를 가지고 상급이며 작전에서 명수로 소문이 난 심철범과 엇섰던것이다. 이 방에 심철범이 처음 나타났을 때 전호진은 그 일이 먼저 떠올랐다.

심철범장령은 허리를 굽히고 물길굴을 보여 주는 굵직한 붉은 선을 들여다 보았다. 그 선은 도간도간 푸른 점선으로 련결되여 있었다. 그 점선들은 앞으로 뚫어야 할 구간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 점선들의 비률로 봐서 앞으로 해야 할 공사량이 엄청나게 많다는것이 알리였다.

이윽하여 심철범은 허리를 펴더니 잠자코 앉아 있는 최중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상장동지, 구태여 형식을 차리지 맙시다. 주요지휘관들전원이 여기 참석해 있으니 이것으로 인계인수를 끝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책상우에 있는 원주필 하나를 쥐고 공사지도 한구석에 큼직하게 썼다. 《공사지휘를 인계 받음.》 그아래 날자를 쓰고 수표를 하고 나서는 지도를 최중권앞으로 내밀었다.

상장은 묵묵히 지도를 굽어 보다가 원주필을 쥐고 서둘러 힘

을 주어 써나갔다.

《공사지휘를 인계함. 상장 최중권.》

《만일 집행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심철범은 리완수를 향해 말하였다. 《우리는 회의를—》 하고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3일후 이 시간에 계속합시다.》

《그러나 저… 중장동지.》 전호진이 떠듬거리며 말하였다. 《공사는 매우 긴장합니다. 사흘씩 기다린다는건…》

《회의가 지휘의 전부는 아닙니다.》 심철범은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러나 필요할 때면 합시다. 그때까지 동무는 계획 대 실적을 나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하오.》

그리고는 참가자들을 둘러 보며 물었다.

《누가 통신부장입니까?》

《접니다.》 다부지게 생기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짧게 깎은 대좌가 대답하면서 몸을 쭉 펴고 일어 섰다.

《대좌 리상국입니다.》

《최고사령부와의 직통전화는 어디 있습니까?》

《따라 오십시오, 중장동지.》

그리고는 먼저 문으로 향하였다.

관리국청사의 좁고 컴컴한 복도로 통신부장이 앞장 서서 몇발자국 뒤에서 걸어 오는 심철범과 최중권을 안내하고 있었다.

금강산발전소건설의 선임지휘관과 새 지휘관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도중에서 만나는 군인들은 서둘러 길을 비켰으며 벽에 붙어서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심철범이 륙상선수처럼 발끝에 힘을 주며 가볍게 걸어 가고 있다면 최중권은 발뒤꿈치로 무겁게 걷고 있었다. 그들은 두사람 다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로병들이였다. 최중권이 심철범보다 댓살우였다. 두사람은 좁은 복도를 꽉 채우고 걸었다.

최중권은 심철범보다 반걸음쯤 떨어 지려고 애 쓰면서 걸었다.

이 복도를 걷는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것을 알고 있는 상장의 심중은 착잡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짤막하고 단호한듯 한 말씀의 마디마디가 관자

노리를 두드리는것만 같았다. 자신에게 부과된 어려운 공사를 맡아 수행할 힘이 없다는것을 좀 더 일찌기 그리고 스스로 최고사령관동지께 솔직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그는 일흔을 바라보는 자기의 나이를 두고 한숨을 쉬였다. 그는 자기가 제대되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후임자의 류다른 임명절차가 그것을 확증해 주는듯 하였다. 심철범은 간부국의 임명장이 아니라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임명되여 왔던것이다.

통신결속소에 와서 송수화기를 든 심철범은 최고사령관동지께 인계인수에 대해 직접 보고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볼수 없는 전쟁시기에나 있는 일이였다.

최중권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자기보다 후임자인 심철범의 마음이 더욱 긴장되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심철범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담이 크고 용맹하며 바위처럼 굳세면서도 농민처럼 푸수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방금 그를 보게 된 관리국의 책임적인 지휘관들은 그에게서 푸수한 점을 전혀 찾아 볼수 없었다.

며칠전 이전 쏘련원수를 데리고 왔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고 그들은 놀라와 하였다.

그의 철색얼굴은 예리하게 번뜩였다.

심철범이 곽무선의 련락을 받고 최고사령부에 도착했을 때는 설날의 깊은 밤이였다. 그는 집무실에 곁달린 휴계실에서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곽무선이 안내하는데 따라 휴계실에 들어 선 그는 우뚝 멈추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 쏘파에 앉은채 쪽잠에 드시였던것이다.

곽무선은 심철범을 데리고 서둘러 응접실로 도로 나왔다. 그리고는 송년의 밤을 꼬바기 새우신 그이께서 새해 첫날 새벽부터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수십리길을 달리였으며 설날 낮은 낮대로 여러 행사에 참가하시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심철범은 심장을 찔리운 사람처럼 가슴이 저리였다.

잠시후 열려 진 휴계실문짬으로 《들어 오시오.》라는 말씀이 울려 나왔다. 무척 갈리신 목소리였다.

심철범은 갑자기 눈물이 나는것을 참으며 그이의 앞에 가 섰다.

그이와의 담화는 길지 않았다. 담화를 통하여 심철범은 자기가 야조브와 동행하게 된 리유를 비로소 알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갈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나라의 형편을 정확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심을 옳게 리해할수 있겠으니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적형편을 보충적으로 설명하시고나서 금강산발전소건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난국을 헤칠것이라고 하신 다음 최고사령부는 최단기간내에, 적어도 1년내에 물길굴을 완공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중요한것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는것입니다. 그 시대정신을 군인들이 창조해야 합니다. 1950년대 시대정신을 로동계급인 천리마기수들이 창조했다면 오늘의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혁명의 기둥인 우리 군인들이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창조한 그 정신으로 온 사회를 무장시키고 들끓게 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될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심철범이 앞으로 륙해공군이 다 동원될수 있는 이 공사의 총 지휘를 맡게 되였다는것을 알려 주시였다.

이어 **김정일**동지께서는 첫 명령을 떨구겠다고 하시면서 《심철범동무,사흘내로 공사의 실태를 료해하여 보고하시오. 우리의 결심이 공담이 되지 않게 해야 하오. 그러자면 진실을 보고해야 하오.》라고 하시였다.

그때 심철범은 입이 붙은듯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결심을 받아 들이기에는 그의 심장이 너무도 작았던것이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안깐힘을 쓸 때처럼 한동안 숨 가쁘게 서 있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나온후 그는 일체 말이 없었다. 이미 그이의 결심과 의지를 받아 들인 그의 심장이 고도의 긴장상태에 들어 갔던것이다. …

《최고사령관동지, 명령을 주신대로 사흘내로 공사의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철범은 이런 말로 전화보고를 끝 마치였다. 이 마지막말에 공사를 1년내에 기어이 끝내리라는 자기의 결심을 담으려고 애 썼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쩔수 없이 불안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공사지도에 표기된 물길굴의 미완공구간 푸른 점선들이 떠올랐던것이다. …

얼마후 심철범과 함께 방으로 돌아 온 최중권은 비로소 이젠 앉을데도 서 있을데도 없다는것을 의식하게 되였다.

최중권은 사실 전망이 묘연하여 몇해가 걸릴지 모를 공사를 1년내에 완공할 과업을 받은 심철범에 대하여 련민의 정을 느끼였으며 그 과업을 자기가 아니라 그가 수행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최중권은 《그럼 수고하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에서 나왔다.

청사앞뜰 한가운데 서서 지하공사가 벌어 지고 있을 산줄기를 아득히 바라보았다.

한시간후 그를 태운 직승기가 저녁어둠에 싸인 관리국청사뜨락을 날아 올랐다. 어째서인지 그가 승용차를 타고 평양으로 떠나려는 그 시각에 최고사령부에서는 직승기를 보내왔던것이다.

7

사흘후 심철범이 부임되여 와서 중단시킨 회의를 다시 하기로 약속한 그 시각이 왔으나 회의는 다시 소집되지 못하였다.

정치위원의 너렁청한 사무실에는 리완수 혼자만이 외롭게 앉

아 있었다. 체격이 자그마하고 알차보이는 50대의 대좌는 피울줄 모르는 담배를 꼬나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가 앉아 있는 쏘파옆의 소탁자우에 놓여 있는 재털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담배꽁초는 금방 심철범중장이 피우고 남긴것이였다.

《정치위원동무, 회의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 회의가 당집행위원회로 되였으면 합니다. 지금의 형편에서 공사를 1년내에 완공할수 없다는것을 집행위원들이 토의하고 합의를 보자는겁니다.》

심철범은 이 말을 반복하여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지난 밤 자정때 최고사령부에서 데리고 온 두명의 장령과 함께 공사장을 돌아 보고 리완수의 방에 뛰여 들었을 때 심철범이 처음 던진 말이였다.

그때 리완수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1년내에 공사를 완공할수 있다는 문제이겠지요?》

그는 장령이 말을 잘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심철범은 또박또박 반복하였다.

리완수는 여전히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위임을 받고 온 장령이, 그것도 1년내에 공사를 완공하는것이 그이의 결심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사의 총지휘관이 그것을 뒤집으려 하다니? 그것도 혼자생각으로가 아니라 당집행위원회 동의를 받으려 하다니?!

그러나 심철범은 진지하게 리완수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전호진으로부터 공사의 계획 대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앞으로 해야 할 작업량이 지난 10년간 해놓은 량과 맞먹는다, 이것을 1년간에 해제끼자면 10배의 로력과 건설자재가 필요한데 현재의 형편에서는 그것을 보장 받을수 없지 않는가. 그는 말하였다.

《예비는 없습니다. 정치위원동무, 그 사상론으로 나의 말을 막지 마시오. 우리의 매개 전투원들은 지난 기간 결사전을 하여 왔습니다. 나는 이 사흘간 갱막장에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

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신육체적가능성을 다해 왔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상에도 예비는 없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중장동지.》 리완수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부정해서가 아니였다. 그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고 최고사령부의 전권대표이기도 한것이다.

그는 최고사령부에 공사의 실태를 솔직히 보고하려고 하며 그에 대한 당조직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것이였다.

공사의 실태에 대하여 말한다면 리완수는 심철범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래동안 전투부대의 정치일군으로 있다가 얼마전에 관리국의 정치책임자로 부임되여 온 이 대좌는 군사실무에 매우 밝은 지휘관이였다.

그는 심철범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리속에 매일,매 순간 되새기고 있는 그 수자를 상기하였다.

앞으로 해야 할 굴착량과 콩크리트타입량이 얼마나 막중한가.

공사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자재만 하여도 15만톤의 세멘트와 25만립방메터의 자갈과 모래가 필요하다. 그것을 화물역에서 공사장까지 실어 나르는데는 무려 천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요구되며 거기에 쓸 연유는 상기하기도 끔찍한 량이였다.

그러나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병사들은 무조건 한다!》라는 구호를 대오의 앞장에서 웨쳐야 하는 인민군대의 정치일군이며 그자신이 매일,매 순간 그 구호의 요구대로 살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충실한 당원이였다. 그에게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신 문제에 대하여 마음 한구석에서나마 의혹을 가진다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씻지 못할 죄악으로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한편 그는 자기 단위에서 벌어 지는 일체의것을 솔직하게 상급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 당일군이였다.

그는 온밤 잠을 자지 못하였다. 아침에도 심철범이 찾아 들어와서 자기는 관리국장을 겸하고 있고 관리국당조직에 림시 소속되여 있는 당원이라는것을 상기시키고 나서 전에없이 정중한 태도로 주저하듯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정치위원동무…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 당원들끼리니 말입니다. … 그래 1년어간에 공사를 완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한 말로 말해서…》 하고는 채 말을 끌 맺지 않고 마치도 허공을 자르듯이 손을 내리쳤다. 그 순간 리완수의 얼굴색이 갑자기 달라 지는것을 보았다. 그의 잠을 못 자서 충혈진 두눈이 섬광처럼 빛났던것이다.

《그래 당원들끼리라고 했지요?…》 리완수는 되물었다. 《솔직한 말로라고요?》 그리고는 마음의 격정을 못 이기듯 큰소리로 웨쳤다.

《당원은 누구나 당조직에 솔직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까?》

몇순간 침묵이 흘렀다. 리완수는 침착성을 되찾고 무게 있게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이러한 회의를 하는것입니다.》

《물론이지요.》

리완수는 팔목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3일전에 약속한 회의시간인 오전 10시였다.

《그러나 회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심철범은 리완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묻지는 않았다. 그는 머리를 싸쥐고 있는 리완수를 외면한채 줄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말없이 방에서 나가버렸다.

그때로부터 실히 10분은 더 되게 혼자 앉아 있다가 리완수는 자리에서 일어 섰다.

심철범은 평양으로 떠나려고 뜨락에서 승용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터벅터벅 다가간 리완수는 여전히 무게 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용서하십시오, 중장동지. 집행위원들중 그 누구도 우리의 제의에 찬동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들은 회의들에서 당이 바라는 결정을 하는데만 습관되였으니까요.》 그리고 심철범을 눈 주어 보다가 불현듯 따스한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그 대신 그 어떤 후과가 돌아 온다면 저도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심철범은 그의 손을 덥석 쥐고 으스러지게 힘을 주었다. 이때 작전직일관이 청사에서 뛰쳐 나오더니 방금 차에 오르려는 심철범에게 최고사령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리였다.

심철범은 방음장치가 된 조용한 방에서 최고사령관동지와 직통으로 련결된 전화의 송수화기를 들었다.

귀에 익은 빠른 목소리가 들리였다.

《평양으로 돌아 올것 없이 전화로 보고하시오, 심철범동무.》

책임서기 곽무선의 련락을 받고 그이의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심철범은 눈앞이 캄캄해서 가슴을 조이였다. 이제 자기가 전화로 보고 드려야 할 《불가능》이라는 한마디가 천근납덩이처럼 무겁게 온몸을 압박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이 공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공사의 완공을 최대한 앞당기려 하신다는것을 심철범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이께서 심철범을 사전에 준비시키지 않으시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철범이,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만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그 심철범이 그이의 기대에 어긋나는 보고를 해야 하는것이다.

심철범은 《솔직성》이라고 하는 군인특유의 성품이 체질화된 사람이였다. 수십년전 전사시절부터 솔직성에 습관되였다. 군사복무의 수십년간 그는 상관앞에 거짓보고를 한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것으로 해서 손해를 본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뒤쳐 놓으나 제쳐 놓으나 한본새로 솔직하였다. 그러한 심철범이지만 지금은 주저되고 가슴이 옥죄였다. 그는 옆방으로 가서 다른 전화로 총참모장 최광차수를 찾았다.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직속상관인 그의 리해를 받아 두는것이 옳을것 같아서였다. 최광차수의 방은 비여 있었다. 한참 생각하다가 심철범은 오진우를 만나기로 하였다. 오진우로 말하면 금강산발전소건설을 몸소 지도해 오시던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은 사람이였다. 이러한 그에게 아무리 병중에 있

다고 해도 한마디 사전통고도 없이 공사의 장래운명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보고를 한다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는것이였다.

옥천휴양소를 찾았더니 오진우는 병이 위독하여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하였다.

잠시후 심철범은 마음을 다잡으며 최고사령부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주저주저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김정일**동지의 물으심에 대답을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불가능이라는 말외에 다른 긴 말을 하지는 않았다. 공사장의 실태에 대해 그이께서 정확히 파악하시기를 바랄뿐이였다. 다만 보고의 마감에 총참모장과 합의없이 이러한 결심을 한데 대하여 한마디 사죄하였다.

《잠간.》

김정일동지의 말씀 한마디가 울리고는 전화가 한동안 끊어 졌다. 심철범은 고막이 잉 울리며 그 어떤 무한한 진공상태에 서 있는것 같은감을 느끼였다. 동시에 이상야릇한 안도감을 맛 보았다. 자기를 금강산발전소건설 총지휘관으로 임명하면서 하신 그이의 말씀의 한구절이 떠올랐기때문이였다.

《우리의 결심이 공담이 되지 말아야 하오. 그러자면 진실을 보고해야 하오.》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철범에게 고무의 눈길을 보내시였었다.

《좋소.》

퍽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수화기에서는 **김정일**동지의 목소리가 울려 왔다. 처음 한동안 심철범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한것처럼 느껴 졌다.

그는 무엇이 좋으시다는것인지 인차 알아 차릴수 없었다.

《좋소, 심철범동무！》

김정일동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을 때에야 심철범은 그이께서 자기의 보고에 긍정을 표시하고 계신다는것을 느끼였다.

《좋소, 심철범동무！》

그이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나서 계속하시였다.

《나는 동무가 할수 없는것도 할수 있다고 보고해 왔다면… 동

무를 믿지 않게 되였을거요. 그렇소!》
이 순간 심철범은 그이께서 자기의 잔등을 두드려 주시는것 같이 느껴 졌다.
그러나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소환된 최중권상장을 만나 이미 공사장의 실태를 료해하고 자기가 보고한것과 같은 결론을 벌써 얻었으며 지금 전화선의 한끝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총참모장과 마주 앉아 차후의 대책을 협의하시였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그는 그이의 담담하고 신심에 넘친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들었을뿐이였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이것이 최고사령부의 결심입니다! 중장동무.》
심철범은 한동안 까딱 않고 서 있었다. 갑자기 자기가 천정에 닿는 거인이 되고 체중이 몇곱으로 무거워 지는것 같았다.
마침내 심철범은 마음을 다잡고 말씀 드리였다.
《알았습니다!》
군사복무의 수십년간 수백수천의 명령을 받고 수백수천번 대답하면서도 심철범은 이때처럼 《알았습니다.》라는 한마디에 그렇듯 큰 무게와 신심과 의지를 담은적은 일찌기 없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였다.
《나에게도 동무에게도 시간은 귀중합니다. 그래서 동무를 평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체 말고 일에 착수하시오. 지금 형편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동무에게 줄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최고사령관의 명령서를 떨구겠습니다.》
그 시각으로부터 10분후에 제0026호라는 명령호수를 가진 금강산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서가 하달되였다.
얼마전에는 금릉2동굴과 청류다리(2단계)를 건설할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였었다.
수령을 잃은후의 조선의 결심과 의지를 선포한 이 명령은 널리 공개되였으며 세상을 들썩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몇배의 큰 규모와 몇배의 큰 공사량을 가진 금강산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제0026호명령은 최고사령부 련락군관들에 의하여 수만명의 인민군장병들에게 소문없이 조용히 전달되였다.

8

제0026호명령을 하달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줄것이란 명령서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였을 때 공사장의 책임일군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시련을 겪고 있는 국가가 더 이상 보장해 줄것이 없다는것은 뻔한 일이였다.

최근 2개월동안 공사장에는 한대의 착암기도 한대의 스키프와 광차, 한대의 자동차와 한톤의 기름도 본래의 계획분외에 더 보충된것이 없었다. 공사를 책임진 지휘관들은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는외에 몇곱으로 불어 난 작업량을 해제낄 기본수단을 인력으로 보았다.

그들은 굴진 막장수, 말하자면 작업단면을 몇배로 늘이고 매 작업장들에서 3분의 1의 인원을 소환하여 새로운 굴진조를 뭇고 착암기대신에 정대와 함마에 의거하는 수굴을 시작하며 여기서 나오는 방대한 버럭은 등짐으로 져내기로 하였다. 그들의 타산은 모든 작업구간에서 매일 합계 50여메터의 굴진을 보장하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매달 1천 5백메터, 1년이면 이제부터 해야 할 총 굴진량인 1만 6천메터를 돌파할수 있고 여기에 콩크리트충진을 따라 세우면 제0026호명령을 수행할수 있게 된다는것이였다. 이것은 모든 설비와 기계가 만부하로 돌고 모든 군인들이 한초의 여유도 없이 만가동할것을 전제로 한 타산이였다. 그들은 기계보다 군인들을 더 믿었다. 기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력에는 그것이 없다고 보았다. 그들이 타산한 예비는 사실상 그것밖에 없었다.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6호를 관철하기 위한 군정간부회의에서는 극단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매 작업장들에서 3교대 대신에 맞교대로 넘어 가기로 했고 수굴을 하는 군인들이 단번에 1천 5백회의 함마질을 하며 두사람이 밀던 광차를 혼자서 밀기로 하였다. 경사각도가 30도이상에 길이가 수백메터가 넘는 작업갱으로 등에 버럭을 지고 한교대에 10회이상 오르내리기로 하였다.

비상회의는 이러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육탄이 될것을 호소하였다. 몸과 마음을 다 내대이라, 사상과 의지, 육체의 마력을 다 내라, 매개 군인들이 자기 몸에서 바칠수 있는것은 다 바치라, 한방울의 피도 한방울의 땀도 수억개 세포의 하나하나도 깡그리…

이것은 사실상 군인들의 사상을 예비로 보고 내린 조치였다.

헌데 심철범은 이미 사상에도 예비가 없다고 하였다. 최중권 장령으로부터 공사지휘를 인계 받은후 첫 정황을 료해하고 내린 결론이였고 두달여에 걸치는 현지지휘과정에 그 결론은 더욱 굳어졌었다.

그가 보건대 군인들은 초인간적인 정신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철범은 이제 와서 자신이 속단했다는것을 절감했다.

어느날 그는 굴진막장에 들어 갔다가 전사들과 함께 돌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관 한명을 보게 되였다. 그런데 검댕이가 묻어 있어 얼굴을 알아 볼수 없었다. 사관의 아래우를 훑어 보던 심철범의 눈길은 그의 한쪽 발에 가멎었다. 신발이 없었다.

《중장동지, 소대는 지금 버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관이 보고했건만 심철범은 귀등으로 흘리며 허리를 구부리고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사관의 발등을 쓰다듬으며 성난 어조로 물었다.

《동문 신발을 어쨌어?》

사관은 쑥스러운듯 피멍이 지고 상처자리가 엉켜 붙은 한쪽 발등을 손바닥으로 슬며시 덮고 나서 《장령동지, 거치장스러워서 버렸습니다.》 하고 대수롭지 않은투로 말했다.

이때였다. 한 전사가 심철범앞에 나섰다.

《장령동지, 제가 말해도 좋습니까?》

심철범은 전사의 목소리에서 어딘가 항변하는듯 한 느낌을 받으며

그를 유심히 뜯어 보았다. 키는 거의 사관만큼 자랐으나 아직 코밑에 솜털이 보시시 했는데 입술은 터갈라 져 피가 내배여 있었다.

《여, 호남이！》

사관이 엄하게 말하며 제지시키려 하자 전사는 사관의 팔을 뿌리쳤다.

(허, 당돌한 녀석…)

심철범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피여 올랐다가 사라졌다.

《말해 보라구.》

심철범은 머리를 끄덕였다.

《옛. 장령동지, 우리 부소대장동진 신발 한짝을 하늘로 〈정배〉를 보냈습니다.》

《하늘로 〈정배〉를 보내다니？！》

《갑자기 굴천정에서 크지 않은 붕락이 지며 조명등을 깨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동무가 인차 조명등을 가지러 굴밖으로 뛰여 나갔는데 글쎄 우리가 붕락을 다 처리할 때까지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부소대장동지에게 불도 없는데 잠간 허리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소대장동진 자기의 신발을 벗어 불을 붙이고 계속 착암기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고무연기에 꺼멓게 그슬리는것두 모르구 말입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신을 벗은 한쪽 발은 돌부리에 찔리우고 쓸리우면서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부소대장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고소》였다.

심철범이 전사의 심정을 가늠해 보려고 그를 다시한번 뜯어 보자 그 전사는 막장 한쪽 귀퉁이로 가더니 밥그릇 하나를 들고 앞으로 다가왔다.

《부소대장동진 아침 식사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왔던 운반식삽니다. 〈팥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심철범은 가슴이 짜릿해 났다.

전사가 내보이는 식기에 담긴 밥은 몇술 뜨다만것이였는데 돌가루가 뽀얗게 덮여 있고 팥알 같은 돌부스레기까지 다닥다닥 덧놓여 있어 전사의 표현처럼 《팥밥》이였다. 얼굴이 그을리고 발이 피 터지고 끼니조차 잊고 일하는 전사들, 각급 참모부와 정치부들을

통해 보고 받는것외에 심철범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만도 수없이 많았다.

도끼밥이라고 하면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생기는 나무부스레기를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심철범이 본 도끼밥은 그런것이 아니였다. 어느 구분대 군인들이 대소한의 강추위를 박차며 수십도의 경사에 해발 수백메터를 헤아리는 눈 덮인 산마루에서 송전선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그때 군인들은 줴기밥꾸레미를 하나씩 허리춤에 차고 오르군 했는데 한나절 땅을 파고 전주대를 세우고 나면 어느새 그 줴기밥은 돌덩이처럼 땡땡 얼군 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모닥불을 피워 놓고 그 주위에 둘러 앉아 꽁꽁 언 줴기밥을 통나무에 올려 놓은 다음 도끼로 깠다. 이렇게 쪼갠 감알만한 크기의 언 밥덩이를 쇠꼬챙이에 꿰서 모닥불에 녹여 입에 넣군 했다. 아직 속이 채 녹지 않은 그 밥덩이들은 씹을 때마다 서걱서걱했다.

지휘관들이 그것이 마음에 걸려 군인들에게 언밥을 군용밥통에 넣어 푹 녹인 다음 식사하도록 엄하게 지시했지만 군인들은 한초가 귀한 때에 언제 그럴새가 있는가,《도끼밥》이 더 별맛이라고 하면서 맛 있게 먹군 했다. 그들은 먼 후날 이렇게 《도끼밥》을 먹던 오늘을 옛말처럼 이야기하게 될 때가 올것이라고 유쾌하게 말을 주고 받는것이였다.

심철범은 《3일천하신발》도 보았다.

군인들은 막장에서 일할 때 칼끝 같은 돌부리들과 쇠꼬챙이가 신바닥을 꿰뚫고 올라 오는것을 막기 위해 통졸임통의 앞뒤 뚜껑을 따낸 《통졸임통덧신》을 신어 보았다. 그런데 이 《덧신》도 3일이 지나자 밑이 째지고 구멍이 뚫리여 판이 나군 했다. 군인들은 기대를 걸고 만들었던 이 《통졸임통덧신》이 자기의 《전투사명》을 3일밖에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덧신》을 《3일천하신발》이라고 불렀다.

바로 지난 밤에도 심철범은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이 어떤것인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였다. 그는 19갱의 막장에서 현장지휘를 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되였을무렵이였다.

조구통옆에서 지레대로 큰 돌들을 들춰 내고 있던 구분대장은 갑자기 돌덩이들이 무데기로 굴러 내려 오는 바람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버럭무지 꽉대기를 피뜩 올려다 보았다. 그러자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소스라치도록 놀랐다. 경사면을 타고 1립방메터정도의 큰 바위돌이 막 굴러 내려 오고 있었다. 그 돌은 조구통에 버럭을 밀어 넣느라 부지런히 호미질을 하고 있는 서너명의 군인들을 겨누고 있었다. 초를 다투는 그 위급한 순간 구분대장은 《뒤를 보라！》 하고 웨치며 비호같이 몸을 날려 앞의 군인을 냅다 걸어 차면서 량옆에 있는 전사들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콱 밀쳐 냈다. 이어 한옆으로 몸을 빗서려던 그는 돌부리에 걸리여 조구통을 가로질러댄 동발목들우에 나딩굴었다. 바로 그때 바위돌들이 쿵하고 떨어지면서 그가 타고 넘어 진 동발목들을 때렸다. 그 충격에 몇개의 동발목들이 세차게 튀여 올랐다. 그것에 실려 허궁 떴던 구분대장은 다시 떨어 지며 공교롭게도 오른다리가 허벅다리부위까지 동발목짬에 끼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바위돌들이 지쳐 내리며 그의 다리가 끼인 동발목들을 사정없이 내리눌렀다. 동발목짬에 끼운 그의 허벅다리군복바지자락은 순식간에 선혈로 화락하니 젖어 들었다.

구분대장의 발길에 채워 한쪽으로 나딩굴었던 전사가 그 몸서리치는 광경을 보고 사람이 다쳤다고 다급하게 웨쳤다. 그 소리에 놀란 군인들이 돌부리를 걸어 차며 조구통이 있는쪽으로 달려왔다.

엎드린채 두손으로 버럭을 꽉 움켜 쥐고 고통을 참고 있던 구분대장은 그들을 보며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기에게 모여 드는 군인들을 향해 한손을 내저으면서 부르짖었다.

《동무들！ 오지 말고 전투를 계속하라！ 이건 명령이요.》

달려 오던 군인들은 주춤 멈춰 섰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였다.

구분대장의 목소리가 재차 그들의 귀전을 때렸다.

《내 말을 들었는가？！ 0026호명령은 무조건 관철해야 하오. 전투를… 계속하라！》

현장지휘부에 있던 심철범이 군의와 함께 다급히 달려 온것은 바로 이무렵이였다.

새까맣게 죽은 얼굴, 꽉 다문 입새로 흘러 내리는 피, 버럭을 움켜쥔채 부들부들 떠는 손… 구분대장의 그 모습은 심철범의 가슴에 못을 박는것 같았다.

그는 군인들에게 빨리 바위돌을 굴려 내라고 지시하고 나서 구분대장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그의 두손을 꽉 그러쥐였다.

그에게 구분대장은 몹시 힘겹게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신 일이 언제 한번 안된적이 있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병사들은 무조건 합니다!》

당이 번개치면 우뢰로 대답할줄 아는 군인건설자들은 바로 이런 억척의 신념을 가슴속에 굳히며 횡포한 자연과 맞서 결사전을 벌려나갔다. 그들은 분당 수십톤의 압력으로 쏟아 지는 차디찬 석수를 한가슴으로 밀막으며 착암전투를 벌렸고 하루에도 몇번씩 무너앉는 붕락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가는 열번, 백번 다시 일어나 수천립방메터의 버럭들을 밖으로 끌어 내면서 굴뚫기를 중단없이 밀고 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은 굴속에 물이 차면 떼목우에서 착암을 하고 함마질을 했으며 바로 그 막장속에서 쪽잠을 자고 줴기밥을 먹으며 낮에 밤을 이어 천공작업, 발파작업을 벌려 나갔다. 뜻하지 않은 일로 두손을 쓸수 없게 되면 어깨로 착암을 했고 어깨로 물속에서 버럭광차를 밀었다. 오염된 물에 중독된 발이 퉁퉁 부어 올라 더는 운신조차 할수 없게 되였을 때나 그리고 붕락에 두발이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도 무릎걸음으로, 등으로 광차를 밀군 하였다. 그들의 소박한 념원은 담배 한대를 꼬나물고 깊숙이 들이빠는것이였다.

하지만 석수로 허리까지 물이 차고 공기마저 젖어 있던 갱내에서 그것은 바라볼수 없는 일이였다. 갱내에 들어 가는것이 엄금되고있던 군인가족들과 녀성군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라붙었다. 그들은 밖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가지고 빨면서 갱으로 들어가 자기 남편과 병사들의 입에 물려 주었다.

금강산발전소건설에 달라붙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조국의 푸

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신념이였다. 그러기에 폭파작업중 뜻하지 않게 열손가락이 잘리워도 《그래도 내가 할 일이야 있지.》라고 하며 한 손목에 고리가 달린 끈을 감아 매고 온 종일 정대를 잡아주며 막장을 떠나지 않는것이였다.

비장한 열의가 고조되는 작업장을 돌아 보는 심철범은 가슴이 떨리였다.

비상군정간부회의가, 아니 바로 자기가 취한 극단적인 조치는 이미 초인간적인 정신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더 높은 요구, 엄격하고도 무자비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벌써 결정은 채택되였고 관하 구분대들에 하달되였다.

그 결정은 작업장에 널려 있는 수만명 군인들을 하나같이 놀래웠고 긴장시켰다.

×

그러나 이 전대미문의 결정앞에서 주저하는 군인도 있었다.

전사 김남철은 질통을 허리에 깐채 버럭더미우에 누워 있었다. 금방 3백메터의 작업갱(사갱)을 50키로그람의 버럭(그는 현장 군의소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에 그것을 떠보았다.)을 지고 올라온 그는 버럭을 다 쏟지 못한채 질통을 벗을 새도 없이 까딱 않고 생각에 잠겼다.

지난 밤 꿈자리가 뒤숭숭하였다. 중학교시절에 한책상에서 공부하던 딱친구가 민경이 되였는데 침입하는 간첩일당을 잡고 영웅이 되여 모교에 돌아 와서 상봉모임을 하고 있었고 어찌된 일인지 땀에 절고 돌가루투성이 된 색바랜 군복을 입은 자기는 제일 뒤줄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다면 나는 이게 뭔가?…)

눈을 들고 주위를 돌아 보니 다른 구분대가 퍼낸 아찔한 버럭산이 앞을 막았고 린접갱의 권양기 돌아 가는 소리가 들렸다.

(저 버럭산을 쌓는데 10년이 걸렸다는데 어떻게 1년사이에 저런 버럭산을 또 하나 쌓는단 말인가? 틀림없이 그만한 시간이 더 걸릴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의 군사복무에서 남는것은 무엇인가?…)

그는 벌떡 일어 났으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그날로부터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으나 착잡한 생각은 눈덩이 굴리듯 커만 지면서 점점 무겁게 가슴에 매달렸다. …

남철은 갱막장에 질통을 진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었다. 담는조가 질통에 버럭을 채워 주기를 기다리면서 고개를 비틀듯이 돌리고 눈을 치뜨며 굴천정을 쳐다본다. 그의 눈길이 미친 아찔한 (이 굴의 직경이 10메터이다. 군인건설자들은 4층 아빠트높이만한 대형물길굴을 뚫어야 하는것이다.) 천정에는 《이슬》이 돋기 시작한다. 붕락이 오기전 바위에 짐이 실리면서 껍데기가 가마치처럼 일어 나는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스러운 현상이 일어 나는것이였다. 남철은 질통이 버럭으로 다 차자 당장 붕락이 덮치지 않는다해도 바위쪼각이 숫구멍에 내리꽂힐듯 한 아찔한 감을 느끼며 서둘러 막장을 떠났다.

다음은 허리치는 석수를 헤엄치듯 건느며 《황색노다지》구간을 지난다. 《황색노다지》란 말은 남철이가 지어 낸 말이다. 그들이 맞다드는 암석층들중에는 누르스름한 황색암반이 있었다. 돌굳음세기가 청색암반보다 낮은 이 황색암반은 발파구멍을 뚫기는 쉬웠으나 그 대신 붕락위험이 많았다. 군인들은 황색암반이 비록 위험성은 있으나 공사속도를 높이는데서는 그저 그만이라고 하면서 좋아 하였다. 남철은 그러한 황색암반을 《황색노다지》라고 랑만적으로 표현하였다.

《황색노다지》구간을 지나온 남철의 질통에 눌리운 잔등은 진땀으로 즐벅하였다.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긴장했던탓이다. 참말 이상한 일이였다. 어느새 《황색노다지》판이 무섭게 여겨 지니 말이다. 전에는 굴천정에 《이슬》이 돋고 매 쪼각이 치명상을 입힐수 있는 포탄의 파편과도 같은 바위부스레기가 우박처럼 쏟아 지는것도, 여기저기서 집채 같은 바위가 쿵쿵 소리를 내며 내려 앉

는것도 전혀 위험으로 느껴 지지 않았다. 때때로 병사로서는 영웅적최후를 장식할수 있는 《행운》이 차례질수 있다는 생각으로 은근히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이 두려웠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사갱의 계단을 밟고 오르기 시작한다. 아니 계단이 아니라 무수한 발길에 매끈매끈하게 닳고 다져 진 걸음마다 발끝에 쥐가 일어 나도록 힘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얼음판과도 같은 길을 따라 늘어 놓은 쇠바줄을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한발자욱, 한발자욱 힘들게 오른다.

하나, 둘, 셋… 그는 자기의 발자국을 세기 시작한다. 300메터의 경사갱은 1,200개의 발자국을 찍어야 돌파할수 있다.

처음 얼마간은 수자를 불러 가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1,200개라는 셈세기가 끝나면 질통끈에 짓눌린 어깨의 아픔도 발끝에 힘을 줄 때마다 쥐가 일어 나는 다리의 켕김도 쇠비린내가 나는 힘든 호흡도 끝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걸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자기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고 1,200은 고사하고 다문 열개도 세기 힘들어 하면서 다리보다 쇠바줄을 잡은 팔에 더 힘을 주며 철봉에 매달려 현수를 할 때처럼 팔, 다리와 배와 어깨, 온몸의 힘을 깡그리 소모하면서 한치한치 톺아 올랐다.

남철은 머리속으로 매 걸음마다에서 소모될 카로리량을 계산해본다. 어릴 때부터 수재라고 불리워 온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게 되였지만 해군에서 대좌로 있는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군대에 입대하였다. 아버지처럼 해병이 되여 우리 령해를 침범하는 적들의 함정과 싸워 보고 싶었던것이다. 아들의 자립성을 키워 주느라고 웬간한 부탁은 다 막아 치우던 아버지 김동환은 인민군대입대를 도와 달라는 부탁만은 기꺼이 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것은 도와 주지 않았으니 남철은 지망하던 해군이 아니라 《건설부대》에 배치되였다.

그는 카로리소모량이 엄청나다는것을 쉽게 계산하였다. 병사의 공급량으로는 어방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좋다. 체중이 한두키로그람 내린다고 죽기야 하랴. 그

는 이렇게 결심하고 묵묵히 걸어 갔다.
앞에는 다부지게 생기고 얼핏 보아서는 전혀 힘들어 하는 기색이 없는 문학수분대장이 걸어 가고 뒤에는 중대장 김철종이 다른 사람보다 한뼘 더 긴 길다란 팔을 내밀어 자기 질통을 밀어 주면서 따라 오고 있었다.
왜 작업대렬이 이렇게 되였는지 모를 일이였다. 대체로 분대장과 자기사이에는 두서너명의 대원이 끼워 있었고 중대장은 자기로부터 수십명 건너서 중대대렬의 맨 끝에서 움직이군 했던것이다.
남철은 은근히 속이 켕기였다. 그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 차리고 곁에 붙어 있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는 곧 마음속으로 화를 내며 자기를 질책하였다.
분대장이나 중대장은 그저 너그럽게 《힘을 내라구, 남철이!》 하고 말할뿐이였다.
남철은 마음을 다잡았다.
저기 갱입구만을 생각하자. 거기만 나서면 버럭을 쏟아 버리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키게 된다. 그러나 그다음은 한숨 쉬고 나서 또 갱으로 들어 가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래일은? 그는 또다시 생각하였다. 나의 희망은? 해병이 되여 망망대해에서 위훈의 나래를 활짝 펼치려던 그 황홀한 꿈은 정녕 이루어질수 없단 말인가? 건설을 하다가 나의 군사복무가 끝나고 만단 말인가?
생각은 갱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날아 갔다.
그는 아버지가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데 대해서도 유명한 노래를 지었다는데 대해서도 소식을 들었다. 그 유명한 노래는 자기 남철이도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중대동무들은 대렬합창으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기를 부러워 하며 영웅처럼 떠받들어 주었다.
아버지는 육탄이 될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고 중얼거리며 그는 생각을 계속했다. 전쟁판에서 그렇게 할것이다. 전쟁판에서… 나도 전쟁판에 서자, 그러자면 전투부대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남철은 말라 드는 입술을 혀로 핥으면서 고집스럽게 이 생각을 계속했다.
가까스로 사갱을 다 올라 온 남철은 질통을 깔고 맥없이 누워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버럭무지를 차며 벌떡 일어 섰다.
버럭우에 놓여 있던 수지로 만든 안전모가 데굴데굴 굴러 아래로 내려 갔다. 남철은 그것을 집어 올 생각도 안하고 질통마저 던져 버리며 두리번거리였다.
마침 버럭더미아래쪽에서 쉬고 있던 중대장 김철종이 발앞까지 굴러 온 안전모를 집어 들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중대장동지!》
남철은 버럭무지에 지치며 달려 갔다. 그리고 의아해서 쳐다보는 중대장에게 덤벼 치며 말했다.
《한가지 제기해도 좋습니까?》
《무슨 일이요?》
《저를 이동작업조에 참가할수 있게 해줄수 없습니까?》
남철은 려단에서 상원세멘트공장에 상차로력을 파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념두에 두고 말했다.
《이동작업조에?》
김철종은 여전히 의아해 하면서 반문하였다.
《집에 일이 생겨서 그럽니다.》
남철은 성급히 뱉아 놓았다.
《알았소. 려단에 제기하겠소.》
순간 남철은 중대장의 피 터진 맨발을 보았다. 장령동지가 준 신발이 새것이였는데? 허나 그는 그 생각을 더 할사이 없이 기쁨에 넘쳐 자리를 떴다.
남철의 제기가 중대에서 대대에 보고되고 대대에서 다시 려단에 보고되여 승인되였으며 화물자동차에 앉아서 상원세멘트공장에 도착하고 이동작업조를 책임진 소좌로부터 외출승인을 받아내기까지는 모든 일이 얼음판에 박 밀듯 쉽게 되였다. 다만 사물함에 보관한 한개의 군공메달을 꺼내느라고 좀 지체됐을뿐이였다. 사관장이 아주 가는것도 아닌데 메달은 왜 가지고 가느냐고 하면서 얼른 꺼내주려고 안했기때문이였다.
남철은 12시간후에 평양시를 바라보게 되였다. 남철은 일이 이렇게 된것이 아버지의 덕이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가 유명한

해군 대좌의 아들이라는것으로 해서 지휘관들은 집에 일이 생겼다는 그의 말을 별로 따져 보지 않고 승인해 주었던것이다. 하지만 집에 일은 무슨 일… 지금 그는 자기가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는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집으로 가게 됐다는것,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려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 질것이고 다시는 이 길로 되돌아 가지 않아도 되리라는 안도감에 휩싸여 있을뿐이였다.

9

그날 아침 조회를 마치고 김동환이 사업수첩을 들여다 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옆에 있던 키 큰 중좌가 송수화기를 들어 귀에 대였다가 집에서 오는거라면서 그에게 넘겨 주었다.

동환은 중좌를 뻔히 쳐다보며 의아해 하였다. 좀해서 사무실에다 전화를 걸지 않는 안해 렴순경이였다. 더구나 아침에 집에서 나왔는데 무슨 급한 일이 생겼기에 전화를 하는가?

동환은 다소 불안한 심정으로 송수화기에 대고 입을 열었다.

《나요. …》

《남철이 아버지, 그 애… 그 애가 왔어요!》

안해의 반가움에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 애라니?》

《남철이 말이예요, 당신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들어 섰군요.》

《그 애가 어떻게?》

《휴가래요, 표창휴가!》

《그렇소?》

《오늘 점심을 집에 들어 와 하세요.》

동환은 송수화기를 놓고 나서 두 손을 깍지 끼고 팔굽을 책상에 댄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아들이 표창휴가를 왔다는데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입대한지 반년이 되는 아들이였다. 뜻밖에도 그를 만나게 되였다는 반가움이 앞섰던것이다.

남철은 외아들이였다. 손우로 누이 셋이 있고 그는 막내였다. 동환은 그를 무척 사랑했다. 대를 이을 아들이기도 하거니와 어릴 때부터 품행이 바르고 공부를 잘하고 정직하였다. 그가 대학을 마다하고 군대로 나가게 되였을 때에는 얼마나 대견하였던가.

금강산발전소건설에 참가한후 아들에게서는 드문히 반가운 소식이 왔다. 신입병사훈련을 끝 마치고 기본부대에 배치됐으며 창의고안을 하여 반년만에 군공메달까지 받았다는 소식이였다. 그러니 표창휴가를 받을만도 하다고 동환은 생각하였다.

오전일과를 내내 흥분속에 보낸 그는 점심시간이 되자 서둘러 일손을 놓고 집으로 향하였다. 마침 광복거리쪽으로 가는 승용차편이 있어서 몇분동안에 축전동의 아빠트밑까지 왔다.

《안녕하세요?》

《응?》

동환은 마주 오는 처녀를 지나쳤다가 몸을 앞으로 향한채 고개만 돌리고 어정쩡해서 바라보았다.

《옆집에서 산답니다.》

처녀가 자기 소개를 하였다.

《알지, 알아… 어째서?》

《축전소학교 교원입니다.》

처녀가 자기 소개를 더하며 몇걸음 걸어 동환의 쪽으로 마주 다가왔다.

동환이도 몸을 돌리고 그와 마주 섰다. 그는 한부대 다른 부서 대좌의 딸인 그 처녀와 말을 건넨 일도 없지만 알만치는 다 알고 있었다.

동환은 이 처녀가 이름이 혜숙이며 자기 아들과는 중학교 3년 선배이고 교원대학을 졸업한후 몇달전부터 축전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어째서?》

동환은 처음 말해 보는 처녀에게 스스럼 없는 어조로 다시 물

었다.

《남철동무가 휴가로 왔다지요?》

《그래, 그렇소.》

《반가우시겠어요.》

처녀도 스스럼없이 말하며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 주겠느냐고 하였다. 동환이가 처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동그스름한 얼굴에 새물새물 웃음을 담으며 처녀는 오후에 금강산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과의 상봉모임을 조직하려는데 남철이를 보내주겠는가고 하였다.

《그것 참 좋은 일이구만! 보내구 말구, 보내주지!》

동환은 기쁜김에 선뜻 약속하였다. 처녀가 어린애처럼 깡충 뛰며 그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럼 오후 다섯시로 약속해도 좋습니까?》

《휴가 온 군인인데 아무 시간이면 뭐라오? 선생이 좋을대로 하시오.》

《그럼 오후 다섯십니다. 학생들을 모여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5층 4학년 2반이라는 패쪽이 붙은 교실입니다. 그리로 다섯시에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동환은 거수경례를 해보이고 나서 처녀의 잔등을 두드려 주면서 념려 말라고 하였다.

처녀와 갈라 진 그는 승강기를 타지 않고 12층까지 단숨에 걸어 올라 가 자기 집 초인종단추를 힘 있게 눌렀다.

《아버지!》

문이 안으로 벌컥 제쳐 지더니 바위처럼 묵직한 아들이 한가슴에 와 안기였다. 몇순간 동환은 숨이 꺽 막힌듯 아들을 안은채 서 있었다.

《남철이로구나! 남철아!》

남철은 안개속에서처럼 아버지의 얼굴이며 대좌의 견장, 군복의 단추를 보았다. 그러자 불시에 그는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는 어린애의 심정이 되였다. 남철은 흑 하고 흐느끼였다. 세차게 흐느끼는 석

수에 트고 꺼칠꺼칠해 진 그의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 내렸다.

집으로 돌아 오면서 남철은 그사이 자기가 겪은 일들과 동창생들의 소식이며 자신의 결심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누를길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그로 하여금 자기를 다른 부대로 조동시키는데 발 벗고 나서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기분 좋아 할 때까지 서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식사가 끝났다. 그런데 아버지가 려과봉이 달린 《백승》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먼저 물었다.

《그래 표창휴가를 받았다지？》

그 질문을 받은 남철은 속이 뜨끔하였다. 그는 한동안 대답을 망설이였다. 아무 생각없이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에 거짓말을 하였던것이다.

어머니에게 한 자기의 말이 썩 잘되지 못하였다는 의식이 불안을 자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표창휴가로 왔다고 한 말을 지금에 와서 아버지앞에서 무슨 딴 소리로 꾸며 댈수도 없는노릇이였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순경은 아들이 집으로 왔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기에 넉넉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복잡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게 되였다는것만으로는 벌어 진 사태를 용서하지 않을것이였다.

남철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대 바르고 원칙적이였다. 아들이라고 해서 부정을 눈 감아 주는 법은 없었다.

남철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예.》

남철은 혀아래소리로 우물우물 대답하며 아버지의 표정을 슬쩍 살펴 보았다. 외출승인을 받아 가지고 왔다고 솔직히 말해야 하는걸 그러지 않았을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휴가이면 어떻고 외출이면 어떻단 말인가. 괜히 아버지의 기분을 흐리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일을 잘한게로구나! 용타!》

아버지는 과묵한 얼굴에 전에 없이 웃음을 담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혹시 표창휴가가 일시 중단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럴수도 있다. 출장이 많은 아버지이니 출장기간에 포치된 일을 알지 못했을수도 있는것이다. 아니다. 출장기간에 있은 일을 모르고 지낼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에 빈틈이 없다는것을 어릴 때부터 남철은 잘 알고 있었다.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너그러운 아량인가?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남철은 기뻐서 이제는 집으로 오게 된 목적을 꺼낼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주저되였다. 군대내에 소문이 자자한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의식이 그를 사로잡았던것이다.

그는 반년전보다 퍽 돋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심한 량심의 가책을 느끼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마주 보면서 말했다.

《남철아, 내가 옆집처녀선생과 한가지 약속을 했다. 그 선생이 너를 초청하더구나. 학생들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라. 오후 다섯시에 학생들이 모여서 기다릴게다. 축전소학교 5층 4학년 2반 교실이라더라.》

《아버진 뭘 그런 약속을 다 하십니까?》

대답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기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듯 자리에서 일어 서며 재삼 말했다.

《시간을 어기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더니 서둘러 집에서 나갔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간것이다.

남철은 2중3중으로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오후 다섯시면 그도 집을 떠나야 하는것이다. 일일외출승인을 받은 그가 상원세멘트공장까지 가려면 몇시간전에 떠나야 했다.

아버지가 했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그처럼 절박하게 목적했던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채 맨 걸음으로 돌아 가야 하는것이였다.

남철은 막 울음이 터질 지경이였다. 그의 심정을 알길 없는 어

머니가 설겆이를 끝내고 들어 와서 아들의 곁에 붙어 앉으며 다심하게 물었다.

《네가 탔다는 그 메달이 어데 있느냐? 그걸 척 달구 학생들 앞에 나서거라. 좀 좋겠느냐?》

아들이 응대를 안하자 순경은 그의 배낭에서 군공메달을 꺼내 들었다.

《어머닌 뭐가 좋아서 그래요?》

남철은 소리 지르며 눈을 흘겼다. 아버지앞에서 터치지 못한 심정을 문문한 어머니앞에서 터친것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순경은 그의 가슴에 군공메달을 달아 주었다.

《어머니!》

남철이의 표정에는 애원의 빛이 어렸다.

《왜?》

어머니가 다정히 대답했다.

《먹을걸 좀 꾸려 주세요. 좀 많이…》

《너 어딜 갔다 오려고 그러니?》

어머니는 그저 대견해서 사탕이며 과자를 한꾸레미 들려 주며 아들의 잔등을 두드려 주었다. …

김동환은 퇴근시간이 되자 집으로 돌아 왔다.

아들이 소년단원들과의 상봉모임에 가서 아직 돌아 오지 않았을줄 알면서도 서둘러 집으로 왔다. 그는 아들과 더 오래 마주 앉아 있고 싶었고 그의 생활담도 듣고 싶었다. 그는 지금 금강산발전소 건설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온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거기에서 아들이 일하고 있는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동환은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입대해서 불과 반년만에 군공메달을 탔다니 오늘은 밤새껏 그의 이야기도 듣고 성장한 그의 모습을 보고 또 보리라. 한잔 술을 같이 나누는것도 나쁘지 않지… 술을 좋아 하지 않는 그는 자기 손으로 안해의 《창고》에서 술 한병을 꺼내놓고 아들이 돌아 오기를 기다렸다.

일곱시가 되였다. 동환은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섯시가 좀 못되여서 나갔는데 왜 이리 오랠가?

순경은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이 자기가 극성스럽게 달아 준 군공메달을 책상우에 떼놓고 나간것이 가슴에 걸리였다.

어머니의 불안은 아버지의 불안으로 되였다. 동환은 그 불안을 애 써 누르며 아들이 아마 자기 동무들을 만나 상봉모임이 끝나고도 인차 돌아 오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안은 더욱 커졌다. 그것은 아직 어렴풋한, 막연한 불안이였다. 아들에게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동환이였다.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동환은 안해보다 먼저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안해로서도 놀라운 일이였다. 그는 그 어떤 초인종소리에도 제 먼저 문을 여는 경우가 없었다. 좀 덤비면서 곽쇠를 벗기고 문을 열어 젖혔다.

그는 멍청한 눈으로 두명의 소년단원들을 쳐다보고만 섰다가 놀라서 큰 소리로 물었다.

《너희들은 웬 애들이냐?》

두명의 소년단원들이 동시에 손을 머리우로 쳐들어 인사를 하고 나서 되물었다.

《영웅아저씨 있나요?》

《영웅아저씨라니?…》

동환은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 맞은 상태로 되여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 막연했던 불안이 명백해 졌고 현실로 되였다. 아들은 자기의 당부를 외면한것이다.

동환은 다리가 후두둑 떨리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두마디로 말해 보낼수가 없어서 그들을 데리고 학교로 갔다. 그때까지 아이들은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명 소년단원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을 면바로 바라볼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인채 루루이 사죄하였다.

옆집 처녀선생은 제가 미안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되였다.

동환은 처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 왔다. 승강기가 뛰지 않는 시간이여서 그들은 걸어서 12층까지 올라 왔다. 동환은 다리가 후

들거려 겨우 걸었다. 그는 노상 늦게 퇴근하다 보니 계단을 걸어 올라오기가 일쑤였는데 이처럼 힘들어 보기는 처음이였다. 문앞에 이르러 처녀가 언제 또 약속할수 있겠는가고 묻는것을 다시 약속할수 없을것 같다고 말해 주고 나서 괴로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 섰다. 아들은 세면장에 있었다. 열려 진 세면장 문틈새로 상의를 벗고 얼굴을 씻는 아들의 실팍한 어깨와 넙적한 잔등이 보였다. 동환은 얼른 외면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 가서 저녁도 들지 않은채 자리에 누웠다.

그는 마음이 무척 괴로와 졌다. 아들이 자기의 당부를 어긴외에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데서 오는 괴로움이였다. 그는 당분간 현역군인들의 표창휴가를 중지한다는 총참모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상기한것이였다.

한밤중이 되여서 안해가 조용히 들어 오더니 침대에 걸터 앉아서 동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했다.

《너무 속을 썩이지 마세요. 남철인 승인을 받고 집에 왔어요.》

순경은 동환이 자기 방으로 들어 가 자리에 누운 다음 아들을 앉혀 놓고 따져 물었던것이다. 그러나 동환은 안해의 위안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남철은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지꿎게 줄곧 갈마들었다. 이제 보니 남철은 자기가 녀선생과 약속했다는것을 말했을 때 짜증을 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지 못할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있었던것인가?

외출승인을 받고 표창휴가를 받았다고 한것은 리해할수 있는 일이였다. 집으로 오면서 표창휴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떳떳한 일일것인가. 남철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였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못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가 자기가 신신당부한 문제를 한마디 량해도 없이 외면해 버릴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리해하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에게 있을수 있지 않는가. 평양으로 오면서 그가 받은 군사적임무가 있을수도 있다. 그가 참다운 군인이라면 그 임무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려고 할것이다. 오늘 남철은 그 임무를 수행했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

동환은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나 그가 속으로 아들을 정당화하려고 애 쓰면 애 쓸수록 불안스러운 예감은 더욱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남철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으며 정세가 긴장한 때에 그가 집으로 온것이 상서롭지 못하다는 짐작이 어렴풋이 들었다.

당장 자는 아들을 깨워서 모든것을 석연히 밝히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튿날에도 또 그다음날에도.

그에게서 남철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였다. 아무 때나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쳐도 일 없는 철부지가 아니였다. 그는 성장하였고 사회의 성원이 되였으며 더구나 인민군군인이였다.

인민군 고급군관인 그에게 있어서 남철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대원들중의 한사람이나 다름 없었다. 한 전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대원에게서 제기된 문제를 기분에 사로잡혀 망탕 처리할 지휘관이 어디에 있겠는가? 동환은 하루이틀 미루며 심중히 생각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있은 일이다.

동환의 서재에서 전화종이 울렸다. 누군지 모를 남자가 혹시 김동환대좌동지가 아니냐고 묻더니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이렇게 말했다.

《방정국소좌입니다. 아마 저를 모르실겁니다. 상원세멘트공장에 이동작업조를 책임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환은 의아해 하며 무뚝뚝하게 물었다.

《남철동무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데 우리가 뭘 도와 줄것이 없겠습니까?》

《괜… 괜찮습니다.》

동환은 이렇게 대답하였으나 자기가 지금 허튼 대답을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 당황하여 알아 듣지 못할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우리 남철이가 거기에 이동작업을 나와 있다는거

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더 다녀 올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뭘 좀 더 도와 드려야겠는데 저의 힘으로는 그게 답니다.》

소좌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마치도 멀리서 들려 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남철이 어머니가 보내준 음식을 우리 전사들이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동환은 송수화기를 잡은 손이 화끈거리는것을 느끼면서 황급히 말했다.

《우리 애를 부탁합니다. 잘 도와 주십시오.》

《념려 마십시오. 부대가 떠받드는 모범군인인데요. 아버님에 대해서는 온 부대가 다 압니다.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데 대하여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좌가 말했으나 동환은 그의 목소리를 가려 들을수 없었다.

《찾아 가 뵙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로 문안을 드려서 안됐습니다.》

동환은 송수화기를 그대로 움켜 쥔채 한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마치도 그 흰색 물건이 새로운 재앙이라도 가져 오지 않을가 두렵기라도 한듯이 얼른 받치개에 집어 던졌다.

기계적으로 손수건을 꺼내 흥건히 젖은 이마를 닦았다. 병이라도 만난듯이 심장이 아파 나기 시작했으나 곧 그것도 잊혀 져 아픈것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의 지긋지긋한 생각이 지금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

《문제가 있구나,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라는 피할수 없는 결론이 그의 가슴을 지꿎게 파고 들었다.

동환은 전화기가 놓여 있는 소탁자결에 앉은채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남철이가 자기의 모든 의문을 능히 풀어 주고 자기의 어깨우에 이처럼 불시에 덮씌워 진 무거운 짐을 벗겨 주리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을 때 동환은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의 종소리로 받아 들였다. 그는 틀림없이 남철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안해 먼저 현관으로 달려 나가 부리나케 문을 열었다.

그의 짐작이 틀림없었다. 남철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그냥 지나쳐 가면서 동무들을 만나 극장에 갔댔노라고 또 동무네 집에 가야 하노라고 한마디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 가 버리였다.

동환은 다짜고짜 아들을 뒤따라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너하고 좀 이야기할게 있다.》

《지금 해야 하나요?》

남철은 군복을 벗으며 대꾸했다. 《이웃 현관인데 사복을 갈아 입으려고 들렸는데요.》

그는 어머니가 다려서 침대머리에 놓은 와이샤쯔를 입으려고 병사용속내의까지 훌렁 벗었다.

동환은 아들의 건강이 넘치는 몸, 근육이 울근불근한 그의 넙적한 잔등과 푸들거리는 두팔을 다시금 찬찬히 바라보았다.

《게 좀 앉아라. 남철아, 이야기 좀 하자.》

동환은 남철이가 어린 시절에 들은 거역을 허용치 않는 위엄 있는 어조로 말했다.

일이 심상치 않다는것을 눈치 챈 남철은 천천히 와이샤쯔를 입었다.

《글쎄 정 그렇게 급하다면 할수 없지요.》 하고 그는 어물어물 대꾸하였다. 《자, 말씀하세요.》

《내 물어 볼게 있어 그런다.》

동환은 아들이 앉은 침대에 나란히 앉으며 물었다.

《넌 도대체 어떻게 집으로 오게 되였느냐?》

동환은 이 물음을 제기하면서 아들의 눈빛이 약간 달라 지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은 즉시에 웃음을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거야 이미 제가…》

《지금 표창휴가란 없단 말이다.》

《없다니요?》

남철은 짐짓 놀라는체 하며 이렇게 되물었다. 그리고 또다시 웃음을 띠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서 집에 왔는데요.》

《어떤 절차 말이냐?》

동환은 한사코 따지고 들었다.

남철은 방안의 천정이라도 낮아 진듯 한 느낌이였다. 그는 오늘 하루사이에 무슨 일인가 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것일가? 아버지가 부대에 전화라도 걸었단 말인가?

남철은 자기에게 이처럼 마른 벼락을 안긴 아버지와 똑똑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자기자신에게 스스로 화를 내면서 노여운듯 물었다.

《아버진 저를 어떻게 보는거예요?》

《너는 군인이다. 아들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너는 상관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 동환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래, 어떻게 집으로 오게 되였느냐?》

《그게 그렇게 알고 싶다면 좋아요.》

그러나 남철은 주저하였다. 자기를 다 털어 놓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아버지는 대번에 노여움을 터뜨리고 자기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해 버릴것이다. 아니 자기자신은 그 부탁을 입에서 꺼낼 기회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는 어떻게 하나 이 자리를 모면해야 했다.

《저는 상원세멘트공장에 이동작업을 나왔어요. 평양 가까이에 왔거든요. 이동작업조를 책임진 지휘관이 외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문제로 될줄은 몰랐군요.》

《남철아, 비꼬지 말아. 이건 매우 심중한 문제다.》 동환은 엄하게 타일렀다. 《그러니까 너희 지휘관이 너를 생각해서 며칠씩이나 외출을 시켰구나. 그러냐?》

남철은 사태가 이렇게 급전되리라고는 예상 못했었다. 분명 아버지는 모든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가 꾸려 준것을 가지고 가서 외출기일을 연장한것도…

남철은 제발로 함정에 기여 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것을 깨닫는 순간 여기서 황급히 빠져 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를 이동작업조에 넣어 준건 우리 중대장동지예요. 그가 저를 집에 보내주려고 이동작업조를 책임진 소좌동지에게 적당한 구실을 만들었을겁니다.》
《집에 일이 있다는것 말이냐?》
《그래요.》
남철이가 대꾸했다. 그리고 또다시 웃으며 짐짓 심드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 중대장은 인정이 있는 사람이예요. 게다가 저는 모범군인이거든요. 그는 저에게 표창휴가라도 주고 싶었을겁니다.》
《그래…》
동환은 잠시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남철은 아버지가 자기 말을 믿는것으로 여기였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 했는지 압니까? 아버지소식이 신문에 실리고 아버지가 지은 노래를 모두가 부를 때 저는 아버지가 더욱 보고 싶었어요.》
동환은 끝내 아들에게 더 따지지 못하였다. 아들의 말이 사실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칠 동환이가 아니였다. 그는 모든것을 석연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의 오해를 풀고 잠시나마 아들을 의심했던 사실을 아들앞에서 사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뜻밖에도 허물어 지고 말았다. 이튿날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 전화를 걸어 남철의 중대장을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교환수로부터 그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대답을 들었다. 중대장이 전날 밤에 붕락에 묻혀서 희생됐다는것이였다.
동환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느낀 감정은 불안이였다. 그 무슨 만회할수 없는 일이 벌어 졌는데 그것이 남철이와 관련되여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오는 심리였다. 그래서 그 불안에서 벗어 나려고 애 쓰면서 동환은 중대장의 상급에게 희생된 중대장이 남철이를 이동작업조에 넣으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의 전화를 받은 상급지휘관은 중대장이 남철이를 제기

하면서 그의 집안에서 무슨 긴급한 가정사가 있는것 같은데 평양가까이에 보낸 기회에 집에 들려 오게 하자고 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동환은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도 불안에서 벗어 날수가 없었다. 그에게서 중요한것은 중대장이 희생된 그 자리에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였다.

그날 밤 남철이와 다시 마주 앉았을 때 동환은 아들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미련도 없었다. 그는 아들을 포기한듯 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이나 표정도 없이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

남철에게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매우 이상하게 들렸다. 아버지에게서 가뭇없이 사라진 그 모든 감정과 표정이 그 목소리에 담겨 진것 같았다. 그리하여 이날 낮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순간 그의 모든 기대도 허물어 졌다.

그는 부르짖었다.

《좋아요! 다 말하자요. 나는 전투부대로 조동시켜 달래려고 아버지를 찾아 왔어요. 나는 싸움판에 서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불에 탄다면 빨간 연기로 피여 오르고 빨간 재로 남는 장군님의 육탄병사가 되고 싶어요!》

남철은 집으로 오면서 이 말을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조리 있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되는대로 부르짖었다. 동환은 처음과는 달리 아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다.

《저는 선서를 한 군인이예요. 그래서 군인의 의무에 충실했어요. 저의 군공메달을 아버진 못 봤습니까? 우리 건설장에 입대해서 반년만에 군공메달을 탄 군인이 몇십명이 되는줄 아십니까? 그러나 전 어디까지나 전투영웅이 되고 싶단 말입니다.》

남철은 부르짖으며 마구 눈물을 뿌렸다. 동환은 아들의 그 모양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끝내 아들에게서 돌아 섰다. 남철은 그의 일거일동을 살피면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거짓말이다!》 하고 동환이가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예요!》 남철은 새파랗게 낯색이 질려 말했다. 《나는 전투구분대에서 복무하고 싶어서…》

《거짓말이다!》

동환은 소리쳤다.

《이건 너무해요!》

남철이는 갑자기 새된 소리로 웨쳤다. 《나도 아버지처럼 해병이라도 되면…》

《아니 거짓말이다. 너는 공사장이 힘들어서 도망쳐 왔다.》

동환은 세번째로 소리쳤다.

동환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었으랴? 그를 사랑하기때문이라고? 그래서 아픈 매를 드는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뉘우치고 공사장으로 돌아 가서 반드시 영웅이 되라고?

동환은 최고사령관동지를, 그이와 나눈 대화를 생각했다. 그이께서 무대로 올라 와 한사람한사람 군인들의 손을 잡으며 뭐라고 말씀하시였던가.

《나는 우리의 모든 병사들을 믿습니다!》

그 병사가 자기앞에 서 있다. 엊그저께 입대했다고는 하지만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동환은 차거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진 자기 아들을 뭘로 아십니까?》 아버지를 마주 보는 남철이의 눈빛에도 애원인지 절망인지 모를 불꽃이 튕기였다. 그는 부르짖었다.

《나는 그 공사장에서 죽기내기로 일했어요. 붕락, 폭파가스와 돌먼지, 오염된 석수, 그 석수에 발과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렇지만 난 겁내지 않고 일했어요. 지금 또 새 명령이 떨어 졌어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아버진 아마 모를거예요. 하지만 전 그것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진 절 뭘로 아는가 말이예요? 뭘로!…》

이 순간 동환의 가슴속에는 다 말라 버린듯 했던 애정이, 아들의 말이 사실일수도 있다는 희망이 되살아 났다. 동환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돌아 가거라! 사실 지금 거기선 전쟁을 하고 있

는셈이다. 총포성 없는 전쟁을…》
《그렇게 하겠어요. 래일 아침에…》
남철은 순순히 응했다.
《아니, 지금 당장 돌아 가거라!》 동환은 여전히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에요?》 남철은 아연해 졌다.
《그래, 지금 당장!》
남철은 어쩐지 좀 거북스럽게 선 자리에서 서성거리더니 군복을 주어 입기 시작했다. 팔소매에 팔을 끼지 못해 한참이나 씩씩거렸다. 드디여 옷을 입고는 문가로 걸어 갔다.
《배낭을 가져 가라. 이것도 상우에 있는 메달도.》
남철은 픽 돌아 섰다.
《그건 건사해 둬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건 집에 필요 없다. 가지고 가거라!》
그는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다.
동환은 아들의 배낭을 들고 일어 나 탁자우에 있는 메달을 집어 넣은 다음 문쪽으로 걸어 갔다.
《군인의 량심으로 빛나게 될 때 도로 가지고 오너라!》
남철은 배낭과 동환을 번갈아 보고 나서 배낭끈을 받아 쥐고 쳐들어 올렸다.
《어서 가거라!》
동환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 섰다.
뒤에서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기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후 며칠이 지나갔다. 동환은 자기가 그때 아들을 두고 격노했던 사실을 가지고 두고 두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밤 그토록 격분했던 리유가 무엇이였던가를 거듭거듭 생각해 보았다. 표창휴가요 뭐요 한 그 유치한 거짓말이였던가? 그것일수 있었다. 아들은 단 한번의 거짓말도 모르고 자랐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였다. 아들은 보다 큰 거짓말을 했다. 아들은 완강하게 항변했지만 전투부대요 뭐요 한것은 거짓말이였다.

그것은 힘든 공사장을 뜨려고 꾸며 낸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전률을 느끼였다.

공사가 힘들다는데 대해서 그자신인들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까마득한 병사시절 굴착기요 스키프요 하는 말도 들어 보지 못했던 그때 그자신이 방어공사에 한두번만 참가했던가? 그때 그 공사를 순전히 정과 마치로 뚫으면서 피와 땀을 바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아들의 세대다. 이 세대를 가지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께서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해 나가셔야 한다. 그런데 그 세대가 구실을 못한다면?

동환은 인민군대오에 남철이와 같은 군인이 하나이기를 바랐고 또 그러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 하나라도 문제였다. 아,피줄은 유전되여도 사상은 유전되지 않는단 말인가. 진정 사상은 상속해 줄수 없단 말인가? 동환은 그것이 괴로왔다.

그는 자기 몸이 불에 타서 붉은 연기로 되고 붉은 재로 될 결심을 다지면서 결코 자기 혼자만을 념두에 두지 않았다. 아들은 두말할것도 없고 대학에 다니는 세 딸과 안해 순경이까지를 념두에 두었다. 온 가족이 육탄이 될것을 맹세했다.

그런데 그것이 공담이 되였다. 그것이 어떤 맹세였던가? 우리의 존엄 높은 무장대오앞에서,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한 맹세가 공담으로 되다니… 그는 사죄하고 싶었다.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하고 싶었다.

동환은 어느날 당생활총화를 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그는 이 일로 해서 당할 자신의 수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다. 다만 당조직이 우리의 성스러운 무장대오안에 자기 아들과 같은 락오자가 있다는 사실에 류의해 주기를 바랄뿐이였다.

10

오진우는 군복을 착용하고 치료용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점점이 홍조가 물들고 관자노리에 드러난 파란 피줄이

전에 없이 높이 뛰고 있었다. 이따금 탁자우에 놓여 있는 시계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 기대와 초조감이 어리였다.

그는 아침 투약시간에 먹고 난 몇장의 약을 쌌던 종이를 무릎우에 놓고 손바닥으로 쓸어서 주름을 펴고 있었다.

며칠전 회진을 들어 온 원장에게 오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댔다.

《원장선생, 솔직히 말해 주시오! 내 병이 불치의 병이지요?》

불의의 질문에 원장은 굳어 졌다. 사실 오진우는 불치의 병이였다. 지난 설을 전후하여 악화되였다가 요즘 좀 호전된듯 했으나 그것은 꺼지기전 초불의 반짝임과 같은것이였다.

원장의 짐작에는 며칠 남지 않은것 같았다.

허나 사실을 말해 줄수는 없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나를 더 괴롭히지 마시오!》

오진우의 얼굴이 이그러들고 입에서는 말이 아니라 신음소리가 새여 나왔다.

원장은 동통이 올 때에도(그는 동통형 페암이였다.) 그가 이처럼 괴로와 하는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제 회진때 환자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투약이 끝난 다음 원장은 귀속말로 낮 12시경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나오신다는것을 알려 주었다.

오진우는 달았던 점적을 떼던지고 간호원이 발을 동동 구르건 말건 환자복까지 벗어 던졌다.

그는 그러느라고 최후의 기력을 다 냈으며 그 기력으로 앉아 있는것이였다.

멀리 시내 어디선가 12시 고동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원장의 안내를 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 들어 서시였다.

오진우는 뒤에 따라 선 최광은 보지 못했다.

문안인사가 오가고 **김정일**동지께서 환자앞에 가져다 놓은 의자에 앉으시는것을 보자 원장은 자리를 피해 나갔다.

최광은 환자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오진우가 그이를 맞이하

느라고 탁자우에 아무렇게나 집어 던진 흩어 진 약종이를 차근차근 겹쳐 놓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이때 오진우는 원장으로부터 불치의 병이라는 말을 듣던 순간을 되새기였다. 그의 머리에 피뜩 스쳐 지나간 생각은 이젠 최고사령관동지를 다시 뵙지 못하겠구나 하는것이였다. 항일전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던 때와 비슷했는데 그때에는 이젠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다 봤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었다.

지금 그이께서 오진우앞에 마주 앉아 계시였다.

응당 기뻐야 할 이 순간에 오진우는 그이를 혼자 남겨 두고 가게 되였구나 하는 아픈 생각이 전류처럼 온몸에 뻗치는것을 느끼였다. 어머님을 일찌기 여의신 그이를 모신 때로부터 장장 반세기 그이보다 스무살이나 우인 오진우의 가슴속에 《령감님》이라고 친근하게 불러 주실 때마다 무시로 갈마드는것은 혈육의 감정이였다. 이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 졌고 수령님을 잃은후에는 참을수 없이 절절해 졌다. 수령님은 안 계시는데 이젠 그이 혼자서…

오진우의 눈굽에는 눈물이 고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눈물을 리해하신듯 한손으로 가늘어 진 환자의 팔을, 다른 한손으로 환자의 얼음처럼 찬 손을 꽉 잡고 계시였다. 오진우의 사형선고와도 같은 병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화제에 올리지 않으시였다.

그렇다고 오진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이께서 이미 전에 알고 계시였을것이고 원장이 그이의 승인을 받고 어제 말해 주었을것이다. 바로 그래서 분망하신 그이께서 짬을 내시여 이렇게 걸음하시지 않았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째서 점적을 떼고 환자복을 벗어 놓았느냐고 묻지도 않으시였고 오진우는 군복을 입고 장군님앞에 나서고 싶었다고 대답을 올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이야기가 맞잡은 손을 통해 오가는것이였다.

오랜 침묵끝에 **김정일**동지께서 최광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종이장들을 바라보며 《그건 뭘하는겁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저 령감이》 하고 최광이 직함대신에 이렇게 부르며 말하려 하자 오진우가 가로챘다.

《약을 쌌던 종이입니다. 휴지통에 던지려는것을 한장한장 모아둡니다. 우리 집 애들이 와 보고 궁상스럽다고 하지요. 고생을 해보지 않은 애들이 뭘 압니까. 지금 구두쇠니 뭐니 하고 내 뒤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더러 장군님앞에 손을 내밀라는 건데… 내사 그럴수 없지요. 허허…》

《허허…》

김정일동지께서 그의 말에 가벼운 웃음으로 대답해 주시였다.

《지금 애들이 호강스럽게만 자라다나니 속이 궁글었습니다.》 하고 최광이 비분강개한 어조로 끼여 들었다.

《내가 전후에 애를 하나 데려 왔는데 다 길러 놓으니 돌아도 안봅니다.》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최광이 일점혈육이 없이 늘 고독하게 지내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계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위안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한마디 하시였다.

《그래도 그 애들이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단단히 틀어 쥐고 교양을 해야지요.》

최광이 여전히 비분강개해 져서 계속했다.

《요새 군대에 영양실조증 환자가 더러 생기는데 나라형편이 어려우니 잘 먹지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상병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땐 풀뿌리를 씹으면서도 영양실조증이란 말도 몰랐습니다.》

오진우가 동감인듯 턱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이 어려운 때 장군님만 남겨 두고 가자니 눈을 감을것 같지 못하다는 말이 맴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김정일**동지께서 먼저 말씀하시였다.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항일투사동지들은 그때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견디여 냈습니까?》

그이께서는 이 질문을 일부러 최광을 바라보며 하시였다. 환

자의 부담을 덜고 싶으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웠던건 아닙니다.》 하고 최광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면팔방에서 왜놈들이 진드기처럼 달려 들고 눈보라가 사나웠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생눈을 움켜 먹으면서 100여일을 싸우다나니 지쳐 쓰러진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머리를 쳐들고 보면 언제나 앞장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붉은기를 들고 계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 섰습니다.》

《장군님.》 하고 오진우가 그이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돌아 오기를 기다려서 말씀 올렸다.

그는 앉아 있기가 힘들었지만 될수록 그것을 감추면서 많은 말을 하려고 애 썼다.

《지금의 〈고난의 행군〉은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수년간의 싸움에서 단련된 혁명군대원들이 했지만 지금은 이 나라 남녀로소가 다 참가하는 전 인민적인 행군입니다. 게다가 고생을 모르고 살아 온 새 세대가 주력군이 아닙니까!》

오진우는 그럴수록 **김정일**동지를 더 받들어 드리지 못하고 가게 되였다는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로투사동지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무력부장동지, 어서 병을 털고 일어 나십시오. 설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견디여 내야 합니다.》

이때 원장이 기척이 없이 들어 와 누구에게라 없이 《10분이 되였습니다.》 하고 알리였다.

오진우가 원장을 쏘아 보았다.

원장은 그의 시선을 외면한채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았다. 오진우는 그 10분이 그이께서 정하신 시간임을 알아 차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어 서시였다.

그리고 자신이 낚은 산천어를 가져 왔다고 하시자 오진우는 언젠가 그이께서 산천어탕을 끓여 놓고 비행기로 부르시던 사실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였다.

(그이께서 이 엄동설한에 낚시질을 다 하시다니…)

잠시후 점적을 달고 다시 병상에 누운 오진우는 그이와 나눈 10분간의 대화를 상기하면서 이마살을 찌프렸다. 새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주책 없는 말만 한것 같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였다.

오진우를 남겨 두고 돌아 서신 **김정일**동지의 발걸음은 무거우시였다. 환자를 더 도울수 없고 완쾌시킬수 없는것이 가슴이 저리고 안타까우시였다. 어쩌면 그를 다시는 못 볼것만 같으시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애 써 마음을 다잡으시였다. 우리 혁명의 로세대들의 근심을 덜어 주고 싶으시였다. 그것을 자신의 의무로 감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세대를 더 잘 키우고 단련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시였다.

특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있어서는 결심이자 곧 실천이였다. 그이께서는 병원문을 나서시자 곧 병사들을 찾아 전선길에 오르시였다.

11

그날 밤 남철은 아빠트의 인조대리석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란간을 잡고 어두운 층계를 천천히 내려 갔다.

그의 귀전에는 아직도 돌아 가라고 같은 말을 여러번 되풀이하던 목소리가 생생히 울렸다.

(아니, 아닐거야！)

남철은 아직도 자기 처신의 후과를 생각 못하고 미련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어떤 일시적착란이 일어 난것이다. 이제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불러서 멈춰 세우고 다시 돌아 오게 하려고 달려 나올것이다.)

몇걸음 내려 간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강구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수치감을 느끼며 달리듯이 아래로 급히 내려 갔다. 그는 쫓겨 난것이다. 자기를 낳아 주고 길러 준 친아버지가 아들을 쫓아 냈다. 군공메달이 든 배낭을 집어 던지며… 다른 부모라면 군공메달을 안탔대도 그 어려운 건설장에서 찾아 온 아들의 잔등을 두드려 줄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밤중에 친아들을 쫓아 냈다.

남철은 단번에 계단을 세개씩 건너 짚으며 헐떡이였다. 현관문까지 내려 왔을 때는 그 수치감이 어느새 원망으로 번지였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탈주병으로 여기고 쫓아 냈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니다. 나는 탈주병이 아니다. 나도 전쟁판에서라면 얼마든지 영웅적으로 싸울수 있다. 총 쥔 병사로서 죽음을 겁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재적소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나는 해병이 되여야 한다. 나는 바다를 지키고 싶다. 그 소원이 어떻게 잘못으로 되는가?)

그는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싶었다.

(과연 내가 아버지만 못한 시라소니자식인가. 매 순간순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 오지 않았단 말인가? 《황금노다지》란 말은 내가 지어 내지 않았는가. 이것이야 말로 죽음도 불사한 병사의 랑만이며 노래이다. 그래 아버지가 지은 노래만이 병사의 노래인가? 아버지는 왜 나의 군공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사실 말이지 군공이 병사의 성실성을 다 표현하는것은 아니다. 남철이도 신입병사로서 공로가 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새로운 명령이 떨어 지자 그는 겁을 먹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결국 병사생활의 첫 발자국을 뗄 당시 그의 기세는 허장성세였고 명예심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이 드러났다. 남철의 군공메달은 깨끗한것이 못되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것은 필요 없다고 소리쳤던 것이다.

지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격분으로까지 변해 가고 있는 남철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뿐인가? 그는 보다 중요한것, 자기가 장군님께 다진 아버지의 맹세를 헛되이 되게 했고 그것으로 하여 격분한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 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것이다.

남철은 흥분하고 격한 나머지 자기를 뉘우치고 성실한 군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나는 비겁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나는 전투부대로 가려고 했을뿐이다. 전투부대로, 전투부대로! 그것이 왜 잘못이란 말인가.)

남철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원망은 이 동작업을 끝내고 부대로 올 때까지 계속되였다.

그런 감정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더욱 불같이 일어 났다. 그는 그때 어머니만은 문밖으로 쫓아 나와 자기 팔을 끌어 당길줄 알았다. 그는 상원세멘트공장에 와서도 어머니를 기다렸다. 아버지의 처사에 대하여 대들며 아버지가 막아 나서도 뿌리치고 자기에게로 달려 나올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지편이였다.

남철은 수치와 모욕감에 사로잡혀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며칠간을 보내고 자기 부대로 돌아 왔다. 다시 질통을 지고 붕락구간을 뚫고 석수를 헤치며 경사갱을 오르내려야 했다. 남철은 자기 중대가 일하는 19갱이 바라보이는 고개길에 하염없이 서 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노래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웅얼거리는 말소리 같기도 했다.

그 목소리가 곡조없이 웅얼거리는 빨찌산추도가의 한대목이라는것이 분명해 졌을 때 남철은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울리는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다른데서 들려 왔다.

산비탈을 타고 좀 올라 가 마른 잔디가 한벌 깔린 공지에 세개의 봉분이 솟아 있었다. 그 무덤앞에 유치원또래의 남자아이 하나가 청솔가지를 꺾어 놓고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중대장 김철종의 아들 영남이였다.

남철은 새로 생긴 무덤을 첫눈에 알아 보았다.

중대에서 사고가 있었구나! 이러한 륙감이 전류처럼 온몸에 쭉 뻗치는 순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배낭을 마구 내동댕이 치고 무덤에 달려 들었다. 그리고 석재로 다듬어 세운 묘비를 쓸어 안고 헤덤비면서 이름을 찾아 보았다.

《고 김철종…》

그는 묘비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벌벌 기여서 오른쪽, 왼쪽 묘비를 들여다 보았다. 그다음 갑자기 뒤로 벌렁 자빠졌다. 세개의 무덤이 힘을 합쳐 그를 밀어 던진듯 하였다. 그는 뒤로 자빠진채 딩굴면서 몸부림쳤다. 한참 그러다가 벌떡 일어 나서는 앉은 걸음으로 영남이앞으로 다가 와 아이의 손목을 잡고 중대장의 무덤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누구 무덤이지？》

《남철아저씨거야…》

아이가 대답했다.

《누구？》

뻔한 질문을 한 남철은 아이의 말을 새겨 듣지 않고 또 물었다.

《남철아저씨거야…》

아이가 되풀이했다.

멍해서 듣고 있던 남철은 비로소 귀를 도사렸다. 그때에야 아이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남철아저씨가 죽었어. 굴이 무너졌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엉？》

남철은 다시 멍해 졌다.

남철이가 속한 중대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사택마을에 전해 진것은 군관안해들이 저녁밥을 지어 놓고 남편들을 기다리고 있던 어슬녘이였다.

그러나 중대장의 안해 복순은 그 소문을 전혀 남편과 련관시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남편이 대대부에 회의가 있어 갔다 온다면서 집에 들렸다 나간것이 한시간도 못됐기때문이였다.

복순은 장례준비에 발 벗고 나섰다.

군대식장례가 돼서 조총을 쏘고 군악대가 추도곡을 울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상도 차려야 하고 술도 몇병 구해야 하며 령구에 덮을 붉은 천도 마련해야 하는것이다.

중대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일에 언제나 앞장서 온 그는 이번에도 자기 집 부엌에다가 일판을 벌려 놓고 어째서인지 몸을 빼려고 하는 이웃들을 성을 내가며 불러 들였다.

복순은 그들의 남편들은 이미 저녁밥을 먹으러 집에 왔다가 나갔으며 그래서 모든것을 알고 자기를 마주 보기를 꺼려 한다는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남편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 오지 않는것을 중대장이기때문에 그러려니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에 남편의 상관인 대대장과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인 부대 정치위원이 왔다 간 사실에 대해서도 별다르게 느끼지 않았다.

밤에 중대사관장이 찾아 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방안에서 영남이와 마주 앉아 사진첩을 보고 있는것을 부엌에서 사이문으로 올려다 보았을 때에도 남의 일처럼 물었다.

《희생된 셋중에 한 아저씨는 누구라오? 두 아저씨는 알만한데…》

《한 아저씨요?》 이렇게 반문한 사관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 말을 또 되풀이했다.

《한 아저씨 말이지요?》

때마침 영남이가 사관장의 무릎을 잡아 흔들며 《아저씨, 이거 우리 아버지야!》 했다.

난처한 처지를 모면할수 있게 된 사관장은 일부러 큰소리로 《야, 멋 있구나!》 하며 중대장의 독사진에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언제까지나 입을 봉하고만 있을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당장 사실을 말해 줄수도 없었다. 적어도 붕락에 치여 험상하게 된 중대장의 시신을 군의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란 참 이상한것이였다. 복순이가 제 먼저 지레짐작하면서 요새 중대에서 보이지 않는 남철의 이름을 대였다. 딱한 처지에 빠져 있던 사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광경을 보고 부엌에서 떡을 빚던 녀인들이 가루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흐느꼈다. 그러자 복순이도 흐느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관장에게 물었다.

《그 아저씨가 무엇을 좋아 했다오?》

사관장은 기막힌 표정을 짓고 앉았다가 중대장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대주었다.

《시루떡이지요. 시루떡을 차리라요!》

흥분한 사관장은 이 말을 성난듯 한 어조로 하였다.

《자, 그럼 나머지가루로는 시루떡을 만들자요!》

복순이가 울음을 그치고 아주머니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들은 그의 말에 더 큰 울음소리로 대답할뿐이였다.

《자, 그만들 진정하세요. 그런다구 죽은 사람 살아 오겠어요? 자요, 자!》

복순은 이튿날 아침 남편의 령구앞으로 불리워 갔을 때에도 일어 난 사태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는 령구앞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는것을 보고도 남편이 죽지 않았다고, 지금 어디서 아저씨들의 장례때문에 바삐 뛰여 다닐것이라고 생떼를 썼다.

그는 넋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사진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주지 않은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놓여 있어요? 그럴수 없어요! 그럴수 없어요!》

그러다가 그는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가운데서 사관장의 얼굴이 눈에 띄자 갑자기 놀란듯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쳐다보며 입술을 피 터지게 깨물더니 뒤로 벌렁 넘어 졌다. 지난 밤 사관장이 사진첩을 펼쳐 놓고 보던것을 상기하고 자기의 생떼가 부질없는 일이라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는 의식을 잃은채 군의소로 실려 갔다.

중대장의 장례에는 어린 영남이가 참가했다. 어린것은 아버지에게 마지막인사를 하라는 말에 끝내 도리질을 하였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이건 남철아저씨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뭐!》

남철이가 묘지에서 중대장의 이름을 보고 처음에 본능적으로 느낀 감정은 아버지 김동환이가 전화로 중대장이 희생되였다는 말을 듣고 느끼였던 감정과 같은것이였다.

그것은 그 어떤 죄의식이였다. 중대장의 희생에 대한 슬픔이 아니였다. 그 무슨 만회할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 죄가 남철이 자기에게 있다는 죄의식이였다. 사관장에게서 영남이가 죽은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남철이라고 믿게 된 사연과 중대장의 안해가 졸도하여 입원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정말 자기를 죽은 사람

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어려운 정황에 부딪칠 때마다 어린 전사들이 그러하듯이 순식간에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능력도 의지도 다 잃어 버렸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서 빈 병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가 공사장의 면모를 다 알고 있다고 여긴것이 잘못이였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지하수천척의 갱막장, 숨 막히는 폭파가스, 귀청을 째는 착암기소리, 발과 다리를 퉁퉁 붓게 하는 오염된 석수, 덜커덩거리며 서서히 굴러 가는 광차, 무시로 떨어 지는 붕락, 삑삑거리는 권양기소리와 감겨 돌아 가는 쇠바줄, 무시로 일어 나는 사고, 희생… 이러한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공사장의 면모였다. 아니다. 공사장의 면모는 더 다양하다. 지금 그앞에는 또하나의 공사장의 면모가 있다.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추도가를 부르는 영남이와 병원에 실려 간 중대장의 안해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들은 아버지 없는 아들로, 남편이 없는 안해로 한생을 살아 갈것이다.

남철은 멍청히 뜨고 있던 눈을 감았다. 그러자 자기가 그려 보던 모습들이 자기로서는 범접할수 없는 높고 아름다운 세계로 분식되면서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남철을 뒤에 남겨두고 점점 더 멀리 떠나가 버리는것이였다. 이상한 일이였다. 그 세계가 멀리 가면 갈수록 남철은 그 세계가 그리워 지는 자신을 의식하였다. …

남철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 세계는 더는 자기를 받아 주려 하지 않을것이다. 그는 이전처럼 일하고 또 죽을수 있는 자격마저 잃었다. 그는 벌써 죽은것이다. …

12

남철이네 중대장을 희생시킨 붕락사고가 있은 갱막장은 텅비였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한명도 남기지 않고 물러 가게 하였다. 《이슬》이 돋기 시작한 굴천정에서 또 언제 무거운 붕락이 있을지 모르는것이였다. 그리고 그들자신은 갱막장에서 얼마 떨어 진 휴계실에서 회의를 가지였다.

그 회의는 현장군정간부회의였다.

심철범자신과 리완수, 전호진참모장, 기술부장, 작전부장, 총정치국대표 차인중과 그밖의 19갱을 맡은 구분대의 지휘관들이 통나무를 쪼개서 만든 의자에 자리를 차지했다. 약간 떨어 진 문가(문이라고 해야 휴계실이라고 쓴 바위를 놓아서 작업장과 구별되게 만든것이다.)에 보위색 잠바옷을 입은 장년의 사나이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이 공사의 기술적측면들과 국가적인 보장문제를 위임받고 있는 정무원사무국의 부부장이였다.

촉수 낮은 전구를 매달아 놓은 굴은 어두컴컴했다. 여기저기서 바위부스레기 떨어 지는 소리가 들려 왔다. 붕락된 바위를 들어내지 못한 굴안은 매우 답답한 감을 주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군정간부회의 참가자들은 누구나 회의장으로 들어 오면서 우선 심철범을 피끗 쳐다보고 그의 얼굴표정에서 방금 무슨 새 사건이 일어 나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판단해 보려고 하였다. 심철범의 얼굴은 침울하고 고독해 보였다. 안경을 낀 (그는 원래 안경을 끼지 않았으나 갱막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다.) 그의 한쪽 눈이 별로 우묵해 보였다. 그는 처음 부임되여 올 때보다 몹시 수척해 졌다.

군인 하나가 커다란 바위돌을 굴려다 놓고 그우에 올라 서서 방금 끊어 진 전등알을 바꾸어 끼우고 있었다. 갱내 전등은 달아 오른 유리에 석수가 떨어 져서 얼마 못 견디고 끊어 지군 하였다. 사람들은 심철범과 그의 왼쪽에 앉은 전호진이 서로 눈길이 마주치는것을 피하고 있는데 주의를 돌렸다.

그 군인은 자기가 있기때문에 회의를 시작 못하고 있다는것을 알아 차리고 분주히 서둘다가 올라 서느라고 굴려 온 바위를 치우지 못한채 물러 갔다.

심철범은 새로 끼운 촉수 높은 전등의 불빛으로 해서 눈살을 찌프

리더니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끼였다. 그는 자기 안경의 한쪽 유리가 깨여 졌고 그것으로 해서 눈이 이상하다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럼 시작합시다, 동무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참가자들에게는 마치 심철범이 회의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 마지 못해 억지로 말하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장내가 조용해 졌을 때 그의 오른쪽에 앉은 리완수가 사업수첩을 펼치다가 그것을 떨구어 바스락소리를 냈다. 심철범이 맞갖잖은 눈길로 그를 보자 리완수는 얼른 수첩을 집어 들었다.

《다 아다싶이 이번에 19갱에서는 큰 희생을 냈습니다.》 심철범은 여전히 조용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사고와 관련하여 참모장동무의 견해를 들어 보자는겁니다. 참모장은 말하기를… 먼저 말할게 없지. 참모장동무, 어서 말하시오.》

굴천정에 매달아 놓은 전등알에 물방울이 떨어 지며 뿌지직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주의를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전호진이 일어섰다. 그는 이마를 손으로 올리 쓸고 나서 사람들을 둘러 보았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갱을 직선돌파하는가 아니면 에도는가? 나는 19갱의 붕락구간을 에도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은 희생을 낼수 없습니다.》

회의참가자들속에서는 일체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전호진이 말을 계속했다.

《또 한가지 다른 갱들, 다시말하면 붕락이 계속되는 갱들에서도 직선돌파가 아니라 우회하자는겁니다.》

장내에는 여전히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다. 심철범은 자기앞에 있는 음료수통을 올려 놓기 위해 만든 소탁에 연필을 그루박으면서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장내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느끼고 있었다. 벌써 몇해째 공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 대다수 지휘관들이 전호진을 지지하고 있는것이였다.

기술부장과 19갱의 지휘관들은 심철범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정무원사무국 부부장은 외관상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그와는 반대

로 리완수는 흥분한듯 펼쳤던 수첩을 탁 덮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 쉬였다.

그 숨소리에 비로소 심철범은 여념없는 자감상태에서 깨여 난듯 싶었다. 그는 또다시 안경을 벗어 쥐였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본 사람들은 심철범이 어딘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레이는 폭풍을 꾹 참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올것만 같은 감을 느끼였다. 그러나 심철범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시작하였다.

《전호진동무는 자기의 이 의견을 아침에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의견이 좀 이상하게 여겨 졌습니다.》

리완수가 또한번 거친 숨소리를 냈다.

심철범은 마치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한듯 아까와 같은 가라앉은 어조로 자기의 생각을 전개했다.

《전호진동무의 제의는 본질상 0026호명령에서 제시한 공사기일을 거부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부입니다.》

그는 력점을 찍어 이 말을 되풀이했다. 《왜냐하면 우회해서는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나는 리해되지 않습니다.》

심철범은 마지막말을 비통하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꽉 쥐고 있던 연필을 탁자우에 내던졌다. 그는 여전히 전호진을 보지 않고 안경을 다시 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한쪽 안경알이 깨진것을 알고 상의 웃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내 눈을 쪼프리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말의 필사적인 의미를 강조해 주는듯 하였다. 그는 간단히 물었다. 상대들이 참모장편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수첩을 접은채 쥐고 있던 리완수가 그것을 무릎우에 놓았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탁 소리가 나게 쳤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참모장동무！》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가 참모장의 의견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전호진은 가만 있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나 날카롭게 말했다.

《정치위원동무, 지금은 회의입니다. 아니, 나의 말을 막지 마십시오. 결정된 다음엔 나도 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결정을 지어 봅시다.》 심철범이 감정이 터지려는 두 사람사이를 갈라 놓듯이 말했다. 《정무원사무국 부부장동무, 정무원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부부장이 일어 섰다.

《0026호명령이 내려진 후 기술적측면에서 많은 결정권이 군인들 손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는 이 점을 강조하려는듯 또박또박 말했다. 《장령동지도 아시다 싶이 붕락구간을 에돈다는것은 공사의 설계를 변경시킨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 설계는 정무원이 책임지고 만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계를 변경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모장동무의 제의에도 일리가 있으니까요.》

정무원사무국 부부장은 잠바옷자락을 아래로 당기고 나서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리완수의 흥분에 찬 숨소리만이 들릴뿐이였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중장동지에게 말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말하겠습니다.》

마침내 전호진은 흥분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우리는 세명의 희생을 낸 19갱의 붕락사고가 있은후 전면적인 암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붕락구간은 수백메터에 달할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한다는것은 모험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도는것보다 시간을 더 허비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게 될 희생에 대하여서는 감히 입밖에 낼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중장동지.》

《나는 19갱을 맡은 부대장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형편에 대해서 보고 받을것을 제기합니다.》 심철범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마디 더했다. 《오늘 그는 자기 부대에 할당된 자재형편에 대하여 나에게 보고한바 있습니다.》

전호진은 무슨 새 자료가 있다면 어째서 누구보다 먼저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하고 무언의 질문을 하는듯 부대장인 키가

작달막한 상좌를 바라보았다.

상좌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부대에 할당된 공사용자재 예비에 대한 정기총화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마침 참모장동지를 찾아 가려는데 참모장동지가 저의 방에 들려서 10분후에 회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좌는 수첩을 펼쳤으나 수첩은 보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우리에게 자기가 맡은 구간인 220메터의 거리를 굴진할수 있는 폭약과 도화선,정대용바이트와 그리고 그밖의 보충적인 자재들이 있을뿐입니다. 만일 우회로를 타고 나가는 경우 그 거리는 두배로 늘어 납니다. 이것은 두배의 자재를 보충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상급참모부로부터 더 보충 받을수 있는 자재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호진의 얼굴은 괴로운듯 이그러 졌다. 그는 분주히 담배를 꺼내붙이더니 부대장인 상좌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건 다른 문제요. 그건 따로 토론합시다. 자재를 줄지 안 줄지 동무가 뭘 아는가?》

상좌는 입을 다물고 수첩을 집어 넣었다.

《참모장동무,흥분하지 마시오.》 하고 심철범이 말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갱도충진용모래와 세멘트운반을 맡은 차관리부장의 보고를 들어 봅시다. 그는 우리들중 누구보다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키가 크고 어깨가 쩍 벌어 진 전형적인 군인형의 한 중년의 대좌에게로 쏠렸다. 바로 그가 수만톤의 공사용물동운반을 책임진 차관리부장이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상원세멘트공장과 안변모래채취장에서 보냈다. 그리고 기름사정이 긴장되자 그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돌려 져 있다.

차관리부장은 담배를 피우다가 심철범의 제의를 듣자 담배불을 돌바닥에 비벼 끄고 어떻게 할가 망설이면서 심철범중장을 바라보았다. 심철범이 고개를 끄덕이자 차관리부장은 일어 서서 말했다.

《자동차들은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천톤의 세멘트와 모래가 갱도들에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량의

휘발유와 디젤유를 길바닥에 뿌린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상원에서 날라 오는 세멘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몇배로 되는 모래는 안변으로부터 수백리를 달려서 날라 오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었다. 회의장 한쪽벽에 걸려 있는 지도에는 모래운반도로가 중환자의 체온표모양 구불구불 붉은 선으로 그려 져 있었다. 그길은 안변 남대천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어 가다가 고산에 이르러 갈지자로 굽이굽이 철령을 넘어 각 작업장들을 향해 여러 갈래로 갈라 져 동서남북으로 뻗어 갔다.

《형편은 극히 곤난합니다.》 전호진이 웅글게 말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륜전기재는 장거리를 뛰다나니 부속이 못 쓰게 되고 기름은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만톤의 모래를 안변에서 날라 오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리해할수 없는것은…》 여기서 그는 상관의 앞이라는것도 잊고 어성을 높였다. 《이 모든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아니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심철범이 말했다. 《갱도를 우회해서 뚫는다면 이 모든 형편이 더 어려워 진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직선돌파를 할 때보다 모래와 세멘트가 더 많이 들기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회로를 택하는 경우 더 들게 되는 물동량은 무려 5만톤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동차는 120대,기름은 2천톤입니다. 지금 형편에서 국가로부터 이것을 추가공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첩을 펼쳐 뭔가 적고 있던 리완수가 그 말을 듣자 흥분을 누르고 천천히 말했다.

《그것은 나도 계산해 봤습니다.》

심철범은 리완수의 그 흥분이 더 터지지 않도록 하려는듯 연필로 나무탁자를 두드렸다.

《나는 거듭 말하겠습니다.》 전호진이 리완수의 비난을 무시하는듯 태연자약한 태도로 말했다. 《우리는…》

《당은 우리에게… 우리 군인들에게 이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완공할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고 리완수는 그의 말을 성급히 막았다.

《옳습니다!》 전호진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수만명 군인들의 생명도 맡겼습니다.》

전호진은 정치위원앞에서 자중할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갱도안이 선선했지만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의 땀을 급히 씻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물론 공사의 한 지휘관으로서 충진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회로를 택하여 굴진을 해놓으면 충진은 또 무슨 변통이 있게 됩니다.》

전호진은 앉았다.

또다시 고통스러운 침묵이 닥쳐 왔다.

작전부장은 전호진이 내놓은 제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심철범과 리완수를 한편으로 하고 참모장을 다른 편으로 하는 매우 첨예한 론쟁에 감히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보다 더욱 난감한 처지에 있었다. 그 사람들보다 직급이 낮은 그들은 자기들이 순전한 기술적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럴수도 없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다른 걱정만 해도 너무나 많았다.

직급이 낮은 그들은 발생한 론쟁의 본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곤난하였다. 전호진의 제의의 합리성이 그들의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직선돌파는 그들에게 있어서 섶지고 불속에 들어 가는 모험이였다. 장기간의 공사에 지칠대로 지친 그들로서는 공사의 안전성이 기본이였다. 그러나 우회로를 반대한것은 이 공사의 총 지휘관인 심철범장령과 정치위원이였다. 그러므로 참모장의 제의에 선뜻 동의한다고 말하기 힘들었다.

심철범과 리완수가 전호진의 제의를 내놓고 반대한것은 사실상 토의결과를 사전에 결정한것으로 되였다. 결국 작전부장이나 그밖의 회의참가자들은 직선돌파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무슨 더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전호진동무?》

심철범중장이 뜻밖에 부드럽게 물었다.

전호진은 다시 일어 섰다. 얼마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참모장이 생각을 수습하여 자기 제의의 정당성을 증명할 새로

운 론거를 찾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론거는 더 나오지 않았다.

《없습니다.》 전호진은 간단히 대답하였다. 《보충의견은 없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렇다면 동무들》 하고 심철범이 결론하였다. 《문제는 명백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호진동무를 이 공사를 처음부터 지휘해온 경험 있는 지휘관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의된 오늘 문제에서는 그의 견해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전호진동무, 잠간 기다려 주시오.》 그는 이미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심철범과 전호진은 갱도안의 휴계실에 단 둘이 남았다. 둘 다 아까 회의때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심철범은 《백승》갑에서 담배를 한대 꺼내 부드럽게 매만지더니 성냥을 켜대고 피우기 시작했다. 기침이 나서 담배를 탁자우의 재털이에 놓고 가늘게 피여 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는 아직은 동무의 의견을 잘 모르겠소. 참모장동무, 아침에 내가 동무의 의견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자고 제기했을 때 사실 털어 놓고 말해서 난 동무가 거절하리라고 기대했댔습니다. 나와 정치위원동무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무가 이미 다 알고 있는것인데 그래 무엇을 타산했습니까?》

전호진은 습관대로 일어 서려고 했다.

《아니, 앉아서 말하시오.》 심철범은 그가 일어 서지 못하게 말렸다. 《나는 관직을 떠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재털이에서 담배를 다시 집어 들고 몇모금 빨다가 전호진쪽으로 약간 몸을 숙이면서 말을 이었다.

《난 진정으로 몇해째 이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동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일해야 할 지휘관을 바꿀수 있는 권한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무야 이전에도 나의 작전의도를 어기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다가 실패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아니고 전투훈련에서 있은 일이긴 하지만…》

심철범이 군부대참모장으로 있을 때 관하려단장이였던 전호진은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참모장의 주장을 무시한채 기계화수단

들의 산악돌파에서 우회로를 택하였다가 시간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범하였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고 심철범이 계속했다. 《동무가 두번 다시 그러한 과오를 범할가봐 두렵습니다. 나의 심정을 리해하시오. 다시말하지만 난 진정으로 동무를 존중하며 그런것만큼 도와 주고 싶습니다.》

전호진은 말이 없었다.

전호진의 이러한 태도가 심철범에게는 놀랍게 생각되였고 분격을 일으켰으나 꾹 참고 있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고 심철범은 또다시 입을 열었다. 《0026호명령 관철과 관련되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둘다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전호진은 여전히 한마디의 말이 없이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서 어딘지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허심한 담화로 전호진의 부당성을 일깨워 주려던 심철범의 의도는 허사로 되였다.

심철범은 다 꺼져 버린 담배를 재털이에 집어 던지고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동무의 침묵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나는 할수 있는 말은 다했습니다. 직선돌파는 모험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우회하자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0026호명령에 제기한 시간을 보장하자는겁니까?》

전호진은 몸을 심철범쪽으로 홱 돌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매 마디를 강조해서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묻고 싶었던 말입니다.》

《직선돌파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심철범이 웨쳤다. 《위험해도 직선돌파를 해야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지금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전호진은 머리를 흔들었다.

《중장동지, 중장동지는 방금 시간문제를 이야기했지요? 어림없습니다. 붕락, 붕락, 또 붕락… 시간은 더 걸립니다. 거기에 희

생은 뭘로 보상할셈입니까?》

심철범은 얼굴을 찌프렸다.

《물론 보상할수 없지요.》 심철범은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낫습니다. 우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것처럼. 그러나 그것도 무시합시다. 나는 내가 료해한 한가지 사실을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붕락구간을 매번 우회했습니다. 그건 참모장동무가 한 일이니까 잘 알테지요. 내가 말하자는건 공사를 질질 끌어 온 리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철범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가 무척 괴로왔다. 첫 순간에는 그 이야기가 전호진에게 일정한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전호진은 그 감동으로써도 자기가 납득하지 못했다는것을 의식하였다. 심리적장벽이 극복할수 없이 막아 서서 그 어떤 론거도 받아 들일수 없게 하였다.

전호진은 철두철미 군인이였다. 이전에 전투구분대에서 려단을 지휘할 때도 감정적인 측면을 그는 항상 뒤로 밀어 치우군 하였다. 그는 지금 심철범이 우회로를 택했다가 부대의 기동시간을 어긴것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할가봐 걱정하고 있다는것을 뜨겁게 느끼였다. 전호진은 심철범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임명하신 공사의 총 지휘관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그는 상급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기간의 실천공사의 경험에 의하여 얻어 진 타산이 있었다. 공사에서 기본이 안전성이라는것이였다. 바로 이것이 정치위원도 편들어 준 심철범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게 하는것이였다.

《더 말씀할게 없습니까?》

전호진은 일어 서려고 물었다.

심철범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다.

《있소. 참모장동무, 이걸 보시오.》

그는 메고 있던 전투가방에서 그림을 그린 종이장을 꺼내들고 전호진앞으로 다가가 맨바닥에 펼쳐 놓았다. 그 종이장에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굴진갱도의 단면과 푸른 선으로 표시된 아치시공

과 측면시공도면이 그려 져 있었다.
심철범은 얼굴을 쳐들지 않았지만 전호진이가 자기 등뒤에서 들여다 보고 있다는것을 느끼고 손가락으로 종이를 짚으며 말했다.
《붕락개소에 철근으로 아치를 들이고 먼저 시공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할수 있지요.》
전호진은 아직 심철범이 묻는 의도를 알수 없어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치시공은 굴진에서 흔히 쓰는 공법입니다. 물론 동무가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이 공법이 붕락으로 오는 인명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방도로 될수 있다는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 말입니까?》
전호진이 문득 물었다.
《아치시공을 하기만 하면 붕락을 미리 막을수 있다는데 대해서 말입니다.》
《그럴수도 있지요. 그러나 붕락개소는 타입공간이 너무 넓단 말입니다. 그 넓은 공간을 무엇으로 메꾼단 말입니까?》
전호진은 도면에서 눈을 뗐다.
심철범은 자기 말이 이가 들지 않았다는것을 느꼈으나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계속했다.
《이중으로 떨어 지는 붕락이 그걸 메꿀것입니다. 바위가 부서 질 때 용적이 늘어 난다는것을 상기해 보시오.》
《중장동지.》 전호진은 견결하게 말했다. 《나는 중장동지의 의견에 정말 동의할수 없습니다. 지나친 모험이란 말입니다. 철근아치가 이중으로 떨어 지는 그 붕락의 무게를 당할수 없습니다. 그건 아직 누구도 시험해 보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까? 한두번 시험해서 성공했다고 봅시다. 그 성공을 믿고 우리는 모험을 할수 없습니다. 모험의 결과를 책임질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것이기때문입니다. 지난 날의 경험이 그걸 보여 줍니다. 10년간 낸 희생만 해도 그런데… 전 반댑니다.》
이때 쿵 하는 폭음과도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바

람과 함께 돌가루가 휴계실로 쓸어 들어 와 두사람에게 들씌워 졌다. 이미 붕락된 개소가 이중으로 붕락된것이다.

그들은 바위처럼 굳어 졌다.

달려 가 보지 않아도 그들은 붕락의 크기를 눈앞에 그려 볼수 있었다. 적어도 열톤짜리 대형화물자동차 두대를 겹쳐 놓을만 한 공간이 굴천정에 생겼을것이였다.

두사람은 까딱 움직이지 않고 각기 자기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게 하고 낮시간에도 잊어 버릴수 없었던 문제,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한순간도 그들의 머리에서 떠난적이 없었던 하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0026호 명령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의견을 끝내 하나로 합치지 못하게 하였다.

드디여 심철범이 자리에서 일어 났다. 이야기가 끝났다는것을 알리는것이였다. 전호진은 알릴락말락하게 한숨을 내쉬였다.

《돌아 갈만 합니까？》

심철범이 나직이 대답했다.

《어서 가보시오.》

그러나 그들은 같이 걸어 갔다.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오직 하나 갱도밖에 없었던것이다. 기본갱을 한참 가다가 작업갱으로 올라가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긴 시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지휘처로 각기 방향을 꺾게 되였을 때 심철범의 목소리가 울렸다.

《잠간만！》

전호진이 돌아 보았다.

《내 말이 납득되지 않은것 같은데？》

심철범의 목소리에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미안해 하는 어조가 느껴 졌다.

《납득이 안됩니다, 중장동지.》

전호진이 견결히 대답했다.

《할수 없지.》 심철범은 날카롭게 말했다. 《가보시오.》

그리고 전호진이 자리를 뜨기전에 먼저 걸어 갔다.

붕락이 있은 19갱에서 작업이 중단된채 또 하루의 캄캄한 밤이 닥쳐 왔다.

그 밤 심철범의 사무실에서는 관리국관하의 각 부대,지원부대의 지휘관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 전호진은 사정이 생겨서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심철범은 더 따지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붕락구간을 직선돌파할데 대한 명령을 전례대로 현장지휘관인 참모장 전호진이 아니라 심철범이 내리게 되였다.

《자,시작합시다. 동무들!》 심철범이 방금 일어 서서 명령서가 찍힌 서류를 펼쳐 드는데 손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더니 리완수가 들어 섰다.

그는 사람들의 의아해 하는 눈길이 자기에게 쏠린것도 개의치 않고 곧장 심철범의 책상앞으로 걸어 가서 흥분한 어조로 귀속말을 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서 사람들도 몇마디를 가려 들을수 있었다.

그것은 《새 명령서하달을 보류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잠간 저의 방으로 가십시다.》라는 소리였다.

《잠간.》 하고 심철범은 지휘관들에게 량해를 구하고 리완수를 따라 그의 방으로 나갔다.

리완수는 방금 심철범의 방에서 귀속말을 하던 때와는 달리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참모장동무는 자기의 의견을 총정치국대표를 통해 최고사령부에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철범의 얼굴이 대번에 상기되였다. 그는 침울하게 물었다.

《그래서요?》

《저는 동의하였습니다.》 하고 리완수는 말했다.

《우리모두는 절대적으로 완성된 지휘관들은 아니니까요. 그의 제의는 틀림없이 최고사령관동지앞으로 들어 갈것입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심철범이 입을 열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정치위원동무는 왜 나의 의견을 지지했습니까?》

《지금은 자폭정신, 육탄정신이 필요할 때이니까요!》

심철범은 더 묻지 않았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13

우리 인민의 현대 혁명력사에서 류례 없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5년의 나날 세계 대다수 대중보도수단들은 조선의 종말을 기정사실로 공포하고 있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자기들의 장래운명을 점쳐 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세계의 진보적인류를 더욱 놀래울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언론들의 파장과 지면들에는 이때까지 극비에 붙여 지고 있던 대조선정책자료들이 실리게 되였다.

불과 한두달전 미중앙정보국 밀실에서 있은 보브 돌을 비롯한 강경보수세력의 중추적인물들의 비밀모의와 관련한 보도도 이미 세상에 공개되였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세계반동들은 승리에 완전히 도취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을 건질 힘은 이 세상에 없을것 같았다.

미국의 암시를 받은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통합한 후의 《정치구조》를 짜느라고 병합된 도이췰란드에 비밀리에 이른바 《모사진》을 파견하였으며 우리 지역에 파견할 《도지사》임명놀음까지 새로 벌리였다. 《조미기본합의문》 채택후 우리 나라와 거래를 시작하려던 외국의 투자가들은 모두 엉거주춤해 버렸다.

한두해가 지나서 자기들의 패배가 명백해 진 때 미국의 강경보수집단의 기본두뇌라고 하는 카네디 기금 상급연구사 호케르는 《뉴욕 타임스》지에 낸 글에서 《우리가 믿은것은 북조선을 휩쓸게 될 기아와 함께 **김일성**주석이 **김정일**령도자에게 넘겨 준 간부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되여 있었다.》라고

고백하였다. 호케르의 그 고백은 무근거한것이 아니였다. 왜냐하면 강경보수세력의 두목인 보브 돌은 비밀모의들에서 《북조선의 당정치국, 비서국 성원중의 대다수가 70살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의 생리적수명이 끝나게 되면 **김정일**령도자는 더는 믿음직한 측근세력을 가지지 못할것이다.》라고 흰소리를 쳤던것이다.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던 1995년의 나날, 원쑤들이 《북침》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며 흰기를 들라고 포성으로 위협하고 식량을 실은 배들을 동서해에 정박하여 놓고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며 포성 없는 현대판 포함외교를 들이대고 있던 그 나날에 세계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미국의 승리만을 전하였다.

보도들에서는 열손가락에도 안들 변절자들의 이름이 렬거되고 홍수에 밀려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간 사람들의 수자까지 합쳐 굉장히 떠들어 대고 있었으며 식량공급소들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수자를 밝히고 있었다. 그때의 보도들에는 공장, 기업소들과 매개 가정들에서 자체로 살아 나가기 위해 애 쓰면서 사회주의국가를 도와 나선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허리띠를 조이는 속에서도 유치원과 학교, 병원들이 문을 닫지 않고 있으며 고령의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매 가정들을 찾아 다니며 밥가마도 열어 보고 싸가지고 간 점심밥도 나누어 먹으며 늙은이들에게 담배를 권하고 지난 날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무해 준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때의 보도들은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이 금릉2동굴과 청류다리(2단계)건설, 평양—향산 관광도로건설에서 매일 눈 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더구나 세계굴지의 대규모 금강산발전소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어쨌든 적은 떠들어 댔으며 우리가 손을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995년 2월 25일 오진우가 사망하였다.

그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적들은 조의식장과 영결식장에 나오신 **김정일**동지께서 슬픔에 잠겨 안경을 벗어 들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화면이

조선중앙텔레비죤에 비쳐 지자 환성을 올렸다. 오진우를 전 세대의 대표자로 여기고 있던 그들은 그의 서거를 저들이 바라고 있던 사변의 서곡으로 여기였던것이다. 틀림없이 **김정일**령도자에게는 무서운 타격으로 될것이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기둥이 뽑히게 되고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에게도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것이다. 집권이후의 그의 정치신념인 계승에 바늘구멍만 한 짬이라도 생겨라! 적들은 그것을 학수고대하며 또 믿었다.

그러나 그이의 눈물을 전혀 다르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 나는 사건들을 꼬박꼬박 일기에 적어 넣고 있던 이전 쏘련원수 드미뜨리 야조브는 조선중앙텔레비죤에 비쳐진 화면을 보고 이렇게 썼었다.

《그이의 눈물은 순수한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의 죽음을 두고 그 어떤 리해관계를 가지고 우는것이 아니라 본능인 모성애로 우는것이다. 19세기 로씨야의 평론가 벨린스끼는 눈물을 리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허나 오늘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신것은 아니다.》 후날 **김정일**동지의 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가 나왔을 때 그 일기 여백에다 다음과 같이 더 써넣었다.

《미국량반들은 혁명선배들에 대한 그이의 도덕의리를 보지 못했단 말인가. 그들이 청맹과니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다. 반공광증에 미쳐난 그들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외면했던것이다.》

오진우가 운명하기 몇시간전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진우의 살이 다 빠져서 앙상해 진 손을 잡으시였다. 그러자 생명의 전류라도 흘러 든듯 그는 의식을 차리였다.

그의 입에서 알릴듯말듯 이런 소리가 흘러 나왔다.

《…고… 맙습… 니다…》

무엇이 고맙다는지 앞뒤가 없어서 알아 들을수 없는 소리였다. 침상곁에 둘러 선 사람들, 총참모장 최광도 오진우의 부관도 담당의사도 낮이나 밤이나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던 딸도 그 소리를 장군님께서 자기를 찾아 주시여 고맙다는 뜻으로 짐작할뿐이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만은 앞뒤가 없는 그 외마디소리의 뒤 대사를 정확하게 그리고 감명 깊게 느끼고 계시였다.

바로 그 몇시간전에도 **김정일**동지께서 오진우를 찾으시였었다. 오진우가 의식을 잃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오진우는 자기 손이 차지만 마지막으로 잡아 보자고 하면서 **김정일**동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때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였다. 그는 그 말씀을 올리면서 두가지 이야기 즉 나이가 든 최중권상장을 제대시키지 않고 군부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한데 대해서와 금강산발전소건설을 계속 하기로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에 힘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걱정 마십시오. 원수동지,최중권상장을 우리가 잘 돌봐 주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발전소도 념려 마십시오!》

오진우의 두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관자노리를 타고 흘러 내렸다. 맥이 진한 그는 그것으로써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하였다.

그러나 이 순간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목소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목소리,우렁우렁하면서도 부드럽고 자애 깊은 목소리를 들으시였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목소리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10년전 일이 펼쳐 졌다.

오진우는 뜻밖의 사고로 중태에 빠지였다.

급보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 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참 망연자실하여 서계시였다.

수령님께서도 병원으로 찾아 오시였다. 그 어떤 일에도 락담을 모르시던 수령님께서 머리를 흔드시며 숱한 싸움판에서도 죽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죽다니 하고 비통하게 말씀하시였다.

이 순간 **김정일**동지께서 의사들앞에 나서시였다.

《마음 놓고 수술칼을 대시오! 환자가 인민무력부장이란 사실을 잊어야 합니다. 립회는 내가 서겠소!》

수술이 진행되였다. 그것은 째고 붙이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인체의 모든 기관을 새로 만들어 낸것과도 같은 기적적인 창조였다.

그 기적이 어디서 온것인가를 잘 아시는 수령님께서 **김정일**동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였다.

《고맙소!》

그후 쏘련군대의 원수병원에서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오진우를 비행장에서 맞이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완쾌된 몸을 보자 너무 기쁘시여 어서 **김정일**동지에게 귀를 잡고 절을 하라고 하시면서 크게 웃으시다가 《**김정일**동무, 고맙소. 정말 고맙소. …》 하고 목이 메여 말씀하시였다.

그 오진우가 끝내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 돌아 와 몇시간후에 병원 원장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래도록 어깨를 들먹이시였다.

너무도 긴 시간 찾지 않는것을 이상히 여겨 곽무선이 슬며시 집무실로 들어 갔다가 가슴이 섬찟하게 놀랐다. 그이의 두눈은 시뻘겋게 충혈되고 집무탁우에는 으스러지게 틀어 쥐여서 부러진것이 분명한 마찌크가 놓여 있었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혁명선배를 존대할데 대한 그이의 로작을 야조브가 일기에 쓴것처럼 결코 외면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그 로작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을 주어 구절구절 파보았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데 혈안이 된 그들은 아전인수격의 판단 즉 그것을 전 세대가 끝나 가는데 대한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속단하였다. 물론 혁명선배인 전 세대는 **김정일**동지께서 의거하고 계시는 큰 기둥이였다. 오진우의 경우는 그이의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오진우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신 일이 있는데 그때 그는 오른쪽에 서라는 그이의 말씀을 마다하고 왼쪽에 서면서 말하였다.

《저는 장군님의 왼쪽팔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무력부장동지는 나의 오른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오른쪽에 세우고 사진을 찍으시였다.

1974년 우리 당 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였던 정치국회의에서는 **김정일**동지를 정치국위원으로 추대하였다.

그날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였다가 집으로 돌아 온 오진우는 밖

에서 벌어 지는 일체의 사실을 나타내지 않던 전례를 깨뜨리고 《됐다！ 이젠 됐다！》라고 하면서 이날 있었던 일을 발설함으로써 가족들을 깜짝 놀래웠다.

이런 오진우를 잃은것은 그이께 있어서 만회할수 없는 손실인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나무는 죽어도 서 있는다고 오진우를 포함한 전세대는 끝나도 귀중한 혁명정신을 남기는것이다.

오진우는 림종때에 1211고지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 인민군대안에서 몇명 남지 않은 전쟁로병들을 부탁하였고 자기가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해온 금강산발전소건설을 걱정하였다. 미사려구를 모르고 작전도에 화살을 그어 가듯이 실천적인 말만을 하는데 습관된 그의 이 당부는 단순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후대들이 전통과 계승으로 살며 전통과 계승으로 승리하라는 전세대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미 깊은 조언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와의 영결식이 끝나고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내려 오는 즉시 장례식에 참가하였던 각 군종, 병종 사령관들과 군부대사령관들을 최고사령부의 회의실에 부르시였다.

회의장에 들어 와 앉은 장령들은 그이께서 나오시기를 긴장하게 기다리였다. 그들은 최근 미국에서 전회계년도보다 1.8프로 더 많은 군사비지출이 강경보수파 의원들의 주장대로 비준되였으며 뉴욕에서 경수로제공실무회담이 중단되고 미, 일, 남조선사이에 동방의 《나토》라고도 할수 있는 3각군사동맹이 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드디여 **김정일**동지께서 최광차수를 데리고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그이와 나란히 앉았던 최광이 그이께서 넘겨 주는 타자친 종이장을 받아 들고 천천히 걸어서 연탁앞에 나섰다. 그는 젊은 시절의 쟁쟁한 목소리를 되살리려고 애 쓰면서 최고사령관명령서를 대독하였다. 그것은 조선인민군 각 군종, 병종 군부대들이 금강산발전소건설장의 중요구간들을 하나씩 맡아서 해제낄데 대한 명령이였다. 모든 장령들이 이 뜻밖의 명령에 어리둥절해 지기도 하고 의아해 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무력부장의 장의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다가 회의에 참가한 심철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회의장

에 들어 오면서 정세를 우려했고 솔직히 공사의 운명도 생각했다. 그런데 일은 정 반대로 되였다. 그는 명령서를 접하고 나서 공사에 대한 자신의 립장이 아직도 철저하지 못하며 동요가 있다는것을 의식하였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한번 내리신 결심을 무조건 관철해 나가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의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의지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그이께서 매일,매 순간 서거하신 수령님과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혁명선배들의 유언을 하루 한시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최광의 명령랑독이 끝나자 **김정일**동지께서 마이크를 앞으로 끄당겨 놓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이 공사는 수령님의 유훈입니다. 동무들이 금방 장의식에 참가하였지만 오진우동지는 그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정세를 운운할건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가도 달려 나가 답새기면 됩니다. 그만합시다!》

금강산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낼것을 결심하시면서 이미 그이께서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시였었다. 이것은 공사지휘를 새로 맡게 된 심철범장령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피력이였다.

당시로서는 가능한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공사는 고사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자체가 문제로 되고 있던 때였다. 몇해가 지나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전변되여 공사도 완공되고 사회주의의 운명도 수호되였을 때에야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근저에 령도자의 신념과 의지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아직은 누구도 그것을 모르고들 있었다.

사람들은 최중권과 심철범의 갑작스런 교체를 두고 공사지휘의 《능력》을 론했고 지어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신임도를 운운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자신들도 그러루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 자신께서는 이 인사변동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였다. 전쟁로병인 최중권장령은 전선동부에 필요해서 소환했고 심철범장령은 그의 후임으로 군사대학 최우등졸

업생인 젊은 장령이 배치됐기때문에 공사지휘로 돌려 놓았을뿐이다. 이 인사교체에서 류의한 점이 있다면 그들의 경력을 다시 좀 알아 보신것이였다.

그것도 최중권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에 대해서만 알아 보시였는데 그에 의하면 8남매의 자녀들이 매달려 있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이래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였다. 간부일군이 그의 집으로 찾아 갔을 때 장령은 금방 아침상을 물리고 출근한 후여서 방안에 그가 받았던 아침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루에서 썰지 않은채 그대로 꺼내놓은 큼직한 강냉이빵 한덩이와 김치와 콩나물종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 보고를 받고 그와 식사를 함께 할 때마다 느끼군 했던 감정이 살아 나서 마음이 좋지 않으시였다. 그는 언제 봐도 쉐기밥이면 쉐기밥,강냉이국수면 강냉이국수 가리지 않고 달게 들군 했던것이다.

심철범은 량강도 풍산내기였다. 풍산이라면 김형권동지와 김정숙동지의 활동지역으로서 항일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던 고장이였다. 강건너에서 울려 오는 항일의 총소리를 들으며 자란 그는 열혈청년이 되자 총을 잡을것을 열망했다. 그의 이 열망은 광복후에 이루어 졌다. 그는 보안간부훈련소를 거쳐 인민군대의 지휘관이 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부 련락군관으로 하루에도 수십수백리를 그야말로 갈범처럼 달리였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적후에 떨어 졌던 그는 단신으로 사선을 넘어 최고사령부가 자리 잡은 고산진으로 찾아 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키가 작고 애티가 나는 그를 매우 용맹하다고 하면서 품에 안고 어깨를 쓸어 주시였다. 수령님의 관심속에 련대,사단의 책임적인 작전일군으로 자랐으며 군부대 참모장이라는 장령급의 중책을 맡게 되였다. 그는 근 20년간 이 중책에 있으면서 부대관리와 방어축성물구축,지휘관들의 작전지휘능력을 높이는데 특출한 실력을 보여 주었다.

그의 경력에는 재미나는 일화도 있어 **김정일**동지께서는 혼자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는 귀밀밥만 먹다가 입대한 그가 무드기 담긴 흰 쌀밥그릇을 보자 《야,흰 쌀밥이다！》

하고 소리쳐서 식사대렬을 웃기였다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소위의 군사칭호를 받던 때의 이야기였다.

그는 열여덟살에 소위로 되였는데 하늘을 날것만치나 기뻤다. 간부부에 불리워 가서 새끼별 하나가 박힌 금빛 령장을 타가지고 나온 그는 한시가 급해서 중대로 돌아 오던 도중 강냉이밭속에 들어 가서 그것을 어깨에 달고 나왔다는것이였다. 웃음속에 이러한 사실을 읽어 가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극히 최근의 생활자료 하나에 깊이 류의하시였다. 자기 차 운전사를 두명이나 연거퍼 갈아 치웠다는것이다. 찌링그에 뭘 좀 실어서 사택으로 가져 갔다는것이 리유였다. 심철범은 《수만대군을 먹여 살릴 책임을 지고 있는 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날 뭘로 만들자는거야?》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그의 집생활은 같은 풍산내기인 부인이 터밭농사를 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생활비와 식권을 내놓는 법이 없기때문이였다. 노상 관하부대에 내려 가 사는 심철범은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어김없이 식권을 떼놓았다. 그것도 실지 소비한 끼수보다 여러장씩 더 내놓군 하였다. 그러니 집에 내놓을 식권이 있을리 없었다.

그의 집에 평양에 사는 유치원또래의 손자애가 와 있었는데 솜저고리의 팔꿈치와 신발을 기워 신고 다니였다. 사택마을의 아이들이 《야, 〈꽃제비〉가 왔구나!》 하고 놀려 주어 본의 아니게 애를 울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놓고 해당일군들은 최중권이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생활이 청렴결백하다.》라는 한마디를 달아 놓았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령군체계가 확고히 섰다.》든가 《군사과업수행에 무한히 충실하다.》는 평정보다 그 한마디를 더 무겁게 여기였고 그것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믿음이 더해 지시였다. 이 어려운 때 장령들이라고 특전을 바라지 않고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들이야말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운명을 같이 할 참다운 동지들이 아닌가! 최중권이나 심철범을 옮겨 놓으면서 그들의 경력을 알아 본것은 단지 미더운 동지들에 대하여 더 깊이 알자는데 목적이 있었을뿐이였다. 인민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일당백인것처럼 모든 지휘관들 역시 그러하였다.

그이께서 보건대 특히 그들의 생활은 눈물겹도록 청렴하고 결백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사들의 병영은 달라진것이 많지만 지휘부건물들만은 그렇지 못했다.

최중권이 새로 가게 된 군부대만 해도 그 지휘부건물이 1960년대에 지은 낡은 건물이였고 대장이라는 가장 높은 급의 장령이 들게 될 (최중권은 군부대 사령관으로 발령 받으면서 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 받았다.) 그의 방에는 그 시기에 만든 책상과 투박한 철궤가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나무문틀에는 부대자체로 만든 불투명한 유리가 끼여 있었다. 그가 들 사택은 그때에 지은 목조건물,소박한 서너칸짜리 단층이였다. 이러한 집에서 이름 있는 장령들이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사생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실상 그들의 집은 전사들의 땀내가 나는 병실이였고 지휘처는 전호속이였다. 사무실에서만 맴도는 평양의 책상주의자들이 인민군지휘관들의 이 생활기풍,투쟁기풍을 따라 배워야 할것이였다. 당일군도 행정경제일군도 누구나가 다… 그리하여 온 사회를 정예화,강군화해야 할것이였다.

선군정치를 펼쳐 갈 결심이신 **김정일**동지의 군대의 모든 장병들에 대한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였다. 이것은 그이의 온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 진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터진 날 한낮에 **김정일**동지께서는 내각청사옥상에 올라 가시였다. 거기에는 몇명의 인민군전사들이 쌍신고사총 한대를 걸어 놓고 있었다. 그것이 정부청사를 지키는 대공무력의 전부였다. 하지만 무섭지 않으시였다. 어리신 그이의 귀전에는 그날 새벽 미제침략군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개시했다는 내무상의 전화를 받고 《미국놈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을 잘못 보았소.》라고 하신 수령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틀후에는 청소한 우리의 항공대가 황주계선으로 날아 들던 미제의 《하늘의 요새》라는 《B—29》를 격추하였다. 그 비행기를 떨군것이 나어린 비행사였다. 그는 자기의 비행기가 변변치 않아 남의 비행기를 빌려 타고 올라 가 그처럼 장한 일을 하였다. 련이어 인민군대의 서울해방,주문진앞바다에서 미제의 중순양함 격침,

어느날엔가는 새로 개발한 미제의 직승기를 나포하였다. 청소한 인민군대였지만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한것이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정규무력건설을 기념하여 진행된 첫 열병식을 눈앞에 그려 보며 그 위력의 원천에 대하여 생각하시였다.

열병광장에서 터져 오르던 《**김일성**장군 만세!》의 함성, 그것은 항일의 전통을 이어 받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힘 있는 시위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조선인민군창건 60돐에 최대규모의 력사적인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최고사령관이 되시여 처음으로 진행된 이 열병식은 수령님으로부터 일체 무력을 인계 받으시는 이관식이기도 했다. 여기서도 기본정신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였다.

같은 날 금강산발전소건설장 지하갱도에서도 하나의 이채로운 열병식이 있었다. 앞뒤가 붕락으로 막힌 한키로메터 구간에는 한개의 련대가 갇혀 있었는데 밖으로 나올수 없었던 그들은 평양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을 시청할수 없었다. 련대지휘부에서는 토의끝에 평양과 같은 시각에 자체로 열병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열병대오를 편성하였다. 중대마다 광차를 앞세우고 기수가 붉은 기발을 들고 그우에 섰다. 총대신에 착암기와 정대, 함마를 어깨에 멨다. 련대에 와 있던 군부대 선전대원들이 취주악을 울리고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칼날 같은 청돌이 깔린 갱도바닥을 쾅쾅 밟으며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갔다. 공기가 희박한 갱내는 숨이 헉헉 막히였으나 아랑곳없이 《결사옹위》, 《결사관철》이라는 구호를 웨치였다. 광차 몇개를 맞붙여 놓고 널판을 깐 《주석단》우에 서 있던 련대장과 정치위원이 열병대오를 축하하였다. 지휘관들은 손을 들어 건군절을 맞는 그들을 축하해 주고 그들자신이 고동구호를 웨치였다.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 그러면 《주석단》앞을 지나는 대오가 그 구호를 받아 웨쳤다. 이렇게 행진을 한 대오는 곧장 작업장으로 향하였다. 그리고는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를 하였다. 쾅쾅! 하는 폭발소리는 그대로 《축포》소리였다. 격동된 군인들의 입에서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한 오중흡7련대를 따라 배우자!》는 웨침소리가 울려 나왔으며 어떤 군인들은 자기 련대를 오중흡7련대

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기도 하였다. 그후 전군에 《오중흡7련대쟁취운동》의 불길이 일어 났는데 이들의 련대가 그 선구자들중의 한개 련대로 된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렇게 전군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나래치게 되였으며 이것은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지주로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믿으신것은 인민군대의 이 정신이였으며 이 정신이 선발된 한두 군인들속에서가 아니라 대중적인것으로 되리라는데 대하여 믿어 의심치 않으시였다.

이러한 믿음은 1990년대에 들어 와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였다.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전사들을 구원한 90년대의 첫 영웅 김광철, 수령님의 초상화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속에 뛰여 든 전사, 구호나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몸이 그대로 숯덩이가 된 수십명의 군인영웅들의 자폭정신, 육탄정신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비행사였던 길영조는 불 붙는 비행기에서 탈출만 하였더라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지만 자폭으로써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영웅들의 정신이 오늘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바로 대중적인 영웅주의로 되고 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여 온 나라를 들끓게 하려는 자신의 전략적의도가 백번 가능하며 반드시 현실로 되리라는데 대하여 믿어 의심치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명령서하달을 끝내고 심철범을 따로 만나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를 믿는다고 고무해 주시였다.

집무실로 돌아 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잠시 쉬시려고 앉았던 창결의 쏘파에서 일어 나 집무탁우에 놓여 있는 몇건의 문건중에서 하나를 집어 드시였다. 그것은 총정치국에서 올려 온 지휘관들의 당생활자료를 묶은것이였는데 그이께서는 이미 한번 보고 접어 놓은듯 한 페지를 펼쳐 드시였다.

이해의 첫날 자신에게 큰 고무를 주었던 김동환의 당생활자료가 주목되여 다시 읽으시였다. 문건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김동환은 자기 아들이 입대한지는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지만 군복을

입은 이상 비겁하게 행동한것은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 책임은 어려서부터 아들의 의지를 단련시켜 주지 못한 자기에게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대책적의견으로 총정치국은 신입병사들의 의지단련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겠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동환의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드시였다. (약자를 강자로 만들면 되는것이지.)라고 마음속으로 뇌이시며…

잠시후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예술극장으로 가시였다.

《고난의 행군》과 함께 독자적인 정예단으로 탄생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당시)은 돌격의 나팔수가 되여 준엄한 영웅적돌파전에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의 공연을 한번 보고 나면 적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들부시며 한바탕 불을 토하는 군단포의 세찬 포성을 듣는것처럼 심장이 쿵쿵 뛰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늦은 밤이였다.

그러나 합창단의 전체 성원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고 새로 나온 노래를 련습하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객석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귀 기울이시였다.

우리가 틀어 잡은 총검마다엔
장군님 보위해 갈 맹세가 비꼈다
…

14

김동환의 당생활자료는 여러부로 복사되여 인민무력부문의 책임적인 장령들에게 배포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료원본을 서기실에 넘기면서 배포대상을 한사람 한사람 찍어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는 응접실로 두사람의 장령이 들어섰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의 장령들인 오기철과 리국현이였다. 뒤따라 조선인민경비대 리길남장령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인 리웅걸이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사본을 받아 본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리웅걸이를 내놓고는 그 누구도 이 부름이 그 자료와 관련되여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자료를 가볍게 취급해서가 아니였다. 그들은 자료를 보는 순간 인민군대안에서 비록 신입병사 한명에게 한한 문제이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데 대해 총정치국과 총참모부의 책임일군으로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였고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심려의 말씀이 있으리라고 보았다. 인민경비대를 관할하고 있는 리길남장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인민경비대도 어려운 공사를 맡아 하고 있으며 어느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다 큰 문제,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리고 결론을 받아야 할 긴급하고도 무거운 문제들이 있었다. 이 부름이 없었더라도 이러한 문제로 하여 그들은 그이께 접견요청을 하였을것이였다.

사실 응접실의 문지방을 넘어 서기전까지 그들은 부름을 받은것이 자기 혼자이며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 부문에서 제기된 긴급한 문제때문에 찾으신것으로 여기고 그 문제만을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문제는 매 사람에게서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들은 곽무선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리로 떠나기까지의 짧은 시간에 많은 문건을 준비하였다. 례컨대 오기철장령이 준비해 가지고 온 서류철에는 적어도 몇가지 중요한 문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문건은 전연지대에서 우리 군대에 대한 적들의 교란작전과 관련한 보고였다. 적들이 우리측지역에 삐라를 비롯한 각종 유인물을 들여 보낸다는것은 이미 놀라운 일이 아니였다. 놈들은 수십년동안 그 놀음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더욱 발광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놈들은 우리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것을 알고 식료품을 들여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도 순수한 식료품이 아니였다. 사탕과 과자, 빵, 쌀, 고추장 등에 세균과 독성물질을 발라서 기구로 여기저기에 떨구었다. 피해를 본것은 우리 군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방목하고 있던 소들이였다. 덩지 큰 짐승이 그 자리에서 펑펑 쓰러지거나 며칠 지나서 네다리가 까드라 들고 눈알이 튀여 나오며 형체가 보기도 끔찍하게 돼가다가 죽어 버리였다.

우리 군인들은 독뱀을 잡아 족치듯 맛스러운 그 식료품을 보는 족족 발로 짓뭉개고 구뎅이를 파고 묻어 버리던가 모아 놓고 불을 질렀다. 어떤 병사는 격분한 나머지 화염방사기까지 휘둘러 댔다. 그러자 놈들은 이번에는 독뱀을 수백, 수천마리씩 상자에 넣어 들여 보냈다. 뱀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풀을 뜯어 먹은 소들이 또 죽어 넘어 졌다. 독뱀에 방사성물질을 묻혀 들여 보냈던것이다. 우리 군인들은 눈에 불이 일어 펄펄 뛰면서 독뱀을 찾는 족족 때려 잡아 치웠다. 그러나 놈들은 집요하게 그 놀음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우리 군대를 정신적으로 말살하려다가 안되니 육체적으로 말살하려고 날뛰는것이였다.

며칠전에 있은 일이였다.

전연지대의 깊은 산중에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순찰중에 있던 군인 하나가 그 소리를 좇아 가보니 이제 겨우 걸음마를 타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혼자서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어찌나 겁에 질려 있었던지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순찰병을 보자 와락 안기며 품에 파고 들었다. 순찰병은 어린애가 너무도 애처롭고 불쌍하여 전후사연을 따져 볼 사이 없이 병실로 안고 왔다.

경각성 높은 지휘관이 지난 밤에 공중에서 아이울음소리가 들렸던 사실을 상기하고 곧 화학병들을 불러 아이의 몸을 검측해 보았다. 놈들이 락하산으로 떨군 아이는 방사능덩어리였다. 아이와 순찰병은 전문병원으로 후송되였다.

놈들이 우리 병사들의 인정을 약한 고리로 보고 흉계를 꾸민것이였다. 후안무치한 행위였다.

성미가 조용한 편인 오기철은 이 보고를 받고는 노발대발하여

책상을 쳤다.

《개놈들！》

그는 놈들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인정하고 대응책을 취하기로 결심하였다. 지금 그의 서류철에는 그와 관련한 무력부 대변인 담화초안도 들어 있었다.

참모일군인 리국현은 긴급한 군사문제들을 가지고 왔다. 그가 준비한것은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제공을 위한 실무회담의 지연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력의 일환임을 증명하는 자료, 미, 일, 남조선의 군사적결탁과 일본의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개입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 금강산발전소건설에 추가로 부대들을 동원한것과 관련하여 전투서렬을 재정비한데 대한 보고 등이였다.

그는 이러한 보고를 서면으로 준비한외에 한가지 문제만은 구두로 직접 보고 드리기로 하였다. 그것은 적들이 무인조종정찰기와 군사위성을 통한 우리 전연지대에 대한 정찰을 비상히 강화한 반면에 일체 군사적도발을 중지한데서 오는 분계선상의 이상한 정적이였다. 놈들이 저들무력의 실전배비상태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정찰국의 보고와 우리에 대한 교란작전으로 심리적압박을 계속하면서도 군사적도발만은 중지한것을 보면 그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고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는 이 문제를 오기철과 협의했으며 최고사령관동지께 직접 말씀 올리기로 작정하였다.

또한 그는 부모형제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것과 관련한 군인들의 반영도 구두로 보고 드리기로 하였다. 부모형제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아들딸들인 병사들이 더 참을수 있는가！ 병사들의 총은 막대기가 아니다！ 그들은 적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웅웅거리고 있었다.

오랜 군인인 리국현도 그들과 같은 심정이였다. 그는 그자신이 보총을 틀어 잡았던 병사시절의 혈기가 살아 나서 참을수 없었다. 그 혈기대로 할수만 있다면 먼저 총성을 울려 전연지대의 숨막히는 고요를 깨뜨려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과 충동을 활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름을 받고 오는 그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전호진의 통보를 이미 그이께 서면으로 올렸다는 사실이였다. 그에 대한 결론을 받아야 하는것이다.

리길남이 가지고 온것은 금릉2동굴과 청류다리2단계, 평양—향산 관광도로건설과 관련한 보고인가? 아니다. 한시가 바쁘게 보고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는 그 보고를 단독으로 해야 했다. 경비대가 이동작업에 나가 있는 북부국경일대에서 밀출입자들을 단속했는데 그들속에 남조선 《정보원》의 첩자들이 끼여 있는것과 관련된 보고였다. 그 간첩들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 기여 든 놈들이였다. 이미 해당기관에 통보했지만 그는 이 문제를 그이께 직접 보고 드릴 필요를 느꼈던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무력의 지도급 인물들인 오기철과 리국현, 리길남은 한 병사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결코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지만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으로나 당장 발등에 떨어 진 불로는 보지 않고 있었다.

그들 세사람은 응접실에 들어 와서도 그리고 여기로 불리워 온것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며 그리하여 이제 론의될 문제가 자기의 직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전체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라는것이 명백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가 리응걸이 응접실로 들어 왔을 때에야 그들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고 곽무선의 안내를 받아 들어 온 심철범장령이 직속상관인 자기들에게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름을 받고 강원도현지에서 금방 올라 왔다는 도착보고를 했을 때는 모든것을 명백히 짐작할수 있었다.

그 문제로구나! 세사람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생각을 한곬으로 몰기 시작했다.

이때 **김정일**동지께서도 집무실에서 홍경봉부총리와 마주 앉아 그 문제를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총리로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한 식량실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시였다.

그에 의하면 적들이 떠들어 대는대로 나라에 식량위기가 닥쳐 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량을 조절한다 해도 몇달이라는 공백이 생길수 있었다. 이것은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주의적시책인 식량공급제도를 위협할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첫 순간에 느끼신것은 자연재해는 1994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였다. 단지 사람들이 피눈물속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수령님을 잃고 비통한 나머지 다 여문 곡식이 침수되고 수확량이 엄청나게 준데 대하여 누구도 관심을 두지 못하였을뿐이였다.

수해는 이해에만 아니라 전해에도 전전해에도 있었다. 그러나 농사가 잘 안된것이 수재에만 기인된것은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이 순간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은 물론 농민들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였다. 농촌에는 이미 이전의 《실농군》들이 없어 졌다. 대부분 농민들은 작두도 모르고 소철 씌우는 법도 모른다.

땅도 더 늘어 난것이 없고 농업인구는 이전보다 더 많아 졌는데 왜 농사는 점점 못해 지는가? 지금의 농민들은 뜨락또르와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바로 새 세대 농민들이다. 바로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렇다. 나라에 식량위기가 닥쳐 오고 그것이 기아로 전환될 위험성이 조성된 그때 그이께서 크게 생각하신것은 적들이 박아 놓은 한줌도 못되는 간첩무리가 아니였다. 미중앙정보국의 밀실에서 허리먼이 고문서를 들춰 내여 첩자들의 이름을 뒤지면서 날뛰였지만 그이께서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였다. 군사분계선에서 벌리고 있는 적들의 교란책동도, 조선반도유사시에 일본을 끌어 들이려는 막후교섭도, 대화의 막뒤에서 전쟁의 기회만을 노리면서 폭풍전야와도 같은 인위적인 정적을 조성하고 있는것도 결코 놀라운것은 아니였다.

세계가 물질문명을 자랑하던 20세기의 마지막년대들에 소금물에 통강냉이를 삶아 먹으면서 우리 인민이 진행한 전대미문의 《고

난의 행군》을 령도하시면서 **김정일**동지께서 믿으신것은 우리 인민과 그 아들딸들인 우리 군대였다. 군대와 그들의 부모이고 형제인 우리 인민은 결코 자기들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을것이였다. 그들은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맞받아 나갈것이며 견인불발의 의지력을 발휘할것이였다. 오늘의 《고난의 행군》은 적들과의 의지의 대결이였다. 의지만 있으면 살고 승리할수 있지만 의지를 잃으면 죽고 패망할수 있었다. 의지의 강자가 되자, 이것이 그이의 마음속의 웨침이였다.

그이께서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믿으시였고 그 의지에 의거하여 승리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였다.

이해 첫날에 김동환대좌로부터 얼마나 큰 신심과 고무를 받으시였던가.

며칠전 김동환의 자료를 보고 그이께서는 다시금 확신하시였다. 혁명의 오랜 세대는 문제 없었다. 문제는 새 세대에 있었다. 단련이 부족하고 우리의 혁명력사를 잘 모르는 그들속에서 오늘의 고난에 겁을 먹고 나약해 지는 현상이 지금은 김동환의 아들 하나에게서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더 나타날수 있다.

또 그것은 군인들에게만 한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렇다고 놀라지는 않으시였다. 다만 이 사실을 중시하시였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의지력을 키워 줄것인가?

지금 **김정일**동지께서는 홍경봉으로부터 나라에 조성된 어려운 식량형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도 미중앙정보국의 문건에 적혀있는 《북조선주민들은 더는 사회주의와 타협을 하지 않을것이다.》라는 구절을 되새기며 줄곧 그 생각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응접실로 나오시면서 이렇게 첫말을 떼시였다.

《그래, 생각들 해보았습니까? 동무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인들을 잘 키울수 있겠습니까?》

《…》

누구도 응대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자료때문에 자기들이 불리워 왔다는것을 안 때로부터 이 자리에서 그이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때문에 그이께서 흔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시자 안도의 숨부터 내쉬였다. 그러느라고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다만 심철범만은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방금전 콰무선으로부터 복사한 그 자료를 받았으나 한번 얼핏 읽어 보았을뿐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지 못하였다.

리웅걸은 긴 허리를 구부려 자세를 낮춘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질문이 자기에게 떨어 진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것이다. 그는 지난 밤 이 장령들보다 한발 앞서 그이를 만나 담화를 나누었다.

《사상은 저절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 받을수도 없구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장령들은 그이께서 자기들이 본 문건의 구절구절을 되뇌이신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이자신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적들의 뇌까림을 되새기고 계시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다시는 전 세대와 같은 지지세력을 가지지 못할것이다. 여기에 **김일성**주석 사후의 그의 고민이 있는것이다.》

《교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이의 갑자기 높아 진 목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그이께서는 돌연히 심철범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심철범동무, 들어 봅시다. 거기 일을…》

그리고 그이께서는 일어 서서 방 한가운데로 나서시더니 주단우를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심철범은 보고했다. 그의 보고는 역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였다. 군부대들과 군종, 병종사령부들에서 파견한 지원부대가 일에 달라붙기는 했으나 공사의 전진속도는 높지 못하며 그 원인이 붕락구간과 물주머니가 터지는 구간이 많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계와 기술수단들이 없는데 있다는것, 그렇지만 군인들은 0026호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보고한것이지만 19갱에서 김철종중대장과 몇명의 병사들이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친데 대하여 상기해 드리였다. 그리고 여기로 올라 오기전에 19갱에서 진행한 현장군정간부회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 드렸다. 그는 이 보고를 드리면서 몹시 긴장했다. 그이께서 전호진의 제의를 받아 들이고 그것을 결심하시였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는 우회에 대하여 아직도 못 마땅해 하고 있

었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를 부르신것이 바로 그 문제때문이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철범은 군인들의 정신상태를 보고 드리면서도 좀 주저하였다. 방금 본 그 자료가 그를 자신이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자료에서 이야기된 문제의 전사와 함께 온것이다.

바로 몇시간전 최고사령부 작전직일관은 전화로 그에게 최고사령부로 즉시 오되 관하구분대의 전사 김남철을 잊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심철범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전사의 소속이 어느 부대, 어느 중대인가고 물었으나 작전직일관은 모른다고 하였다. 심철범은 대렬부에 말하여 수만명 병사중에서 문제의 전사를 찾아 내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하였다.

그의 차는 다급하게 달리였다. 그는 승용차의 뒤자리에 꼿꼿이 허리를 펴고 긴장하게 앉아 있는 전사에게 몇마디 물어 보았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전사자신이 자기가 무슨 일로 최고사령부에 호출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어딘가 얼친 상태였다. 심철범은 무엇인가 짐작해 보려고 집이며 부모에 대하여 두루 물어 보았으나 왜서인지 전사는 우물우물할뿐이였다.

뜻밖에도 최고사령부에 도착하였을 때 심철범과 함께 전사도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안내되였다. 그 전사가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도 응접실로 불리워 들어 와서 **김정일**동지앞에 서게 될것이였다. 심철범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나약한 그 전사를 만나게 되면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의 정신상태가 좋다고 한 보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시겠는가?

심철범의 보고는 끝났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보시오!》 **김정일**동지께서 방 한가운데 멈춰 서신채 침묵을 깨치시였다. 《공사장은 말그대로 의지의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사를 적들과의 의지의 대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조선의 의지, 조선의 정신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방안을 걷기 시작하시였다.

《그런데 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군인들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

이란 말입니다. 인간이기때문에 힘들어 하고 동요도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인들을 의지의 강자로 키워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서운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처음에 하신 질문을 되풀이하시였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 질문을 자기들에게가 아니라 그이자신에게 하신것이라는것을 느끼였기때문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자리에 돌아 가 앉으시였다. 그리고 앞탁에 깍지 낀 팔을 대고 심철범을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그래 데리고 왔습니까?》

《옛!》

심철범의 목소리가 저으기 떨리였다. 그는 대답을 드리느라고 일어 선채 그이의 다음말씀을 기다리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다음 말씀을 그에게가 아니라 좌중을 향하여 하시였다.

《나는 공사장에서 병사 한명을 불러 왔습니다. 우리 그를 함께 만나봅시다. 심철범동무, 데려 오시오.》

심철범은 놀라는듯 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엄숙해 진듯 한 장령들의 눈길을 받으며 응접실의 출입문쪽으로 걸어 갔다.

심철범이 대기실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앉아 있는 전사를 데려오기까지는 불과 1분정도 걸리였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그는 가슴이 터질듯 한 흥분속에서 일생을 두고도 다하지 못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처음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숭고하고 거룩한 감정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와 같으신 세계적인 명장이 일개의 병사를 만나주시는것이다. 그것도 전호가나 야전지휘소가 아니라 집무실에서였다. 심철범은 이 감정이 어찌나 세차고 격렬했던지 숨이 턱에 닿아서 발이 어떻게 놓이는지도 몰랐다.

대기실에 들어 가 전사를 보자 그는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심려를 하시게 한 락오자에 대한 증오였다. 그러나 이 증오는 전사를 그이앞에 내세우기 위해 혁띠

를 꽉 조여 주고 바지춤에 들어 간 군복상의의 주름을 바로 잡아 주면서 갑자기 사랑의 감정으로 변했다. 심철범은 이 순간 그의 친 아버지가 된 자신을 의식하였던것이다. 그는 불안해 지기 시작하였다. 못난 자식이 또 무슨 걱정을 하시게 하지는 않을가?

항용 부모들은 시험장 같은데로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우점보다 결함을 더 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눈 먼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였다. 지금 심철범은 남철이를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내세우면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였다. 그래서 불안했다. 자료를 통해서 그가 집에서 쫓겨 난데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기 아버지앞에서처럼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도 망탕 아무말이나 하지 않겠는가?

이때 집무실에 앉아 전사가 들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오기철이나 리국현, 리길남은 물론 당중앙위원회 리웅걸이까지도 심철범과 같은 불안에 잠겨 있었다. …

×

심철범은 남철이를 앞세우고 뒤걸음 떨어 져서 응접실로 들어섰다.

방안에 흥분으로 하여 변한 남철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건강하십니까?》

심철범은 처음 몇초동안 그 인사를 자기가 드린것으로 느꼈다. 그다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슴을 쑥 내밀고 몸을 꼿꼿이 펴고 서 있는 남철이를 향해 오른손을 쳐드신것을 보고 긴장으로 하여 멈추었던 숨을 알리지 않게 내쉬였다. 남철은 옳게 인사를 드리였으며 그이께서 그 인사에 답례를 하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 쳐들었던 손을 내리우며 남철의 앞으로 쑥 내미시였다. 남철은 한발 나서며 주저함이 없이 자기 손을 마주 내밀었다.

그이의 손을 잡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이의 손이 매우 부드러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는 정 반대다. 하여 사람들은 그 손이 몹시 썩썩하고 억세다는데 놀란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에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 억센 손아귀의 힘에 잡히운 손뿐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끌려 든다는데 있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이의 친화력은 손에 있는것 같기도 했다.

심철범도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던가!

군부대의 참모부에서 그이의 손을 처음 잡아 보게 되고 그 억센 힘을 느끼는 순간 심철범은 그이께 대번에 끌려 들고 긴장감도 어려움도 한순간에 잊었었다.

지금 남철이도 그이께서 이끄시는대로 그이곁에 스스럼없이 앉아 있었다.

심철범은 마음이 놓였다. 방안에 있던 세명의 장령과 리웅걸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도 그이를 처음 뵙게 되는 전사가, 그것도 대렬을 리탈했던 전사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가 걱정했던 모양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을 돌려 손을 포개여 두무릎우에 올려 놓고 앉아 있는 남철이를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힘들지?》

남철은 당황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것이다.

심철범과 같은 차를 타고 평양길에 오를 때까지도 남철은 거의 자포자기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가닥 희망이 있었다면 마음을 돌린 아버지가 힘 써서 자기가 이 길에 오르지 않았을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가 간 곳은 해군사령부도 아니고 새로운 부대도 아니였다. 그는 당중앙위원회로 갔으며 그것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청사의 현관으로 들어 서게 되였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 가 버린 세계, 공사장에 다시 설 영광의 세계가 문득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끼였다. 자기 문제가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되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던 남철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된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두려운 세계였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대기실에 앉아서 다시 들어 설 그 세계에서 자기가 꽤 견디여 낼수 있을가를

가늠해 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머리가 공회전하는 기계처럼 빙빙 돌뿐이였다.

지금 그러한 남철이가 최고사령관동지곁에 앉아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몸을 돌린채 대답을 기다리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순간 남철은 자리에서 일어 섰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알고 있소.》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아래로 당겨 앉히며 크게 그 말씀을 반복하시였다.

《알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난 전사동무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오!》

이제는 남철에게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된것이 혹시 아버지와 관련되여 있지 않을가 했던 막연한 짐작이 명백해 졌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이 이런 상상할수 없는 자리에 와서 계산될줄은 몰랐다.

그는 이미 자기가 중대장을 속이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였던 사실을 깊은 수치감을 가지고 저주하고 있었다.

남철은 모든것을 솔직히 말씀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쳐들었다.

《힘듭니다.》

그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 답례할 때와도 같은 힘 있는 소리로 그 말을 반복했다.

《정말 힘듭니다!》

첫 순간에 심철범은 전사가 그 대답을 정 반대로 했으면 하였다. 지금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한사람의 전사가 아니라 전체 부대가, 그를 지휘하고 있는 자기자신이 시험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곧 전사가 옳게 대답했다는것을 알았다. 그가 자기가 바란대로 대답했더라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믿지 않으시였을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였더라면 남철은 또 한번의 거짓말, 그것도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거짓말을 하는것으로 되였을것이였다. 그런데 남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철범자신이 이 공사를 인계받은 후 공사의 실태를 솔직히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렸던것처럼 남철이도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 보였다. 심철범에게는 자기 부대에 수치를 가져 왔다고 생각했던 이 전사가 갑자기 돋보였으며 그가 대견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최고사령관동지와 전사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량쪽으로 번갈아 시선을 보내던 방안의 다른 사람들도 이젠 그 시선을 완전히 전사에게 멈추었다. 마치 군사관등급상 제일 낮은 직급에 있는 이 이름 없는 전사의 대답에 따라 그 어떤 중대한 국사가 결정되기라도 하는것처럼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옳소. 힘들거요!》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철의 대답을 긍정하시였다. 그리고 계속하시였다.

《앞으로는 더 힘들거요. 오늘보다 래일은 더. 그리고 모레는 좀더… 얼마간 고난은 계속될거요. 남철동무.》

남철은 그이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고난, 그래서 피하려고까지 했던 그 고난이 더 간고해 지고 또 계속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지만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두손을 무릎우에 포갠채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동무에게 나라의 형편을 다 알려 주자고 하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남철에게서 시선을 돌려 맞은켠 벽쪽에 놓인 쏘파에 주런이 앉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시였다.

처음은 심철범을 바라보고, 다음은 오기철, 리국현을 본 다음 리웅걸을 보시였다. 그이의 시선은 그에게서 잠시 멎었다.

리웅걸은 자리에서 몸을 약간 들었다 놓으며 알릴락말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의 이 회견조직에 대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장령들에게 나라의 형편을 알려 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문제의 전사를 참가시키겠다고 하시였다. 리웅걸은 절대 찬성

이였다. 오진우와 최광이와 마찬가지로 새 세대 청년들에 대한 교양문제를 절박하게 여기고 있던 그는 이 기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하였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철에게서 나타난 동요에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였다. 인간이기때문에 있을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시였다. 더우기 그가 신입대원임에야…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그 매개 군인들이 결코 다 완성되였다고 보지는 않으시였다. 그이께서 믿으시는 군대는 완성되여 가는 군대, 완성하여 써야 할 군대, 산 인간의 집단이였다. 그래서 최고사령관이 있고 장령들이 있고 각급 지휘관들이 있는것이다.

그이께서 보시건대 남철은 군대의 빈 구석을 그대로 볼수 있게 한다는데서는 하나의 표본이였다. 그이께 있어서 남철은 그가 전 세대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는 김동환의 아들이라는것으로 하여 더욱 관심이 가시기도 하였다. 그래서 남철이를 만나보기로 하신것이였다.

그러나 남철이를 만나기로 한것은 그때문만도 아니였다. 생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늘 하시던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인민대중을 만나 나라의 형편을 털어 놓고 의논하시기 위해서였다.

그이의 속마음을 알길 없는 심철범은 물론 세명의 장령들도 그이께서 전사에게 나라의 형편을 다 알려 주시겠다고 하자 모두 긴장되였다.

《일 없소.》

그이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 맞힌듯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는 따로 비밀이 없소. 누구나 다 알아야 하오. 그래야 마음을 합칠수 있는거요. 천둥속에서는 천하가 한마음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선을 돌려 남철이를 바라보며 믿음이 어린 미소를 지으시였다.

《나는 전사동무에게 중요한걸 알려 주자고 하오. 동무도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야 하오.》

그이께서는 방금전 홍경봉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전국적인 식

량실사와 관련된 해당부문의 극히 제한된 일군들에게만 통보하기로 된 자료를 공개하시였다.

《물론 식량사정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보여 주는 전부는 아니요. 그러나 식량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수 없소. 누구나 배 고픈것하고는 타협할수 없으니까.》

그이께서 이해 정초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심철범에게 보여 주었던 미중앙정보국의 극비자료, 굶주린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와 더는 타협하지 않을것이며 2년내에 손을 들게 되리라고 한 그 자료를 상등병에게 들려 주신것은 그 다음이였다.

심철범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철이를 지켜 보았다. 남철은 무릎우에 포개놓았던 두손을 풀어 의자팔걸이에 올려놓더니 주먹을 쥐였다 폈다 하며 큰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심철범은 남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중앙정보국의 자료를 처음 보던 때의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

그때 그는 정세에 대한 그이의 심려를 리해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그이와 운명을 같이 할 결심을 다지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였다. 그의 온몸을 휩싼것은 자신에 대한 그이의 믿음이였고 자기가 그이의 기대속에 있다는 흥분이며 희열이였다. 그것이 본질이였다.

그는 남철이도 그때의 자기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남철은 흥분하고 격동되여 있었으며 그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으로부터 오는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극히 단순하였다. 지금 남철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사장을 눈앞에 그려 보고 있었다. 그것은 멀리 눈아래 내려다 보였다. 그는 그 어떤 무한대한 힘을 온몸에 느끼고 있을뿐이였다. 그래서 최고사령관동지께 무슨 말인가 올리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 서려고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음성이 그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이께서는 팔걸이건너로 팔을 뻗쳐 남철의 손을 잡고 소곤소곤하는 어조로 말

씀하시였다.

《나라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만 하면 일 없다고들 하고 있소. 그렇소. 나는 알고 있소. 그들보다 더 많은것을 알고 있소. 적들은 〈압살〉 정책을 쓰면서 우리가 질식되여 죽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소, 남철동무?》

심철범은 남철이를 바라보았다. 이제야말로 그가 똑똑한 대답을 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려야 했다.

《어째서 말이 없소?》

최고사령관동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남철은 일어 섰다. 그리고 꿋꿋이 서 있었다.

심철범은 손에 땀을 쥐였다. 남철이가 오래도록 말이 없자 《전사, 어서 말씀 드려. 적을 요정내겠다구!》 하고 속으로 웨쳤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사의 대답을 듣고 계시였다. 전사의 퍼런 불이 이는 눈빛에서 번뜩이는 증오를 보시였다. 증오, 그렇다. 전연시찰의 길에서 만난 수많은 병사들의 눈빛에도 하나같이 증오가 어려 있었다. 신대원이든 구대원이든 모든 군인들의 눈빛에 아니, 적들로 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이 나라 남녀로소들의 모든 눈빛에 증오가 불 타고 있었다. 그것은 그대로 멸적의 기상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심철범은 안도의 숨을 쉬였다. 그도 비로소 남철의 눈빛을 보고 자기가 바라던 대답을 읽었던것이다.

《남철이, 앉으라구.》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사를 앉히고 나서 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적들과 포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소. 남철동무, 대답해 보시오. 어떻게 하겠는가?》

그이께서는 남철의 눈을 뚫어 지게 들여다 보시였다.

전사는 입을 다문채 까딱 않고 앉아 있었다.

《왜 대답이 없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잡고 있던 남철의 손을 놓고 몸을 뒤로 제

치시며 천천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령들의 말이 아니라 전사들의 말을 들어 보고 싶었소. 내 말을 알겠소, 전사동무?》

물론 남철은 리해하였다. 그의 타는듯 한 마음속의 눈앞에는 꽃바다가 펼쳐 져 보였다. 금강산발전소준공식이 진행되고 꽃보라에 묻힌, 최고사령관동지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신을 보는것 같았다. 그리고 그 꽃보라에 휘말려 혼비백산한 적들이 아우성을 치며 비명을 올리는 몰골도 보였다. 우리의 된타격에 봉쇄환이 끊어 져 나가고 적들의 어리석은 망상이 산산이 쪼각나서 보잘것 없는 먼지로 되여 아득한 미궁으로 날려 가버리는것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겠습니다!》

남철은 전호가에, 포진지에, 함선의 갑판에 써붙인 인민군대의 멸적의 구호를 자기 말로 말씀드렸다. 그리고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더니 고개를 무릎우에 숙이였다. 그는 흐느끼였다. 이 숭엄한 공기가 흐르는 방에 들어 와 내내 흥분되고 긴장한 나머지 느끼지 못하고 있던 죄책감이 행복한 이 순간에 가슴을 친것이였다. 그 죄책감은 병사가 선 초소는 그 어디나 적들과의 대결장이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거기를 리탈한다는것은 투항이라는 자각에서 오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잠하시였다. 그 눈물을 리해하신듯 하였다.

전사의 그 눈물은 심철범에게로 옮겨 갔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앞이라는것도 잊고 큰 눈을 연거퍼 슴벅거리면서 전사들을 똑똑하게 이끌어 주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됐소, 됐소! 울지 말라구…》

김정일동지께서 남철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리에서 일어 서시였다. 그리고 응접실 한가운데로 나서시였다.

《동무들.》 그이께서는 흥분으로 하여 갈린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병사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석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게다가 단련이 없는 새 세대 군인들입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목석인간, 식물인간이 되여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더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나는 얼마전에 오진

우, 최광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이겨 냈는가고 묻자 행군길에 지쳐 쓰러졌다가도 머리를 들고 보면 저앞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걸어 가고 계시였기에 힘을 내여 따라 일어 서군 했다고 하였습니다. …》

그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 졌다. 흥분에 떨리는듯한 숨소리만이 방안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이때 장령들은 손수건으로 눈언저리를 누르시는 그이를 젖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이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 졌다. 그것은 침착하고 힘 있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대오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 어제도 오늘도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 지휘관들의 구령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열백마디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군관, 장령들이 이신작칙해야 합니다. 이신작칙이야말로 병사들에 대한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속에 우리 병사들은 강자로 될것이며 우리 군대는 강군으로 될것입니다. 이신작칙으로 병사들을 이끌라.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다시 이 구호를 제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오기철과 리국현, 심철범, 리길남이 약속이나 한듯이 동시에 일어 서서 차렷자세를 하고 응답하였다. 장령들의 뒤를 따라 리웅걸이도 긴 허리를 펴고 일어 섰다. 김남철이만은 응당 자기도 일어 서야 한다는것을 잊고 우는지 웃는지 알지 못할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힘 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인 나자신이 이 구호를 실천에 옮겨 나갈것입니다.》

그러자 리길남이 물기 도는 눈을 슴벅이며 감동된 어조로 말씀드렸다.

《사실 최근 몇달동안에만도 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만나주시였습니까. 최전연에까지 나가시여 식당에도 들리시구 잠자리도 보아 주시구…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구… 우리 군대에 장군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은 병사가 수천수만이 잘될것입니다. 병사들은 장군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것을 얼마나 좋아 하는지 모릅니다. 정

말 최대의 행복, 최상의 영예로 생각합니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나는 앞으로 전군의 모든 병사들과 한번씩은 다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병사들이 좋아 한다는데 최고사령관의 얼굴이야 못 빌려 주겠습니까? 허허…》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으나 좌중은 웃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이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웃기에는 너무도 절절하고 너무도 뜨거웠던것이다.
《사실 내가 매일처럼 전선길을 걷는것은 병사들에게 나의 진정, 나의 마음을 쏟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장령들보다 남철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물론 장령들의 충동도 컸다. 과묵한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의 세계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준비해 온 서류철에 있는 엄중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여겨 졌다. 그들은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찾은것이다. 그이처럼 하자. 그이처럼 지휘하고 그이처럼 생활하자. 그러면 전선의 숨 막히는 정적도 분계선상에서 벌어 지고 있는 적들의 교란책동도 한줌도 못되는 간첩무리들의 쏠라닥거림도 문제 없을것이다. 그렇다. 그이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승의 보검이였다.
그러나 남철에게는 그 말씀의 마디마디가 뜨거운 덕수처럼 퍼져 내려 온몸이 화끈 달아 올랐다.
남철은 그이께서 자기앞에 다가와 서신것을 몰랐다.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일어 섰다.
《남철동문 나한테 할 말이 없소?》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자 남철은 서둘러 말씀 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어서 말하라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저는 대오에 설 자격을 잃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권한으로 저를 대오에 다시 설수 있게 해주실수 없습니까?》
남철은 차렷자세를 짓고 그이의 승낙을 기다렸다.
《그게 다요?》

그이께서 빙그레 웃음을 짓고 또 물으시였다.

《옛!》

남철은 차렷자세를 짓고 가슴을 쑥 내밀며 구령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 하고 병사의 인사를 올렸다.

《고맙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남철의 두손을 꽉 잡으시였다.

방안에는 잠시 숙연한 침묵이 깃들었다.

《자, 그럼 리국현동무.》

김정일동지께서는 화제를 돌리시였다.

《전호진장령이 제기한 문제를 토의해 봅시다. 총참모부에서는 그 제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동무들도 들으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좌중의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내고 나서 공사장에서 제기된 의견대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그들도 화제에 끌어 들이시였다.

그사이 리국현이 일어 서 있었다.

《총참모부는 심중한 토의끝에 전호진장령의 제의를 기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김남철전사를 만나고 나서 그 결심이 더욱 확고해 졌습니다. 결국 공사의 담당자인 병사들의 의지문제이니 말입니다.》

《옳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철범을 바라보며 긍정하시였다.

심철범이 벌떡 일어 섰다.

《알겠습니다.》

심철범은 힘 있게 대답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심철범동무의 주장에서 제기된 아치형시공을 하면 직선돌파에서 안전성을 담보할수 있다는 문제를 국가적으로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시공경험이 있는 일군들의 토의에 붙여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이께서는 심철범에게서 시선을 돌려 모두에게로 보내며 계속하시였다.

《그러나 나는 심철범동무의 주장에서 보다 중요한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직선돌파정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정신은 우리 군대의 기본정신으로 되여야 합니다. 바로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린 0026호명령은 반드시 수행될것입니다. 나는 우회로를 택하자고 하는 전호진장령과 그곳의 일부 지휘관들의 주장에서 합리성을 찾아 보려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뭔가 부족한것이 느껴 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군대의 근본정신에 맞지 않는 주장이기때문이였습니다. 최고사령관인 나는 직선돌파를 지지합니다.》

그이의 이 말씀은 방안에 명령처럼 울렸다.

장령들은 일제히 일어 섰다.

평양—원산관광도로로 앞창유리에 《금강산발전소건설》이라고 쓴 특별자동차운행증을 붙인 야전용승용차가 달리고 있었다.

평양으로 올라 올 때와는 달리 심철범장령은 뒤좌석에 남철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남철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도로에는 금강산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물동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줄 지어 달리고 있었다.

심철범은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는 그 물동을 합친것보다 더 귀중한, 이제 틀림없이 영웅으로 자랄 전사를 곁에 태우고 가는것이다.

그에게는 자기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사실자체도 큰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강조하신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가, 그이의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가슴을 울리고 있었던것이다.

력사에는 이름 있는 명장들이 있어 저마끔 령군술을 자랑해 왔다. 한때 유럽땅까지 정복했던 칭기스한은 5인조, 10인조를 묶어 그중 하나의 병사가 도주하던가 군률을 위반하면 전체를 목 베는 무서운 형벌로 군사를 다스렸고 현대 군사가의 《시조》라고 일

컬은 나뽈레옹은 군사를 움직이는 동인을 공포와 리익 두가지로 보면서 공로에 대해서는 일망무제한 령지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대멸족이라는 전률할 처벌을 안기였다. 지금 미군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의 군대는 고용병들로서 그들을 움직이는 기본무기는 황금이다.

고대 《손자병법》으로부터 클라우제위츠의 《전쟁론》은 물론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의 군사사상 그 어디에도 《애병》이라는 말자체가 없다.

오직 우리 군대,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군대에만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꽉 차흐르고 있다.

일찌기 수령님께서는 군대에서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삼도록 하시였으며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군인들이 자폭정신, 육탄정신을 발휘해야 할 현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최고정화라고 할수 있는 《날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체질화하도록 하심으로써 혁명군대 령군술의 기본원리, 근본초석을 다시금 밝혀 주시였다.

최고사령부에서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고 나서 커진것은 남철전사가 아니라 바로 나자신이다! 심철범은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한편 김남철은 장령에게 두손을 꽉 잡히운채 까딱 않고 앉아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고 부대로 돌아 간다는것을 아실가? 그걸 아신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가? 자기를 욕되게 한 이 아들을 용서하실가?…

그러나 그는 자기를 대신하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버지앞으로 친필서한을 보내시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남철이를 바래우고 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동환의 자료철 겉장에 이렇게 쓰시였다.

—아들을 용서해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훌륭한 군인이 될것입니다.—

15

그들은 미중앙정보국의 《Z》자가 붙은 밀실에 또다시 모이였다.

정초에 보브 돌은 이 밀실모의에서 조선의 《종말》이 몇달까지는 몰라도 2년이면 알아 볼 문제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한달, 두달, 석달이 지나고 한여름에 잡혀 들었으나 조선은 의연히 사회주의보루로 꿋꿋이 서 있었다. 세상사람들은 왜 쏘련이라는 거대한 대국을 무너뜨린 미국이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앞에서 쩔쩔매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그들은 봉쇄된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의 끊임없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반격을 가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이 그 저항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알수가 없었다.

강경보수세력의 대다수인물들도 그것을 똑똑히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결정적인 타격만 가하면 승리가 이룩될수 있으리라고, 물리적 및 정신적인 힘을 다 소모한 조선인민이 이제라도 흰기를 들고 나올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우두머리인 보브 돌자신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의 다른 측면, 말하자면 저항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생존방식을 리해하기 시작하였다. 대조선정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때에는 알수 없었던 조선인민의 생존방식을 《고립》, 《압살》정책의 앞장에 서서 조선인민과 직접 싸우면서 그는 비로소 알게 된것이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선거가 있게 된다. 그때 가서 그의 대조선 강경고압정책도 결산되게 된다. 그리하여 숙명적인 그 날자가 다가오면 올수록 74살나는 미상원 공화당원내총무는 더욱더 큰 불안을 느끼는것이였다.

물론 그는 아직도 조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봉쇄의 결과 조선의 많은 공장들이 멎어 선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조선이 그래 최악의 국난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이 아

니란 말인가? 조선의 국민들속에서 그래 월경자들이 나타나고 있는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매일처럼 보브 돌은 선거자들앞에서 조선의 붕괴의 징후가 벌써 막연하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것을 력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리성을 가다듬고 조선의 현실에 깊이 눈길을 던질 때마다 그는 만일의 경우에 조선의 붕괴가 선거당일까지 닥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정계의 원로라고 할수 있는 그는 조선이 이라크하고도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국강경보수세력의 이 우두머리는 그자신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만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대통령이였던 부쉬는 재선에서 락선되여 은퇴하고 반면에 이라크대통령 후쎄인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라크와 달리 조선에서는 다국적무력을 동원할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그앞에는 그야말로 정치적운명을 건 마지막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자신도 이미 자기앞에는 백악관이냐, 고향이냐 하는 두길밖에 없다고 선거자들앞에서 선포하였다. 말하자면 선거에서 패하면 정계에서 물러나겠다고 한것이다.

보브 돌은 이제라도 생활난에 견디지 못한 북조선의 주민들의 대량적인 탈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 올것이며 그에 견디지 못한 북조선당국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해도 적어도 《개혁》과 《개방》에로 정책변화를 할것이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선거날까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숙명적인 물음앞에서 매번 어쩔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옹근 한차례의 전쟁피해와 맞먹는 자연재해를 가져 온 대홍수가 조선에서 터졌다.

밀실에 모인 사람들중에는 이전에 모였던 강경보수세력의 두목들인 죤스, 씨먼, 디퍼, 호케르외에 한사람 더 있었다. 그는 대통

령비서실의 특사자격으로 참가한 30대의 키 큰 사나이인 에드몬드였다.

이 사나이가 참가한것으로 하여 지금의 밀실모의는 종전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미국정계의 강경파와 온건파는 대조선정책에서 이러저러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사회주의보루를 없애버려야 한다는데서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적이 같았다. 그 목적이 현실로 될수 있는 조건에서 그들은 한자리에 모일 필요를 느끼였던것이다. 갑론을박할 사이가 없다. 북조선의 조기《종말》을 다그쳐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그들은 누구나 이 하나의 생각만을 하였다.

그렇다. 그들의 생각은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인권위원회 회의에 집중되고 있었다. 거기서 하나의 결정적인 주패장을 내대일것이다. 그것은 우리더러 국제인권협약에 맞게 주민들의 출국과 입국을 자유화하라는것, 다시말해서 변절자, 배신자들이 마음대로 도주할수 있도록 국경통제를 완화하라는것 등 공화국제도를 어째 보려는것이였다. 그들은 이것을 유엔결의로 채택하려고 하였다. 만일 북조선이 이에 도전하는 경우 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협조를 중단하는것으로 위협하려고 꾀하였다.

그 회의에는 엘리자베스 돌이 미국대표로 참가하고 있었다. 강경보수세력의 대변인이기도 한 그 녀자는 회의에서 프랑스를 꼬드겨 결의발기국으로 내세우고 추종국가대표들로 하여금 그 결의를 지지하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이 밀실모의의 결과에 따라 결의는 정식가결될것이였다.

지금 비밀모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적지 않게 흥분하고 있었다. 북조선 큰물피해대책위원회의 국제적인 식량지원에 대한 긴급요청이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 북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이기때문에 지금까지 여러차례 자연피해를 입었지만 단 한번도 국제공동체에 지원을 요청한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공동체에 인도주의적협조를 호소한것을 보면 그들이 막다른 처지에 빠져 있는것이 분명하다. 국경을 열고 《개혁》

과 《개방》을 하라는 이 요구앞에 그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응해 나오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며 흥분하여 떠들어 대는것이였다.

그들의 말에 별로 끼우지 않고 대머리만을 쓸고 앉았던 보브 돌은 내심으로 흥분하고 있었으나 그때문에 랭정하게 타산하는 능력마저 잃은것은 아니였다.

구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로회한 정객인 그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가 채택되는 경우에 빚어 질 사태의 다른 측면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북조선군대가 막다른 골목에서 가만 있지 않을것이라는것이였다. 그들은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혈육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덜어 주려고 할것이다.

《그러니》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

북조선과의 대결에서 눈만 떨어 지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해 온 그였지만 그는 전쟁에 대한 신중론자이기도 했다. 제2차세계대전과 웰남전쟁 참가자인 그는 현대전쟁에서는 사실상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실지 현대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전혀 손실을 당하지 않고 거의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승리를 거둔 일은 거의 없다. 사람들의 기억에도 새로운 1983년 3월부터 6월사이에 있은 포클랜드(말빈)분쟁, 1980년 9월부터 1988년 8월기간에 있은 이란—이라크전쟁, 1979년 12월부터 1989년 3월이라는 긴 기간에 있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돌이켜 보면 승자도 패자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설사 이겼다 해도 패자보다 승자의 손실이 더 큰 경우조차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석유우에 떠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 쿠웨이트를 둘러싼 이라크와 다국적군의 《만전쟁》은 실로 례외중의 례외였다.

《그 경우에도》 하고 보브 돌은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밀실에서 노먼 에취 슈와르츠고프 미륙군대장을 만나던 일을 눈앞에 그려 보면서 생각을 계속하였다. 다국적군을 지휘한 중앙군사령관이였던 슈와르츠고프대장도 승리의 월계관을 썼지만 그 전쟁의 목적이였던 쿠웨이트해방과 후쎄인제거중 전자에는 성공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

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것처럼 보이는 슈와르츠고프에 의한 《만전쟁》의 승리에도 그늘진 부분이 뒤따르고 있지 않는가. 부쉬가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톤에게 패했을 때 이라크주민의 대부분은 《〈만전쟁〉의 진짜 승리자는 우리 싸담 후쎄인이였다》고 확신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보브 돌은 지금 이러한 생각때문만에 주저하는것은 아니였다. 그는 바로 지난 밤 유엔조선대표와 비공식접촉을 가졌던 일을 생각하며 그때문에 주저하는것이였다.

그 접촉은 미공화당이 전세를 내고 있는 뉴욕의 중앙호텔에서 보브 돌의 요청에 의하여 있었다. 비공식접촉이긴 해도 국가관계가 없는 조건에서 서로 자기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만난다는것은 이례적이였다.

그러나 서로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이 접촉이 이루어 지게 되였다.

먼저 보브 돌이 노린것은 국제적인 식량지원을 요청한 조선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며 그에 기초하여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내대기로 한 정치적주패장의 효과성을 가늠해 보자는것이였다.

조선측은 큰물에 의하여 분계선 남쪽으로 떠내려 간 두명의 인민군군인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판문점인민군대표부를 통하여 미군측과 협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협의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미군부의 강경보수세력이 제동을 걸고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여기로부터 공화국정부는 보브 돌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기로 하였다.

보브 돌이 조선대표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방은 그가 차지한 쏘파 하나와 손님용 쏘파 하나 그리고 그가운데 놓인 탁자 하나외에는 다른 가구가 없는 휑뎅그렁한 방이였다.

보브 돌은 북조선이 입은 큰물피해는 우리 측의 보도와 자기 측이 찍은 위성사진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는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큰물피해는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도 있어 본적이 없는것이다. 그러니 북조선이 세계공동체에 긴급지원을 요청한것은 응당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브 돌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치 미리 작성한 원고를 앞에 놓고 말하듯 더듬지도 않았다. 아마도 그는 자기 말에 그 어떤 감정표현도 뒤섞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공리라는 것을 강조하려는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측이 전례를 깨뜨리고 국제공동체에 지원을 호소한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필요한 원조를 받게 될것입니다. 당신들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굶겨서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굶겨서는 안되지요.》

그는 좀 초조해 하며 이 말을 되뇌였다. 《굶겨서는 안된다》라고 할 때 조선대표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한 조소의 빛이 스쳐 지나간것 같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보브 돌은 곧 초조감을 누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인도주의적견지에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사존망과 관련한 문제에서 당국의 정치적자존심 같은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숨도 쉬지 않고 떠벌이다가 정 숨이 차서 할수없이 잠간 말을 끊었을 때 조선대표의 나직한 말소리가 들려 왔다.

《그 문제는 국제기구들에서 론의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 안해도 될것입니다.》

보브 돌은 전속으로 냅다 달리다가 갑자기 절벽에라도 부딪친듯 한 기분이였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바싹 마른 입술을 추기고 어쩐지 야릇하게 머리를 떨구었다.

조선대표는 보브 돌의 기분에는 아랑곳없이 지금까지 있은 이야기에는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는다는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면서 말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언명하고저 합니다.》

조선대표는 여전히 조용히 말했다.

그는 본의아니게 분계선 남측지역으로 넘어 간 군인들을 돌려보내는 문제야말로 인도주의적문제라는것, 그런데 미군부의 일부

불순세력들이 이 문제에 끼여 들어 제동을 걸고 있다는것, 우리는 당신이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있다는데 대하여 오금을 박았다.

보브 돌은 무엇인지 말을 하려고 마치 공기를 들이키는듯 소리없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하였다. 그러나 조선대표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래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돌팔매처럼 맵짰다. 조선대표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보브 돌의 표정을 슬쩍 살펴 보고는 화제를 바꾸었다.

《이젠 당신이 아까 한 말에 내가 좀 대답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나라들 호상간에, 지역들 호상간에 서로 도와 주고 도움을 받는것은 국제적인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1995년 일본의 〈한신대지진〉때에 120만딸라의 협조를 준바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에 〈프랜〉이라는 태풍피해를 입고 16억딸라의 보험금을 받은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물피해를 입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협조를 받는것은 자연스럽고 응당한 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인도주의적인 선의에 기초한것일 때 우리 정부는 그것을 환영할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온당치 못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조선대표는 담배를 붙여 물며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 군대는 이에 대해서도 몹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말을 끊었다가 짤막하게, 단호하게 말했다.

《두명의 우리 군인들에 대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총알처럼 보브 돌의 가슴에 뜨끔하게 박히였다.

그리하여 지금 그는 벅적 떠드는 측근부하들의 론의를 귀등으로 흘리면서 그 두명의 인민군군인들을 생각하는것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그 군인들을 심문한 남조선안기부의 록화자료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다.

금시계와 승용차,호화주택과 미인으로 유혹한데 대해 두명의 군인은 《더 말시키지 말라！》고 대꾸했다. 인민군군인들은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부를 때 존칭을 붙이라고 무섭게 요구했다. 그들의 몸은 유혹과 협박은 고사하고 총탄도 뚫고 들어 가지 못할 것 같았다. 보브 돌은 은근히 전률을 느끼였다.

그들은 장마철에 북한강의 물속에서 설비들을 구출하다가 홍수에 밀리여 적측지역으로 넘어 갔었다.

보브 돌이 이들을 생각하면서 전률을 느낀것은 참으로 상징적이였다. 후날 그는 그들에 의하여 건설된 금강산발전소완공이 선포되였을 때 자기의 참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도 1년이라는 기일이 남아 있었다.

지금 그는 자기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 세계유일초대국의 시점으로 볼 때 조선은 한주먹으로 눌러 버릴수 있는 자그마한 반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대적인 탈북현상을 학수고대하며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있는 그로서는 위협과 회유에 단호히 도전하고 있는 두명의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행동이 상서롭지 못한 징조로 느껴 졌던것이다.

그는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 그는 나중에 결심을 채택할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조선의 큰물피해를 촬영한 위성필림을 보자고 제의했다. 모두 비데오가 설치된 방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수만메터의 고공에서 찍은 조선반도의 화폭이 펼쳐 진다. 바둑쪽만 한 땅덩어리이다. 화면이 당겨 진다. 온통 물천지인 땅이 눈앞에 다가왔다. 어느것이 물이고 어느것이 강이고 어느것이 바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대홍수이다. 들판마다 산골짜기마다 홍수에 쫓긴 사람들이 갈팡질팡한다. 집과 가장집물이 둥둥 떠내려 간다. 철교가 끊어 지고 도로가 뭉청 잘리웠다. 물속에 잠긴 기차와 자동차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다. 물에 잠긴 곡식들이 부평초처럼 떠다닌다. 해설자는 말한다. 《노아의 홍수》이다. 불은 물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물은 무엇으로 다스린단 말인가？ **김일성**주석은 6.25동란이후 100년이 걸려도 못 일떠설것이라던 이 나라를 다시

일궈 세웠지만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령도자가 과연 그러한 기적을 다시 이룩할수 있을것인가? 지금 세계는 심심한 우려속에 조선반도의 재난을 지켜 보고 있다. … 비데오의 스위치가 꺼졌다.

보브 돌을 내놓고는 모두가 일어 섰다. 그들은 미친듯이 박수를 쳤다. 보브 돌은 까딱 않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손벽을 치고 있었다. 그것은 벌써 박수가 아니였다. 그것은 요구였다. 자기들의 두목에게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경고였다.

보브 돌은 천천히 걸어서 밀실의 자기 자리에 와 앉았다. 그리고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뉴욕의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안해를 찾아 내자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말했다.

《엘리자베스, 계획대로 하시오!》

송수화기에서 환희에 찬 녀자의 챙챙한 목소리가 울렸다.

《돌! 당신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거예요!》

16

그 이튿날 미국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손을 잡고 우리 나라에 도전한것으로 된 《유엔인권결의》가 채택되였다.

이 도전이 2년전 《특별사찰》을 강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야기시켰던것처럼 새로운 대결상태를 몰아 오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이 소식을 옥천휴양소에서 듣게 된 드미뜨리 야조브는 첫 순간에 **김정일**동지를 생각하였다.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실가? 물론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리라는데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시련임이 틀림 없을진대 조선인민은 또 한번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 아닌가.

그날 한밤중에 뜻밖에도 그분의 전화가 걸려 왔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 **김정일**동지!》
대답하는 목소리는 련민의 정으로 떨리였다.
《별로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 **김정일**동지의 목소리는 대범하였다.
그 말씀에 늙은 원수는 마음이 대번에 젖어 들었다. 그는 송수화기를 틀어 쥔채 잠시 잠자코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지금 뭘하고 계십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통 잠을 들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기다리십시오.》
야조브는 그이를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흥분으로 떨리는 다리를 바지가랭이에 겨우 끼고 원수복을 차려 입은 다음 덤비면서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이제 저기 솔발속으로 난 도로로 그이께서 보내신 승용차가 달려 올것이다.
야조브는 벌써 몇번인가 그 차를 타고 그이를 만나뵙군 하였던것이다.
잠시후에 차가 나타났다. 그 차는 종전처럼 경적을 울리지 않고 곧추 울타리 정문으로 들어 오더니 현관앞에 와서 멎었다. 발동을 끄지 않은 차에서 사륵사륵 기관이 돌아 가는 소리가 났다.
앞차문이 열리고 웬 사람이 아스팔트포장을 한 바닥에 내려 섰다.
야조브가 부관이 아니면 자기의 안내를 맡은 그런 사람이겠거니 여기고 서서 기다리는데 우렁우렁한 귀에 익은 음성이 들리였다.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신 그분은 뜻밖에도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왜 나와 계십니까?》
《아니?!》
《함께 바람을 좀 쏘이자고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모자채양에 올려 붙인 야조브의 손을 잡아 내리우며 차 있는데로 이끄시였다.
《이거 황송해서…》 하며 야조브는 순박한 얼굴에 어줍은 미

소를 띄우고 차에 올랐다.

그사이 금테안경을 낀 통역은 차에 싣고 온 자그마한 지함을 휴양소관리원에게 넘겨 주고 있었다. 차에 올라 앉은 야조브는 눈이 휘둥그래 졌다. 차안에는 운전사도 부관도 없었던것이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차를 몰고 오시였다는것을 알았다. 통역이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자 **김정일**동지께서 제동변을 풀고 조향륜을 돌려 바깥쪽으로 방향을 잡더니 정문으로 차를 몰아 가시였다.

휴양소건물이 멀리 뒤쪽에 남게 되였을 때 그이께서는 야조브를 뒤돌아 보며 말씀하시였다.

《우회도로로 갑시다. 이제 운전사와 부관이 소동을 일으키며 쫓아 올겁니다. 조용히 좀 소풍을 할래도 모두 법석을 떠니 원! 허허…》

김정일동지께서 허구프게 웃으시더니 혼자말씀처럼 계속하시였다.

《밤에 좀 오래 앉아 일을 하재도 모두가 내 방에서 불이 꺼지기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먼저들 들어 가라고 되게 굴어도 막무가내니 통 야단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누리는 마음대로 일할 권리, 마음 놓고 쉴 권리를 억제당하고 있는셈이지요.》

통역이 그 말씀을 옮겨 주었을 때 야조브는 뜨거운 바람을 쐬였을 때처럼 온 몸이 숨 가쁘게 달아 올랐다.

그는 짐짓 목소리를 누르고 말씀 올렸다.

《귀국의 작가들이 쓰기를 그걸 가리켜 수령의 숙명이라고 했더군요.》

《우리 작가들이? 허허…》

순안비행장도로로 해서 평양시내쪽으로 달리던 승용차는 우측으로 꺾어 들어 간 소로에 접어 들었다. 포장을 하지 않고 하얀 석비레를 깐 농촌길이였다. 그 하얀 빛이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길의 륜곽을 알아 볼수 있게 했다.

김정일동지의 운전솜씨는 대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방을 별로 살피지 않고 자주 야조브를 뒤돌아 보군 하시였는데 그러면서

도 차를 안전하고도 자신 있게 몰아 가시였다.

《아까 그 물건말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역이 휴양소에 부리워 놓은 지함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시였다.

《한 이름 없는 의학자의 한생이 바쳐 진 약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야조브가 흥미를 가지며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건강하게 지내시였습니다. 그러니 별로 필요한 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촌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속도를 좀 늦추었다. 차안에서는 **김정일**동지의 낮으나 격정에 깔린 음성이 은은히 울리고 있었다. 그이의 화제에 오른 사람은 강원도 석왕사 약수터의 한성규라는 의사였다.

한성규가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이 약수터에 배치되여 왔을 때는 1960년대 초였다. 그때에도 수령님께서는 매일과 같이 현지지도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였다. 영원히 그렇게 젊어 계시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때부터 한성규는 자기 의학의 목표를 수령님의 장수를 보장할수 있는 약을 만들어 내는데 두었다.

그러나 한갖 촌구석에 박혀 있는 의사로서는 수령님을 진맥해볼수도 없거니와 가까이 모실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순전히 잠간잠간 비쳐 지는 기록영화들의 화면에 매달려 수령님의 체질을 판단했으며 그에 알맞는 약처방을 얻어 냈다.

촌에서 기록영화인들 자주 볼수 있었겠는가?

그는 읍거리의 영화관들을 찾아 다니며 기록영화를 돌려 달라고 했고 수령님의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고 또 보았다. 그러느라니 이상한 사람 치부도 당했다. 하지만 자기가 무엇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일체 입밖에 낼수 없었다. 만일 그 말을 입에 낸다면 그땐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심중한 오해도 받을수 있었다. 그는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아 다니며 약초와 약돌을 채집했다. 말그대로 와신상담의 고생끝에 세포의 로화를 막고 만년장수를 보장할수 있는 《연수환》이라는 명약을 얻어 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그의 청춘기와 장년기가 흘러 갔다.

김정일동지께서 이쯤 말씀하시였을 때 야조브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래 그 약이 어떻게 되였습니까?》

수령님께서 약을 쓰시였는가 하는 물음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애석한 표정을 지었다가 머리를 저으시였다.

《학계의 시비를 거치느라고 그래… 또 우리에게 올려 보내느라고 그래 기일을 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만…》

《저런!》

야조브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다.

《그 의사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자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우리가 인민들의 그 지성을 한데 모아 수령님을 더잘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이의 음성은 저으기 떨리고 있었다.

야조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슴벅이였다.

《그 약을 우리가 여러모로 시험해 봤습니다. 년세가 많은 로인들에게 아주 좋다는것이 확인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수령님께 드리려고 만든것인데 어련하겠습니까. 그 약을 원수동지가 써보십시오.》

《원, 이런!》

야조브는 어깨를 으쓱하며 두팔을 벌려 보였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는 야조브를 뒤돌아 보고 나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년세가 높은 분들을 보면 수령님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런데 그런분들이 하나, 둘 나의 곁을 떠나갑니다. 오늘 밤 이렇게 오랜 혁명의 원로인 원수동지와 같이 있게 되여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동지!》

그러나 야조브의 이 말은 입밖으로 튀여 나오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차를 세우며 내리자고 하시였기때문이였다. 다박솔이 우거진 야산기슭이였다.

《여기가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밤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오르면 평양시가 한눈에 바라보인단 말입니다.》 차에서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야조브의 한쪽 팔을 끼며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야조브를 데리고 공원길처럼 계단을 지어 놓은 산길을 따라 야산정점으로 올라 가시였다. 한 10분동안 그의 팔을 끼고 말씀없이 걸으시였다. 약간한 랭기가 섞인 가을바람이 확 안겨 왔다. 곧 정점에 이르시였다. 정점은 근로자들이 휴식을 하는 휴식터로 꾸려 져 있었다.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의자와 야외식탁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서쪽으로는 평양시의 야경이 바라보이고 북쪽에 간리벌이 펼쳐 졌다. 간리마을은 모두 잠에 든듯 컴컴하였다. 한 2층건물에만 방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먼저 간리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추석이 가까와 오는 달빛에 비쳐 진 가을벌판은 무르익은 황금이삭들로 하여 풍요하였다. 그런데 두손을 허리에 얹고 그 풍요한 대지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표정은 밝지 못하였다. 큰물피해를 입은 곡창지대를 생각하시는지도 몰랐다.

야조브는 조선농촌의 이채로운 풍경에 자신을 잊고 여기저기를 둘러 보며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가 곁으로 다가오자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원수동지, 우리 인민은 참말 좋은 인민입니다. 이 좋은 인민을 배 불리 먹이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평생의 소원이였는데 우리는 여적 그 소원을 풀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생활은 수령님께서 계실 때보다 더 어려워 졌습니다.》

매우 침통하신 목소리였다. 그 순간 야조브는 현실, 그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그이의 인간적인 매력에 황홀해 진 나머지 잠시 잊고 있던 조선이 전대미문의 큰물피해를 입었으며 적들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그 현실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 오게 되였다.

야조브는 **김정일**동지를 쳐다보았다. 담소를 하시던 온화한 표정은 벌써 찾아 볼수 없었다. 그이의 얼굴은 컴컴하고 구슬퍼 보였다.

(이분은 과연…) 하고 야조브는 문득 생각하였다. 이 밤 한갖 식객에 지나지 않는 나를 불러 내서 산책이나 하자고, 인민들이

자신에게 드린 약을 나에게 가져다 주어 고목에 꽃을 피워 주자고 나오시였단 말인가?

지금 이 순간 야조브는 적들의 새로운 도전으로 해서 빚어 질 사태의 엄중성을 그이께 알려 드리고 싶은 하나의 생각, 오직 하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순간 야조브는 그이로부터 시선을 떼였다. 그의 눈앞에는 파쑈도이췰란드의 2중3중의 봉쇄환속에서 무려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낸 레닌그라드의 참상이 떠올랐다. 발구에 줄을 지어 실어 내던 아사자들의 시체, 책상과 의자마저 쪼개여 뻬찌까에 집어 넣던 고난의 3년… 그는 이제 봉쇄환속에서 조선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그이께서 리해해 주시였으면 하고 기대하였다.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정확히 알려 드리고 싶은 열망, 정확하게는 조성된 사태에서 빠져 나올수 있는 출로가 없겠는가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열이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자코 듣고 계시다가 허리에 얹으셨던 손을 내리워 야조브의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면서 나무람하듯 물으시였다.

《무엇때문에 원수동지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선은 사회주의의 운명이고 저의 운명이기때문입니다.》

《그래 원수동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뭐라고 해야 할지… 바로 그 대답을 듣자고 저는 귀국에 왔고 바로 이 밤도 그 대답을 다시 듣고 싶을뿐입니다. 저는 **김정일**동지께서 반드시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순간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막으시였다.

《원수동지! 나는 우리 나라에 2년전과 같은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엄중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라는 가장 무서운 적과도 마주 서게 되였기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 기아… 기아가 올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조브는 그 무서운 생각을 줄곧 하고 있었다. 그러

나 **김정일**동지로부터 그 말을 듣는 첫 순간 자기가 말씀을 헛듣지나 않았는가고 생각했다. 어쩐지 그 말씀을 듣게 되니 가슴이 선뜩해 지는것이였다.

야조브는 당황하여 **김정일**동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이의 얼굴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읽을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였다. 관자노리의 정맥이 푸릇하게 살아 올랐으며 거기에서 약동하는 피의 흐름이 알릴 정도였다.

수수한 잠바옷을 입고 뒤짐을 진 주먹을 꽉 틀어 쥐고 있는 이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가? 쏘련이 건재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가 살아 있던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린방인 중국을 생각하시는가? 《유엔인권결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식량지원을 받아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이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내심적인 투쟁을 통해서 나온것이겠는가.

야조브는 온몸이 굳어 져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명 자신을 억제하느라고 애 쓰고 계시였으며 그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 랭혹하게 마디마디에 방점을 찍으면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절대로 쌀과 제도를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야조브는 갑자기 앉고 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그는 통역의 부축을 받아 몇걸음 걸어 가서 돌의자에 앉았다.

적은 이 나라의 국경을 개방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쌀과 함께 《자유화바람》,《자본주의바람》을 밀어 넣으려고 한다. 쏘련이 어떻게 망했던가? 강대한 당,강대한 인민,강대한 군대가 저항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녹아 났던가? 그렇다. 쌀과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신 **김정일**동지의 말씀은 정당하였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도 야조브에게 충격을 주었는가?

그는 벌써 몇달동안 조선에 머무르면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를 자기들의 생명으로,생활로 여기는것을 보았다.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으리라는것을 알았다. 수백수천만의 조선인민들의 주검을 밟지 않고서는 그 어떤 원쑤도 이 땅에 들어 올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느끼였다.

사회주의를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는것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온갖 힘을 다해 실천에 옮기고 있는 확고한 의지였다.

그렇다면 지금 동일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때문에 야조브는 그것을 전혀 뜻하지 않는 폭탄선언처럼 여겼는가? 단지 그가 바라던 고무적인 말씀이였기때문인가?

아니였다, 그때문만은 아니였다. 야조브가 충격을 받은것은 그 말씀을 하신분이 바로 **김정일**동지이시기때문이였다.

지금 야조브는 평양교외의 돌의자에 앉아 조선반도유사시에 참전하게 되여있는 미8군과 미태평양함대의 무력을 눈앞에 그려 보았다. 그것은 이전 원동군의 전략적경계대상이기도 했다. 쏘련의 해체로 원동군의 그 사명마저 없어 진 조건에서 조선은 혼자서 그것을 담당해야 했다. 여기에 일본과 남조선, 기타 다국적무력도 예견해야 한다. 조선이 적들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한다는것은 바로 이 힘에 대처한다는것을 의미했다.

야조브는 조선방문의 첫 나날에 이 힘에 대처할 조선의 힘을 보았다.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보았다. 그것은 인민군대의 힘이였다.

(레닌과 쓰딸린…) 하고 야조브는 생각하였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까지 유명한것은 그들에게 충실하였던 붉은군대가 볼쉐비크당과 쏘베트를 철저히 옹호하였기때문이다. 만약 공민전쟁과 2차세계대전에서 붉은군대가 승리하지 못하였더라면 레닌, 쓰딸린의 이름이 오늘까지 전해 질수 있겠는가.

1991년 쏘련이 붕괴된것은 바로 붉은군대의 심장속에서 레닌과 쓰딸린의 이름을 지워 버렸기때문이다. 그런데 인민군대안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이라는 구호가 높이 울리고 있으며 그들의 대오앞에는 최고사령관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 내려 가자고 하십니다.》 통역의 목소리가 야

조브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저쪽에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겨 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시였다.

《자, 내려 갑시다. 가는 길에 저기 불이 보이는 곳으로 가봅시다. 며칠전에도 불빛을 보았는데 밤에 자지 않고 무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벌써 온화한 표정으로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예…》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야조브가 벌떡 일어 섰다. …

그 불빛이 비치는 2층집은 수매량정부 자재상사건물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야조브와 함께 그 건물로 들어 서면서 현판우에 붉은 글씨로 큼직하게 써놓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보시였다. 상사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부에서 내려 온 정무원들과 함께 자력갱생기지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장에서 산하정미공장과 자동차기동대들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만드느라고 밤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중에는 키가 호리호리하고 눈이 녀자처럼 곱게 쌍까풀진 웃기관에서 내려 온 당일군도 있었다. 그는 아닌밤중에 예고도 없이 나타나신 **김정일**동지를 뵙고는 너무도 놀랍고 황송하여 한동안 묻는 말에 변변히 답변도 올리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와 담화를 하시였다.

그 일군은 다른 곳에서 페기처분하게 되여 있는 선반과 볼반, 기공구들을 하나하나 주어다가 재생하여 쓰고 있는데 대하여, 부산하 정미공장들과 자동차기동대들에서 필요되는 설비와 부속품들을 국가에서 받지 않고 거의 자체로 해결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리하여 여기서 전국적인 방식상학까지 진행하게 된데 대하여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어느 개별적일군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동자들의 창의창발성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하여 이루어 진데 대하여 매우 조리 있게 말씀 드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알아 보시였다. 그 일군은 매우 솔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였다.

그는 하루에 두끼는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끼는 새

벽 두시에 또 한끼는 낮 두시에 먹는다고 하였다. 그것이 배를 달래는데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웃기까지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가슴이 저리시여 동무네야 나라의 쌀독을 쥐고 있는데 굶는다니 말이 되는가고 하시자 그는 큰일 난것처럼 펄쩍 뛰였다.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책임진 사람들이 구실을 못하고 있는것만도 대역죄인데 저부터 먼저 먹으면 그 죄가 천추에 씻지 못할것이라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말이 눈물이 나오도록 고마우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일군의 앙상해 보이는 어깨에 손을 얹고 갈리신 음성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이래 제일 고생하는것이 가정주부인것처럼 나라의 주부인 쌀독을 책임진 일군들의 마음고생이 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부문 일군들보다 더 클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 일군은 목이 꺽 메여 아무 응답도 못하고 섰는데 둘러선 사람들중에서 누군가가 《일 없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밤을 새우신다고 생각하니 저희들은 고생이 락으로 생각될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잠시후 그곳을 떠나 나오실 때 **김정일**동지께서는 뒤에서 들리는 노래소리를 들으시였다. 그 노래는 요새 창작되여 불리우는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노래였다.

그이의 충격은 크시였다.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느끼시였고 그들의 운명을 책임진 사명감에 어깨가 몹시 무거워 지시였다.

차는 평양—순안대통로에 들어 섰다. 앞에서 차 한대가 마주 오면서 전화로 그이께 말씀 올리고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차를 세워 주십시오. 저의 차에 운전사가 있습니다.》 곽무선의 목소리였다.

《됐소. 그런데 곽동무, 홍경봉부총리가 지금 어데 있소?》

《집무실에서 기다리다가 마주 나왔습니다. 지금 그도 저의 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김정일동지께서 차를 길섶으로 몰다가 급히 멈춰 세우시였다. 그러자 앞차도 멎었다. 운전사가 뛰여오고 곽무선이 홍경봉을 앞세우고 다가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향륜을 운전사에게 넘겨 주고 옆자리로 옮겨 앉으시면서 차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곽무선에게 이르시였다.

《부총리동무를 태우시오.》

《예.》

곽무선이 차 뒤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야조브에게 《실례합니다.》라고 하며 홍경봉에게 차에 오르라고 손짓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을 열고 밖에 서 있는 곽무선에게 《동무는 퇴근하도록 하시오.》 하시였다.

그 말씀이 끝나기가 바쁘게 차는 떠났다.

《원산도로쪽으로!》

김정일동지께서 운전사에게 이르고 나서 좌석등받이에 손을 올려 놓고 몸을 반쯤 돌리며 뒤에 앉은 홍경봉을 바라보시였다.

《가면서 말해 봅시다.》

《알았습니다.》 하면서도 홍경봉은 옆에 야조브가 있는것이 불편한듯 주저하는 표정이였다.

《일없소.》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야조브를 바라보며 웃음을 띠고 말씀하시였다. 《국사를 좀 의논하려는데 들으셔도 일 없습니다.》

야조브는 그 말씀이 무척 반가운듯 머리를 숙여 그이께 사의를 표시했다.

화제는 큰물피해대책, 그중에서도 식량문제에 대한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정무원에 과업을 주신듯 홍경봉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정무원은》 홍경봉은 확고한 어조로 자기의 결심을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국제적인 식량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1996년 인민경제계획을 조절해야 하며 특히는 기본건설을 당분간 중지하여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쌀을 사오려고 한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등받이에 올려 놓았던 팔을 내리우고 몸을 본

래위치로 돌려 앞을 바라보고 앉으시였다.

차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통역이 야조브의 귀전에 대고 소곤소곤 무엇인가 말하였다. 아마 **김정일**동지와 부총리사이에 오간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모양이였다. 야조브는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니》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침묵을 깨치시였다. 《바지를 벗어 주고 웃도리를 사오겠다는건데…》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홍경봉이 조심조심 그 침묵을 깨뜨렸다.

《우리에게 외화가 부족한 조건에서 쌀시장으로 들어 갈수는 없고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대치물자만 있으면 친선적인 나라들과 련계를 가져 보겠다고 합니다. 세멘트와 강재,석탄 등을 념두에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세멘트와 강재의 대부분이 기본건설에 들어 갑니다. 이런 형편에서 기본건설을 죽이지 않고는…》

《기본건설에서 제일 큰것이 금강산발전소건설이 아닙니까?》

김정일동지께서 좀 거센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분명 노여움이 어린 어조였다.

홍경봉이 주저주저하며 말씀 올렸다.

《그 공사에 한해서도 추가로 사다 주게 되여 있는 연유와 륜전기재를 예견대로 공급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추가분을 공급해 준대도 공사장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외화사정이 하도 긴장해 놔서… 국제적으로 식량을 지원 받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것도 아니니 자금이 돌아 가는대로…》

홍경봉의 그 말은 **김정일**동지께서 뢰끗 뒤를 돌아 보시는 바람에 그만 중단되고 말았다. 그이의 시선에서 못 마땅해 하신다는것이 알렸던것이다.

《부총리동무,미리 말하지만 나는 하나의 외교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도전한 국제인권협약에서 탈퇴해 버리자는것입니다.》

차내에는 갑자기 땅이 꺼진듯 한 침묵이 깃들었다. 야조브의 귀

전에 대고 통역이 말하는 소리가 그 정적을 더해 주는듯 했다. 그 정적을 깨치고 야조브의 비명 비슷한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는 개의치 않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쌀을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다는 립장에 서야 합니다. 아마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시였대도 그렇게 하시였을것입니다. 그리고 쌀을 사오기 위해서 인민경제계획을 조절하고 만년대계의 공사를 중지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금강산발전소건설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거야 정무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말씀을 매우 안타까운 어조로 하시였다. 잇달아 다른 문제가 걸리기때문이였다. 홍경봉이처럼 생각하면 국방공업에 지출하는 몫도 줄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전국의 빛섬유통신화와 콤퓨터화를 위한 투자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홍경봉동무는 정초에 우리와 만났을 때에도 금강산발전소건설에 대해 시원한 립장이 아니더니 아직도 그렇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조에 저으기 노여움을 담으시였다.

홍경봉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뒤덜미가 벌개진것이 차내의 그리 밝지 못한 조명등속에서도 알릴 지경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단조로운 어조로 타이르듯이 말씀하시였다.

《안됩니다. 그건 후퇴입니다. 그렇게 뒤걸음치다간 정말 목조르기를 당합니다. 질식 당한단 말입니다. 인민들은 나라의 근본리익을 희생하면서 사온 쌀을 먹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쌀때문에 나라의 많은 자연부원이 이러저러한 경로로 빠져 나갑니다. 정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홍경봉은 물론 통역과 운전사까지도 숨을 죽이고 그이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야조브도 차안의 분위기를 느낀듯 하였다.

《좋습니다.》 하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배하고는 타협할수 없으니 쌀부터 사고 봅시다. 그렇다고 나라의 근본리익을 외면할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금강산발전소건설은 죽어도 베고 죽

어야 할 대상입니다. 나는 심철범장령을 불렀습니다. 인민군대의 결심을 들어 봅시다. 그다음 결론을 내립시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을 끊고 고개를 돌려 차창밖을 살피시였다.

《금방 원산도로에 들어 섰습니다.》

눈치 빠른 운전사가 말씀 드렸다.

《좀 더 마주 갑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운전사에게 말씀하신 다음 야조브를 뒤돌아 보시였다.

《밤이 깊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원 천만에, 이런 밤이라면 밝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조브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허허…》

김정일동지께서 차안의 무거운 공기를 단번에 가시여 내며 웃으시였다.

차는 상원쪽으로 한참 더 달리였다. 새벽을 가까이 한 때여서 마주 오는 차들이 별로 없었다.

《심철범동무와 전화를 련결하시오.》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이르시자 운전사는 곧 그와 련결되였다고 하면서 묻듯이 그이를 바라보았다.

《어디쯤 왔는가를 알아 보시오.》

운전사가 상대방과 몇마디 주고 받더니 전방 5키로지점에 있다고 그이께 보고 드리였다.

《됐소. 그럼 어디 자리를 봐서 차를 세우시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차가 멎고 차에서 내린 일행이 길섶 둔덕진 공지에 올라서는데 쾌속으로 달려 오던 심철범의 야전용승용차가 다급히 멎어섰다.

차에서 내려 달려 오는 심철범의 한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오른손이였다. 그는 거수경례를 할수가 없어 그저 차렷자세를 하고 그이께 도착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둔덕에 선채 붕대를 감은 그의 손을 한번 슬

쳐보고는 다급하고 빠른 말씨로 그리고 매우 짧게 전투정황을 주듯이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알려 준 다음 《알겠소?》 하고 간단히 물으시였다.

《알겠습니다.》 심철범 역시 간단히 대답을 드리고 나서 자기가 파악한 내용을 요약해서 복창하였다.

《좋소. 그렇다면 동무의 결심을 말하시오. 정무원에서는 동무들에게 주기로 한 연유와 륜전기재를 사올 외화로 쌀을 사다가 인민들에게 먹이겠다고 하오. 그것도 필요한것이요. 그렇다고 공사를 줴버릴수도 없는거요. 잘 생각해 보시오.》

김정일동지의 이 말씀에 심철범은 잠시 침묵하였다. 그는 다부진 몸에 두팔을 꼿꼿이 펴서 붙이고 차렷자세를 유지한채 서 있었다.

이때 **김정일**동지께서는 물론 홍경봉과 야조브도 바지혼솔에 붙어 있는 그의 붕대를 감은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새벽빛속에서 류달리 크고 희게 보였는데 붕대우로 빨간 물약인지 피인지 모를 축축한것이 슴새여 나온것이 보였다. 모두는 지금 그것을 보면서 다같이 쓰라린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비장한 결심을 해야 하는 장령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짐작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심철범은 오래 있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무조건 공사를 해내겠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 그를 찬찬히 바라보시였다. 장령의 우아래를 깐깐히 훑어 보시는것이였다. 그 시간이 퍼그나 오래 걸리였다.

그러나 그이 역시 간단히 응답하시였다.

《알겠소. 믿겠소!》

그다음 그이께서는 자신의 등뒤에 한발 떨어 져 서 있는 홍경봉에게로 돌아 서시더니 군인들에게 하듯이 명령조로 말씀하시였다.

《정무원은 기본건설에 투자하기로 한 추가분물자와 자금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살아 갈수 있는 대책을 취하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홍경봉도 군인식으로 간단히 대답을 드리였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눌러 오던 격한 심정을 비로소 터뜨리듯 강한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나라가 쌀에 먹히워서는 안된다는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우리가 결심한 금강산발전소건설은 한시도 중단할수 없습니다. 정무원은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경봉은 대답대신에 군인들처럼 자세를 꼿꼿이 폈다.

국가의 운명과 련결된 이 모든것은 이처럼 로상에서 불과 몇분사이에 결정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철범의 붕대를 감은 손을 잡고 다심히 물으시였다.

《다쳤소?》

《일 없습니다.》 심철범이 송구해서 손을 등뒤로 감추려고 했다.

《치료를 받고 내려 가지. …》

그이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전달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고맙소, 고맙소! 당은 군대를 믿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소. 아침보도로 그것이 발표될거요. 자, 그럼…》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두 어깨를 잡고 포옹하듯이 앞으로 당겼다가 되돌려 세우며 잔등을 떠미시였다.

《내 차를 바꾸어 타고 가시오. 좀 빨리 갈수 있을거요. 그렇게 하시오. … 그렇게 하시오!》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차에 사양하는 심철범을 태워 떠나보내고 그의 야전용승용차에 올라 타시기까지는 한동안이 걸리였다.

벌써 동명왕릉이 자리 잡은 산발에 려명이 비끼기 시작했다. 후련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있던 야조브가 시선을 차안으로 돌리는데 비좁은 앞자리에 앉으신 **김정일**동지께서 까딱 않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였다.

그이께서 어느새 쪽잠에 드신것이다.

강성했던 고대로마가 망한것은 군력이나 경제력이 약했기때문이 아니라 덕이 부패했기때문이거늘 오, 덕으로 다스리고 덕으로 받

드는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것이다. …

야조브는 마음속으로 이날의 일기를 쓰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척없이 쪽잠에서 깨여 《어, 잘 잤군!》 하며 두팔을 뒤로 쭉 펼쳐 천정을 치받치듯 기지개를 켜더니 고개를 돌리시였다.

《혼자만 자서 미안합니다. 원수동지, 날도 밝는데 우리 내려서 아침요기를 하면서 이야기나 좀 합시다.》

17

첫 새벽인 6시부터 시작된 작전회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회의는 전호진소장이 집행하였다.

량수책상앞에 놓인 등받이가 높은 심철범중장의 의자는 비여있었다. 전호진, 리완수 등은 회의용긴책상 량옆에 주런이 마주앉아 있었다.

회의는 심철범이 한밤중에 최고사령부의 호출을 받고 평양으로 급히 떠나면서 준 명령에 따라 열리였다.

수송문제가 토의되였다. 공사의 지휘를 맡고 있는 장령들이 이미전부터 위구심을 느끼고 있던 수송문제가 굴진속도가 높아 지고 여기에 콩크리트충진을 따라 세우면서부터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 왔던것이다.

수백대의 자동차들이 밤낮으로 뛰고 있었으나 공사장들에서는 모래와 자갈이 딸린다고 아우성이였다. 모래와 자갈문제가 공사장의 생명선이라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해 졌다. 장령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입에서나 모래와 자갈이라는 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비명만 지르고 있지 않았다. 공사장주변에서 모래원천을 찾아 내기 위하여 산골짜기라는 산골짜기는 다 뒤졌다. 그들은 먼 옛날에 강이 흐르던 곳이라고 짐작되는 장소들은 수십메

터의 깊이까지 파보았다. 어디에도 모래와 자갈은 없었다.

작업갱입구마다에 쌓여 있는 버럭들가운데서 굳은 돌을 파쇄하여 쓰기로 한것은 자갈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한몫 하였다. 그들은 명령을 떨구고 정치사업을 하면서 운전사들을 수송전투에로 불러 일으켰다. 자동차들은 바퀴에 불이 달릴 지경이였다. 이것은 기름의 긴장성을 가져 오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문제는 기름에 귀착되였다. 그리하여 회의참가자들은 최고사령부에 불리워 올라 간 심철범이 혹시 추가로 주게 되여 있는 기름을 받아 가지고 오지 않을가 하고 기대하면서,아니 그 기름을 전제로 하면서 수송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다.

아침 7시 15분전 관리국청사의 보초병이 차단봉을 미처 쳐들어 올릴새없이 대형승용차가 경적을 다급히 울리면서 정문으로 들어선것은 수송문제를 담당한 지휘관인 대좌가 회의앞에서 자기의 최종결심을 금방 말하려던 때였다.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운전칸이 비좁아서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 운전사출신의 체구가 장대한 대좌가 자리에서 일어 섰다.

길고 다급한 경적소리가 울린것은 바로 그때였다. 회의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종결심이 발표되는 긴장한 순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머리를 빼들기도 하고 혹은 엉거주춤 일어서기도 하며 창밖으로 기웃거리였다. 그리고 보기 드문 승용차를 보았다.

그러다 인차 회의중이라는것을 상기하고 몸가짐을 바로 하며 전호진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전호진자신도 일어 선채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심철범을 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군복상의깃을 내리당기며 상관이 도착한데 대하여 영접보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회의를 계속해야 할지 몰라서 리완수쪽을 바라보았다. 리완수도 자리에서 일어 섰을뿐 그저 멍해서 전호진을 마주 볼뿐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뜨락에서 직일관이 영접보고를 하는 청 높은 소리가 들리고 전호진은 회의를 계속하기로 결심한듯 차관리부장을 보았다.

《그럼 보고하겠습니다.》 일어 선채 주춤하고 있던 대좌가 금방 자기가 한 말을 되뇌이며 힘들게 입을 열었을 때 손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며 심철범이 들어 섰다.

첫 순간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몇달전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임명을 받고 이 방에 나타났던 때에 보았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표정을 찾아 볼수 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그가 가지고 온것이 기대와는 전혀 뜻밖의것이라는것을 예감하였다. 그들은 이 모든것을 그가 타고 온 승용차와 련결시켜 생각하는것이였다.

심철범은 《지휘관동무들.》 하는 참모장 전호진의 구령에 따라 모두 일어 선 사람들의 영접인사를 뿌리치듯 손을 내젓고는 군모를 벗어 벽걸이에 걸고 천천히 비닐레자를 깐 방바닥을 저벅저벅 밟으며 량수책상앞 자기의 자리에 가앉았다.

회의는 다시 계속되였다. 심철범은 차관리부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계속하시오!》 보매 그는 회의가 차관리부장의 최종보고를 듣고있었다는것을 짐작한 모양이였다.

그것은 비장하고 침울한 보고였다. 운전사들은 매일 15시간이상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필요한 2천톤의 모래를 공사장에 실어다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긴장한 로동강도는 운전사들로 하여금 운전대를 잡고 졸게 만들었으며 철령을 넘나드는 도중에 몇대의 화물자동차를 벼랑에 구겨 박는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

대책은 교대운전사를 차에 태우되 부족한 운전사들은 군인들속에서 차를 몰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장악하여 단기훈련을 주어 확보하며 만가동하는 차들의 수리정비를 위하여 최단기간내에 자체의 자동차수리기지를 꾸리자는것이였다. 그래도 풀수 없는 경우에 지방당과의 련계밑에 민간자동차들을 동원하는 군수동원령을 발동하며 그래도 안되면 수만명의 장병들이 등짐으로 날라서라도 공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좀 막연하나 결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책이였다. 그러나 이 필사적인 대책도 국가에서 자동차와 기름을 추가적으로 대주는 조건에서만 가능한것이였다.

대좌는 몹시 떠듬거리며 힘들게 이 대책안을 내놓았다. 그는 보고를 끌마치고 기름때가 묻은 손수건을 꺼내 땀 밴 이마를 뻑 문대였다.

보고를 들으면서 심철범은 몇번 팔목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사람들은 그가 대좌의 보고에는 거의 무관심하게 무언가 다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이것을 가장 명백히 느낀것은 리완수정치위원이였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심철범을 본 따듯 자기도 팔목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7시가 다 돼가고 있었다.

저 장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리완수는 이미 회의에 대하여서는 잊고 있었다. 평양으로 불리워 간 심철범이 색다른 승용차를 타고 들이닥친 때부터 자기들이 이른 아침부터 해온 회의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직감했다.

하다면 최고사령부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아 가지고 왔는가? 리완수는 그것을 심철범의 표정에서 찾아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심철범이 시계를 들여다 보느라고 얼굴을 숙이고 있었기에 아무 표정도 볼수 없었다. 그렇다고 먼저 말을 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리완수는 그와 오래는 같이 일하지 않았지만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무슨 문제이건 정치위원인 자기에게 먼저 터놓았으며 자기와 선참으로 의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회의도중에 들어 와 회의를 무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리완수 자기에 대한 무시이기도 했다.

어떻게 된 일일가? 리완수는 나라가 뜻하지 않게 입은 큰물피해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다. 그것이 적들의 새로운 도발의 기회로 될수 있다는것을 지금 더욱 명백히 느끼면서 그는 심철범의 이상한 침묵을 그것과 련결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리완수의 맞은켠에 앉아 있는 전호진은 주위의 심리상태는 관계치 않고 회의와 관련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지금 공사의 운명과 관련되는 수송문제만이 머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과연 군인들속에 운전경험이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될것인가? 자동차수리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기계와 설비는 어데서 구해

올것인가 하는 문제만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희고 기름한 얼굴에 이마가 넓고 코날이 서양사람처럼 우뚝하였다. 나이로 치면 심철범보다 절반이 좀 넘는 40대로서 평양에서 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가 《푸에블로》호 사건때 입대하였다. 그후 군관으로 제발되였다가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작전일군이 되였다. 머리가 수재형이였던 그는 군사과학분야에서 인차 두각을 나타내여 여러번 그 부문 연구사로 발탁되였으나 뿌리치고 부대생활을 하면서 짧은 기간에 장령으로까지 되였다.
그의 애명이 《직각》이다. 모든것을 모가 나게 해제낀다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였다. 이것은 그의 성격의 일단을 특징 짓는것이기도 했다. 그는 좀해서 구부러 드는 성격이 아니였다. 그가 려단장으로 있을 때 심철범과 《충돌》했던것도 바로 그 성격때문이였다.
심철범과 새 초소에서 만나 직선돌파냐, 우회돌파냐 하는 문제에서 엇서서 최고사령부에까지 제의한것을 보면 구부러 들지 않는 그 성격때문이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직각》인 그는 일단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판단되면 직각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내달았다.
그는 자기 주장이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부결되고 직선돌파주장이 옳은것으로 결론되자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환성을 올리며 그 일에 달라붙었다. 심철범이 최고사령부에 불리워 갔다가 돌아 오건 말건 수송문제에만 전념하고 있는것도 직선돌파로 어떻게 하면 공사의 기일을 앞당기겠는가 하는데만 몰두했기때문이였다.
한참만에야 그는 장내의 분위기를 비로소 느낀듯 머리를 휘둘러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심철범의 얼굴에 시선을 박고 무슨 일인가고 막 물으려고 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한 대좌가 급한 걸음으로 들어 왔다. 누구에게 말할것인가를 판단하려는듯 방안의 사람들을 성급히 휘둘러보고 난 그는 전호진의 옆에 앉아 있는 작전부장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고 몇마디 귀속말을 하였다.

심철범은 그것을 못 본척하다가 대좌의 말이 길어 지고 당황한 작전부장이 나가라고 그의 등을 서둘러 떠밀기 시작하자 머리를 쳐들고 대좌를 쏘아 보면서 쌀쌀하게 물었다.

《동문 누구요?》

대좌는 당황하여 말을 못하였다.

《동문 누군데 허락도 없이 들어 오는가 말이요?》

심철범이 되물었다.

대좌는 바지혼솔에 손을 대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126려단 려단장 대좌 최광일입니다.》

그리고는 한걸음 앞으로 나서서 약간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다.

《중장동지, 려단이 맡은 모든 갱막장들에서 오늘 아침부터 콩크리트타입이 중지되였습니다.》

그의 말은 방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모래가 떨어 졌으리라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그러나 심철범만은 태연하였다. 눈을 치뜨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대좌를 쏘아보면서 불만스러운듯 물었다.

《왜 작업을 중지했단 말이요?》

《모래… 모래가 떨어 졌습니다.》

대좌가 대답하였다.

《자동차들을 려단들에 배속시켜 주십시오. 자동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밤낮으로 날라다가…》

《자동차? 동문 젖꼭지를 물고 있는 어린앤가?》

그는 말문이 막혀 쩔쩔 매는 대좌를 바라보며 계속 내쏘았다.

《국가가 젖 짜는 암소가 아니란 말이요. 알겠소? 나가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장동지.》 하고 대좌는 차렷자세를 취하고 말했다.

《저는 공사장에 조성된 실태를 보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소, 거기 앉소.》

심철범은 곧 자기 말을 취소하고 다시 말했다. 그러나 대좌에게 양보한것이 아니였다. 그는 팔목시계를 얼핏 보고는 리완수에게 시선을 돌리며 대좌를 대하던 말투와는 전혀 달리 정중하게 불렀다.

《정치위원동무.》

《예.》

리완수가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아침보도시간입니다. 나는 이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보도를 듣자는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고 리완수는 마치 그들사이에 사전에 약속이라도 있었던듯이 출입구쪽 벽에 매달려 있는 고성기의 스위치를 넣었다.

잠시후 방안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적들의 도전에 대비하여 국제인권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를 듣게 되였다.

모두들 심철범의 례외적인 침묵을 리해하였다. 이번엔 그들자신이 입을 다물고 까딱 않고 앉아 있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불의에 뛰여 들어 왔던 126려단장이 바스락소리를 내며 일어 서서 나가려고 했다.

《잠간.》

심철범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대좌에게 더 관심을 두지 않고 천천히 일어 서서 모두를 둘러 보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게 된데 대하여 명령서를 랑독하듯이 흥분을 앞세우지 않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몸부림이 일고 있었다.

이젠 정치위원만이 아니라 그들모두가 아침부터 모여 앉아 토의한 문제가 황당한것이였으며 그래서 그 회의가 쓸데 없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느끼기 시작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더 높은 요구, 엄격하고도 무자비하다 할 정도로 단호한 요구를 제기하시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 질문은 전호진을 무척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공사를 책임진 참모장인것이다. 그는 공사장의 모든 막장과 부속작업장들을 손금처럼 빤히 알고 있었으

며 모래,자갈,세멘트와 철강재가 최후의 결사전을 벌리는 전호가의 총탄처럼 피와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호가에서라면 총탄이 떨어 졌을 때 육박전이라도 벌릴수 있으련만 공사장에서야 그렇게 할수도 없는것이 아닌가!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소리에 전호진은 심철범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질문을 던진것은 그가 아니라 리완수였다.

리완수가 던진 그 물음은 그가 회의라든가 사람들앞에서 자주 쓰는 말이였다. 그는 군인대중의 의견을 듣기 좋아 하였다. 그는 그 스승의 지혜와 의견을 가지고 각급 지휘관들과 당원군인들을 이끌어 주었다. 결국 그자신이 존경 받는 스승으로 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자기자신에게도 자주 던지군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부대안의 모든 사업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착하게 자중할줄 알며 열번,스무번 타산할줄 알며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는 군사사업의 실무적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군사지휘관들을 대행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일군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킬줄 알았다. 그는 자고자대하는 일도 없었다. 붕락구간돌파문제에서 심철범과 함께 자기도 주장한 직선돌파가 옳다고 여겨 졌지만 상급에 제기하겠다는 전호진의 의견에 동의했고 그 의견이 최고사령관동지앞에까지 가서 부결되였을 때도 그를 탓하기전에 자기자신을 더 반성하였다.

이러한 그가 최고사령관동지의 새 명령,그것도 전례없이 비상한 정황속에서 떨어 진 그 명령을 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었다. 그것은 벌써 그가 명령을 받아 들이였으며 그 명령에 대하여 사소한 의심도 가질수 없으며 집행만이 있을뿐이라는것을 선포한것으로 되였다.

이것을 제일 먼저 느낀 사람이 심철범이였다.

《고맙소!》

그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흥분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회의참가자들중 그 누구도 《고맙소》라는 말의 뜻을 미처 깨

닫지 못하였을것이다.

바로 몇시간전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비상히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였을 때 심철범의 눈앞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리완수였다. 그다음은 여기에 모인 각급 지휘관들,막장에서 일하는 군인들이였다. 명령을 집행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그들이였기때문이였다. 지금 심철범은 리완수의 말을 그들모두의 대답으로 받아들이고 기뻐 하는것이였다.

방안의 분위기를 변화시킨것이 리완수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한 무미건조하고 객관적이고 과장 없는 질문때문인지 아니면 심철범의 고맙다고 한 그 말때문인지 그것은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회의참가자들의 심장속에 한결같이 고동치고 있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무조건 훌륭히 관철될것이라는 확신이였다.

《나는》

심철범은 리완수를 바라보던 눈길을 돌려 좌중을 둘러 보며 말하였다.

《동무들을 믿고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환경이 열번 변하고 조건이 백번 달라 져도 0026호명령을 관철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모두가 일어 섰다. 누가 먼저 선창을 뗐는지는 몰라도 방안에는 힘찬 구호웨침소리가 세번 반복해서 울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한다!》,《한다!》…

새벽에 도로우에서 드미뜨리 야조브는 나라가 큰물피해를 입고 적들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형편에서도 금강산발전소건설을 계속 내밀기로 한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과 그 결심에 따라 심철범 조선인민군지휘관이 즉석에서 용단을 내리는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보건대 인생은 어떤 경우에나 끊임 없는 선택과 용단의 련속이였다. 철들기 시작해서부터 늙은이가 되여 의식이 무디여 질때까지 수시로 크든 작든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고 용단을 내려야

하는것이 인간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관계되는것은 아니였다. 그와는 반대로 전시하에 군인이 내려야 할 선택과 용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되였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용단을 내린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력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다.

이날 일기에 야조브는 이렇게 썼다.

《군사에서 지휘관의 용단은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의 용단이 백전백승하는것은 그들이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결심과 의도대로 사고하기때문이다.…》

3자의 눈으로 볼 때 이처럼 경이적인 사실을 범상하게 여기며 또 전혀 느끼지도 못하며 회의참가자들은 문제토의를 계속했다.

《자, 동무들.》 하고 심철범이 말했다.

《한대의 자동차도 한톤의 기름도 더 받을수 없습니다. 이젠 문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토의해 봅시다.》

그는 좌중에 문제를 던져 놓고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 나 문가로 걸어 가는 대좌를 멈춰세웠다. 126려단장이였다.

《려단장동무, 자동차를 가지고 왔소?》

《예.》

《누구차요? 동무차요?》

《그렇습니다.》

《좋소. 동무네 려단 2중대에 김남철이란 전사가 있소.》

《압니다!》

《당장 동무가 차를 몰고 가서 데려 오시오. 당장!》

《알았습니다.》

려단장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뛰여 나갔다.

《자, 계속합시다.》

심철범은 대좌가 나가는것을 지켜 보다가 말했다.

《비상한 정황인것만큼 비상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변에서 모

래를 실어다 쓰자고 해서는 결정적으로 안됩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 봅시다.》

무조건성이란 결코 구호처럼 쉽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도 장령의 말에 인차 입을 열지 못하였다. 금방 구호를 웨치고 났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수십만톤에 달하는 모래문제가 놓여 있었던것이다.

심철범은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연필로 책상을 똑똑 두드리고 있었다. 보매 그는 회의참가자들의 말이 아니라 려단장이 데리러 간 전사를 기다리는것 같았다.

드디여 심철범은 리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치위원동무, 잠시 휴회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역시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것처럼 리완수가 답변했다.

심철범이 왜 김남철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리완수밖에 없었다.

그는 며칠전 모래운반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심철범과 함께 김남철을 만나 담화하였는데 그때 전사가 말했다. 공사장주변에 무진장한 석비레를 모래 대신 쓸수 있다는 비상한 안이였다.

×

백두대산줄기의 지맥인 철령산줄기는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석비레는 화강암이 수천년동안의 지질시대를 거쳐오면서 풍화작용의 결과에 이루어 진 황백색의 녹두알만 한 작은 알갱이였다.

이러한 석비레는 철령산줄기의 어느 곳에서나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인류는 아득한 태고로부터 석비레를 소석회에 섞어 블로크를 찍어 쓰거나 점토와 혼합하여 벽을 바르는 등 건재로 리용해 왔다. 하지만 현대건축의 기본재료인 콩크리트혼합물에 그것을 리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강도에서 흠할데 없이 견고한 모래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었기때문이다. 콩크리트혼합물에 모래를 쓴다는것은 건축학에서의 기성리론이였

으며 어길수 없는 건설법규였다.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모래가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을 때 전사 김남철도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남철이 모래원천을 찾아 말라 버린 강바닥을 파고 있는데 심철범이가 어디로 가는지 마른 강바닥에 난 소로길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남철은 허리가 넘는 구뎅이에서 훌쩍 뛰여 나와서 《중장동지!》 하고 반기였다. 최고사령관동지를 함께 만나뵙고 돌아 와서 오래간만에 보는 심철범이였다.

하지만 심철범은 알은체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 (몰라 볼리 없는데?) 하고 김남철은 그의 등뒤에 대고 《전사 김남철입니다!》 하고 재차 소리쳤다.

심철범은 뒤돌아 섰으나 그를 멀거니 바라볼뿐이였다. 멋적어진 김남철은 《담배를 피우고 가십시오.》 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다가가서 담배 한가치를 권했다.

심철범은 그가 담배를 물려 주고 불까지 붙여 주어서야 알아 보고 《아, 남철동무군.》라고 했다.

《옛, 전사 김남철!》

김남철은 전사의 례법대로 장령앞에서 차렷자세를 지어 보였다. 심철범은 답례로 그의 손을 한번 잡아 주었다. 선 자리에서 담배한대를 몇모금에 다 태우고 난 심철범은 남철이가 파놓은 구뎅이를 한참 들여다 보더니 《일을 잘하라구.》 하고는 말없이 가던 길을 걸어 갔다. 무엇엔가 몹시 옴하고 있는것이 분명하였다. 남철은 직속상관들의 말을 통해 그가 모래때문에 고심한다는것을 알고 있었던만큼 그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모래원천을 찾아 더욱 정신없이 뛰여 다니였다. 그는 그렇게 하는것으로써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고 하였다.

휴식일에 김남철은 산골짜기로 흐르는 개울로 내려 가서 닯은 작업복과 작업신발을 빨아 너럭바위우에 널어 말리우면서 어린 시절처럼 물에 다리를 잠그고 우아래를 오르내리기도 하고 두손

을 바가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펴서 몸에 끼얹다가는 시원한 물에 풍덩 들어 앉아 물장구도 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문득 뒤로 몸을 제치고 앉아 강바닥을 짚고 있는 그의 손에 깔깔한것이 잡혔다. 그것을 한줌 꺼내 눈앞으로 가져 온 남철의 입에서 환성이 울려 나왔다.

모래였다. 이러한 모래는 강이나 내물에는 어디나 조금씩은 다 있었다. 남철이 환성을 지른것은 모래에 대한 생각에 너무도 옴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는 착암을 하고 광차를 밀면서도,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면서도 그리고 잠자리에서조차 어떻게 하면 모래문제를 풀가 하고 생각했었다.

남철은 손에 쥔것이 보석이기라도 한것처럼 꽉 움켜 쥔채 골개물을 더듬어 올라 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모래는 바위짬에,물기슭에 한웅큼씩 쌓여 있었다. 골물은 길지 않았다. 한 5리쯤 올라가자 골물은 점점 가늘어 지더니 끝이 났다. 시원에 이른것이였다. 여기저기서 졸졸 소리가 나면서 샘이 솟고 있었다. 샘줄기를 찾아 가랑잎을 헤치던 그는 그 샘이 석비레층에서 습새여 나오면서 석비레를 씻고 또 씻어 내는것을 보았다. 샘물에 씻긴 석비레는 모래알만 하게 되여 은백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래였다. 모래대신에 석비레를 쓸수 없을가 하는 남철의 착상은 이렇게 하여 나온것이였다.

남철은 이 사실을 직속상관들에게 보고했다. 직속상관인 분대장이나 소대장은 반신반의하면서 퍽 뒤늦게 상급참모부에 보고했고 그 보고가 심철범에게 들어 온것은 바로 지난 새벽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으로 떠나기전이였다.

그사이 남철은 자기의 착상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그는 석유초롱을 얻어 뚜껑을 떼던지고 거기에 석비레를 담아다가 골물에서 일었다. 다음은 사택마을에서 쌀을 이는 이남박을 빌려다가 그것으로 씻고 일고 하여 흙성분과 기타 불순물을 말끔히 뽑아 던지고 은백색의 알갱이만을 얻어 냈다. 한 이남박에서 적어도 절반가량의 알갱이가 나왔다.

그것이 한포대가량 되자 남철은 분대원들과 함께 자갈과 세멘

트에 섞어 혼합물을 만들고 베개통만 하게 블로크를 찍어 냈다. 며칠간 굳힌 다음 강도시험을 해보았다. 블로크를 들고 한길이나 되는 벼랑으로 올라 가서 아래에 있는 커다란 너럭바위에 힘을 주어 내리던졌다. 챙 하는 금속성과 함께 블로크는 바위에서 튕겨 나더니 데굴데굴 굴러서 골물에 첨벙 빠졌다. 기쁨에 겨워 위험도 잊고 벼랑에서 떨어 지듯 굴러 내려 간 남철은 물에 빠진 블로크를 건져 내여 찬찬히 살펴 보았다.

손톱눈만 한 쪼박도 떨어 져 나가지 않은 딴딴한 블로크였다. 성공이였다.

지금 남철은 그 블로크를 배낭에 넣어 잔등에 지고 려단장의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어떻게 되여 그것을 가지고 떠났는지도 몰랐다.

그를 데리고 가는 려단장 또한 그 배낭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서 중요한것은 빨리 남철이를 관리국까지 도착시키라는 상급의 명령이였던것이다. 그는 얼마전에 전사가 최고사령부로 불리워 가던 때와도 같은 일이 제기된줄로 알고 시간이 급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남철은 지고 온 배낭을 그냥 잔등에 진채 사무실의 문턱을 넘어 섰다. 심철범의 사무실에 모여 앉아 있는 여러명의 장령들과 군관들을 보는 순간 그는 덞고 째지고 블로크장을 넣어 볼품이 없는 배낭을 출입문쪽 벽가에 떨구듯 내려 놓았다. 바닥을 울리는 쿵소리가 났다. 그러나 방안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 배낭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전사의 잔등에 배낭은 생활이였던것이다.

남철은 려단장의 등뒤에 서 있었다.

《앉으시오.》

심철범이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도착보고를 한 려단장이 그 말이 남철이를 두고 하는것임을 알고 비켜 서며 남철이를 앞에 내세웠다가 빈 자리를 찾아 그를 앉히고 나서 심철범을 바라보았다.

《려단장동무도 앉으시오.》 이렇게 심철범이 다시 말하자 대좌도 앉았다.

《동무들, 전사동무의 말을 들어 보고 토의를 계속합시다.》

하고 심철범이 말했다. 《나는 지난 새벽에 저 전사동무가 착상한 석비레모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사동무의 이야기를 우리모두가 함께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사동무.》

심철범이 이렇게 말하며 바라보자 남철은 용수철에 튕기듯 벌떡 일어 섰다.

남철은 마치 중대방송을 들을 때와도 같은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주의를 모으고 있는 지휘관들을 둘러 보았다. 그는 자기의 착안, 아니 이제는 발명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문제를 중대장이나 대대장들앞에서가 아니라 장령들과 고급군관들앞에서, 그것도 결정권을 가진 심철범장령이나 리완수와 같은 부대의 지휘관들앞에서 발표하게 되였다는것으로 하여 흥분을 걷잡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모래나 석비레는 주성분이 다 같이 석영입니다. 여기에 첨가물인 운모가 조금 포함되여 있습니다. 반면에 석비레에는 모래에 없는 알루미나가 많은 량이 포함되여 있습니다.》

심철범은 그의 첫말에 벌써 놀랐다. 남철은 보고자료와는 달리 말하고 있다. 그가 받은 보고에는 강에서 모래를 발견하던 이야기, 상류로 쫓아 올라 가서 모래의 조상이 석비레라는것을 밝혀 낸 이야기만 있었다. 그 이야기에는 어딘가 동화적인것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전사는 모래와 석비레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으며 과학자연한 말투로 그것을 확고히 증명하고 있다.

남철의 말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만일 석비레에서 알루미나, 다시 말해서 부실부실하고 점성이 있는 황토성분만 제거한다면 은백색의 알갱이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이자 석비레이고 석비레이자 모래라는 가설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벌써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설이고 현실입니다.》

(뭐라고?) 심철범은 흥분하여 마음속으로 웨쳤다. 이런 희한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저 전사는 벌써 석비레에서 모래를 얻어 놓고 이런 말을 하는것이 아닌가!

방안의 다른 사람들도 놀램과 흥분, 찬탄과 의혹속에 저마끔 각

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각이한 표정뒤에 깔려 있는것은 크나큰 희열이였다. 방금까지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새로운 명령관철을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던것이다. 김남철전사의 말은 그들에게 어두운 밤의 등불과도 같이 눈앞을 틔워 주고 있었다.

《저.》 하고 남철은 여전히 침착한 어조로 마치 중학교시절 시험장에서 대답할 때와도 같이 자신심에 넘쳐 말했다. 그는 그사이 석비레를 일어 석비레모래(그는 자기의 발명품을 그렇게 명명했다.)를 얻어 낸데 대해서와 그것으로 블로크를 만들고 강도시험을 한데 대해서 조리 있게 말했다.

《뭐라구?!》

드디여 심철범이 참지 못하고 전사의 말을 중단시키며 되물었다.

《강도시험을 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떻게?》

심철범은 웨치듯 소리쳤다.

남철이 말을 끊고 출입문벽에 기대여 놓은 배낭을 집어 오는 동안 심철범은 일어 서서 의자뒤로 나오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마치 용해공이 출선직전의 로안을 들여다 볼 때와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고 남철이 배낭을 풀고 블로크장을 꺼내 심철범의 발앞에 쿵 소리가 나게 놓았다. 그 순간 모든 지휘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심철범에게로 옮겨 갔다.

그러나 심철범은 블로크장이 아니라 남철이를 처음 보듯 찬찬히 뚫어 지게 바라보더니 와락 끌어 안았다. 전사의 잔등을 쓰다듬는 그의 손이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다른 지휘관들의 가슴속에서도 세찬 격정이 일고 있었다. 누구도 강도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묻지 않았고 그것이 국가심의에서 통과되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에게서 중요한것은 석비레를 리용한 콩크리트혼합물이 나왔다는 사실자체, 그것을 과학자나 기술일군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닌 애어린 전사가 만들어 냈다는 그 사실자체였던것이다.

《그래 이걸 어떻게 만들었단 말이요, 전사동무?》

리완수는 전사 남철자체에게 더 관심이 갔다. 창안품자체보다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는데 습관된 정치위원이였던것이다.

다른 지휘관들도 이 순간 정치위원과 같은 심정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그들도 블로크장이 아니라 남철이를 바라보았다. 남철은 말이 없었다.

어째서인지 갑자기 벙어리가 된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철동무.》

리완수가 재촉했다.

《…》

《어째서, 말을 잘하더니?》라고 리완수는 그가 이러저러한 모임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게 된데 대하여 곧잘 연설을 하던것을 념두에 두고 말했다.

남철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숨이 찬듯 긴 숨을 내톺았다. 얼굴이 상혈된것 같았다. 과연 그에게 이 순간 할 말이 없겠는가? 그는 연설때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병사들을 믿고 계신다.》,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라고 한두번만 말했던가?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할 때가 아닌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애 써 왔다는것을!

여전히 남철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전사동무가 무슨 말을 더 할수 있겠습니까?》

심철범이 대신 입을 열었다.

《전사동무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직접 만나뵈온 병사란 말입니다. 그거면 다지요.》

그는 남철의 앞에서 물러나 자기 자리로 가서 앉더니 리완수를 바라보았다.

《정치위원동무, 나는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이번 과업을 받던 순간에 우리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힘을, 그들의 지혜를!》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회의에서 전사 김남철

동무에게 한가지 과업을 주자는것을 제의합니다. 전사동문 지금까지 군인들앞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 지휘관들의 말보다 더욱 실감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더 많은 군인들앞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병사들앞에서! 병사들만이, 그들의 의지와 창조력만이 우리가 받은 새 전투명령을 수행할수 있게 할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리완수가 동의했다.

《새 전투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군인들의 궐기모임을 조직하겠습니다. 그 모임에서 전사 김남철동무가 토론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블로크장은 누구도 만져 보지 않은채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

18

김정일동지와 야조브사이의 이야기는 아침 7시가 지나서 즉 심철범장령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새 명령을 받고 돌아 가서 작전회의를 끝마칠 때까지 계속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운전사가 가져다 놓은 밥보자기를 잔디밭우에 펼쳐 놓으시였다.

이 나라 녀인들이 흔히 쓰는 면천으로 된 꽃보자기안에 미농지로 싼것을 벗기고 다음은 엷은 비닐포장지를 벗기자 절인 양배추잎으로 싼 주먹만큼씩 한 밥덩이 몇개가 나왔다.

《나에게는 어제 저녁식사이자 오늘 아침식사입니다. 허허… 자.》

장군님께서는 쥐기밥 한덩이를 야조브에게 집어 주며 먼저 권하시였다.

야조브는 얼른 받을념을 안하고 두팔을 벌려 보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 나라에 와서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속에는 《쪽잠》과 《쥐기밥》에 대한것도 있었다.

그는 방금전에 그 《쪽잠》을 보았고 지금은 《쥐기밥》을 실지로 눈앞에 보게 되였다. 야릇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훈풍처럼 휩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음식이 눈에 설어 그러는줄 알고 《아, 이건 쥐기밥이라고 하는건데》 하고 설명하시였다. 《밥곽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시기 가난한 우리 조상들이 길량식으로 밥을 뭉그려서 주먹처럼 만들어 가랑잎이나 깨잎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던것인데 소로는 된장이나 소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김으로 싸기도 하고 이렇게 절인 양배추잎으로도 싸며 무우오가리 절인것을 속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별반 다른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쥐기밥은 쥐기밥이니까요.》

《그런데 **김정일**동지께서도 이런 음식을 드시다니… 이미 말은 들었습니다만 정작 눈앞에 당하고 보니 뭐라고 해야 할지…》

야조브는 젖은 목소리로 말하며 눈을 슴벅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째서 그럽니까? 보긴 이래도 맛이 있습니다. 어서 잡수어 보십시오.》라고 하시며 자신부터 한입 떼시였다. 저으기 허기를 느끼고 계시던 참이였다.

야조브도 한입 물었다. 찰기가 있는 음식을 먹는데 서툰 이 이국손님은 손과 입가에 온통 밥알을 발라 놓았다.

《하하하!》

《허허… 허허!》

허물없이 마주 웃으며 음식을 나누시였다.

쥐기밥 한개를 다 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수건을 꺼내 입과 손을 씻은 다음 잠시 그 어떤 감회에 잠겼다가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시며 늘 식생활을 소박하고 검소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렵고 수수하게 살다 보니 식찬으로 다른 반찬보다 무우오가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점심밥을 쌀 때에도 밥곽 한구석에 늘 무우오가리를 넣군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식생활에서 같은것을 계속 먹으면 물리게 되는데 나는 그래도 무우오가리를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야조브는 《잠간 실례하겠습니다.》 하더니 원수복 안주머니

에서 자그마한 수첩과 원주필을 꺼내들었다. 《제가 좀 적겠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기억력이 이전과 같지 못합니다. 귀국의 그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럴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할 시간도 별로 없구요. 나이 많으신분하고 마주 앉고 보니 불쑥 지난 날이 생각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을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당신에 대하여 저자신을 포함해서 외국사람들은 너무도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귀국에 와서 제가 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금문자로 새겨야 할 귀중한 기록으로 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개 안되는 줴기밥은 보자기우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밥내를 맡은 개미들이 때를 만난듯이 거기에 새까맣게 달라붙고 있었다. 몇마리의 개미는 야조브의 손등을 타고 소매자락으로 기여 들었는데 그놈들중 몇마리가 따끔할 정도로 팔을 깨물었다. 개미들은 **김정일**동지의 팔소매에도 기여 들고 있었는데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중의 한놈이 그이의 팔을 깨물었는지 그이께서는 말씀하시던중 팔을 탁 하고 치더니 소매자락속으로 손을 넣어 왕개미 한마리를 잡아 내여 멀리 던져 버리시였다.

그이의 이 동작은 야조브로 하여금 줴기밥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야릇한 충격을 또다시 느끼게 하였고 이 나라 인민들이 하늘처럼 숭상하며 신격화하고 있는 강철의 령장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야끄브촌의 풀밭에 앉아 소시적의 벗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듯 한감을 느끼게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이러한 심정을 알아 차리신듯 매우 친근한 어조로 더욱 의미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는것이였다.

《우리 수령님께서와 어머님께서는 언제나 생활을 수수하게 하시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생활하도록 늘 가르치군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적부터 변변한 신발과 옷이 없이 생활하는데 습관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 좋은 구두와 옷을 자주 바꾸어 신고

입고 하였지만 나는 신발 한컬레를 가지고 몇년씩 신군 하였고 옷도 한벌을 가지고 여러해 입군 하였습니다. 옷 한벌을 가지고 오래 입느라면 바지의 엉치부위가 닳아서 궤지기도 하였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바지가 궤지면 들고 다니던 가방으로 궤진 부위를 가리우고 집으로 돌아 온 때도 있었습니다.》

야조브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따금 끄덕이면서 《어…어!》 하고 취한듯 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상념에 빠져 들고 있었다.

말몰이군소년시절 자기의 깁고 기운 바지며 왈렌끼 한컬레로 발이 커져서 더 들어 갈수 없게 될 때까지 쑤셔 신던 그 가난을 눈앞에 그려 보았던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쏘련에서도 가장 빈곤한 벽촌의 이름 없는 농군의 아들이라면 이분은, 나의 앞에 앉아 계시는 바로 이분은 반세기전부터 국가수반의 아들로 생활해 왔고 벌써 오래전에 후계자로 지목되여 오신 분이다. 지금 하시는 말씀 그것만으로도 이분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신가!

그가 알고 있건대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기쁨은 인민들의 행복속에 있다고 하신다. 그이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지금 매일과 같이 군대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을 찾아 다니시는것도 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현지지도로 날과 날을 보내기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보지 못하신다. 그이께서 잠을 자는것은 현지지도길의 자동차안에서 잠간 눈을 붙이시는것뿐이다. 이제는 그것에 습관되여 오히려 침대에서 자는것이 불편하다고 하신다. 자동차안에서 조금 자는것이 제일 단잠이고 쉬는 때이며 그것이 휴식의 전부이시다. 그러나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하신적이 없으며 오히려 거기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군 하신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를 번져 가며 일을 하시다가도 인민들이 잘 살게 되였다는 말을 들으시면 피곤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하신다.

야조브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여전히 상념속에 잠겨 있었다. 인민들이야 어떻든 별장짓기, 자동차바꾸기 놀음에 여념이 없던 이

전 쏘련의 력대의 집권자들, 미국에서 얻어 입은 승냥이털외투를 걸치고 으시대던 무능한, 뭇사람들이 그처럼 저주하여 마지 않는 남조선군에게서 딸라를 뢰물로 받아 감추었던 도덕적저렬한… 바로 이들때문에 레닌, 쓰딸린당이 인민들로부터 고립되고 배척을 받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던가.

오, 고대로마가 망한것은 덕이 부패했기때문이거늘! 하고 야조브는 마음속에 써넣었던 오늘 일기의 구절을 되뇌이였다.

그러자 덕의 화신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는것이였다.

야조브는 문득 물었다.

《**김정일**동지, 어째서 귀국에서는 아직 당과 국가의 공직을 비워 두고 있습니까?》

《…》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차 응답을 안하시였다.

이 아침 바쁜 시간을 내시여 그와 마주 앉기로 한것은 그에게 말할것을 말해 주어야 할 때가 되였다고 보시였기때문이다.

야조브가 우리 나라에 온지도 시일이 흘렀다. 운명의 기로에서 자총까지 결심했던 그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게 되였다.

그를 동행했던 심철범이나 다른 일군들의 보고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료해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시간을 내여 자신이 직접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승승장구하리라는데 대해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하셨던것이다. 그런데 화제가 뜻밖에 달리 돌아 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질문을 받은 이상 대답을 피할수 없으시였다.

《나는 언젠가 학생시절에…》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꼭지를 떼시였다.

《이딸리아의 작가 캄파넬라가 1600년대에 감옥생활을 하면서 창작한 공상소설 〈태양의 도시〉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칼 맑스가 활동하기 250여년전에 벌써 캄파넬라는 소설에서 놀랍게도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사회에 살게 될 인간관계를 과

학적공산주의에 거의 근사하게 그려 냈습니다. 나는 소설이 달성한 사상예술적높이에 심취되였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어릴 때부터 확고부동한것이였습니다. 좀 걷지 않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바지를 털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 서시였다.

《예, 좋습니다.》 하고 야조브도 따라 일어 서려고 몸을 일구다가 비칠하였다. 역시 나이는 나이였다. 오래 앉아 있었던탓에 오금을 인차 펴기가 힘들었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겨드랑이를 끼고 일으켜 세워 준 다음 바지에 묻은 잔디풀을 털어 주시였다.

큰 도로에 나서서 동명왕릉쪽으로 발걸음을 떼시였다. 첫 새벽이여서 인적 하나 없이 고요하였다. 어데선가 피여 난 안개가 도로우에서 늠실거리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야조브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이으시였다.

《동유럽나라사태를 계기로 사회주의에 대한 영상이 흐려 졌지만 나는 우리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론문을 발표하여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것을 세상에 다시한번 선포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그 리념으로만이 아니라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도덕의리로 하여 더욱 매혹적인것입니다. 내가 우리 사람들에게 늘 말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자의 도덕의리적풍모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혁명선배 특히 수령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셨으니 당과 국가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는 추대사업을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우리 사람들속에서도 제기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선대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숭고한 도덕관의 견지에서 보아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야조브는 대번에 모든것이 리해되는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였다. 도덕적으로 저렬한 인간은 사회주의자로 될수 없다는것, 도덕적타락

이 사회주의의 숭고한 리념을 버리게 하고 배신과 변절에로 이어지게 한다는것을 말해 주고 싶으시였다.

야조브의 자총사건만 보아도 그러했다. 그것은 사회주의리념에 대한 회의, 불신, 좌절이기전에 그자신이 이미 느끼고 있는것처럼 사회주의를 위해 피를 뿌리고 쓰러진 선렬들에 대한 변절이며 배신이다.

그것은 리념에 대한 배신이기전에 도덕의리적저렬성, 타락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바로 야조브에게 이것을 인식시키고 도덕의리적으로 재생시키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리념의 절대적인 신봉자, 선전자, 관철자로 되게 하여 쏘련의 재생운동에 적극 나서도록 해주고 싶으시였다.

그이의 눈앞으로는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도덕적저렬한들, 배신자들의 검은 얼굴들이 유령처럼 흘러 갔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상기시킨다는것은 무의미한 일이였다. 야조브자신이 너무도 잘 알테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이의 눈앞에 한 인간의 모습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에 꿀 발린 구변으로 인기를 그러모았던 인간, 간계와 요사, 뱀과도 같은 랭혹성으로 선대수령을 등치고 간 빼먹으려 우롱했던 도덕적저렬한…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쏘련공산당 력사,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연구분석하시는 과정에 증오로 가슴을 끓게 했던 인간이였다.

그 인간은 다름 아닌 레닌이 락인한바 있는 《유다》—뜨로쯔끼였다.

청년시절 뜨로쯔끼는 로동운동에 얼굴을 내밀었다가 인차 짜리당국에 체포되여 씨비리류형을 언도 받게 되였다. 그전부터 레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온 그는 류형지에서 탈출에 성공하자 레닌을 찾아 런던으로 갔다.

1902년 뜨로쯔끼는 런던에서 새로운 창당준비에 여념이 없던 레닌의 접견을 받았다.

25살의 한창 나이이지만 피골이 상접하고 생기라고는 그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는데다가 당장 입마저 건사할 처지가 못되는 뜨

로쯔끼를 만난 레닌은 의사소통보다 동정이 앞서 자기의 소지품을 팔아 얼마간의 용돈도 쥐여 주고 거처지도 알선해 주었다.

당시 레닌도 망명생활을 하는 처지에서 맹물에 빵 한쪼각으로 끼니를 에우거나 그것마저 번지는 때가 많았다.

따뜻한 인정미에 감복이 된 뜨로쯔끼는 그날 밤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

레닌은 동상자리가 아물지 않은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면서 로씨야혁명의 성격과 사명,당창건준비와 관련한 구상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고 함께 일하자고 하였다.

뜨로쯔끼는 감동한 나머지 레닌의 품에 안겨 울면서 《가장 현명한 스승이며 은인인 친형님》을 만났다고 하였다.

그 이튿날부터 뜨로쯔끼는 레닌을 도와 밤낮으로 혁명적출판물발간에 열중하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능란한 언변으로 런던에 망명하여 온 로씨야운동가들과 맑스주의신봉자들에게 레닌의 위대성을 선전하였다. 출판물에 발표되는 그의 글과 연단들에서 하는 연설들은 처음 기회주의자들을 아연케 하였다.

기회주의자들은 남달리 언변이 좋은 뜨로쯔끼에게 자기들편에 넘어 오면 새로 조직하게 될 당의 지도자로 추천하겠다고 유혹하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냐 아니면 직위냐 하는 갈림길에서 그는 배신의 길을 택하였다.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뜨로쯔끼는 어제날의 스승이며 은인인 레닌을 배반하고 멘쉐위크편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성숙된 혁명정세를 정확히 타산한,레닌의 위업이 승리적인것으로 확정된 1917년 7월 뜨로쯔끼는 다시 레닌을 찾아 갔다.

《레닌동지,저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해 주실수만 있다면 잊을수 없는 런던의 그 밤처럼 다시한번 은혜로운 그 손길을 저에게 주십시오.》

뜨로쯔끼의 얼굴에서는 죄책의 눈물이 비 오듯 흘러 내렸다. 혁명의 결정적시각을 앞두고 레닌은 또다시 그에게 공산주의자로서

의 아량과 믿음을 베풀었다. 그는 볼쉐위크당에 들어 오게 되였고 그후 당과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의 훌륭한 언변을 황홀하게 쳐다보는 군중들을 볼 때마다 일시 숨 죽였던 직위욕이 기름에 달린 불길처럼 타올랐다. 게다가 레닌이 병상에 들무렵 자기의 후계자로 10월혁명의 공로자이며 원칙성이 강한 쓰딸린을 지목하게 되자 배신자는 마침내 분별을 잃고 반레닌, 반쓰딸린, 반혁명책동을 광신적으로 벌리기 시작했다. 배신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레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리론이 불가능하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레닌은 림종전야에 뜨로쯔끼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

《뜨로쯔끼의 본명은 원래 부른스타인이였다. 나는 여기서 세번째이름을 달아 주려고 한다. 그는 유다 뜨로쯔끼이다.》

쓰딸린은 레닌의 서거후 뜨로쯔끼에 대한 매장을 당의 과업으로 선포하고 원칙적인 투쟁으로 그를 출당시키고 국내에서 추방하였다.

악랄한 배신자는 그후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 가서는 도망간 민족주의자들, 맑스—레닌주의 변절자들, 기회주의자들을 규합하여 이른바 《제4국제당》이라는것을 조직하고 로씨야혁명의 승리를 확대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 도전하여 나섰다.

하여 그는 1940년 외국에서 죽은후에도 사람들로부터 《국제반동》,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망신을 시킨 추악한 배신자》라는 락인을 영원히 벗을수 없었다.

그는 가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배신자로서 공산주의도덕의 파괴자로 악명을 떨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억을 더듬지 않아도 날자와 지명, 이름들이 바로 어제일처럼 생동하게 펼쳐 지시였다. 그러자 그이의 눈빛은 증오로 불 탔다.

쓰딸린을 헐뜯다 못해 그의 시신마저 불사른 흐루쑈브, 자기를 키워 주고 후계자로까지 내세워 준 호네케르의 발뒤축을 물어 메친 민주도이췰란드의 공청 제1비서 예곤 크렌츠, 자기에게 당과 국가의

중책을 맡겨 준 지도자에게 총부리를 돌리고 처형하는 악형까지 저지른 로므니아사회주의배신자들, 그들이 사회주의지붕을 쓰고 있었던탓에 인류의 면전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영상은 흐려 질대로 흐려 지고 사회주의도덕은 이그러질대로 이그러졌다. 평양에 왔던 문익환이라는 남조선의 목사는 사회주의배신자들때문에 사회주의영상이 흐려 질대로 흐려 졌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나라라고 부르지 않는것이 어떤가고까지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침묵에 잠기시였다. 참을수 없는 증오가 비낀 그이의 얼굴에는 아침의 붉은 노을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윽고 좀 긴장된듯 한 어조로 그러나 근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한 도덕의 인간들이라는것을 세계의 면전에 보여 줄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추대사업을 뒤로 미루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야조브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화제를 돌려 기본문제를 제기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겠는가? 망하겠는가? 안망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야조브는 자기자신의 운명과 직접 관련된 문제, 조선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다른 누가 아니라 사회주의조선의 권위와 존엄을 대표하고계시는 바로 그분에게서 듣게 되였다는것을 의식하면서도 얼른 그 화제에 끌려들지 못했다.

선대수령과 후계자사이의 국가관직에 대한 교대 하나를 두고도 그토록 깊이 생각하시는 그 위인적모습이 오를수 없는 산악처럼 앞을 막아서 숨이 가쁠 지경이였다. 지금 그의 눈에 비낀 **김정일**동지의 모습은 서방이 말하는 적앞에 무자비하고 강인담대한 령장이기전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숭고하며 특출한 덕과 인간애를 지닌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였다.

오, 덕의 나라 조선은 불패하리라! 야조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물론 야조브는 **김정일**동지와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요인이 덕 하나에만 있지 않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일**동지의 덕이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숭고한것이여서 다른것을 살펴 볼 계제가 못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시려고 말없이 앞서 걷고 계시였다.

그이의 뒤를 야조브가 따르고 야조브의 뒤에 몇걸음 떨어 져 통역이 마치 따로 가는 사람처럼 걷고 있었다.

이윽고 걸음을 멈추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야조브가 다가오기를 기다려서 《우리 나라 시조왕들가운데는 리성계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력사에 끼친 오욕으로 하여 인민의 버림을 받은 왕이지만 한마디만은 교훈담을 남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하고 한토막의 우리 나라 력사이야기를 하시였다.

어느 날 리성계는 왕위를 넘겨 줄 아들 리방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아버지는 진실로 하늘의 뜻이 있어 왕이 되였습니까?》

아들의 물음에 리성계는 《나를 왕위에 올려 세운것은 하늘이 아니라 나를 따른 군사들이다.》라고 말하였다.

리성계는 악인이지만 력사의 교훈을 말했다.

력사의 교훈이 말해 주는것처럼 총대를 누가 쥐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

혁명에서 기본이 주권문제라면 그것이 태여나는 근원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 진 의회가 아니라 명실공히 군대, 총대였다. 동서방의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세워 졌던 국가제도치고 총대신세를 지지 않고 태여난것이 없다.

이전 동유럽나라들에 세워 졌던 쏘베트정권들도 총대의 울부짖음의 산물이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나라들의 독립도 총포성의 뒤끝에 이루어 진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의 이러한 철학, 총대의 이러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80년대 중엽에 벌써 몇해 못 가서 쏘련이 해체될것이

라는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는 쏘련당에서 군대의 비사상화를 결정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8차당대회에서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야조브가 얼른 대답 올렸다.

《그 당대회의 결정을 원수동지는 끝까지 반대하였지요. 그후 최고쏘베트 대의원대회에서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포기할데 대한 법안을 반대하다가 퇴장까지 당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얼른 대답 올렸다. 야조브는 그이께서 자기를 리해해 주시는데 대하여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고 당시 쏘련당과 국가의 내부형편을 환히 꿰뚫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

야조브가 떠듬거렸다.

《우리는 그때 쏘련을 매일과 같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이 무너지는데 어찌 무관심할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나라 속담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쏘련의 해체를 막아 내지 못한 국방상으로서 면목은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김정일**동지의 리해를 받고 있으니 행복합니다.》

《그렇다니 됐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고 나서 야조브를 바라보시였다.

《줴기밥을 들지 않던데 시장하지 않습니까?》

야조브는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하고 황망히 곱씹고 나서 그이를 미안한 눈길로 마주 보았다.

《오히려 **김정일**동지께서…》

《저도 일 없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동명왕릉쪽으로 향하던 걸음을 돌려 도로에 서있는 자동차쪽으로 향하시였다. 멀리 자동차곁에서는 운전사가 이쪽을 애 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말

씀을 이으시였다.

《쏘련의 군부, 붉은군대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부를 주동으로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조직되자 일이 바로 잡혀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당한 군대에게 쥐여 진 총대란 한갖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나의 견해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나는 원수동지에 앞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당시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주도한 크르츄꼬브동지를 만났는데 그의 말을 듣고 그때 내가 옳게 예견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전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이였던 크르츄꼬브는 고르바쵸브가 사회주의를 허물어 버릴 목적으로 《자유화》바람을 일구면서 정권이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 붉은군대에 《비사상화》를 정책으로 선포할 때까지만도 그것이 초래할 파국적인 후과를 내다보지 못하였다.

고르바쵸브는 군대에 법만 준수하면 된다고 력설하였다. 붉은군대안에 종교가 퍼지고 방탕과 무질서가 만연될무렵 크르츄꼬브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고르바쵸브는 붉은군대가 더는 사회주의정권을 지킬 사상의지가 없어 지기를 기다려 쏘련의 해체를 정식 표명하였다.

1991년 8월 크르츄꼬브는 국가의 안전을 담당한 자기의 본분으로부터 쏘련의 해체를 막기 위해 부대통령과 국방상인 야조브를 비롯한 군부의 상층인물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과 함께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조직하고 6개월을 기간으로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것과 함께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크림반도에 가있던 배신자 고르바쵸브를 체포하였다.

그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붉은군대부대들에도 쏘련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정권을 수호할데 대한 지시를 떨구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부패되여 쏘베트정권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붉은군대 장병들은 그 지시에 별로 놀라지도 않

앉고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가슴 아파 하지도 않았다. 단지 모스크바교외에 주둔했던 몇개 구분대가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동원되였으나 그들에게는 사정을 보지 않고 배신자들을 쏴 제낄 의지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고르바쵸브가 어디까지나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였던것이다.

붉은군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없었던 비상사태위원회는 맥을 놓고 고르바쵸브에게 경거망동을 부리지 말라고 충고를 준후 배신자를 3일만에 석방하면서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해체하였다.

고르바쵸브는 석방되기 바쁘게 이미 바보로 되여 버린 군대를 선동하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사태위원회 성원들을 거꾸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12월 25일 크레믈리대회당지붕우에 꽂혀 있던 붉은기는 내리워 지고 사회주의이름과 함께 쏘련은 해체되여 쏘베트정권은 말 그대로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전 쏘련의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경험과 쓰라린 교훈을 분석하면서…》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국가정치를 실현하는 힘은 본질에 있어서 군사이고 군사의 뒤받침이 없는 정권은 바람앞에 선 초불이나 같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정치에서 국사중의 국사가 군사라는것이 흘러 온 력사와 복잡다단한 오늘의 현 정세가 보여 주고 있는 피의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정치이자 힘이고 정치의 모자를 벗기면 군사입니다!》

야조브는 그 말씀을 뼈 아픈 자책속에 듣고 있었다.

그자신이 크르츄꼬브와 함께 철직을 당한채 1년간에 걸치는 옥고를 치르고 나서 찾은 피의 교훈이였기때문이였다.

그는 괴로운 심정을 털어 버리며 **김정일**동지께 말씀 드렸다.

《저는 귀국에 와서 지내는 기간 존경하는 당신께서 군대를 틀어쥐고 나의 희망의 등대인 귀국의 사회주의를 지켜 내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의 정치는 총대정치입니다. 틀린다면 용서하

십시오.》

《아니, 옳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정치사에는 군사를 중시하는 정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총대, 다시말하여 군대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총대 그 자체를 정치로, 광범한 군인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군대는 우리 혁명의 기본기둥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틀어 쥐고 나가는 총대정치의 새로운 본질이 있는것입니다.》

《새로운 본질이라구요？！》

《그렇습니다. 바로 군대를 정치의 주체,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기본세력으로 보기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당의 사상, 사회주의사상으로 끊임없이 교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무장한 군인들의 총대는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원쑤들앞에서 절대로 떨리지 않습니다. 설사 앞에 있는것이 부모형제나 친척, 친우라 할지라도 무자비합니다. 세상에 우리 인민군대와 같이 당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실하고 인민에게 충실한 군대는 없을것입니다. 그들은 당의 리익, 사회주의국가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해치는 온갖 원쑤들에게 섬멸적인 반격을 가할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를 중시하고 선군을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방법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을 정식 공포하게 될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께서는 덕과 함께 사회주의를 지켜 내는 또 하나의 보검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야조브의 눈앞에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크레믈리궁전을 포위했던 군대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물러서던 비참한 몰골이 선히 떠올랐다.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가 빚어 낸 후과는 얼마나 비극적이였던가. 수백만의 병사들과 핵과 미싸일, 최정예무기로 무장한 레닌, 쓰딸린이 창건한 붉은 군대가 어찌하여 그토록 무맥할수 있었던가.

야조브는 **김정일**동지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다.

자신의 가슴에 총구를 대기전에 왜 자기자신은 국방상으로서 병사들의 앞장에서 인민을 배반한 그따위 인간쓰레기를 쏘아 넘기지 못했더란 말인가. 그놈들만이라도 쏴갈기였더라면…

그는 어금이를 꽉 깨물었다. 배신자, 변절자들에 대한 증오만이 아닌 자기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피가 터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자, 이젠 기본문제로 돌아 갑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야조브는 회오의 감정에서 돌아 와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망하겠는가 안망하겠는가?》

김정일동지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져 놓고는 야조브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자신에게 말씀하듯 결론하시였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군대를 자신처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자 그들이고 그들이자 바로 나자신입니다.》

야조브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순간 눈앞에 매우 강한 섬광처럼 번쩍하는 하나의 모습이 비껴 갔기때문이였다. 바로 한두시간전 그이의 명령(그렇다. 그것은 이 나라의 당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매우 무거운 명령이였다.)을 받은 조선인민군의 한 장령이 바지혼솔에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손을 딱 붙이고 차렷자세를 짓던 모습이였다. 그 모습에서 받은 인상이 지금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죄다 사실이며 결코 공담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암, 그렇구말구! 야조브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나 이때 그가 그 장령이 아니라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의지를 받아 들인 군인대중, 한 병사의 모습만이라도 더 볼수 있었다면…

×

군인들이 궐기모임장으로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벌써 천인지

만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혹은 대렬을 지어서 끊임없이 밀려 들고 있었다. 가까운 작업장들에서뿐아니라 멀리 안변과 회양쪽에서 다 모여 오는것 같았다.

남철은 그들앞에 나선 자신을 생각해 보았다. (무슨 말을 할것인가?) 그는 생각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사들을 믿고 계신다고? 그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자고?)

그러나 지금까지 수없이 해온 그 말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이야 남철이 자기가 아닌들 누가 못하겠는가? 그는 자리를 피해 달아 나고 싶었다.

어제 심철범장령이 자기를 끌어 안고 잔등을 쓸어 주었고 리완수가 그 무슨 말인가 하라고 하였을 때 남철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말해야 한다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철이는 자기를 토론자들중의 하나로 뽑았을 때 그것을 거절 못한것을 후회했다. 그때에는 밤새껏 궁리하면 될줄 알았다. 그러나 토론을 시작해야 할 지금까지도 그는 첫말을 어떻게 떼야 할지 몰랐다. 그의 댓걸음앞에는 장대가 꽂혀 있었는데 그끝에 밤송이만 한 마이크가 매달려 있었다.

남철에게는 자그마한 그 물건이 당장 터지려는 폭탄처럼 느껴졌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드디여 모임을 집행하는 군관이 토론자들속에 서 있는 남철에게로 다가오더니 옷소매를 걷고 손목시계를 가리켜 보이며 차례가 다 됐다는것을 알려 주고 나서 어깨를 두어번 두드려 주었다. 남철은 첫번째로 토론하게 되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등뒤에 서 있는 심철범과 리완수, 전호진 등 장령들과 군관들을 얼핏 바라보았다. 그들은 고무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여 집행자가 마이크앞에 나섰다. 그는 마이크를 입김으로 두어번 불어 보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전사 김남철동무가 토론하겠습니다. 그는 동무들과 같이 평범한 병사로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그는 오늘 석비레모래를 창안함

으로써 우리모두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사 김남철동무가 말하겠습니다.》

남철은 집행자의 말을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것처럼 무심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집행자가 손으로 마이크를 가리키는것을 보자 분주히 주머니를 뒤지며 겁에 질려 어리둥절해 졌다. 토론원고는 이미 쓸모 없게 된것이였다.

그는 어떻게 마이크앞에 나가섰는지 몰랐다.

그는 첫말을 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좀체로 생각나지 않았다. 아찔하여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눈 부신 영상이 떠올랐다. 얼마전 그이의 집무실에서 뵙던 모습이였다. 그런데 그이앞에 서 있는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병사라는 착각이 들었다. 그 병사는 남철이 자기로서는 바라볼수 없이 아찔한 높이에 있는 병사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기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저는 영웅도 모범군인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동지들! 그저 평범한 군인이고 병사입니다.》

남철은 이미 흥분상태에서 완전히 벗어 났다. 밤새 생각해 왔고 방금까지 생각해 내려고 애 쓰던 표현과 문구들이 저절로 머리에 떠올랐다.

《어떤 병사였는가?》 하고 남철이 계속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과 부모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하리라는 희망으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나는 자기의 총명과 지혜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자기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남철은 목소리를 더 높여 계속했다.

《이러한 자기란 63키로그람의 육체였습니다. 그것은 달구지 하나 끌 정도의 힘밖에 낼수 없는 가냘픈 존재였습니다.》

남철은 군중을 보지도 않고 마이크만 보면서 그쪽에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의 격조 높은 토론은 새로운 견인력을 가지고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느끼자 나는 갑자기 무기력해 지고 비굴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나의 힘으로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범군인도 되고 영웅도 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일로 여겨 졌습니다. 동지들은 이에 대하여 나를 타매할수도 있습니다. 동지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동지들앞에서 솔직하고 싶습니다. 나는 광차를 밀 힘도 질통을 질 힘도 착암기를 들 힘도 없어 졌습니다. 나중에는 공사장을 떠나 전투구분대로 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는 자기를 지키려다가 그것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잃었습니다!》

이 순간 남철은 누구를 눈앞에 그려 보았는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는가? 희생된 중대장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지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만의 군인들을?

《이러한 때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습니다.》

남철은 계속했다.

《나는 자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한 나는 그전과 다른 남철이였습니다.》

남철은 자기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되풀이해 말했다.

《63키로그람의 나의 몸에는 부모의 피가 아닌 다른 피가 흐르게 되였습니다. 나는 강자가 되였습니다. 사상의 강자, 의지의 강자, 신념의 강자가 되였습니다.》

남철은 이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던 말을 다하지 못하지나 않을가 걱정되여 이 생각, 저 생각을 앞뒤가 맞지 않게 건너뛰면서 서둘러 말했다. 그리고 자기가 토론문에 쓰고 지금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말해 왔으나 적합치 못하다고 여겼던 그 말이 저절로 튀여 나오는것을 느꼈다.

《동지들, 자기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이를 닮으십시오. **김정일**장군형의 군인으로 되십시오. 그때만이, 바로 그때만이 그이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는 말이 공담이 아니라 실천

으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비상한 정신적앙양을 체험하며 수만의 청중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울리는 박수소리도 듣지 못하며 남철은 마이크를 틀어 쥐고 열정적으로 웨쳤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엔 주체형의 피만이 흘러야 합니다. 설사 부모가 준 피라고 해도 다른 피가 섞여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만일 동지들중 그 누가 그렇게 된다면 일심동체의 대오에서 떨어 져 나와 나약한 존재,버림 받는 존재로 될것입니다.

원쑤들이 우리의 피속에 다른 피를 섞어 넣을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의지의 전사,일당백의 전사가 될것이라는것을!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할것입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난관이 겹쌓인다 해도 우리는 기어이 뚫고 나갈것입니다.》

여기서 남철의 토론은 끝났다. 뢰성과도 같은 환성이 터져 오르며 여러 군인들이 뛰여 나와 그를 마이크채로 끌어 안았기때문이였다.

그날 밤 남철은 중대교양실에서 편지종이를 꺼내놓고 조용히 앉았다.

《그리운 아버지…》 하고 시작을 뗀 그는 오래도록 더 쓰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 졌던것이다.

19

그날 새벽 김동환을 잠에서 깨운것은 부엌에서 나는 달그락소리였다. 동환은 습관대로 오른쪽 팔을 뻗쳐 보았다. 옆에서 자던 안해가 없었다.

이제 안해는 아침밥을 다 해놓은 다음 자기의 옆에 와서 다시 누울것이다. 그리고 숨소리를 죽이고 지켜 있다가 다섯시 정각에

어김없이 흔들어 깨울것이다. 동환은 잠에서 깨면서 안해의 체취를 느끼게 될것이다. 그때까지 동환은 안해를 부대직일관처럼 믿고 푹 자도 된다. 이러한 새벽잠은 얼마나 단것인가!

동환은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다. 여전히 부엌에서는 달그락소리가 다정하게 들려 왔다. 그러나 잠들수 없었다. 이날 따라 안해에 대한 애틋한 정이 전류처럼 온몸에 흘러 들며 잠을 날려 보내는것이였다. 세월은 퍼그나 흘렀으나 아직도 청초한 안해의 자태, 로인반점 하나 없는 맑은 얼굴, 박씨처럼 가쯘하고 희디흰 이발, 입술의 홍조, 아니 그보다도 신혼시절의 순정은 변덕을 모르는 심산속의 샘물처럼 아직도 여전했다. 안해 렴순경은 군관안해의 세파, 말하자면 끊임 없는 이사, 가사일을 혼자 떠맡아야 하는 고됨과 무시로 집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나타나는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고독속에서도 거칠어 지지 않았다.

순경은 동환이가 동해의 어느 군항에서 경비정을 타고 있던 시절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시집을 왔다. 미모의 대학졸업생은 《군관촌》 생활에 잘 어울리였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남편을 깔보지도 않았으며 자기보다 지식에서 어방없이 못한 이웃집 부인들과 섭쓸려 군인가족생활을 하며 돼지도 기르고 염소도 방목하며 어장에 나가 고기밸을 따는 등 궂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태가 단아하였다. 미모처럼 그의 마음 또한 비단이였다. 그는 남편에 대해 언제나 고분고분하였으며 항변 같은것은 생각할수도 없었다. 그가 기분을 드러내 보일 때란 두가지 경우였는데 남편의 일이 잘됐을 때와 못됐을 때였다. 앞의 경우에 그는 박씨 같은 이발을 드러내보이며 활짝 웃었고 뒤경우에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여 쌕쌕거렸다.

그는 남편의 작식대원이였으며 그의 총의 멜끈이였으며 그가 타는 경비정의 추진기였다. 동환의 군사복무를 순경이와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동환은 비상소집이라든가 출장이 있어 무시로 새벽에 나가면서도 언제한번 선밥을 먹어 본적이 없었다. 순경은 언제나 미리 밥을 지어 놓고 지켜 있다가 그를 깨워서 먹여 보내군 하였다. 그

것은 어머니의 자애와도 같은것이였다.

동환은 순경이가 언제 들어 와 자기옆에 다시 누웠는지 몰랐다. 생각에서 깨여 나보니 안해는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보나마나 마음속의 초침을 세고 있을것이였다.

가정과 생활이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그러나 잔잔하고 향기만을 뿜던 그들 부부생활의 호수에 한점의 파문이 일게 되였다.

집에 왔던 아들 남철이 남편 동환이가 내던진 배낭을 집어 한쪽 어깨에 걸치고 나가면서 쾅 닫아 버린 문소리는 부엌에 있던 순경이를 크게 놀래웠다. 황급히 출입문쪽으로 뛰여 나왔으나 남철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쫓아 버린것이였다. 부자간의 이야기를 다 들을수 없었던 순경은 동환이가 실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남편을 힐끗 보고는 신발장에서 신을 찾아 신고 뒤쫓아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다. 일생 들어 보지 못한 남편의 노성이 들린것은 그때였다.

《내버려 두오!》 순경은 깜짝 놀라 문고리를 쥔채 무춤하며 뒤돌아 보았다. 《내버려 두라는데!》

남편이 무섭게 쏘아 보며 되뇌이였다. 그런 눈길도 순경은 처음 보았다. 그는 대번에 몸이 굳어 졌다. 층계를 내려 가는 아들의 발자국소리가 점점 멀어 져 가고 있었다. 순간 순경은 남편의 노한 목소리도 무서운 눈길도 다 잊었다. 그는 문고리를 비틀어 열고 복도로 뛰쳐 나갔다. 그리고는 계단을 마구 뛰여 내렸다.

굽 높은 구두에서 나는 달가닥소리가 들려 왔다. 동환은 현관에 선채 열려 진 문으로 들려 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들의 일로 하여 리성을 잃을 정도로 격노했던 그는 자기가 안해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다급한 발자국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어서 돌아 오기만을 초조히 기다릴뿐이였다. 만일 안해가 아들의 손목을 끌고 들어 온다면 다시 쫓아 버릴것이다. 그는 주먹찜질이라도 할 심산으로 은근히 두주먹을 부르쥐였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창문을 울리고 있었다.

(그까짓 자식,내버려 두지 않구!) 동환은 화가 나서 중얼거

리며 침대에서 일어 났다. 그는 실내옷바람으로 뛰여 나간 안해를 생각하여 옷장에서 그의 솜저고리를 벗겨 들었다.

문을 나선 그는 처음에 그들이 계단의 어느층에서 만나 싱갱이질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한층한층 내려 갔다. 그러나 아래층까지 다 훑어 봤으나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동환은 아빠트현관을 나섰다. 그는 어리둥절해 졌다. 그들의 행방을 도무지 가늠할수 없었던것이다. 비로소 아들에게 너무 독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복거리는 궤도전차시간이 끝나면 교통이 막히고 만다. 지금은 자정도 지난 한밤중이다. 아들이 갈 길이 과연 어디인가. 상원,그들의 작업조가 있는 곳까지는 100리길이다. 남철은 부득불 그 길을 걸어 가야 한다. 그가 그 길을 걸어서 떠났단 말인가?

아니다. 걸어서라도 가야 한다. 그래야 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편안한줄 아는가. 그런데 순경은 어데로 갔는가. 아들과 함께 떠났을리는 만무하다. 그것도 실내옷바람으로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말이다.

실내옷바람인 그자신도 금시 몸이 떨리였다. 그렇다고 안해의 행방을 알지 못한채 집으로 올라 갈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다. 오직 안해 순경이만을 걱정했다. 그는 자기가 안해에게 무섭게 소리쳤던 사실을 상기하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빠트현관을 떠나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을 따라 궤도전차정류소에 이르렀다. 심야에도 다니는 시간뻐스가 있을수 있는것이다.

《철야운행》이라고 쓴 2번 정류소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것이 보였다.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서 안해와 아들을 찾아 보았다. 그러나 인차 실망하였다.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덜덜 떨면서 아빠트로 되돌아 왔다. 두다리가 짯짯해서 걸음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줄곧 안해생각때문에 자기가 손에 그의 솜외투를 들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언 몸을 가릴수 있다는것도 잊고 있었다.

그때 순경은 아빠트바깥현관계단밑 외등이 미치지 않는 후미진 곳에 서서 다가오는 남편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도 남편처럼 아들이 아빠트의 어느 계단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 높은 12층을 두어번 오르내리였다. 그리고 실내옷바람으로 궤도전차정류소까지 갔으며 거기서 아들을 찾아보다가 언 몸을 덜덜 떨며 아빠트로 되돌아 왔다. 그는 오는 길에 덤비면서 지나가는 남편을 보았다. 그의 손에 자기의 솜외투가 들려 있는것도 알아 보았다.

콱 얼어 죽고 말테다! 솜외투는 동태귀신한테나 입히라지! 지금 그는 다가오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곱씹고 있었다. 매정한이! 지독한이! 백리나 되는 밤길을 걸어 갈 아들을 생각하니 정말 콱 죽어 버리고 싶었다.

남편은 자기를 알아 보지 못하고 현관으로 들어 가더니 얼마쯤 지나서 다시 뛰여 나왔다. 여전히 실내옷바람으로 손에는 자기의 솜외투만을 들고 있었다. 순경은 인기척을 냈다.

남편의 머리에는 성에가 하얗게 불려 있었다. 이제 남편이 손목을 쥐여 당기면 와락 안기여 그의 언 몸을 녹여 주리라, 뜨거운 입김으로, 온몸의 체온으로! 그러나 정작 남편의 손에 손목이 잡히였을 때 순경은 팩 돌아 섰다. 남편은 손목을 놓고 량어깨를 잡더니 자기쪽으로 돌려 세웠다. 순경은 용수철을 넣은 인형처럼 도로 튕겨 났다. 바로 그때 순경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남편의 솥뚜껑 같은 큰 손이 자기의 뺨을 후려 치는것을 느꼈다. 눈앞에서 번개가 일었다. …

동환은 그 일을 몹시 후회하였다. 무슨 정신에 안해의 연약한 몸에 손을 대였던지 몰랐다. 사랑하기때문이였다고? 허지만 그는 안해의 반박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은 남철이도 그렇게 쫓아 냈지요? 사랑하기때문에? 사랑하기때문에?)

(그렇소. 사랑하기때문이였소!)

동환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확고히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안해앞에 사죄하고 싶지는 않았다. 워낙 무뚝지고 과묵한 그는 그런것을 낯 간지러운 일로 여기였다. 한마디의 사죄도 없었지만 남편을 대하는 순경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무슨 사

람이 그런지 몰랐다. 그 일이 있은후 두세번 비상소집훈련이 있었는데 순경은 이전보다 더 극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었고 아침 일찌기 밥을 지었으며 여전히 자기의 옆에 와서 누웠다가 깨워 주었다. 동환의 후회는 더욱 커졌다.

(모든것이 그놈의 자식때문이다.)

그는 아들을 욕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다는것을 인차 느꼈다.

남철이가 유치원때였다.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철 없는 아들로부터 동환은 뜻밖의 권고를 받았다.

어느날 아침 동환은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자체학습과제를 해놓으려고 책상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남철이가 조용히 들어 와 등뒤에 서는것이였다. 꼬마는 뒤짐을 지고 어른스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오, 너냐?》

동환은 뒤돌아 보지 않은채 대답했다. 그는 애가 적적해서 자기를 부른줄로 여겼던것이다.

《아버지.》

남철이가 다시 불렀다.

《왜?》 하며 동환은 왼손을 뒤로 가져 가 남철의 손을 잡아주고 나서 하던 발취를 계속하였다. 그때 남철이 등뒤에서 빽 돌아 책상옆으로 오더니 아버지가 펼쳐 놓은 책을 탁 덮어 버리는것이였다.

그제야 동환은 아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어린 남철은 자못 심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동환은 정색해서 물었다.

《아버지, 나하고 약속하자요.》

《응? 무슨 약속?》

《글쎄 약속하자요!》

어린것은 새끼손가락을 꼿꼿이 편 손을 동환의 앞에 내들었다.

《빨리!》

동환은 빙긋이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펴서 아들의 손가락에 걸었다. 아들은 이번엔 새끼손가락을 건채 엄지손가락을 펴서 도장을 누르자고 하였다. 동환은 아들애의 요구대로 응해 주었다. 그러자 아들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종이장을 동환의 책상우에 놓고는 돌아서 나갔다. 가족휴양권이였다.

전날밤 장기간의 항해훈련에서 돌아 온 그앞에 안해가 부대에서 보내왔더라고 하면서 가족휴양권을 내놓았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10여년이 되여 오지만 언제한번 남들처럼 부부가 함께 휴양을 가본적이 없었던것이다.

동환은 안해의 심정이 리해되였으나 두말 못하게 딱 잘라 버렸다. 래일아침에 또 출장을 간다고… 그는 인차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안해의 흐느낌소리를 잠결에 들었다. 그리고 침대밑 방바닥에 남철을 끼고 누운 안해의 어깨가 떨리고 있음을 보았다.

아들애가 가져다 놓은 가족휴양권은 안해를 울린 그 휴양권이였다. 남철은 엄마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이런 일은 그들부부의 생활에서 드문히 있었다.

그 시절에 동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론쟁에 자주 말려 들었다. 사랑은 주는것이다. 아니 받는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주고 받는것이 사랑이다. 론쟁의 결론은 대체로 이러루하였다. 동환은 언제나 사랑은 주는것이라는 편이였다. 다시말하여 희생이며 무한한 헌신이 사랑이라는것이였다. 그는 주장하였다. 사랑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 망망대해에서의 항해, 태여난 날은 각각이여도 유사시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만은 같게 될 함전체성원들과의 집단적인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해상경비대로서의 그의 직무가 그러한 사랑관을 가지게 하였는지도 몰랐다.

지금 동환은 자기옆에 누운 순경의 체취를 들이마시며 아들 남철을 생각하고 있었다. 순경이와의 사이에 파문을 던지고 떠나간 그 아들이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게 될줄을 어찌 알았으랴！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서한을 받던 날 그들부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감격과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비로소 그들사이에 일어 났던 파문은 가뭇없이 사라졌고 부부

의 정은 본래의 궤도에 다시 들어 섰다.

단 한가닥의 그늘이 있었다면 남철에게서 편지가 없는것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쓰신것처럼 아들은 훌륭한 군인이 될것이였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아도 훌륭한 군인만 된다면!)

동환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가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는것은 망울진 꽃을 들여다 보면서 어서 피기를 기다리는 심정이였다.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이때 가슴에 얹혀 있던 순경의 손에 힘이 가며 지그시 누르는것이 알렸다. 《기상》 하는 다정한 음성이 나직이 귀전을 울렸다. 새벽 다섯시가 된것이다.

동환은 비상소집때와도 같은 빠른 동작으로 세면을 하고 군복을 입은 다음 순경이 차려 놓은 밥상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별로 씹지도 않고 어린애처럼 국에 만 밥을 꿀꺽꿀꺽 넘겼다.

《아이참, 천천히 드세요.》

순경은 두무릎을 모두고 앉아서 지켜 보고 있었다.

《이번엔 갔다와서 가족휴양을 꼭 갑시다.》 동환이가 문득 말했다.

《됐어요.》

《아니, 왜?》

《애들도 다 자라서 집을 나갔는데…》

《인생이 다 흘러 갔단 말이지.》

동환은 미안쩍어 하며 말했다.

《통일된 다음에 저 남해가로 갑시다. 거기 해당화가 동해의 해당화만 못하지 않을거요.》

《글쎄 그때라면 몰라도.》 순경은 남편의 턱에 묻은 밥알을 떼주며 물었다. 《동해쪽으로 가세요?》

《아니, 서해로.》

동환은 거짓말을 했다.

《오래 있게 돼요?》

《아니, 며칠간.》

동환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이번 훈련은 적들의 새로운 도

전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실동훈련이였다. 작전일군인 그는 적어도 한두달은 해병들과 함께 동해에서 생활해야 할것이다. 순경은 본능적으로 남편의 말을 거꾸로 해석했다. 그는 남편을 아빠트밑까지 바래워 주려고 일어 서서 솜저고리를 입었다.

《아니, 나오지 마오.》

동환은 안해의 두어깨를 잡아 세우고 저으기 엄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정말 잠간 다녀 오려는 사람처럼 훌쩍 집을 나섰다.

순경은 그저 현관에 선채 계단을 뛰여 내려 가는 (아직 승강기가 뛸 시간이 아니므로 남편은 계단을 리용하였다.) 남편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있을뿐이였다. 그런데 사라졌던 발자국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와 지더니 문앞에 와서 멎었다.

문이 벌컥 열리였다. 남편이 다시 들어 섰다.

순경은 다급히 물었다.

《뭘 잊었어요?》 그는 초조해 하며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니.》

동환은 천천히 머리를 저으며 안해를 뚫어 지듯이 들여다 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순경은 그의 눈이 불 타고 있음을 느끼고 계면쩍어 하였다.

《남철이한테서 말이요. 편지가 오면 잘 건사해 두오.》

어처구니 없는 부탁이였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건사할가? 순경은 이 순간 남편이 매우 이상스러웠고 어째선지 측은해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날 아침 10시 순경은 우편통신원으로부터 남철이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아버지!》 하고 남철은 서두에 편지가 늦어 진데 대해서와 이제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수 있으리라는데 대하여 쓰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날 밤 상원까지 100리 밤길을 걸어 가는 이 아들의 몰골을 아버지가 보았더라면 련민이 아니라 환멸을 느꼈을것입니다. 군화는 끈이 풀어 지고 단추를 벗겨 놓은 군복앞자락은 속내의가 들

여다보이게 너풀거렸으며 군모는 삐딱하게 머리우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번 화물자동차를 잡아 타려다가 휘뿌려난 저의 온몸은 눈과 흙범벅이였습니다. 저는 손에 훌쭉한 빈 배낭을 보자기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다 내던졌던것입니다. 저녁밥을 먹지 못했던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수확한 무우밭에 들어 가 언 무우 몇개를 뽑아 씹어 먹었습니다. 체모를 잃은 병사의 모습을 그 밤 아버지가 아니라 길 가던 뭇사람들이 보았더라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철은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이 한가슴에 가득 찼던 자기가 그때에는 그 추한 모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격을 버리지 말라, 군인의 체모를 잃지 말라. 이것이 제가 찾은 군인생활의 교훈이고 병사의 진리입니다.

아버지, 저는 사람들앞에서 모든 군인들이 **김정일**장군님을 닮자고 말했습니다. 그이처럼 완성된 인격을 갖추자는것입니다.》

가슴이 후더워 난 순경은 편지에서 눈을 떼고 옷소매로 두눈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동환이가 빨리 돌아 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아들의 편지를 보게 될 그 행복한 순간을 눈앞에 그리며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 갔다.

《아버지, 저에 대해서는 더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질통도 그 질통이고 광차도 그 광차이고 착암기도 그 착암기이고 먹고 자는것도 그전과 같지만 전혀 부담으로 여겨 지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으며 저의 군모의 오각별은 언제나 반짝이며 어깨우의 총창은 언제나 서리발처럼 번뜩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몸에 흐르는 새형의 피와 넋과 의지를 주신분은 우리의 장군님이시라고 생각하니 그 고마움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저의 이 마음을 장군님께 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다 읽은 순경은 그것을 봉투에 도로 넣어 풀로

봉한 다음 동환의 서재에 들어 가 아무 때나 인차 볼수 있도록 탁상등밑에다 놓아 두었다.

20

허성렬은 방코크—평양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고 있었다. 이 항로는 《고난의 행군》기간에 개설된것으로서 미제가 강도적으로 친 봉쇄환에 뚫린 하나의 돌파구라고도 할수 있었다.

조선은 자기의 사회주의보루를 방어만 하고 있지 않았다. 끊임없는 역습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하여 사회주의력량,반제자주력량을 확대함으로써 미제국주의를 역포위해 나가고 있었다. 1992년 4월 20일 평양선언을 발표할 당시 여기에 서명한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로동당들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의 수가 70여개였던것이 1995년 말 현재에는 100을 넘어 200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당들가운데는 집권련립에 속하여 정부의 정책작성에 참가하는 당들도 있었고 국회활동에 참가하여 크나 작으나 정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당들도 있었다.

이 정당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압살》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게 되였다.

쏘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좌절에서 쓴 맛을 보았던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오늘의 조선을 보고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주의의 재생운동에 떨쳐 나서고 있었다.

이 시기 로씨야의 한 사회주의정치운동가가 미국기자와 한 담화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미국의 에이피통신기자로부터 이젠 당신도 사회주의정치운동을 할 의욕을 잃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 명석한 판단력과 리지력을 21세기 《자유세계번영》을 위해 바치는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단호히 머리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사회주의자로서의 나의 인생은 오늘에 와서 진정 보람있는 궤도에 들어 선셈이다. 나는 그 보람찬 삶을 조선동지들에게서 찾았다. 이제야 비로소 세계를 쥐고 휘두를 힘 있는 사상, 그런 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이제는 우리가 두번 다시 좌절되지 않을것이다. 나에게 사회주의자로서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한 **김정일**동지는 나자신뿐아니라 로씨야사회주의자들, 온 세계가 따라 배워야 할 위대한 스승이시다. 나의 리지력을 가장 보람 있게 바칠수 있게 된것이 참으로 큰 행운이다.》

이 모든 정당들, 개별적인사들이 미제에 대한 역포위환을 이루고 있었다. 이 국제적전선의 최고사령관도 **김정일**동지이시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허성렬은 장기간의 해외출장 (물론 그사이 여러차례 귀국하여 자기 본신사업도 하였다.) 과정에 이것을 깊이 느끼였다.

이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앞에 나설것이며 그 기간의 전과를 자랑스럽게 보고하게 될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방코크를 리륙해서부터 장시간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까딱 않고 앉아 있었다.

귀국에 앞서 마지막으로 들린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그에게서 모든 기쁨과 자랑을 날려 보냈다. 피를 끓게 하고 가슴을 뒤번져지게 하는 《사건》이였다. 그날부터 그는 치명상을 당한 사람처럼 가슴이 천만갈래로 찢기는것 같은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허성렬은 어느 날 그 나라 집권당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정치국위원과 마주 앉았다.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이어 오는 나라 집권당의 원로급인물이였다.

그 인물은 허성렬과도 면목이 바이 없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차례 왔었고 환영연회에서도 잔을 찧으며 축배를 나누었었다.

그는 선대수령들사이에 맺어진 형제적친선을 귀중히 여긴다는것, 조선의 현 처지에 대하여 깊은 리해를 표시한다는것 등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이》 하고 그는 말했다. 《혹심한 식량난을 겪

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성렬은 말없이 머리만 끄덕였다.
《조선동지들은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을것입니다.》
《귀국의 농사작황이 매우 좋더군요.》 허성렬은 동문서답격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는 정부에 조선에 식량지원을 줄것을 제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치국위원은 손을 내저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무엇이 두려운지 갑자르기만 하다가 몇번 헛기침을 깇고 나서 말을 꺼냈다.
《저… 정부에서는 음… 한 천톤의 식량을 내놓겠다더군요.》
《그래요?》 허성렬은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쌀을 나는 저 거리들에서 헤매고있는 귀국의 방랑자들을 구제하는데 써달라는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허성렬은 이 순간 사회주의원칙을 저버리면 매 인간뿐아니라 당도 국가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저렬해 지는가를 뼈 아프게 절감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여 원칙을 줴버리고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 섰다. 서방의 자본과 사상문화가 쓸어 들면서 서방식실용주의가 온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나라에서 계급적련대성을 바란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였다.
(모욕하지 말라, 누굴 거러지로 아는가!)
허성렬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리를 차고 일어 섰다. 그리고 남은 일정을 취소해 버리고 그 나라를 떠나버렸다. 짓밟힌것은 자기 한 개인의 자존심만이 아니였다.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존엄이였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 했다. 그는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가 식량지원을 미끼로 《개혁》,《개방》을 요구하는데 반발하여 국제인권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자기 행동의 타당성을 추호도 의심할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하루이틀 시일이 흐르면서 그는 자기 행동의 다른 측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분별을 잃을 정도로 격노했으며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훌 떠나버린 행동의 결과가 두 나라 당과 국가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확실히 자기가 감정을 앞세웠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외유내강은 대외일군들의 기본품성이다. 달리는 행동할수 없었을가?…

그는 자기를 비판적으로 돌이켜 보며 불안을 느끼였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것은 조국이 자기의 처신을 두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조국에서는 빨리 돌아 오라는 독촉뿐이였다.

거기에는 다른 하나의 리유도 있었다.

그는 조국을 떠나기에 앞서 해당부문 일군으로부터 국방공업발전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기를 받았다.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은 시종일관한 당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기를 두고 고심하지 않을수 없었으니 그것은 나라의 긴장한 자금사정을 그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때문이였다. 바로 그때문에 허성렬의 마음은 이중으로 무거운것이였다.

비행기는 조국의 령공에 들어 섰다.

허성렬은 비로소 숙이고 있던 고개를 쳐들고 기창을 통하여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처음 그의 눈에 들어 온것은 이해 따라 더욱 우심하게 들이닥친 장마로 하여 죽탕이 된 농사작황이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량미간을 찌프렸다.

잇따라 활주로처럼 뻗어 나간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장이 눈에 밟혔다. 거기에서는 지금 인민경비대 군인들이 특별한 기계수단도 없이 와글거리며 로반완성을 위해 말 그대로 혈전분투하고 있을것이다. 그 공사 역시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직접 지휘하고 계시는 대상이 아닌가.

시야를 넓혀 조국땅 전부를 훑어 보자 허성렬의 눈에는 전국의 각지로 실오리처럼 뻗어 나간 수십수백갈래의 선들이 들어 왔

다. 그것은 빛섬유까벨을 묻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의미했다. 그 순간 허성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 섰다 앉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20세기가 다 가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여기에서 조금만 주춤거려도 후대들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되며 조국의 만년대계를 그르칠수 있다,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콤퓨터시대인것만큼 그 기초준비로서 온 나라의 빛섬유통신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해 오시였다. 지금 그것이 현실로 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것을 과학자출신의 허성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막대한 자금이 드는것이다.

허성렬은 점점 난감해 지는 자신을 의식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다음부터는 순안비행장에 내릴 때까지 눈을 감고 단 한번도 뜨지 않았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하늘에서 비방울이 떨어 지기 시작했다. 가을비는 늙은이 턱수염밑에서 긋는다고 했지만 평양시내로 들어 오는 사이에 비는 폭우로 변했다.

허성렬은 이마살을 찡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무실에 들어 서자바람으로 부서일군이 아래 단위에서 올라 온 문건을 들고 왔다가 두고 나갔다. 그것을 보는 허성렬의 얼굴이 점차 굳어 져갔다. 국방공업과 관련한 내용이였는데 거액의 자금을 요구하는것이였다.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는 오른 손으로 턱을 싸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외국방문기간에 만났던 그 정치국위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개혁》,《개방》을 한다고 말 없는 속에 비난하지만 결국 당신들도 그 길로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는듯 미묘한 표정을 짓던 그 얼굴…

사회주의를 고수하자면 국방공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아름찬 일이다.

문득 평양을 떠나기전에 만났던 체신부 부부장이 생각났다. 그때 그도 자금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질려 있지 않았는가.

자리에서 급히 일어 선 허성렬은 곧장 체신부로 갔다.

젊은 부부장은 서둘러 자리를 권하고 나서 의문스레 상대를 바라보았다. 자기네 부하고는 련계도 없는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이 찾아 온것이다.

부부장으로 말하면 허성렬에게는 아들벌이 되는 젊은 사람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허성렬이와 가까운 친구지간으로서 만경대혁명학원을 같이 나왔고 몇해전에 급병으로 사망하기전까지 장군님을 같이 모시고 다니였다. 부부장의 할아버지와 허성렬의 아버지 역시 항일무장대오에서 함께 싸운 동지이고 전우였다.

젊은 부부장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자기를 친아들처럼 여기는 허성렬이 외국출장에서 돌아 오자바람으로 찾아 온것이 무척 의아스러운 모양이였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 선채로 허성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허… 왜 매보고 놀란 수닭처럼 껑충해 서서 있나? 앉으라구.》

허성렬이 정말 아들처럼 여기고 해라를 하며 허물없이 굴자 부부장은 수줍게 웃으며 그가 앉은 쏘파에 나란히 앉았다.

허성렬이 곧 정색해서 물었다.

《얼마를 받았나?》

젊은 부부장은 촉기가 빨라서 그가 무엇을 묻는다는것을 제꺽 알아 차리고 그 액수를 알려 주었다. 그 막대한 액수에 놀란 허성렬이 추궁하듯 말했다.

《그래 그걸 받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던가?》

《제 말을 들어 보고 욕하든지 때리든지 하십시오.》

젊은 부부장은 배심 있게 항변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부장이 장군님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받은것은 허성렬이 출장을 떠난 직후인 어느 날 밤중이였다.

《그새 잘 있었소?》 하고 장군님께서 퍽 다정한 어조로 그의 안부부터 물으시였다.

부부장이 황송하여 《옛, 잘 있습니다. 장군님, 건강하십니까?》 하고 정중히 맞인사를 올리자 장군님께서는 고맙다고 하고는 곧 기

본화제를 꺼내시였다.

《빛섬유까벨공사를 언제까지 끝낼수 있겠소?》

《굴착공사는 금년안으로 끝낼수 있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까벨이 걸립니다.》

《까벨은 체신부에서 생산할 계획이요?》

《옛,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설비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설비가 해결되면 언제부터 생산을 시작할수 있소?》

《반년후이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래년 상반년안으로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 빛섬유통신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인민군 군부대들도 예견해야 하오.》

《물론입니다. 그 경우에도 래년 상반년이면 됩니다, 장군님.》

《그럼 내가 필요한 액수를 떼줄테니 당장 공장설비를 들여 오도록 하시오. 설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액수를 계산해 둔것이 있소?》

《…》

장군님의 물으심에 시종 거침없이 대답을 올리던 부부장은 여기서 우물쭈물하였다.

《왜, 계산해 두지 못했소?》

《아, 아닙니다.》

《그런데?》

《…》

역시 대답을 망설였다.

《왜 그러오?》

부부장은 한참 더 갑자르고 나서 송구스러운 목소리로 떠듬떠듬 말씀 올렸다.

《저희들이… 자체로 생산해 보겠습니다. 장군님… 돈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부부장의 이름 석자를 한자한자 찍어 부르고 나서 날카롭게 《동무, 큰 일을 못하겠구만!》라고 하시였다.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구에서 울려 나왔다.

《내가 여러번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결심한것인데 동무는 무슨 딴 소리를 하는거요? 래일중으로 자금을 받아다가 일을 전개하시오. 아니, 오늘로 당장!》

부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허성렬은 《됐소!》라고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 났다. 그는 부부장과 서둘러 인사하고 나서 방에서 나갔다.

계단을 뛰여 내려 가는 그의 다급한 구두발소리가 들려 왔다.…

21

비는 더욱 억수로 쏟아 져 내렸다.

대줄기 같은 비는 자정이 되도록 멎을줄 몰랐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외국에서 돌아 온 허성렬이를 부를가 말가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고 교환수에게 평양—향산관광도로공사를 맡고 있는 인민경비대 장령 리길남을 찾으라고 이르시고는 송수화기를 드신채 기다리시였다.

그 공사는 심철범장령이 지휘하고 있는 금강산발전소건설과 함께 그이께서 펼쳐 놓으신 기본전선의 하나였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였고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주 다니신 길을 현대적으로 확장하는 공사였다.

군인건설자들은 10월 10일, 이해의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로반공사를 완공할 결사의 각오로 일하고 있었다. 10월 10일은 이제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사의 기한전 완공을 통하여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로 한 전략적로선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증하려고 하시였다.

그러나 어제 받은 보고에 의하면 《철벽 1다리》와 《철벽 2다리》 공사형편이 시원치 못했다. 다리의 길이가 워낙 긴데다가 작업장면

적이 좁아서 건설력량을 더 투입하재도 할수 없는 형편에 그마저 련일 계속된 장마비로 하여 공사장전반이 침수되여 있었다. 그런데 이 다리공사가 끝나야 도로 전반구간이 관통되게 되여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신채 칠칠야밤에 전등도 없어서 홰불을 켜들고 간고분투하고 있는 전사들을 생각하며 그 처절한 공사장을 그려 보시였다.

드디여 리길남장령이 송수화기앞에 나타났다.

《지금 형편이 어떻소?》

《최고사령관동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작업장 전 구간이 침수되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원일군들과 대책안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안을 언제쯤이면 내가 알수 있겠소?》

《지금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그럼 보고하시오.》

리길남장령은 잠시 말을 끊고 있다가 보고를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화구에서 웅성웅성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는것으로 봐서 정무원일군들과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자기 주장대로 말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으시였다.

장령의 보고는 한마디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하신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까지 무조건 해내겠다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 응답도 안하고 계시다가 한참후에 《거기가 어디 쯤이요?》라고 물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시적후퇴시기 법동농민을 만나셨던 곳입니다. 거기에 대형유화판이 있습니다.》

리길남장령의 갈린 목소리가 울려 왔다.

《동무의 위치를 말하시오.》

《옛, 저는 안주현장지휘부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됐소, 내가 이제 그리로 가겠소.》

《아니?! 이 비속에… 안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령이 당황해서 아뢰이는 이 말을 듣지 못하시였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뒤였던것이다. …

현장지휘부의 천정이 낮은 방에 부관이 들어 와 알려서야 리길남장령은 장군님께서 오신줄 알고 놀라서 밖으로 뛰여 나갔다.

밖은 아직도 캄캄하였다.

자동차가 전조등을 켠채로 서 있는데 그이께서는 보이지 않았다. 부관이 주위를 살피다가 앞장서 한곳으로 걸어 갔다.

장령은 그의 뒤를 따랐다.

이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지휘부직속 구분대전사들이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야외식당에 가계시였다. 전사들은 머리까지 비옷을 푹 쓰신 그이를 알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채 숟가락을 놀리고들 있었다. 게눈 감추듯 하고 일어 서는 전사들도 있었고 배식구앞에 줄 지어 선 전사들도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밥을 받아 들고 식탁으로 가는 전사들을 여겨보시다가 밥그릇이 골숨한데 저으기 놀라시였다.

그이께서는 방금 식탁에 앉은 전사의 어깨를 건드리며 《밥이 왜 이렇게 적소?》 하고 물으시였다.

《적지 않습니다.》 전사는 흔연한 목소리로 대답 올렸다.

《공급량하고는 맞지 않은데?》

《아니 맞습니다.》 전사는 한본새로 우기였다. 촉수 낮은 전등빛속에서 그의 얼굴륜곽이 희미하게 드러날뿐이였다.

《그렇지 않소. 분명 제 량이 아니요!》

전사는 《우린 정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집하다가 벌떡 일어 서더니 군인식으로 차렷자세를 지으며 대답 올렸다.

《우리 중대장동지가 상급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당분간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 없습니다. 인민들이 식량고생을 하고있는데 사실 공급정량을 다 먹는다는건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렴치가 없는 일입니다.》

《동무네 중대장이 어디 있소?》

그이의 말씀에 전사는 당황해 하며 이리저리 살펴 보았다.

김정일동지께서 《됐소. 식사도중에 안됐소. 어서 먹으라구.》라고 하며 전사를 눌러 앉히고 식당밖으로 나오시는데 물참봉이 된 군관이 헐떡이며 뛰여 와서 그이의 앞에 마주 섰다.

《중대 차렷！》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하려는 그 군관을 손으로 제지하고나서 《동무가 중대장이요？》 하고 물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습니다. 중대장 중위 백영철.》

《동무네 중대 급식량을 짜르라고 명령한게 누구요？》

중대장은 꿋꿋이 선채 머밋거리다가 《저…》 하고 입을 열었으나 뒤를 잇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 없소. 사실대로 말하오！》 하고 너그러운 어조로 다시 물으시였다.

그래도 중대장은 《저… 저…》 하며 우물쭈물하였다. 때마침 리길남장령이 어둠속에서 나타나며 그이께 말씀 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그건… 제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동무가？！》

《예… 최고사령관동지…》

김정일동지께서는 놀라운듯 장령을 한참 바라보다가 《동무가 명령했단 말이요？》라고 믿어 지지 않는듯 다시 물으시였다.

《예…》 하고 장령이 차렷자세를 지었다.

그 순간 **김정일**동지의 숨소리가 거세여 지셨다. 번개가 번쩍하고 천지를 진동하는 우뢰가 금방 터질듯 한 긴박감이 사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장령은 까딱 않고 서 있었고 옆에 있던 중대장도 부관도 숨을 죽이였다. 가슴을 옥죄이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후 **김정일**동지께서 흥분을 누르고 장령에게 《현장을 돌아 봅시다！》 하고 갈리신 어조로 말씀하시며 뒤따라 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시였다. 장령이 얼마 떨어 져 있는 풍차 있는데로 달려가려 하자 장군님께서는 차문을 열어 주며 《이 차에 타시오.》 라고 말씀하시였다.

장령은 차에 올라 그이의 옆에 송구스러이 앉았다.

야전용승용차는 울퉁불퉁한 작업도로를 몹시 들추면서 달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장령은 불안스레 앉아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승용차가 개천읍거리를 벗어 나와 등성이길에 올라 섰을 때 지나온쪽을 몇번 뒤돌아 보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는 《부관, 저기서 뭣들 하는가 가서 알아 보시오.》 하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가리키신 곳은 개천역구내의 인입선에 서 있는 몇대의 화차방통이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새하얗게 달라붙어 거기서 뭔가 퍼내고 있었다. 소랭이를 든 녀인들, 바께쯔를 든 아이들, 마대짝을 둘러 멘 남정들, 그들은 억수로 내리는 비에는 아랑곳없이 방통에서 퍼담은것을 산지사방으로 정신없이 날라 가고 있었다.

부관이 질적질적한 논뚝길을 따라 그쪽으로 달려 가고 장령은 차창가에 바투 앉으신 **김정일**동지의 곁에서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눈을 감아 버렸다.

리길남장령은 지금 거기서 벌어 지고 있는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방통에는 니탄이 실려 있었고 그 니탄을 퍼날라 가는것은 굶고 있는 남녀로소들이였다.

니탄을 물에 울궈 식량으로 먹는 인민들, 그 인민이 겪는 식량난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어 군인식량을 잘라 나누어 준 그였던것이다.

드디여 부관이 돌아 왔다.

김정일동지께서 다급한 어조로 《그래 무슨 일들이요?》 하고 물으시였으나 부관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얼른 입을 열지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관의 얼굴에 시선을 보낸채 기다리시였다.

《방통에 실린것은 니탄인데…》

《니탄?》

김정일동지께서 부관의 말을 자르듯 반문하시는데 부관이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부관의 말을 듣고 계시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이미 진상을 짐작하시였던것이다. 얼마전에 자강도당으로부터 굶고 있는 사람들이 니탄을 식량으로까지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으시였다. 니탄을 물에 울궈서 말린 다음 가루를

내여 얼마간의 낟알가루를 넣고 범벅을 빚어 먹는다는것이였다. 그것을 현실로 눈앞에 보신 그이의 눈빛이 금시 젖어 들기 시작했다.

부관이 갑자기 설명을 중둥무이했다.

승용차는 길 한복판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운전사도 부관도 장령도 지어는 **김정일**동지자신께서도 떠나는것을 잊으신듯 하였다. 퍽 시간이 지나서야 차는 갑자기 발동소리를 요란히 내며 움직였다.

20～30분후에 작업장이 바라보였다.

먼저 시야에 들어 온것은 공사장입구의 산턱을 깎아 내고 세운 대형유화판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략적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법동농민을 만나시는 화폭이였다.

《할아버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자강도땅을 찾아 가지요.》

《거기에 친척이라도 있습니까？》

《이 란리통에 친척을 찾아 가서는 뭘하겠소.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가지요！》

수령과 이름 없는 농민사이에 오고 간 이 이야기는 수령과 인민이 서로 믿고 따르며 엄혹한 후퇴의 시련을 이겨 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생동한 력사적화폭이였다. 오늘 그 인민의 후손들이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도 오로지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의 호소에 산악처럼 떨쳐 일어 서고 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려 유화판이 모셔 져 있는 산턱에 올라 서서 현장을 한눈에 굽어 보시였다.

이미 보고 받으신대로 모든것이 물바다에 잠겼다.

골재장도 트레그라인도 삭도도 지어는 교각도 꼭대기 한두메터를 남기고는 모두 물에 잠기여 있었는데 이제 그 교각우에 보를 건너 놓고 휘틀을 댄 다음 콩크리트를 타입하여 다리의 마감공사를 완성해야 한다는것은 정무원일군들의 눈으로 보건대 아찔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도 얼른 결심이 서지 않으시였다. 현장에 나와

있던 홍경봉부총리가 정무원의 결심이라고 하면서 비가 멎고 물이 찐 다음에 공사를 계속하는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렸다.

김정일동지께서 그를 힐끗 보시였다.

홍경봉은 흠칫 놀라며 더 하자던 말을 끊고 깍지 낀 손을 비틀었다. 그이의 눈빛이 노기를 띄고 있는것 같았기때문이였다.

사실 **김정일**동지께서는 노여움속에 계시였다. 부총리가 공사를 뒤로 미루자고 해서만이 아니였다. 개천역을 떠나서부터 줄곧 마음이 괴로우시였다. 정무원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구실을 너무도 못하고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지났을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차 자신을 다잡으시고 의논조로 부총리에게 물으시였다.

《동무들은 군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부총리가 어지간히 기가 꺾인 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충분히 들었단 말이지요?》

김정일동지께서 반문하고 나서 머리를 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니, 다시 들어 봅시다. 리길남동무.》

부총리뒤에 서 있던 리길남이 《옛.》 하고 앞으로 나와 차렷자세를 짓고 또박또박 그이께 말씀 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공사의 완공기일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기때문에 조금도 흥정할수 없다는것, 때문에 군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공사를 계속 밀고 나갈것을 결심했다는것을 말하고 나서 구체적방도를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우선 작업장이 침수된 조건에서 떼를 무어 교각에 비끄러매고 그우에서 작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가 계속 내리는 형편에서 콩크리트타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콩크리트혼합물을 한순간에 굳어 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방도가 있습니다.》

이때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장령은 자기 말을 더욱 확신성 있게 이어 나갔다.

《저희들은 지금과 같은 정황이 조성될것을 미리 예견해서 혼합물의 굳힘속도를 최대한 단축할수 있는 첨가제를 연구개발하였습

니다.》

《구체적으로 그 첨가제를 쓰면 굳힘시간이 얼마나 되오?》

장군님께서 흥분된 어조로 물으시였다.

《15분입니다.》

장령은 힘차게 대답을 드리였다.

장군님께서도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장령의 시선을 마주 보시였다. 이것이야말로 패배주의,보수주의에 먹인 통장훈이였다.

《나는 군인동무들의 결심을 지지합니다. 최고사령관으로서 절대 찬성입니다. 공사를 계속 내미시오!》

《옛,알았습니다!》

장령은 기쁨에 넘쳐 대답을 올렸다.

장군님께서 그를 향해 힘 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기계화부대에 명령하여 수륙량용차를 동원시키겠습니다. 그것으로 물동도 나르고 교각에 붙여 놓고 그우에서 작업하시오. 떼목대신 말이요.》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사장을 떠나기에 앞서 정무원일군들을 따로 모이게 하시였다. 천막안이였다. 그이께서는 비옷을 어깨에 걸친채 자그마한 탁자에 마주 앉으시였다.

그이의 몸가짐은 매우 엄숙했고 어조에 여전히 노여움이 배여 있다는것이 누구에게나 확연했다.

부총리이하 일군들은 고개를 숙이고 긴장하게 앉아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주로서의 정무원 일군들이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에서 주인은 고사하고 오히려 손님격이라는데 대해서만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이 확실히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원책임제란 무엇입니까? 나는 동무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동무들은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타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자기 머리속에 있는 패배주의,보수주의 낡은 사상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구실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숨을 죽인 장내는 물을 뿌린듯이 조용하였다. 그이께서 걸치신 비옷에서 물방울이 탁자우에 떨어 지는 소리마저 들리는듯 하였다.

그이께서는 좌중을 둘러 보고 나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의 무책임성때문에 경제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의 행군〉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책동에도 원인이 있지만 동무들이 경제사업을 잘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때 **김정일**동지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개천역에서 본 광경이 다시금 눈앞에 밟혀 왔기때문이였다.

그이의 목소리가 확연하게 갈리시였다.

《그렇다고 똑똑한 대책 하나 세웁니까? 실정을 제대로 보고 합니까? 여기 모인 동무들이 대체로 차를 타는 간부들인데 어느 누가 니탄을 먹어 본적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로 오면서 사람들이 소랭이로, 바께쯔로, 마대로 니탄을 퍼가는것을 보았습니다. 퇴비로 쓰자는것이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말씀을 잇지 못하고 탁자우에 고개를 푹 숙이시였다.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뿌잇한 안개속에서 그이의 모습을 우러렀다. 잠시후 고개를 드시는 그이의 안광에서 눈물이 번쩍였다. 여기저기서들 소리없이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이윽하여 그이의 진정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오늘 군인들의 식당에 들렸다가 그들의 급식량이 형편없이 줄어 든것을 보았습니다. 인민들이 굶는것을 보고 도와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의 군인들입니다. 우리의 군인들은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엄청난 난공사를 당이 결심한 기간에 기어이 완공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정신이며 기풍입니다. 동무들, 사회의 모든 일군들이 군인들의 이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이만 합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옷을 머리까지 쓰며 자리에서 일어 서시였다.

이때 앞자리에 앉아 있던 홍경봉이 탁자앞으로 다가서며 《장군님, 죄송합니다. 인민군군인들을 도와 기한전에 꼭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경제사업을 추켜 세우겠습니다.》라고 모두를 대표하여 결심을 말씀 올렸다.

《고맙소.》라고 하신 다음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두를 둘러 보며 말씀하시였다.

《비를 맞으며 고생하는 동무들에게 좋은 말만 해야겠는데… 자, 그럼 수고하시오.》

천막에서 나오시자 리길남장령이 보초마냥 지켜 서 있다가 그이를 맞이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식사전이시겠는데… 변변치 않지만 저희들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령의 기름한 얼굴을 한참 들여다 보시다가 《고맙소.》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꽉 잡아 주시였다. 장령은 어리둥절해 졌다.

장군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식사준비를 해놓았다는데 대한 인사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군인들의 급식량을 줄이면서까지 인민들을 도와 준데 대한 감사였고 믿음이였다. 문득 장령은 《고맙습니다!》 하고 목 메여 맞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침식사를 드시지 않은채 급히 현장을 떠나시였다. 일이 산처럼 쌓여 있는것이였다.

×

허성렬이 집무실에 들어 섰을 때 **김정일**동지께서는 몹시 피로해보이였다.

향산도로건설장에서 돌아 와서도 갈아 입으시지 않은 옷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그이께서 아침식사전이라는것을 허성렬은 알수 없었다.

체신성의 부부장을 만나보고 난 허성렬은 그이께서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자금을 뚝 떼주시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장군님앞에 마주 앉게 된 지금 그의 근심거리는 외국출장중에 있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는가 하는것이였

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처리 받으려고 《사건》전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몇가지 반문하시다가 집무탁우에 놓인 문건더미에서 하나를 찾아 드시였다.

허성렬은 얼핏 그 문건표지에 아무런 결론도 없다는것을 알아보고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이를 지켜 보았다.

문건에 눈길을 돌리고 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허성렬을 마주 보며 빙그레 웃음을 띄우시더니 《동무에게도 칭찬이 필요하오?》라고 하며 눈에 익은 활달한 필체로 《민족적자존심은 우리 인민의 생명입니다!》라고 쓰신후 그밑에다 존함과 날자를 적은 다음 허성렬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크게 웃으시였다.

허성렬이 일어 서서 《알겠습니다. 장군님!》라고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앉자 그이께서는 거침 없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자, 공연한데 신경을 쓰지 말고 할 일이나 합시다. 이자 체신부에서 나에게 직접 보고해 왔는데 나라의 빛섬유통신화는 곧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을 중심으로 콤퓨터망형성의 기초작업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동무들이 세계대백과사전을 ＣＤ원판에 번역하여 올린것을 보면 이 〈고난의 행군〉기간에 매우 큰 일을 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군들이 참는것이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맞받아 뚫고 나가는것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한 우리의 의도를 잘 받들어 가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대로 혁명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로 결심한 이상 군사중시로선을 계속 틀어 쥐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 해당부문에서 제기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걱정하던 문제가 풀리고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장군님의 단호한 결심을 알게 되자 허성렬은 가벼운 마음으로 필요한 액수를 보고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참동안 응답이 없으시였다.

허성렬이 액수가 너무 많아 그러시는줄 알고 《좀 더 타산해 보겠습니다.》라고 미안한 어조로 말씀 드리자 장군님께서는 《아니,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요.》 하시였다.

그후에도 **김정일**동지께서는 까딱 않고 앉아 계시였다. 허성렬은 비로소 이상한 기미를 느끼게 되였다.

군사가로서의 장군님의 특징은 판단이 빠르고 결심이 정확하며 타격에서 무자비한것이였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부문의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어떤 어려운 문제처리에서도 지체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웬일이신가? 허성렬은 등골이 축축히 젖어남을 의식하였다.

드디여 그는 견디지 못하고 《장군님…》 하고 일어 섰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훈합창단의 노래나 들읍시다.》 하고 집무탁에서 몸을 일으키시였다.

허성렬은 그이께서 몹시 힘들고 피로와 하신다는것을 느꼈다. 공훈합창단을 따로 조직한 경위도 잘 알고 어버이수령님 생각이 나실 때나 깊은 밤 피로하실 때 그리고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실 때도 최고사령부 작전조성원들과 함께 공훈합창단성원들을 데리고 방선의 병사들을 찾으신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허성렬이였다.

허성렬은 장군님을 따라 만수대예술극장으로 갔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적기가》였다.

객석에는 그이와 허성렬뿐이였다.

허성렬은 지금 그이의 심중이 매우 비장하시다는것을 알았다.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좀체로 비장하거나 침통해 지시는 때가 없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닥칠 때도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통이 크고 대담하게 모든것을 단호하게 헤쳐 나가시였다.

이날 장군님의 심정을 무겁게 한것은 개천역에서의 광경을 보신때문이였다. 그것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온 나라의 광경으로 안겨 왔다. 굶고 있는 인민을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군사를 좀 죽이더라도 쌀을 사다가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것이 좋지 않을가,

그렇다면 조국과 민족의 근본리익과 혁명의 운명은?…
그이의 심중은 몹시 번거로왔고 무거우시였다.
합창단은 《적기가》를 반복해 부르고 있었다.…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돌아 오는 길에서 그이께서는 허성렬에게 의미 깊은 어조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내가 아침에 간곳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시적후퇴시기 법동 농민을 만나 담화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때 반당종파분자들이 적들이 눈앞에 다가오자 최고사령부를 국경너머로 옮기자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령님께서는 절대로 안된다, 어떻게 찾은 조국인데 그것을 버리고 남의 나라땅으로 가겠는가, 갈테면 당신들이나 가라, 우리는 이 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조용히 〈적기가〉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나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중앙위원회청사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허성렬을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 가서 준비해 가지고 온 문건을 내놓으라고 하시였다.
허성렬은 끼고 다니던 가방에서 군사사업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적은 문건을 꺼내 그이께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을 비준하시면서 《인민들은 우리를 리해해줄거요!》라고 낮으나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22

한밤중에 전화종소리가 리완수를 깨웠다. 전화기는 막장지휘부의 자그마한 책상우에 놓여 있었다. 회의용의자 네개를 맞붙여놓고 누웠던 리완수는 아직 잠에서 채 깨지 못한채 송수화기를 잡았다.
《정치위원동뭅니까?》
심철범의 목소리에 내리감기던 눈시울이 우로 올라 갔다.
한개소의 붕락구간을 돌파한후 헤여진지 겨우 두시간밖에 안

되였다.

19갱의 붕락구간은 끝날줄을 몰랐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결론에 따라 붕락구간을 직선돌파하기로 한 후 관리국의 지휘관들은 전투원들과 막장에서 같이 살다싶이 하였다. 전투가 치렬해 지자 리완수도 정치부의 사무실을 막장에 옮기였다.

책상다리에 붙어 있는 전등의 스위치를 손더듬으로 찾아 불을 켠 리완수는 시계를 보았다.

리완수는 충진을 하지 않아서 바위부스레기가 무시로 떨어 지는 구간으로 걸어 갔다. 이런 구간은 수십메터나 되였다. 김남철전사가 착안한 석비레모래는 아직 시공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석비레모래를 섞은 콩크리트혼합물의 강도에 대한 건재연구소의 과학적담보가 있었으나 국가건설위원회의 심의국에서는 건설법규에 어긋난다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다.

건설법규에 의하면 수력건설은 강모래들만 할수 있게 되여 있었다.

시공측인 군인들과 그들사이에는 심각한 언쟁이 거듭되였다. 건설위원회 심의국은 군인들의 반발에 건설법규를 들이대고 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굴진갱들에서 려단장들의 단독결심에 의해 석비레모래로 충진을 시작했다. 심철범은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군인들과 건설주인 건설위원회사이의 의견대립은 법적문제로까지 번져 지게 되여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까지 초래되였다.

리완수는 걸음을 멈추고 바위부스레기가 떨어 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충진을 따라 세우지 않는다면 이미 뚫어 놓은 갱도가 어느때 무너져 내릴지 몰랐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겨 작업갱으로 올라 가는 입구에 이르렀다. 심철범은 자기가 나온 반대켠 굴진갱에서 천정에 머리를 찧을가 경계하듯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걸어오고 있었다.

심철범이 조명등이 켜져 있는 작업갱입구에 이르기가 바쁘게 리완수가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심철범은 갱도벽으로 다가가 송풍기의 스위치를 껐다. 송풍기 돌아 가는 소리가 멎었다.

그는 급히 되돌아 와서 자기가 금방 나온 굴진갱쪽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

《들립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잔돌들이 떨어 지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이건 큰 붕락이 예견된다는 신호입니다.》

몇초동안 심철범은 잠자코 서 있었다. 그러다가 송풍기스위치를 다시 넣은 다음 광차레루우에 주저 앉으면서 말했다.

《한시간전에 바위부스레기가 떨어 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막장에서 집채만 한 붕락이 있었습니다. 그 예후를 알고 전투원들을 피신시켰으니망정이지 큰일날번 했습니다.》

리완수는 충진을 따라 세우지 않고서는 굴진도 계속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자코 심철범과 나란히 레루우에 앉았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중장동지?》 하고 리완수는 한숨을 내뿜고 나서 물었다.

심철범은 군복상의주머니에서 여러 겹으로 접은 공사지도를 꺼냈다. 거기에 있는 빨간 선과 파란 점선은 공사의 완공구간과 미완공구간을 표시하고 있었다.

심철범은 손전지를 켜들고 지도를 들여다 보더니 삼색원주필을 꺼내 어제 오늘사이에 완공된 구간을 새롭게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공사구간의 모든 굴진갱들에서 작업이 매우 굼뜨게 진행되였다는것이 그가 표시한 빨간 선에 의해 알렸다. 리완수는 새로 표시한 짤막한 그 선을 보면서 바늘로 찌르는듯 한 육체적고통을 느꼈다.

가장 무서운것은 많은 작업장들에서 충진이 중지된것인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굴진을 진행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까놓고 말해서》 하고 심철범은 그의 생각을 알아 맞힌듯 말을 계속했다.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모래입니다.》 하면서 그는 지도를 접어서 수첩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의주머니에 도

로 넣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연유의 절반량이 또 줄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시오.》

리완수는 나라의 외화사정이 더욱 곤난해 진데로부터 추가로 받게 된 연유가 잘리운것은 물론 이미 받던 연유도 그 량이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는 공사용물동은 고사하고 군인들의 생활물자를 실어 나르기에도 불충분하였다.

《그러니 상원으로 뛰던 자동차들을 안변모래운반에 돌리고 세멘트는 전적으로 렬차수송으로…》 하고 리완수가 말하기 시작했다.

심철범은 그의 말을 막았다.

《그 자동차를 가지고서는 모래운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석비레모래를 써야 합니다.》

리완수는 일부 려단장들이 자기가 맡은 구간에서 석비레모래를 쓰고 있는것을 상기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법규가 막아 서고 있었다.

《나는 어제 저녁에 126려단장 최광일대좌를 만났습니다. 그는 0026호명령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다 싶이 하였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나는 석비레모래를 쓰겠다는 그의 제의에 동의하였습니다. 법앞에 나설 결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중장동지는 국가건설위원회 심의국에서 내려 온 사람들을 만났는가요?》 하고 의심쩍은듯 리완수가 반문하였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도 뭐라고 하더군요.》

《그런건 무섭지도 않습니다. 중요한건 우리에게 석비레모래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심철범은 날카롭게 말했다.

《건재연구소의 담보가 있지만 그것은 현재상태의 강도입니다.》

그는 리완수에게로 가까이 다가앉아서 말을 계속했다.

《100년,200년후에도 그러한 강도가 보장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위원동문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년대계를 담보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옳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는 건재연구소도 담보가 없습니다. 나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지요. 참을수 없는…》

심철범은 갑자기 어성을 높였다가 인차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병사들은 막장에서 육체적고통을 겪고 있지만 지휘관들은 이렇게 앉아서 정신적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 병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장동지.》 하고 리완수가 그의 말을 막았다.

《나는 몇시간전에 막장에서 김남철전사를 만났습니다. 입술이 까칠하게 텄더군요. 모래문제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정신적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도 우리 지휘관들과 꼭 같은 명령을 받고 있기때문입니다. 그 명령때문에 그들도 괴로워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심철범은 단호히 말했다. 《전호진동무와 기술부장동무를 여기로 불러 주시오.》

《그들은 여기 어디 막장에 있을겁니다.》

《그렇소? 좀 수고를 해주시오.》 하며 심철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 나의 차를 대기시켜 주시오.》

《알았습니다.》 리완수는 병사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송풍기 있는 곳으로 다가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몇명의 군인들중 사관 한명에게 전화를 걸라고 말하고 나서 되돌아 왔다.

전호진은 인차 나타났다.

《참모장동무.》

리완수는 그가 다가와 심철범에게 도착보고를 하기가 바쁘게 말했다.

《전반적인 구간들에서 위태로운 정황이 조성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전호진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한

시간전에 작전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장동지가 석비레모래와 관련한 참모장동무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앉으십시오.》
또 얼마동안이 지나갔다. 어둠속에서 기술부장이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조명등밑에 나타났다.
지칠대로 지친 그의 얼굴은 피기가 없이 창백하였다. 그러면서도 깨끗이 면도를 하고 있었으며 군복의 목달개는 눈 부시였다.
《어서 오오.》 심철범은 그의 도착보고를 받는둥마는둥 하고 무뚝뚝하게 명령했다. 《건재연구소의 강도시험결과를 다시한번 보고하오.》
기술부장은 뒤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심철범,전호진 그리고 리완수에게 동시에 보고할수 있는 자리에 멈춰 섰다.
《중장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하고 기술부장은 보고를 시작하였다. 《제가 간것은…》
《간단히 하오.》
심철범은 그를 막았다.
《무엇때문에 어데로 갔는가 하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 졌는지 그거나 보고하오.》
《알았습니다.》 하고 기술부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석비레모래로 만든 블로크를 연구소의 강도시험기에 넣었습니다. 200마르카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번 하였는데 그 수치는 같았습니다. 이것은 강모래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들은 좀 더 확고한 결론을 가지기 위해 전국의 10여개 대상공사장들에 있는 강도시험기들에서 같은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어데서나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소.》 하고 심철범은 또다시 불만스레 그의 말을 막았다.
《기술부장동무.》
리완수가 물었다.
《그 강도가 몇년,아니,몇백년동안 유지될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말들이 없었습니까？》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두고 보겠다고！》

심철범은 비웃는 어조로 되뇌였다.

《백년, 이백년동안을？》

《중장동지.》 하고 시무룩하게 기술부장이 말했다. 《그들은 법적책임이 돌아 올가봐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전 기술부장으로서 석비레혼합물의 장기강도를 증명해 보일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기술부장은 여기서 말을 중둥무이하고 말았다.

《녀자들처럼 무슨 우는 소리를 하오？》 하고 심철범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동무는 기술일군이기전에 군인이란 말이요.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건설을 하라니 하고 있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군인이요. 전쟁에서처럼 모든것을 책임져야 하오. 모든것을！ 목숨으로！》

《건설법규를 만든 사람들은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 제길！》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전호진이 투덜거리듯 말했다.

《나라가 이 공사에 운명을 걸고 있다는것을 그들이 알기나 하는가.》

그 소리에 심철범은 비로소 그를 불러 온 목적을 상기한듯 기술부장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참모장동무.》 하고 그는 말했다. 《동무는 석비레모래문제에서 나와 철저히 립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어도 좋겠소？》

《말씀하십시오, 중장동지.》

전호진이 동의를 표시한다는 뜻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나서 심철범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렇다면 나는 참모장동무에게 명령을 떨구겠소. 공사장의 전구간에서 석비레모래를 도입하시오！ 그리고 일제히 충진을 시작하시오！》

《알았습니다！》

전호진이 본능적으로 일어 서며 대답했다.

《나는 이 명령을 서면으로 작성했소.》 하고 심철범은 주머니에서 종이장 하나를 꺼내 전호진에게 주면서 말했다.

《앉으시오.》

《이건 무엇에 필요한가요？》

전호진은 종이장을 들여다 보고 나서 물었다.

그 종이장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0026호명령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콩크리트혼합물에 석비레모래를 사용할것. 중단된 충진을 일제히 다시 시작할것. 조선인민군 중장 심철범.》

서면명령은 심철범의 자필로 되여 있었다.

《그건》 하고 심철범은 전호진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 명령을 내가 떨구었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만일에 내가 이 공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무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공사를 내밀어야 하오. 이상이요！》

이때 전호진의 손에서 명령서를 가져다 들여다 보고 있던 리완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심철범이 자기의 차를 불러 달라던 사실과 이 뜻밖의 서면명령이 어떤 련관이 있다고 짐작했다. 장령이 혹시 법앞에 나설 결심이 아닌가！

그는 묻는듯 한 시선을 심철범에게 던졌다.

《정치위원동무.》 하고 심철범은 그의 속마음을 짐작하면서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직접 건설심의국에 가겠습니다. 그들이 정 문제를 세우겠다고 하면 나는 법앞에 나설 결심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걱정하지 마시오.》

한동안이 지나서 심철범이 역시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군부대 참모장으로서 공병작업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 며칠간 내가 관계한 군사시설물들을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쎈 놈은 시간이 가도 쎄고 처음부터 부실한 놈은 시간이 가도 부실했습니다. 과학은 아니지만 이건 경험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명령서에 나도 수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리완수는 무언가 밑에 받칠것을 찾다가 종이장을 무릎우에 그냥 놓고 원주필끝으로 몇번인가 구멍을 뚫어 가면서 거기에 수표하였다. 그리고는 전호진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도 수표하라는 뜻으로 종이장과 연필을 함께 넘겨 주었다.

리완수는 평양으로 올라 가는 심철범과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관리국에서 내렸다.

그는 총정치국대표 차인중의 방 문지방을 넘어 서기가 바쁘게 인사하는것도 잊고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방금 심철범중장동지가 석비레모래문제때문에 평양으로 올라 갔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석비레모래를 쓰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총정치국에서는 그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았습니까?》

인상이 칼칼해 보이는 총정치국대표인 50대의 장령은 리완수의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잠을 못 자서 새빨갛게 충혈된 그의 눈을 한참 들여다 보다가 보온병에서 더운물 한고뿌를 따라 권했다.

《들라구.》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리완수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앉으라는데.》 여전히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장령은 자리를 권했다.

두사람은 책상에 마주 앉았다. 물고뿌는 그들 두사람사이 중간에 놓여 있었다. 김이 문문 피여 오르는 물고뿌에 흥미라도 있는듯 장령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 보다가 비로소 대답했다.

《받았소. 동무에게 알려 주려고 전화를 거니 받지 않더군.》

《예, 중장동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리완수는 심철범이가 법앞에 나서게 된 책임이 마치 이 장령에게 있기라도 한듯이 항변하는듯 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석비레모래문제를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건설위원회의 처사에 의견을 토로하는 리완수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난 장령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치일군은 법적문제에 개입하지 않는게 좋아.》
《법적문제에 개입한다구요?》
리완수는 항변하였다.
《나는 법적문제에 개입하는것이 아니라 공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0026호명령은 법보다 더 중요한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중장의 명령서에 같이 수표를 했습니다.》
(뭐라구?!)
장령은 내심으로 놀랐으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정치대학 동창생이고 한때 전투구분대에서 조직부지도원으로 함께 일해온 리완수를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애 쓰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그러다 법적책임이 돌아 오면 어떻게 하겠소?》
《법앞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리완수는 공식적으로 딱딱하게 대답했다.
《흥분하지 말라구.》
장령은 책상 한가운데 놓여 있는 물고뿌를 들어 주었다. 리완수는 사양하지 않고 받아서 단숨에 들이켰다.
《좋소!》 하고 장령이 확인하듯 그에게 물었다. 《그를 끝까지 보증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리완수가 힘을 주어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저는 중장동지에 대하여 총정치국에 정확히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최고사령관동지께 직접 말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
장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반문했다.
《예!》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윽하여 장령이 침묵을 깨뜨렸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군대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국가법규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 본데 의하면

그 법규는 과학기술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적문제를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려 결론을 바란다면 그이께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령의 얼굴에도 괴로움이 비꼈다.

리완수는 말문이 막힌듯 입을 다물었다.

《물론 심철범장령의 문제를 총정치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정치위원동무의 의견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리는 문제는 동무의 결심에 맡깁니다. 그건 의무이고 권리니까. …》

리완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 와 쏘파에 몸을 던지였다. 몹시 흥분했던탓인지 까딱할 맥도 없었다. 오래동안 비워 둔 방은 남의 방처럼 느껴 졌다. 책상우에 뽀얗게 먼지가 올라 있었다. 책상우에 펼쳐 놓아 둔 소설책에도 먼지가 덮여 있었다.

리완수는 책읽기를 무척 즐기였다. 그는 본래 책을 읽지 않고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였다.

전후 무산산골에서 소학교시절을 보내면서부터 생긴 습관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군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지식가였다.

이런 그가 손에 책을 들어 본적이 오래되였으니 얼마나 바삐 돌아쳤으랴.

그는 지금 쏘파에 앉아 잠자듯 눈을 감고 있었다. 뒤죽박죽된 자기 일과와 혼란된 머리를 정돈하려는것처럼.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그이께선들 어찌하겠는가고 한 총정치국대표인 차인중의 말은 리완수를 적지 않게 진정시켜 주었다.

군인들은 사회주의건설에 명령 하나를 가지고 참가했다. 그들의 기준은 오직 명령이였다. 그것이 과학기술적인 문제든, 경제실무적인 문제든 그들은 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 바로 명령 하나밖에 모르는 군인들이기때문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려야 하는 문제에서 그들은 심중하였다. 그이의 결론, 말하자면 명령은 이미 떨어져 있는것이기때문이였다. 석비레문제를 이미 보고 받은 총정치국이나 총참모부의 장령들이 그것을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 못 드리고 있는것은 그들 역시 명령 하나밖에 모르는 군인들인 까닭이

였다.
리완수가 만난 총정치국대표도 그러한 장령들중의 한사람이였다.
하지만 리완수의 심정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피로움에 모대기면서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있었다.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치적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의 중요대상건설을 맡은 최고지휘관이 더 일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처음엔 1번전화가 다음은 2번, 3번전화가 분주히 경쟁이라도 하듯이 울리고 있었다. 리완수는 멍해서 듣고만 있다가 다급히 송수화기를 잡았다.
콩콩 뛰는 교환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치위원동지, 중장동지가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이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찾으십니다.》
《평양으로, 석비레모래문제때문에…》 하다가 리완수는 그 전화를 자기가 받아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화를 나한테 련결하시오!》 그리고는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송수화기를 정중히 들었다.
《정치위원동무요?》
김정일동지께서 먼저 물으시였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위원 대좌 리완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나는 건강하오. 동무들은?》
《예, 모두 건강합니다.》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하오. 특히 인명피해를 말이요. 나는 동무들이 제기한 직선돌파를 지지했지만 인명피해를 낼가봐 걱정스럽소.》
《최고사령관동지, 마음을 놓으십시오.》
《고맙소! 심철범동무는 어데 있소?》
리완수는 주저하였다. 심철범이 평양으로 올라 간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불가피하게 석비레모래가 상정될것이며 그것은 곧

그이앞에 딱한 문제를 제기하는것으로 될것이였다.
《평양으로…》
그는 떠듬거렸다.
《평양으로 올라 갔습니다.》
《평양으로?》
반문하신 그이께서는 거센 음성으로 재차 물으시였다.
《무슨 일로? 정치위원동무, 무슨 일로 바쁜 현장을 떠났는가 말입니다.》
리완수는 입이 얼어 붙어 버렸다. 망설이는 사이에 그의 말을 더 기다리지 않고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노기 띤 목소리였다.
《알겠소. 정치위원동무, 알았단 말이요!》
석비레모래문제가 검찰일군들속에서까지 론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였던것이다.

23

집무탁 왼쪽 벽밑의 의자에 리웅걸이가 송구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다.
금방 전선시찰에서 돌아 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채양 있는 밤색털모자를 그냥 쓰고 계시였다.
지금 그 모자를 벗지 않으신것은 리웅걸과 이야기를 끝내고 또다시 전선으로 떠나시기 위해서였다. 리웅걸은 집무실로 오면서 복도창문으로 주차장에 장령들의 승용차가 여러대 발동을 끄지 않은채 서 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이처럼 군령도에 분초가 바쁘신 그이께 심려를 드렸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옥죄여 드는것을 느끼였다.
《리웅걸동무.》 하고 그이께서 말씀을 하시였다.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제기된 석비레모래문제에 법일군들

까지 개입했다고 합니다.》

《저도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실무적으로 처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웅걸은 공연히 사업수첩을 펼쳤다 덮었다 하며 말씀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 손을 저으시였다.

《법규를 어긴것만큼 응당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자는것은 어떻게 하면 군인들을 보호해 주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리웅걸이 일어 났다가 앉으며 말씀 올렸다.

《알아 보고 심철범동무를 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을 의자등받이에 제치며 말씀하시였다.

《그 동문 이미 내가 데려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볼가 하다가 먼저 쉬우기로 했습니다. 동무도 한번 그 동무의 몰골을 보시오. 한다 하는 장령이 병사용군화를 신고 옷은 온통 돌가루매닥질입니다. 그는 지금 휴계실에 있습니다.》

리웅걸은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한동안 그는 사업수첩만 만지고 있었다.

김정일동지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우리 군인들은 사생결단으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 있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수 없습니다. 갱내 전등알 하나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전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눈물이 나는 일이였다.

석수로 해서 갱내에서는 전등알이 자주 끊어 지군 했다. 어떤 때에는 여러개의 전등알이 동시에 끊어 져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부득불 전등알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가 와야 했다. 시간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전사들은 필사적으로 뛰게 된다. 그들은 전등알을 깨지 않기 위해 안전모에 담아 품에 끼면서도 자기들의 머리는 생각하지 않았다. 빨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칠흑같이 캄캄한 갱안을 마구 내달리였다. 그러다가 바위에 머리를 찧고 빈사상태에 빠지거나 희생되는 경우

도 있었다. 전등알 하나때문에!

그이께서는 《눈물꽃》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계시였다.

군인들은 전우가 희생되면 그의 묘소에 소담한 들꽃을 꺾어다 놓군 했다.

그런데 전우의 묘소를 찾아 가는 그 시간이 교대를 바꾸는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과 일치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면 들꽃잎사귀우에 아침이슬, 저녁이슬이 함초롬히 맺히군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이슬이 희생된 전우를 생각하며 흘리는 꽃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우의 묘소에 놓는 그 꽃들을 《눈물꽃》이라고 했다.

공사도중에 희생된 어느 병사의 자작시는 그이의 심금을 얼마나 세차게 흔들었던가!

손, 누구에게나 손이 있어라
어릴적의 그 고사리손이

나는 그 손으로 뜰앞의
봉선화를 매만졌고
울바자에 앉은 잠자리도 잡았더라
그 손으로 들꽃우에 팔랑이는
범나비도 잡았고
내 고향 작은 시내가에 종이배도 띄웠거니
그럴 때면 어느새 어머니 달려 와
내 작은 손우에 볼을 대며
요 손이 언제면 솥뚜껑만 해지겠니

허나 오늘 내 그 손에 총대를 잡았구나
그 손으로 정대를 틀어 쥐고
그 손으로 착암기를 안았구나
오, 내 그 손으로 무거운 광차를 밀며
무너앉은 천연암반 떠받치군 하여라

하여 거쿨지고 마디가 굵어 진 손
터지고 피가 나도 아픔을 모르는
아, 정녕 모질고 모질어 진 손
나의 억센 손이여!

내 이제 그 손으로 다 끌어 내리라
대형물길굴의 천만버럭을
그 손으로 나는 높이 받들리
우리 수령님의 유훈
우리 장군님의 명령을
…

김정일동지의 음성은 갈리였다.

방안에는 한동안 격정의 소용돌이가 이는것 같았다.

《리웅걸동무.》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기본문제를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심철범동무를 데려 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이의 이 질문은 리웅걸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신것이였다. 그 질문에 답변하듯 **김정일**동지께서 다시 말씀하시였다.

《공사부대 정치위원이 말하기를 석비레모래를 쓸데 대한 명령서를 만들었다는것입니다. 그 명령서에는 심철범장령만이 아니라 정치위원과 참모장도 수표했다고 합니다.

법이 이것을 문제시할것이 아니라 담보해 줄수는 없겠습니까?》

《담보말입니까?》

리웅걸이가 반문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건재부문의 박사선생 한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선생을 함께 만나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곽무선이를 부르시였다. 곽무선이 문가에 나타나자 박사를 들여 보내라고 이르신 다음 한마디 덧붙이시였다.

《장령들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오.》

그이께서는 모자를 집무탁우에 벗어 놓고 일어 서시였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안됐습니다.》

그이께서는 문가에 들어 서는 박사의 손을 잡으시였다.

《오히려 황송합니다. 귀체건강하십니까? 장군님!》

《보다싶이 나는 건강합니다.》

그이께서는 박사를 안내하여 리웅걸이가 앉아 있는 장의자에 앉히고 그옆에 나란히 앉으시였다.

박사는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리웅걸에게 눈인사를 하였다. 리웅걸이도 고개를 숙여 그와 맞인사를 하였다.

《명망은 많이 들었습니다, 성기형선생.》

김정일동지께서 성기형에게 담배를 권하시였다.

《무정목이 남산을 지킨다고 명망이 높았던 선배들은 다 가고 쭉정이가 남았습니다.》

《허허, 별말씀을…》

인사가 끝나자 그이께서는 서두르는듯 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지난 밤 나는 백과사전과 기술종합사전 그리고 건설대사전을 뒤져 보았습니다. 선생은 그 책의 저자의 한분이시지요?》

《초학도로 참가했댔습니다. 금방 류학에서 돌아 왔댔으니까요.》

《그 책의 저자들이 대체로 유럽에서 류학한 선생들이라는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성냥을 그어 성기형이 손에 들고 있는 담배가치에 불을 붙여 주고 계속하시였다.

《나는 학창시절부터 학문을 비판적으로 대하는데 습관되였습니다. 사대와 교조가 다른 부문보다 그 부문에 우심했으니까요. 지금 다른 부문에서는 그것이 거의 없어 졌으나 과학부문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 그럼 피우겠습니다.》

성기형은 담배를 한모금 빨고 나서 스스럼없이 말씀 올렸다.

《저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짐작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유럽의 학문만을 기성리론으로 절대화했거든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다면 그것을 탓할건 없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웃으시였다.

《그럴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지식이 밭다나니 그 리론을 표절하는데 급급했으니까요.》

박사는 담배를 연거퍼 몇모금 빨았다.

《그렇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유럽에는 다뉴브강, 볼가강 등이 있습니다. 그 강들은 모두 장강들입니다. 강바닥에 모래가 무진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서의 수력건설은 모두 그 강류역들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그들의 학문은 바로 그 현실에 기초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리해가 됩니다.》

성기형은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 끄고 말씀 올렸다.

《대용모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요. 석비레모래말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나라 과학자들이 자기의 현실로부터 출발했더라면 벌써 석비레에 시선을 돌렸을것입니다. 우리 나라 강들은 작기때문에 모래원천이 얼마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석비레모래에 대한 박사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때늦은감이 있지만 제 좀 생각했습니다.》

성기형은 서류가방에서 타자친 종이묶음을 꺼내더니 일어 서서 그이께 올리였다.

《바로 이겁니다.》

그이께서는 종이철을 받아 펼치시였다.

《음— 어떻게 되여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였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종이철에 눈길을 주신채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이 자연의 순환을 초월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석비레모래에는》 하고 박사가 말하기 시작했다.

《운모함량이 3.5프로나 지어 7～8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저술에는 수력건설에서 쓰이는 모래에서 운모함량이 0.5프로를 초과할수 없다고 되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생긴것입니다. 그러면 석비레모래를 수력건설에 쓸수 없겠는가. 그것이 학문적으로 허용될수 없겠는가? 죄송합니다, 장군님.》

박사는 말을 끊고 장군님앞에 머리를 숙이였다가 계속하였다.

《저는 얼마전 군인들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절규를 받았다고 해야 정확할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자책속에 비로소 석비레모래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발견을 하였고 시험수치로 그것을 증명할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모래에는 없고 석비레모래에만 있는 알루미나의 조화에 의한것입니다. 즉 석비레모래를 쓰는 경우 용식성을 가진 석영과 알루미나가 세멘트의 석회분과 물의 작용으로 화학반응을 하면 결상태 말하자면 반죽상태에서 결정체로 이행하기때문에 기일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비레모래가 가지고 있는 운모분의 약점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게 됩니다.》

《선생의 그 발견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반문하시였다. 박사는 인차 자기 말을 부정하듯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 올렸다.

《저의 말이 아니라 군인들의 발견이고 주장입니다. 그들을 믿어도 됩니다. 심철범장령이 저의 연구소로 몇번이나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의 다년간의 군사건설경험을, 아니 그의 진심을, 그의 창조정신에 전 놀랐습니다. 이거야말로 자력갱생입니다! 건축재료분야에서 하나의 혁명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사의 손을 덥석 쥐고 세차게 흔드시였다.

《고맙습니다, 박사선생!》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시여 방안의 빈 공간을 몇걸음 거니시였다. 이끌리듯 박사가 따라 일어 섰다. 마지막으로 일어 선 리응결이 굽은 어깨를 꿋꿋이 펴고 감동에 젖은 어조로 말씀 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국가의 건설법규를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지금껏 그 말을 기다리고 계신것처럼 인차 응답하시였다.

《역시 혁명이란 창조와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명하는 맛이 있구요. 하하하!》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통쾌하게 웃으시였다. 그 웃음이 섬광처럼 방안에 눈 부신 빛을 가득 채워 놓는것 같았다.

(저 웃음은?)

이 순간 로박사는 생각하였다. 그도 오늘의 국난앞에서 그이의 얼굴만 바라보고 사는 이 나라의 일원, 인민의 한사람이였다. 저 웃음은 이 나라에서 국난을 가셔 내고 머지 않아 평온을, 행복을, 강성대국을 가져 오리라는 약속이 아니겠는가?

《박사선생.》 하고 그이께서 손을 잡으시자 성기형은 생각에서 깨여 나 그이를 타는듯 한 시선으로 우러렀다.

《나는 금강산발전소 조기완공을 명령할 때 군인들을 믿었습니다. 보다싶이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장군님. 혹시 제가 지나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창조력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이고 사고도 학문적으로 합니다. 순 학문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들은 중학교졸업정도입니다. 그런데 총을 든 군인들이 펜을 든 사람들도 미처 생각 못하는 과학적인 착상과 발견을 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인들이 못해 내는 일이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

《놀라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불가항력의 힘은 당과의 혼연일체 그리고 위대한 사상입니다. 바로 이 힘이 어데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이 힘으로 국가보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우리의 적들은 핵과 미싸일, 사회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악과 증오밖에 없단 말입니다. 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오늘의 어려운 〈고난의 행군〉에서 군인들로 하여금 돌파구를 열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박사선생도 이 모든것을 우리보다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선생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기형은 자기가 앉았던 의자우에 놓여 있는 서류가방을 집어

들고 인사를 드리려고 그이앞에 나섰다.

어느새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우의 밤색털모자를 손에 들고 계시였다. 성기형은 그 밤색털모자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텔레비죤이나 기록영화화면들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 털모자를 쓰신 장군님의 모습을 눈앞에 대하게 된 그는 한순간 자신을 잊은듯 했다.

《고구려의 강성은》

그는 격동되여 말씀 올렸다.

《군사의 힘에 있었습니다. 장군님에 의해 이 나라에 강군이 있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있습니다. 강성할 사회주의조국의 래일이 있습니다. 부디 귀체건강하십시오.》

성기형은 허리를 깊숙이 구부렸다. 그리고 뒤걸음으로 몇걸음 걸어 가다가 자기 등뒤에 문이 있다는것을 느끼자 또한번 허리를 구부렸다.

《안녕히 가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성기형을 바래워 주고 나서 등뒤에 서 있는 리웅걸에게 말씀하시였다.

《이젠 심철범동무를 깨울 때가 된것 같습니다. 휴계실에 가서 그를 데려 오시오.》

《예… 그런데… 한가지 보고 드릴것이 있습니다.》

하고 리웅걸이 한걸음 나서며 그이께 말씀 올렸다.

《말하시오.》

《앞으로 국가수반추대사업을 할 때…》

《또 그 문제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막고 나서 《그래 그 추대사업이 늦어 져서 일이 안되는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그런게 아닙니다.》

리웅걸은 다급히 말을 이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지금의 헌법을 일부 수정하여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높이자는 안이 류송직의장으로부터 제기되였습니다.》

《그건 좋은 의견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차 긍정하시였다.

《헌법을 수정하는것도 그렇고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높이자는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문제는 헌법을 어떻게 수정하고 국방위원회 권능을 어떻게 높이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장은 어떤 의견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고 법제정위원회를 뭇고 연구하도록 승인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해 왔을뿐입니다.》

《승인해 줍시다.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나는 방금 박사선생과 이야기하면서 그도 우리의 군중시정책을 리해하고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리해하고 있을뿐아니라 열렬히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군중시정책에 더욱 열렬히 공감하며 심장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얼마전에 이전 쏘련 국방상을 하던 사람과 담화를 하면서도 이것을 느끼였습니다. 외국사람들도 우리를 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치방식을 정립할 때가 되였다는것을 말해 줍니다. 법제정위원회에서는 응당 인민의 감정,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아 법을 수정보충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류송직의장동무에게 말해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웅걸이 이제는 심철범을 데려 오라는 분부를 지키려고 곁문으로 걸어 나갔다.

휴계실문에 시선을 주고 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웅걸이 인차 돌아 오지 않자 일어 서서 천천히 휴계실로 향하시였다. 휴계실에 들어 서신 그이께서는 리웅걸의 쩔쩔 매는 소리를 들으시였다.

《심철범동무… 이 사람이 무사태평이라니… 여기가 어디라구! 깨나시오. 심철범이…》

그러거나말거나 심철범은 량쪽 팔걸이에 두손을 척 늘어 뜨리고 고개를 외로 튼채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있었다.

그 모양을 한참 지켜 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리웅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킨 다음 그를 데리고 조심조

심 집무실로 돌아 나오시였다.

리응걸이 민망하여 중얼거렸다.

《참 사람두…》

《놔두시오.》

김정일동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갈리시였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렇게 마음 놓고 자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창가로 걸어 가시여 뒤짐을 지고 서계시였다. 잠시후 되돌아 서더니 천천히 리응걸의 앞으로 다가오시였다. 그리고 속삭이듯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가 여기 지켜 있다가 그가 깬 다음 그의 명령서에 최고사령관이 동의했다고 알려 주시오. 그리고 남방과일이 들어 온 것이 있는데 그걸 싣고 내려 가 군인들에게 맛 보이라고 하시오. 그러되 심철범동무는 응걸동무가 책임지고 여기서 먹여 내려 보내시오.》

《예…》

리응걸은 목이 메인듯 외마디대답을 올렸다.

그는 그이께서 손에 들고 있던 밤색털모자를 머리에 쓰고 집무실을 나서려고 하실 때에야 놀란듯 다급히 그이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간절한 어조로 말씀 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 없소. 동해상에 미항공모함이 북상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을 막아 선 리응걸을 가볍게 옆으로 미시며 출입문쪽으로 향하시였다.

24

사람이 며칠 굶으면 기면상태 즉 정신없이 잠만 자는 상태에 이른다. 의식이 가물거리고 몸을 전혀 움직일수 없게 되는 순간이 얼

마간 지나면 호흡이 멎게 된다.

김동환대좌는 지금 기면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경비함 《101》호가 풍랑속에 표류하다가 간신히 륙지에 상륙한지도 10여일이 지났다.

그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상륙한 지점이 적구인줄을 몰랐다.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투항을 요구하는 적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그들은 해변가동굴속에 은신하면서 북상할 기회를 기다리였다.

그러나 며칠간 굶고 물 한방울 마실수 없었던 그들은 하나,둘 기면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김동환은 어떻게 하나 조국의 품으로 돌아 가야 한다고 해병들을 고무하다가 제일 나중에 쓰러졌다. 그는 기면상태에서도 한가지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륙지의 훈련지휘부에 보낸 최후의 정황보고였다. 그는 그 보고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무선수에게 주어 훈련지휘부에 송신하도록 하였다.

그 무선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풍랑이 심함,파도높이는 3메터,훈련과제와 전투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겠음. 우리를 믿으라.》

김동환은 전대미문의 풍랑속에서도 경비함 《101》호가 받은 훈련과제를 수행할 결심이였다. 경비함 전체 해병들의 사상의지력을 믿었다.

그는 이번 훈련의 목적과 의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작전일군이였다. 적의 군사적도발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으로 벌리게 된 훈련에 앞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군정간부회의에 참가하였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군정간부회의에서 우리의 유엔인권협약에서의 탈퇴선언과 관련한 적들의 군사적압력에 대응한 이번 훈련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군부대들도 참가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였다. 다시말하여 그들없이도 적의 군사적도발에 대처할수 있는가,없는가 하는 문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일치하게 전투구분대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 드리였다.

김동환도 같은 립장이였다. 그는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경제건

설에 참가하고 있는 의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들 남철이도 사회주의건설장에 있었다. 그는 훈련의 나날 남철이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며 그의 몫까지 수행한다는 립장에서 훈련강도도 높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자기의 보고를 최고사령관동지의 남다른 은총을 입은 그들 부자의 보답으로 여기며 크나큰 기쁨을 느꼈던것이다.

인민군군인들이 최대의 의지력을 발휘하여 진행한 이번 동해전구에서의 각 군종,병종들의 대련합훈련은 금강산발전소건설이나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청류다리와 금릉2동굴건설 등 큰 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도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태평양함대의 중요전단들과 남조선해병대의 동해전단들을 모조리 동원한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력을 여지없이 짓부셔 버렸던것이다. 그뿐이 아니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거듭되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찰과 함께 이 훈련은 클린톤행정부로 하여금 로골적인 강경압살을 주장하는 호전세력의 저항을 뿌리치고 유엔인권기구의 결의와는 관계없이 국제식량기구와 자기네 정부 및 민간단체들을 통한 우리에 대한 긴급식량지원을 운운하게 만들었다.

클린톤은 그러한 실천적조치로 자기의 특사를 파견하려는 의향을 공식경로를 통하여 제기해 왔다.

그런데 일은 김동환이가 신심에 넘쳐 최종보고를 보낸 직후에 벌어 졌다.

경비함 《101》호는 해상분계선 가까이에 있었다. 해병들의 전투기술수준을 최대로 높일데 대한 훈련과제와 함께 그들은 자기들의 기본전투임무인 해상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관은 꺼지지 않았는데 함은 전진을 멈춘채 제 자리에서 끼우뚱거리기만 하였다. 나중에는 기관마저 과열되면서 꺼져 버렸다.

알고 보니 추진기에 《고기그물》이 칭칭 엉켜 있었다. 이것은 치명적인 사태였다.

해군사령부 대표로서 함에 파견되여 있던 김동환은 함장을 찾았다.

《함장！》

《여기 있습니다, 대좌동지.》

키가 큰 중좌인 함장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잠수병을 준비시키시오.》

《알았습니다.》

얼마후 잠수병이 물밑으로 들어 가 알아 낸데 의하면 추진기에 엉켜 있는 《고기그물》은 남조선제였다.

그 어떤 어종을 잡는데도 쓸모 없는 고기그물형태만을 갖춘 특수재질로 된것이였다.

김동환은 잠시 지휘성원들과 함께 사태를 분석한 결과 이것은 우리의 훈련을 파탄시키기 위한 적들의 음모라는 판단을 내렸다.

적들은 우리 측 지역에 숨어 들어 이따위 놀음을 벌려 놓았던 것이다.

곧 추진기에 감긴 그물을 풀어 던지기 위한 전투에 달라 붙었다. 그러나 수중에서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물은 특수강으로 된것인데 칼로나 집게로는 도무지 잘라 낼수 없었고 게다가 추진기뿐아니라 크지 않은 경비함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김동환은 구조신호를 보내라고 함장에게 명령하였다. 순간 워낙 사납던 바다에 해일이 일기 시작하였다.

북풍이 불고 있었다.

무서운것은 그것이였다. 함은 북풍을 타고 남쪽으로 떠내려 갈것이였다. 불행하게도 해류까지 그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해상분계선은 바로 몇마일지점에 있었다.

김동환은 비상대책을 취했다.

함에 가지고 있던 풍막을 다 들춰 내여 《돛》을 기웠다. 그리고 마스트에 달았다. 다문 한치라도 배를 우리 측 지역으로 움직여 가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칠칠야밤인데다 사나운 풍랑은 그들의 온갖 시도를 허사로 만들어 버렸다.

이때 여러척의 적의 잠수함이 《101》호를 포위하고 《투항》 신호를 보내왔다. 《101》호는 적의 도발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우리 측 지역(그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에서 물러 갈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적은 사격으로 대답하였다.

《101》호는 대응사격을 가하였다.

접전은 번개불처럼 짧고 강하게 진행되였다. 《101》호는 순식간에 가지고 있던 기관포탄과 자동보총의 탄알을 다 날려 보냈다. 그 다음 중요기관들을 파괴해 버리고 김동환의 명령에 따라 해병들은 풍랑속에 뛰여 들었다. …

혼미한 의식속에서 김동환의 뇌리에 떠오른 또 하나의 생각은 자기들이 헤염을 쳐 상륙한 지점이 적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왜 인차 자폭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간신히 자기 손을 가슴에 얹고 꾹 눌렀다.

지금 그의 해병복밑 가슴우에는 비닐박막으로 싸고 또 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는 적함과 조우한 첫 순간에 선실에 있던 그 초상화들을 내리워 자신이 직접 가슴우에 모시였던것이다. 김동환은 자기의 생명이며 조선의 운명이신 가장 존귀하신분,그분들을 위해서라면 붉은 연기로 피여 오르고 붉은 재로 남으리라 맹세 다진 조선인민군의 대좌였다.

그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분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야 했다. 하여 기면상태에서도 그 생각만 하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 서려고 안깐힘을 쓰고 있었다. 잠시후 그는 만신의 힘을 모아 기여 가기 시작했다.…

세상은 김동환과 그의 대원들의 최후의 투쟁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들중 아무도 살아 돌아 온 사람이 없었기때문이였다.

경비함 《101》호의 구조신호를 받은후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동해훈련지휘부와 최고사령부조차도 적측의 통신보도를 통해서만 단편적인 사실을 알수 있었을뿐이다.

그중 《미국의 소리방송》이 서울특파원과 주고 받은 문답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먼저 입수한 소식을 부탁한다.》

답;《한국 국방부는 동해안지역에서 북한의 경비함이 좌초되여 있는것을 발견하였으며 경비함에 타고 있던 북한군인들은

룩지에 상륙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 계엄령을 내리고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문;《북조선군인들이 처음 알려 진것은 언제였는가?》

답;《시간별로 보면 3시 40분경 북한군인들의것으로 추상되는 발자국이 발견되였다. 그리고 오전 7시 25분경부터 북한 경비함에 대한 내부수색이 시작되였고 오후 4시 30분경 산속에서 북한군인들을 완전포위하고 3명을 사살하였다.》

문;《경비함수색에서 나타난것은 무엇인가?》

답;《북조선군인들이 탈출직전에 자기들의 최고사령관에게 올린 맹세문이 발견된것이 특이하다.》

문;《어떤 내용이였는가?》

답;《맹세문에는 〈우리들은 장군님의 명령을 피 끓는 가슴에 새기고…〉, 〈승리의 보고〉, 〈통일 그날…〉, 〈장군님께서 편히 쉬시는 날이 올것입니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비록 물에 젖고 찢기여 단어와 문구가 잘 맞지 않지만 이 일단을 통해 한번 받은 명령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사명감,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절절히 풍겨 나오고 있다. 이 편지를 보고 전률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다.》

문;《북한군인 10여명이 자결한것으로 추측된다던데?》

답;《그렇다. 이들의 시신이 당일 오후 5시경 산속에서 발견되였다.》

문;《한국정부의 반응은?》

답;《당일 오후 긴급 통일안보정책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토의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처음부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불법침입》으로 몰아 붙이는 속에서도 통신보도들은 진실을 외면할수 없었다. 그 진실이란 경비함 《101》호가 적측지역을 불법침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군인들의 놀라운 정신세계였다.

김동환이와 그의 대원들은 적함에 마지막탄환을 날리며 최후의 결사전을 벌리던 그때에 최고사령관동지께 편지를 썼다. 추측컨

대 우리의 군인들은 그 편지를 쓰고 륙지에 올랐을것이며 승냥이무리처럼 달려 드는 수십만 적병들의 포위에 들었으리라.

25

김남철은 한식경이 지나서 정신을 차렸다.

처음에 그에게는 갑자기 어덴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는 굉음을 들으며 광차밑으로 기여 들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지금도 무엇인지 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리고 쏟아 져 내리고 하였다.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였다. 그것이 마치 무슨 신호이기라도 한듯이 사방에서 굉음이 다시 일어 났다.

남철은 광차밑에 짓눌려 있었다. 눈에는 돌가루가 들어 가서 뜰수 없었다. 입과 코안에도 돌가루로 가득 찼다. 입을 우무적거리니 돌가루가 으득으득 씹혔다.

남철은 자기는 죽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 다음순간 동지들이 걱정되였다.

한참 걸려 코구멍과 입안의 돌가루를 뱉아 낸 남철은 첫 굉음이 울리던 때 자기앞에서 또 하나의 광차를 밀던 소대장 김학철과 분대장 리광호가 생각나서 소리쳤다.

《소대장동지—》

대답이 없었다. 금방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조용했다.

《소대장동지— 분대장동지—》

《남철이！》

귀 익은 소리가 응답하였다. 그것은 희생된 문학수의 뒤를 이어 분대장이 된 리광호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공간이 아니라 전화기의 수화기에서 들리는것처럼 귀 가까이에서 들리였다.

《분대장동지！》

남철은 반가움에 겨워 덤비면서 마주 소리쳤다. 이번엔 응답

이 없었다. 남철은 땅바닥에 대고 있던 얼굴로 더듬어서 무엇인가를 찾아 보았다. 선뜩하는 물체가 느껴 졌다. 광차의 레루였다. 그는 거기에 입을 대고 다시 소리쳤다.

《분대장동지!》

《아, 남철동무요?》

레루를 울리며 리광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 왔다. 공간이 밀페된 조건에서 레루가 통신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였다.

《소대장동지는요?》

남철이도 다급히 마주 소리쳤다.

《여기 있소!》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남철은 기침을 깇기 시작하였다. 그는 숨이 차서 헉헉 느끼였다.

《앞뒤가 다 막힌것 같소. 레루에 코를 대고 있으라구!》

리광호의 목소리였다.

《알았… 습니다.》

남철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을 느끼며 레루에 코를 바싹 대였다. 가슴이 쑥 열리는것 같았다. 그는 비로소 분대장이 어떻게 하고 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자기처럼 광차밑에 들어 가 있을가? 아니면 바위에 깔려 있을가?

《분대장동지!》

그는 갑자기 겁질린 소리를 지르며 가슴에 깔려 있는 팔을 뽑아 머리우쪽으로 내뻗쳤다. 그의 손은 아무 저항을 받음이 없이 쑥 뻗어 나갔다. 빈 공간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이번엔 배밀이로 앞으로 전진했다. 한치쯤 움직였다고 생각될 때 바위부스레기가 담벽처럼 막혀 있다는것이 손에 느껴 졌다.

(그러니) 하고 남철은 생각했다. (버럭이 광차뒤와 좌우공간에 꽉 차 있구나!)

《분대장동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철은 여전히 겁질린 소리로 다시 웨쳤다.

《떠들지 말라구. 그러면 공기소모량이 많아 진단 말이요. 우린 공기를 아껴야 하오. 남철동무, 내 걱정은 마오. 난 일 없소. 내

이제 동무한테로 가겠소. 그런데 이놈의 팔이 말을 안 듣거던.…》

분대장도 무엇에 깔려 있겠는데 오긴 어떻게 온단 말인가? 남철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자신은 분대장에게로 다가가려고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움직여 지지 않았다. 손앞에는 여전히 바위부스레기담벽이 막혀 있고 뒤에서 다리를 무엇인가 잡아 당기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일가 생각하던 남철은 자기 발이 광차의 받침대밖에 놓여 있고 철로 된 받침대가 발을 꽉 잡고 있다는것을 알아 차렸다. 그리고 앞쪽의 광차받침대가 자기의 머리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것도 알았다. 생각해 보면 자기가 붕락이 있던 순간에 광차밑의 좁은 짬으로 어떻게 몸을 피했는지 모를 일이였다.

《조금만 기다리라구.》

리광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우린 지금 아주 가까이에 있소. 붕락때 폭풍이 광차를 밀어 놓았단 말이요.》

《분대장동지도 광차밑에 있습니까?》

남철이가 반가움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소.》

《소대장동지도 함께 있습니까?》

남철이가 다시 물었다.

《아니, 나는 지금 그의 손을 쥐고 있을뿐이요. 붕락때 그는 광차밑으로 들어 오지 못하였소. 그러나 일 없소. 가동발목이 그를 구원해 주었소. 지금 소대장동지는 잠이 들었소. 그의 손이 따스하오. 그는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소. 내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여 나서 그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위짬을 뚫고 그의 손이 들어왔소. 그리고는 동무를 찾아 보라고 명령했소.》

리광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 졌다.

김남철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 긴장하게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와 웅얼웅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철은 분대장이 소대장과 말을 하고 있다는것을 느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수 없었다.

《남철이.》 하고 한참후에 리광호의 목소리가 똑똑히 다시 이

어졌다. 《소대장동지가 잠에서 깨여 났소. 그는 동무를 찾았다는 나의 보고를 듣고는 빨리 만나보라구 다시 명령했소. 조금만 기다리오.》

남철은 턱으로 얼굴을 고이고 시선을 쳐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앞이 캄캄하고 눈뿌리가 아파 났다. 그는 자기가 참말 눈을 뜬것이 분명한가 싶어 손을 끌어 당겨다가 눈을 만져 보았다. 눈은 틀림없이 띄여 져 있었다. 그러자 학교때 지나친 빛도 눈에 나쁘지만 지나친 어둠도 눈을 자극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되살아 났다.

분대장쪽은 잠잠했다. 그러자 남철은 눈이 감기는것을 느끼며 두어번 하품을 하였다. 그는 어쩔수없이 얼굴을 떨구고 코를 레루우에 박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리광호의 목소리에 깨여 났다.

《남철동무—》

《예, 여기 있습니다.》

남철이가 잠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하오.》

분대장의 목소리가 계속되였다.

《내 잠이 들었댔소.》

《저도 깜박 졸았댔습니다.》

남철이가 말했다.

《그렇소? 그렇단 말이지… 그러나 깜박이 아니라 우린 한주야를 잤소. 스물네시간!》

《예?!》

《소대장동지의 야광시계는 정확하오.》

분대장이 말했다.

《우린 지금 질식상태에 있단 말이요. 산소부족이요. 눈을 감으면 잔단 말이요. 우린 지금 3주야째요. 영영 잠들어 버릴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 더 자지 말라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철은 연거퍼 하품을 하였다.

《조금만 기다리라구.》 하는 리광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왔다.

《내 이제야 몸을 돌렸소!》

첫 붕락이 있었을 때 리광호의 몸은 광차밑에 모로 박혀 있었다. 그의 머리가 마침 레루우에 놓여 있었고 오른쪽팔이 레루와 평행으로 광차의 앞쪽으로 향해 있었다. 광차우에 동발목이 덧놓이면서 요행 그밑에서 목숨을 건진 소대장 김학철이 간난신고끝에 그의 오른손을 찾아 쥐고 남철이를 찾아 보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남철이쪽으로 몸을 돌릴수가 없었기때문이였다. 몸이 모로 놓인데다가 그의 두다리가 광차밖의 바위부스레기에 깔려 있었다. 다리를 뽑지 않고는 몸을 돌릴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리근육에 기압을 넣듯이 힘을 주는 방법으로 짓누르는 바위부스레기의 압력을 밀어 던지며 조금씩 짬을 냈다. 3주야동안의 간난신고끝에 드디여 다리를 뽑을수 있었다. 그는 기뻤다.

리광호는 광차밑에서 몸을 가로 눕히고 (물론 그 일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리를 뽑아 내는데 비하면 식은죽먹기였다.) 주먹을 바위부스레기에 틀어 박고 비틀면서 앞으로 내밀었다.

남철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은 손이 아니라 피범벅이였다.

《분대장동지!》

남철은 오열을 터뜨렸다.

《남철동무!》

리광호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붕락에 묻힌 두 군인의 기적적인 상봉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산소부족이 그들을 괴롭혔다. 남철은 정신이 가물거리는 속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였다. 그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화락하니 젖었다. 식은 땀이 날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 졌다.

《조금만 참고 견디라구! 동무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을거요!》

리광호가 말했다.

《나는 일 없습니다. 분대장동지는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남철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벌써 자기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일 없소. 다리가 좀 별나긴 해도…》

이렇게 말하는 리광호의 손이 꼼지락거렸다.

그 손을 쥐고 있던 남철은 분대장이 지금 발가락도 그렇게 꼼지락거려 볼것이라고 생각 했다.

리광호의 두다리는 바위에 치여 뼈가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끔 신음소리를 낼뿐이였다. 한동안 그들은 맞잡은 손으로 말 없는 대화를 나누며 잠자코 있었다.

그들이 붕락에 묻힌 때로부터 사흘이 지나갔다. 리광호가 남철에게 알려 준것처럼 소대장의 야광시계는 정확하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 군인중 제일 심하게 상한것은 소대장 김학철이였다. 그는 붕락이 시작될 때 광차우에 가로놓인 동발사이에 몸을 피하긴 했어도 동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지금 온몸에 거대한 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반듯이 누워 있었다. 부러진 동발목은 그의 배를 누르고 있었다. 내장이 눌린 그는 끊임 없는 동통속에 있었으며 입으로 피를 토하고 있었다. 그는 자주 의식을 잃었으며 그래서 분대장에게 별로 말도 건네지 못하고 손으로 자기가 아무 일도 없다는것을 전하고 있을뿐이였다.

그는 지금 가물거리는 의식속에서 《똑 똑…》 하는 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소리는 몇초간격으로 들려 오고 있었다. 붕락에 묻힌 처음 하루이틀사이에 들을수 없었던 그 소리가 무엇일가고 생각하는 김학철의 뇌리에는 문득 《물이다!》 하는 생각이 번개쳤다. 그 순간 그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고통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갈증이였다는것을 의식하였다. 그러자 그 갈증은 그를 참을수 없이 괴롭혔다.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치 물에 오른 붕어처럼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하였다.

물론 물방울이 그의 입에 떨어 질리는 만무하였다. 《물, 물…》 하고 그는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바위짬에서 떨어 지는 석수가 자

기의 오른손(왼손은 리광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바닥을 적시고 있다는것을 느낀것은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였다. 처음에 그는 손에 즐벅한것이 상처에서 나는 피인줄 알았다가 그것을 입에 가져다 대보고는 물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정신없이 혀바닥으로 손의 수분을 핥았다.

그것만으로도 살것 같았다. 그는 다시 손을 본래의 위치에 가져다 놓고 손바닥을 오무려 물방울을 받기 시작했다. 물방울은 몇초 간격으로 정확히 떨어 지고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생명수였다. 순간 그는 대원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벌써 자기의 갈증에 대해서는 잊었다. 손바가지에 물이 차는 동안 그는 어떻게 하면 리광호며 김남철에게 그 물을 먹일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은 자기가 베고 있는 광차의 레루에 미쳤다. 마침 레루는 붕락시에 비틀리우면서 모로 놓여 있었다. 모로 놓인 레루는 훌륭한 도랑이 될수 있었다. 머리의 감각으로 그것을 느낀 김학철은 기뻤다. 물이 손바가지에 다 차자 레루의 《도랑》에 쏟았다. 그는 그러기를 실히 몇시간은 반복하였다.

그는 손으로 《도랑》을 만져 보고 나서 물이 자기의 머리밑을 지나 왼손밑으로 뻗은 레루를 적시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지칠줄 모르고 물을 받았으며 그것을 레루 《도랑》에 쏟았다.

《분대장동무, 물이요！》

드디여 그는 목을 돌려 레루에 입을 가까이 대고 웨쳤다. 그러나 갈증에 타고 맥이 진한 그의 목소리는 철편을 울릴수가 없었다.

그는 안타까운 나머지 리광호의 손을 쥐였다 놓았다 하였다.

한편 리광호는 소대장의 손움직임을 그 어떤 신호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자 정신을 도사렸고 《모르스기호》라는것을 알았다.

《물！ 물！》

소대장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소대장동지, 무슨 물입니까？》

리광호가 레루에 대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소대장은 그의 손을 한동안 으스러지게 틀어 쥐고 있었다. 반갑다는 뜻이였다. 그 다음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신호를 해득한 리광호는 소대장의 손을 놓고 레루 《도랑》을 만져 보았다. 과연 수분이 느껴 졌다. 이번에는 입을 바투 대고 혀로 도랑을 핥았다. 얼마간의 수분이 그의 목구멍을 적시였다. 그는 기쁜김에 소대장의 손을 덥석 잡고 《모르스기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소대장동지, 고맙습니다. …》

소대장의 손에서 신호가 다시 왔다.

《명령… 물을… 마실것! 물은 계속 흘러 갈것임!》

그 신호를 해득하던 리광호는 《명령》이라는 두마디에 그 어떤 의미가 있다는것을 의식하였다. 거의 수분에 지나지 않는 물이 레루도랑을 타고 자기에게로 흘러 오기까지에는 소대장의 그 어떤 헌신이 깔려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명령을 남철동무에게도 전달할것!》

김학철소대장은 계속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다.

명령, 그렇다! 소대장은 물을 마실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우리들이 물을 마시지 않을가봐 우려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무엇때문에 우려하겠는가? 리광호는 짐작하였다. 소대장은 지금 자신은 갈증을 참으면서 그 물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물원천이 어데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매우 적은 량일것이였다. 레루를 타고 흘러 온 물량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소대장은 계속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다.

《알았는가? 나의 명령을 복창하라!》

《알았다!》

리광호는 떨리는 손으로 답신을 보내기 시작했다.

《명령, 물을 마실것! 물은 계속 흘러 올것임!》

그러면서도 리광호는 자기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리라는것을 의식하였다. 그 순간 그는 남철이를 생각하였던것이다. 아니 벌

써 소대장이 자기에게 명령했듯이 그에게 명령하였다.

그는 오른손으로 소대장에게 복창신호를 보내면서 왼손으로 쥐고 있던 남철의 손에 같은 신호를 보냈다.

남철은 자기가 코를 대고 있는 레루의 홈채기에서 습기냄새를 느끼였다. 남철은 버럭에 짓눌린 한팔을 뽑아서 레루홈채기를 손으로 더듬었다. 분명 물이 느껴 졌다. 그것은 이미 습기가 아니라 실오리같이 가늘긴 해도 하나의 물줄기였다.

갈증에 허덕이던 그는 홈채기에 입을 박고 물을 몇모금 빨아 들일수 있었다. 그 물은 삽시에 온몸을 적시는듯 정신이 들고 몸에 새로운 기운을 몰아 왔다.

다음순간 그는 자기의 실책을 깨달았다.

《분대장동지.》 하고 그는 미안쩍은 목소리로 레루에 대고 말했다.

《물을 마셨습니까？》

《물론！》

리광호의 손이 《모르스기호》로 대답했다. 그러나 남철은 생명수와도 같은 그 물을 두 지휘관이 먼저 마셨을리 없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남철은 항변하듯 웨쳤다.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들 마시기전엔.》

《명령이요！ 남철동무.》

《명령이라구요？》

남철이가 되뇌였다.

《그렇소. 명령이요！》

리광호가 단호히 응답했다.

그러나 남철은 레루《도랑》에서 입을 떼고 돌가루로 짐작되는 부실부실한 물체를 한옹큼 모은 다음 그것으로 흘러 내리는 물줄기를 막았다. 물이 일정한 정도로 고이면 지휘관들쪽으로 되돌아 흘러 갈것이였다.

그의 의도를 알아 챈듯 저쪽에서 리광호가 손신호가 아니라 말로 웨치였다.

《남철이,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가? 대답하라. 대답하라!》
《집행하고 있다!》
남철은 목이 메였다.
《분대장동지… 저는 마시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시십시오. 이제 물이 흘러 갈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듯 리광호가 이번엔 손신호로 다시 요구했다.
《이건 명령이다! 집행하라! 집행하라!》
그러나 남철은 이미 그 신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명령》이라는 분대장의 거듭되는 요구가 그에게 잊을수 없는 회상을 불러왔던것이다. …
막장에서 항아리만 한 물구멍이 터지고 지하수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순간에 문학수분대장도 《명령이다. 모두 철수하라!》 하고 고함을 쳤다. 그는 명령으로 대원들의 등을 떠밀어 수평갱을 빠지게 한 다음 사갱에 올리 붙었다.
남철이와 여러명의 군인들이 그의 단호한 명령에 의하여 구원될수 있었다. 그때 남철은 문학수가 보이지 않아 두리번거리다가 그가 금방 빠져 나온 수평갱으로 다시 뛰여 가는것을 발견하였다.
남철은 그가 지하수가 터진 반대편 막장으로 달려 가리라는것을 직감하였다. 거기에 한개 소대의 군인들이 지하수가 터진줄 모르고 굴진을 하고 있었던것이다.
남철은 비호같이 달려 문학수를 따라 잡은 다음 그의 앞을 막아섰다.
《비키오!》
문학수가 소리치며 그를 뿌리쳤다.
《안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명령이요. 비키오!》
《안됩니다.》
《명령이라는데!》
《분대장동지!》
남철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와 하는 사이에 문학수는 그

를 와락 밀쳐 쓰러뜨린 다음 강물처럼 출렁이는 지하수를 맞받아 달려 갔다.

사갱에 다시 올라 붙은 남철이 비통한 심정으로 이미 바다를 이룬 수평갱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하나둘 반대편 갱의 군인들이 물속에서 솟아 오르듯이 사갱으로 올라 왔다. 그러나 문학수분대장은 다시 나오지 못했다.

지금 문학수를 생각하는 남철의 눈앞에는 희생된 김철종중대장의 모습도 떠올랐다.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희생된 그들의 념원과 희망은 무엇이였던가.

남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고 돌아 와서 당과 조국과 인민,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치자고 군인들앞에서 호소하였다.

그 호소는 물론 진심이였고 량심이였으며 뼈에 사무친 교훈이였다. 그러나 희생된 군인들이 그것을 들었다면 무엇이라고 할것인가?

남철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써, 피로써 지하수천척 암반에, 물길굴의 굽이굽이에 붉게 새겨 놓았기때문이였다.

그들의 최후의 희망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강토에, 우리 수천만 인민에게 유산으로 남기신 사회주의와 그 위업의 승리였다. 그리고 최고사령관동지의 제0026호명령이였다.

그들은 그 명령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관련되여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지금 남철은 자기가 죽을수 있다는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두방울의 물로 목을 추긴다고 해서 살아 남을수는 없는것이였다.

벌써 3주야가 흘러 갔다. 그런데도 구원의 손길이 미쳐 오지 않는것을 보면 붕락의 크기를 짐작할수 있었다.

붕락이 있기전 그가 속한 대대는 굴진막장에서 붕락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최후의 결사전을 벌리고 있었다. 그 구간만 돌파하면 이 물길굴이 관통되는것이였다.

따라서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제0026호명령관철에서 마지막돌파구를 열기 위한 전투였다.

전호진과 리완수 등 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이 현장지휘를 하고 있었으며 정치일군돌격대,가족지원대,예술선전대 등 힘 있는 력량이 대대군인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백병전이였으며 분초를 다투는 전격전이였다.

남철은 막장에서 퍼담은 버럭을 싣고 사갱을 100메터쯤 달리다가 붕락을 만났다. 앞뒤가 꽉 막힌것을 보면 붕락이 사갱을 막아버린것이 분명하였다. 이것은 굴진막장의 한개 대대력량이 외부와 완전차단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작업이 중단되였을것은 물론 수백명의 군인들이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을것이였다. 남철은 죽음 그자체는 무섭지 않았다. 그의 뇌리를 꽉 채운것은 최후의 돌격전이 정지됐다는것,그것으로 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집행이 좌절되게 되였다는 그 사실이였다.

그는 하루 한순간도 희생된 전우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들의 넋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63키로그람의 자기의 체중에 그들의 체중을 합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상과 의지,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명감을 자기의 정신에 체현하고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는다는것은 자기 육신의 한 부분으로 되고 있는 그들을 두번 죽음시키는것으로 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남철이 무서워 한것은 바로 그것이였다.

남철의 눈앞에는 문득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경애하는 그이를 다시 만나뵈올수 있다면…

그는 막아 놓은 레루홈채기에 물이 얼마나 고였는가를 알아 보려고 손가락으로 짚어 보았다. 물은 손가락끝을 적실가 말가 하였다. 그 물이 언제 지휘관들쪽으로 도로 흘러 가랴.

남철은 막막한 생각을 하며 리광호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리광호가 그의 손기척을 느끼고 손에 지그시 힘을 주다가 그만 두었다. 그리고는 잠잠해 졌다.

《분대장동지.》 남철은 그에게 말을 건네였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리광호의 손에 다시 힘이 실리였다. 남철의 말을 들었다는 신

호였다.
이윽고 례루를 울리며 가느다란 노래소리가 들려 왔다.

내 그대 위해 불에 탄다면
빨간 연기로 피여 오르리
내 그대 위해 불에 탄다면
아 내 그대 위해…

남철은 리광호가 노래를 채 끝맺지 못했다는것을 느끼지 못했다. 분대장이 노래의 첫 구절을 뗴자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가?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하실가? 그는 전쟁판에서라면 자기도 영웅적으로 죽을수 있다고 웨쳤던 일을, 아버지의 마음을 마구 휘저어 놓았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다.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
몇시간후 전호진이 조직한 구조대가 붕락에 묻힌 그들을 파냈을 때에 김학철과 리광호는 이미 숨이 진 뒤였고 남철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26

남철이네를 묻어 버렸던 붕락은 그들이 짐작했던대로 경사갱의 200메터구간을 완전히 메꾸어 버렸다.
처음에 전호진장령은 붕락이 일어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전에없이 큰 붕락이라는것을 느끼였으나 얼마간은 안심이 되였다.
갱내 전등이 꺼지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이것은 외부와의 련계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했다.

전기선과 전화선, 압축공기관이 막장에서 외부로 뻗어 있었다. 전기선이 살아 있다는것은 전화선이나 압축공기관도 살아 있을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아 허물어 졌다. 전호진이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들고 귀에 대보았으나 전혀 감도가 없었다. 다음은 압축공기의 투입이 중지됐다는것이 일제히 멎은 착암기소리에 의하여 명백해 졌다. 제일 무서운것은 바로 그것이였다. 이것은 군인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조성했다. 갱내에서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산소를 공급 받고 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념두에 두면서 전호진은 인원점검을 해보았다. 그 결과 50여명의 인원이 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 인원들은 붕락에 묻혔을수 있는 인원이였다. 물론 붕락구간밖에 말하자면 붕락시에 경사갱의 다른 장소에 있던 군인들도 있을수 있었다. 그들은 외부로 빠져 나가 구원되였을것이였다.

전호진은 붕락퇴치에 경험이 있는 군인들로 돌격대를 무어 구조전투에 진입시켰다. 돌격대원들은 맞교대로 붕락된 구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전호진은 구조대가 일에 달라붙자 비상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전등이 꺼지지 않았다는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랐다. 전호진은 전등앞에 둘러 앉은 지휘관들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큰 붕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다.

알고 보니 관리국의 주요 지휘력량이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막장에 다 들어 와 있었다. 후방물자구입을 위해 노상 대외기관에 나가 살고 있던 후방부국장조차 흰 취사복을 입은채 회의에 참가했는데 붕락시에 그 자신이 더운국을 떠서 군인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던 모양이였다.

전호진은 지휘관들을 바라보면서 붕락으로 인한 불안과 고독을 잊고 있었다. 더우기 옆에 정치위원 리완수가 앉아 있다는것이 큰 힘을 주었다.

리완수는 전호진이 비상지휘관회의를 소집한데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가 비상정황에서 지휘관의 단독결심을 존중하고 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전호진자신은 비상지휘관회의소집을 명령하던 순간은 물론 지휘관들이 다 모여 앉은 지금에 와서도 이 회의에서 무슨 문제를 토의할것인가에 대한 결심이 서 있지 않았다.

항용 이러한 경우 지휘관들앞에는 붕락퇴치와 관련한 대책적인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러나 그 대책은 이미 취해 졌다. 지금 자기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는 지휘관들을 바라보는 전호진의 뇌리에는 뜻밖에도 붕락과는 관계 없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갱내에 떠도는 이상한 가스와 관련된 생각이였다.

작업은 지금 지질조사결과에 이상한 가스가 발견된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무색무취의 가스를 다른 사람들은 느낄수 없었다. 그러나 지휘관인 전호진은 그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후과에 대하여 외면할수 없었는데 그는 붕락이 있기 바로전에도 린접부대의 화학병들을 불러다가 검측해 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붕락을 당한 비상정황에서 그 문제를 상정시킨다는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우스운 일로 될수 있었다.

그렇다. 지금은 붕락과 관련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것인가 하는것이 급선무이다. 붕락의 결과 압축공기가 들어 오지 못하는 조건에서 착암기를 동작시킬수 없는것은 물론이거니와 곧 질식이 시작될것이였다. 그러니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이 순간 전호진에게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지휘관들은 그가 작업이 중단되게 된 사태와 관련한 말을 꺼내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안변은 물론 고산과 회양,창도와 김화땅을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의 물줄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 동해로 뗠구는 이 지하물길굴을 뚫는 최후의 돌격전투를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금강산발전소건설의 첫삽을 박던 그날 서방의 통신방송들과 그 나라의 《각료》,형형색색의 《정계인사》들과 《과학계의 선각자》들은 입을 모아 웨쳐댔다. 조선이 혼자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 거액의 발전소건설자금,자재,설비지출은 불가능하며 그들은 기술적관례를 무시한 후과를 초래할것이다. 그 건설은 21세기를 가까이한 현대건설력사

의 첫 모험으로 될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러한 훼방군들과 맞장구를 치며 《종이장우의 발전소》라는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입방아까지 찧었다.

바로 이런 공사가 마지막관통을 앞두고 중단되게 되였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그들의 뒤에는 지난 10년간 피와 땀으로 열어 놓은 물길굴이 있었으며 앞에는 얼마되지 않는 구간이 남아 있었다. 이제 와서 주춤거린다는것은 오늘을 위하여 청춘과 생명을 다 바친 전우들에 대한 배신인것이였다.

전호진은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문제를 회의에서 론의하려고 결심하였으나 곧 자기의 그 결심이 무의미하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때 막장으로부터 병사들이 부르는 《막장주제가》가 들려왔다. 지난 10년간 병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애로와 난관이 앞을 가로 막을 때마다 《적기가》를 부르며 그 엄혹한 시련을 맞받아 나아갔다. 그들은 뜻하지 않은 일로 전우들이 희생되였을 때에도 전우의 령전에 붉은기를 세우고 《적기가》를 부르며 새로운 결의와 투지를 가다듬군 했다.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피를 끓게 하는 이 《적기가》는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안고 공사를 다그치던 굴진막장안의 전투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심장의 맹세를 다지며 부르던 유일한 《주제가》였다. 그리하여 《적기가》를 일명 《막장주제가》라고 불렀다.

그 《막장주제가》는 전호진으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는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병사들은 자기가 결심한 문제를 이미 실천에 옮길 의지를 피력하고 있었기때문이였다.

《지휘관동무들！》 하고 전호진은 자기의 결심을 돌리며 말

하였다.

《지금 작업은 지하가스가 배출되는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토의합시다.》

전호진의 그 말은 지휘관들로 하여금 굴진막장에 아무러한 정황도 생기지 않은듯 한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상시와도 같은 활기 띤 분위기속에서 전호진이 제기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갱내에서 나오는 이상한 가스가 유독성으로 검측되는 경우에 취할 대책을 강구하였다.

다음은 마치 부차적인 문제처럼 작업을 계속하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했다.

그 일련의 문제란 착암기도 쓸수 없고 폭파도 할수 없는 조건에서 매 병사들이 정대로 다문 한치라도 굴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것, 밀폐된 갱내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산소의 부족은 용접용산소병을 터뜨려 보충한다는것, 식사공급이 두절된 문제는 허리띠를 조이는것으로 해결한다는것 등이였다.

회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적어도 사흘간은 작업을 계속할수 있을것이며 그 사흘어간에 붕락구간이 열리리라는것을 예견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있는 막장을 향해 밀려 나갔다.

리완수는 전호진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 서지 못하는것을 발견하고 되돌아 섰다.

《어디 불편합니까?》

리완수는 전호진의 이그러진 얼굴을 보며 놀라와 하였다.

《손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리완수는 호주머니에서 손칼을 꺼내주며 그의 시선이 가고 있는 장화를 신은 두다리를 바라보았다.

《물독이 오른게로군요!》

《예, 좀 앉아 있었더니 피가 몰렸는지 장화가 조여서 일어 설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장화를 째야 벗어 던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칼을 인주십시오.》

하고 리완수는 그에게 주었던 칼을 도로 달래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장화목에 칼을 박고 쭉 내리 째기 시작했다.

장화에서 벗어 져 나온 전호진의 발은 어떻게 그안에 들어 가 있었던가 싶게 놀라울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

리완수는 혀를 찼다.

《쩌쩌! 며칠째 물속에 있었으니…》

《어! 이제야 살것 같군!》

전호진은 오히려 환성을 올리며 일어 섰다.

《맨발로 걷겠습니까?》

《뭐랍니까? 편안하니 좋습니다!》

《좀 앉으십시오.》

리완수가 그의 팔을 잡아 앉히고 자신도 그와 나란히 앉았다.

《한대 태우십시오.》

리완수가 《백승》갑에서 담배를 한대 꺼내 권하였다.

《아니, 산소를 아껴야지요.》

전호진이 웃으며 거절했다.

《정말 그렇군요.》

두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정치위원동무.》

이윽고 전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든 밀폐상태에서 병사들에게 일을 시킨다는것이 지나친 모험이 아닐가요?》

《우리가 시킨것이 아니라 그들스스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완수가 대답했다.

《그들을 제지시키는것이 지휘관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겁니다!》

전호진이 화를 내듯 어성을 높였다.

《저 노래를 들어 보십시오. 저 노래를 멈출 힘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명령으로도!》

리완수도 《적기가》가 울려 나오는 막장쪽을 가리키며 흥분

이 깔린 어조로 대답했다.
두사람은 다시 말이 없었다.
잠시후에 전호진이 또 먼저 입을 열었다.
《정치위원동무, 이 붕락에 대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알고 계실가요?》
《밖에 심철범중장이 있으니 보고 드렸을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가요?》
《작업을 계속 하기로 한 문제말입니까?》
리완수는 반문하고 나서 참모장이 말이 없는것을 보자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선시찰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되지 않을가요?》
리완수는 자기 말이 지나치게 비약된듯 한감을 느끼며 그 말에 주를 달았다.
《그 전선시찰은 낮에 밤을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간단한 일입니까?
그이께서는 차안에서 쪽잠에 드시고 길가에서 줴기밥으로 때식을 굼때시면서 몸소 조향륜을 잡으십니다. 적들과의 의지의 대결인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그이께서야말로 최대의 의지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이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로 되자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뜻밖의 희생을 낼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두려운것이 아니라 그이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것이 두려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모장동무!》
《정치위원동무, 고맙습니다! 저의 결심을 지지해 주어서. 그럼 일어서 볼가요?》
전호진이 먼저 일어 섰다. 그는 맨발로 뾰족한 바위부스레기우를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걸어 갔다.
리완수가 그 모양을 선자리에서 한참 바라보다가 다급히 달려가서 그의 팔을 끼였다. 정치위원과 참모장은 서로 어깨를 겯고 《적기가》를 부르며 병사들속에 합류하였다.
그들을 보자 병사들은 더 한층 기세를 돋구었다. 병사들은 두

지휘관처럼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비장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

《동무들, 난관앞에 주춤거린다면 그게 무슨 병사이겠습니까? 최후의 관통전투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합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십니다. 날 따라 앞으로!》

전호진의 이 불 같은 웨침소리에 누군가가 구호를 웨쳤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결사옹위! 결사옹위!》

군인들은 착암기의 정대를 뽑아 손에 들고 두명씩 한개조를 무어 굴진단면에 달라붙어 함마를 휘둘러 대기 시작했다. 그러한 수굴조는 무려 50개를 헤아렸다. 굴진조들은 거의 90도에 가까운 아찔한 단면에 달라붙어 교예사와도 같이 날파람 있게 함마를 휘둘러댔다.

힘 있는 노래선률과 박자에 맞추어 일제히 정머리를 내리치는 50여명의 함마질소리가 금시 천길지하막장을 들부셔 놓을듯 찌렁찌렁 울렸다. 박력 있는 음악선률의 강약박자에 따라 막장안을 뒤흔들며 메아리치는 그 꿩음소리는 마치 무적의 슬기와 용맹이 약동하는 그 어떤 여러개의 악곡들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사상으로 묶어져 울리는 큰 규모의 관현악소리처럼 들렸다. 그것은 공사속도를 두배, 세배로 높이도록 병사들을 고무해 주는 하나의 《함마교향곡》이였다.

그들이 뜯어 낸 버럭을 《정치일군돌격대》와 《가족지원대》가 조구통이 있는데까지 날라 갔다.

《가족지원대》속에는 희생된 김철종의 안해 복순이도 있었다. 그가 머리에 큰 바위를 이고 작은 버럭을 치마폭에 싸안고 허리치는

석수를 헤치며 달려 가는것을 본 전호진이 한마디 인사를 건네였다.

《아주머니, 주의하십시오.》

《일 없습니다. 이젠 습관돼서…》

《참모장동지, 우리 아주머니들이 〈남강의 녀성들〉 같지 않습니까?》 하고 한 병사가 달려 가며 소리쳤다.

《그렇게는 못돼두 금강의 녀성들은 돼요!》 하고 복순이가 대답했다.

금강산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은 지금까지 석수가 허리치는 굴진막장속에서 두팔, 두다리가 잘리우고도 피를 뿌리며 버럭을 담고 광차를 밀었으며 동지를 위해 무너지는 암반밑에 자기 한몸을 그대로 《동발목》으로 세워 놓군 했다. 제0026호명령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으로 가슴 불 태우던 그들은 필요하다면 한몸 그대로 《뢰관》이 되고 《폭약》이 되여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치군 했다.

사람들은 금강산발전소건설전투장의 이 불사신 같은 병사들, 그 모든 자랑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의 자기 희생성, 높은 정치사상적풍모를 함축하여 《금강사자》라고 불렀다.

복순이가 자기를 《금강사자》에 대비하여 《금강녀성》이라고 말한것은 그가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군인들과 한 막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한 긍지를 표현한것이였다.

전호진은 가슴이 달아 오름을 느끼며 따뜻이 한마디 더하였다.

《애는 잘 자랍니까? 영남이말입니다.》

《네, 잘 자라요.》

대답하는 복순이의 말이였다.

《애가 밖에서 기다리겠는데요?》

《기다리겠지요. 그러나 걱정할건 없어요. 중대병실에 가서 아저씨들과 같이 잘테니까요.》

《하하하!》

전호진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뒤끝에 가슴이 답답해 옴을 금할수 없었다. 만일 막힌 굴이 제때에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이렇게 3주야가 흘러 갔다.…

막장안에는 전투원들의 생명선으로 되고 있던 산소통이 다 떨어졌고 그보다 앞서 식량(간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얼마간의 사탕과 과자)이 떨어 졌다. 그리하여 전투장에는 기아와 질식이 현실적 위험으로 닥쳐 왔다.

하나, 둘 들리워 나가는 군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을 들어 낸들 어데로 가져 간단 말인가? 전쟁판이라면 은폐호도 있고 처치장도 있고 야전병원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것이 없었다. 그 어디에도 산소와 밥이 있는 곳이 없었다.

쓰러진 그들에게 차례진것은 마지막산소병이였다. 군의는 현장에서 들려 나온 그들을 휴계실에 주런이 눕혀 놓고 방수포와 세멘트포대로 입구를 밀폐한 다음 산소병을 열어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었다.

전호진은 전투장에 휴식을 선포하고 나서 접전뒤끝의 전장과도 같은 작업장을 돌아 보기 시작했다.

그는 후방부국장이 허리를 구부리고 내려다 보고 있는 한 병사앞으로 다가갔다. 그 병사는 휴식이 선포되였는데도 함마를 놓지 않고 있었다. 후방부국장이 소나무동발목에서 벗겨 낸 송피를 짓찧은 비상식량을 쥐여 주려고 하자 함마자루에서 그 병사의 손 떨어지는 소리가 《쩍!—》 하고 들렸다. 손을 떼고도 그는 손가락을 펴지 못해 주먹우에다 송피를 받았다. 하지만 팔굽이 굽혀 지지 않아 그것을 끝내 입으로 가져 가지 못했다.

후방부국장이 송피를 뭉그려 입에 넣어 주자 그는 몇번 우물거리다가 꿀꺽 삼키고는 히죽이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전호진이 근육의 초긴장으로 굳어 졌던 병사의 손을 가까스로 펴보니 손가락은 온통 물집투성이였다.

《아프지?》

전호진이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닙니다. 장령동지, 아픔중의 진짜 아픔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 못하게 될 때의 아픔일것입니다.》

병사는 또 한번 히죽이 웃었다.

전호진은 그의 손을 꽉 쥐여 주고 나서 아찔한 굴진단면을 쳐

다보았다. 그의 눈에 함마를 든 병사가 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보였다. 3주야동안 작업장을 떠나본적이 없는 병사들은 휴식이 선포되면 그러한 말뚝잠을 자는것이였다.

전호진은 못 볼것을 본것처럼 얼른 시선을 떼고 《가족지원대》가 휴식하고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연약한 녀성들이 군인들과 꼭같이 일을 하다나니 지칠대로 지쳐서 그가 다가갔는데도 일어나 앉지 못했다. 그들이 이렇게 된데는 자기 몫으로 차례진 과자와 사탕을 군인들에게 먹이고 자신들은 입에 넣어 보지 못한 사정과도 관련되여 있었다.

복순이가 일어 나 앉으며 전호진을 반기였다.

《참모장동지도 좀 쉬세요.》

《고맙소.》

전호진이 선채로 대답했다.

《참모장동지의 발이 말이 아니군요!》

복순은 짓찢겨 진 피부가 물에 떠서 걸레쪼각처럼 너풀거리는 그의 발을 보고 혀를 찼다.

《아주머니도 매한가지입니다.》

참모장은 꿰진 작업신발사이로 삐죽이 나온 피 터진 복순의 발가락을 바라보며 측은히 응답했다.

《그래도 우린 녀자가 아니나요.》

《녀자라구요?》

전호진이 눈물겹게 반문하고 나서 되뇌이였다.

《녀자라, 녀자란 말이지요?》

《그래요, 참모장동지.》

복순은 일어 서서 참모장의 팔을 잡아 끌고 유측으로 가더니 귀속말을 하듯 말했다.

《우리들가운데는 애기엄마들이 있어요. 애기를 떼두고 온 그들의 젖이 불었답니다. 쓰러진 아저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가요?》

《뭐라구요?!》

전호진은 놀란 소리를 냈다.

《좀 조용하세요.》
복순이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나서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요. 젖말입니다. 애기엄마들은 부끄러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거예요.》
《…》
전호진은 온몸에 짜릿한 아픔을 느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못 박힌듯이 서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언젠가 굴진막장에 찾아 왔던 이전쏘련원수 야조브는 《조선에 리인모가 하나인줄 알았더니 여기에 와보니 숱한 리인모로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의 행군》시기에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자기 운명의 《신》이신 최고사령관동지를 떠받들고 있는 참모습이 아닌가.…

격동된 전호진은 복순의 앞을 떠나 비칠거리듯 걸어갔다. 어데선가 나팔소리가 《붕붕—》 하고 들려 왔다. 쓰러지지 않은 예술선전대원 하나가 혼자서 주저 앉은 전투장을 들어 일으키려고 애쓰듯 석수에 허리를 잠그고 서서 나팔을 불고 있었는데 나팔의 본체는 물에 잠기고 주둥이만이 나팔꽃모양으로 물우에 떠 있었다.
전호진은 그리로 다가가서 선전대원의 손에서 나팔을 나꿔채 가지고 입에 대였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나서 힘껏 불었다. 《삐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였다.
이때 그의 등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음이 들려 왔다. 전호진은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온 정신을 도사려 듣고 있다가 홱 몸을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리완수를 선두로 몇명의 구조대원들이 세명의 군인을 등에 업고 사갱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전호진은 나팔을 선전대원에게 돌려 주고 석수에 첨벙거리며 마주 달려 갔다. 그는 리완수가 업고 온 군인을 후방부국장에게 넘겨 주자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명의 군인중 한명만이…》
리완수가 숨을 돌려 쉬고 나서 말했다.
《살아 남은 군인은 김남철입니다. 소대장과 분대장은 이미… 붕락구간을 50메터쯤 파들어 가다가 광차밑에 몸을 피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전호진은 그 말을 다 듣지 않고 몇걸음 걸어 가서 평평한 돌무지우에 나란히 눕혀 놓은 희생된 두 군인을 내려다 보았다. 김남철은 누군가가 현장 《입원실》로 날라 갔다.
희생자들의 얼굴은 상한데가 없었다. 으깨여진 손과 발이 피범벅이였다.
전호진의 등뒤에서 리완수가 말했다.
《우리가 이들을 발견했을 때 셋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겨우 펼수 있었지요.》
전호진이 고개를 돌려 묻는듯 한 시선으로 리완수를 바라보았다.
리완수가 그를 마주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들은 현장에 그대로 둡시다. 밖으로 내갈수도 없습니다. 이들의 넋은 죽어서도 최후의 돌격전이 벌어 지고 있는 전투장을 뜨고 싶지 않아 할것입니다. 이들은 두사람 다 이 공사를 시작하던 1986년도 입대생들이였지요. 10년간 손톱끝 하나 다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리완수는 말끝을 흐리였다.
그러자 일시에 흐느낌소리가 터졌다.
그의 등뒤에 담벽처럼 둘러 서 있던 군인들이 작업모를 벗어 들고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다. 쓰러져 있던 예술선전대의 나팔수들이 《적기가》를 울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동발목으로 빽빽이 붙여 놓아 단을 만들고 그우에 방수포를 깐 광차를 밀고 왔다.
《정치일군돌격대》가운데서 상좌의 령장을 단 군관 몇명이 리광호분대장과 김학철소대장의 시신을 쳐들어 광차의 단우에 나란히 눕히였다. 누군가가 작업장에 휘날리던 붉은기를 가져다가 그들의 시신우에 덮어 주었다. 그리고 광차를 밀고 천천히 막장가까

이로 다가갔다. 예술선전대원들이 붉은 수기를 들고 취주악에 맞추어 《적기가》를 부르며 광차를 뒤따랐다.

그러자 갑자기 막장안은 붉은 조명등이 켜진것 같았다. 시신을 덮은 두폭의 붉은기와 수십개의 붉은 수기가 눈 부시게 빛났다. 붉은 반사광이 막장을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붉은 색갈속에서 지쳐 쓰러졌던 전투원들은 다시 일어 섰다. 그들은 속으로 《적기가》를 부르고 있었다. 작업장은 마치 피 흐르는 혈전장을 방불케 했다.

이때 갑자기 조명등이 꺼졌다. 하지만 어둠속에서도 전투원들의 함마질소리, 질통을 지고 달리는 어기영소리, 취주악과 노래소리는 멎지 않았다.

전호진은 작업장이 어둠에 잠기자 무슨 구령인가를 내려야 한다는것을 느끼고 《작업중지!》 하고 소리치려고 하였다. 그때 뜻밖에도 전등이 켜졌다. 그가 전등이 다시 켜진 기회에 본능적으로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 두려고 두리번거리는데 전등이 또 꺼졌다. 그리고는 몇번 연거퍼 껌벅껌벅하였다.

처음에 전호진은 전기사고이거니 하고 마음을 조이며 전등알을 쳐다보고 있다가 길게 짧게, 짧고 길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껌벅거림을 보고는 그것이 밖에서 보내는 그 어떤 신호라는것을 알아 차렸다. 전투시의 각종 정황판단에 정통하고 있던 전호진은 얼마후 《모르스기호》로 보내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득할수 있었다.

《전기선에 전화기를 련결할것! 심철범.》

지상에서, 19갱에서 전대미문의 붕락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물길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수만명의 인민군장병들속에서는 커다란 파문이 일어 났다.

그들은 19갱의 관통여하에 따라 전반적인 공사의 완공이 결정된다는것을 알고 있었던것이다.

이미 할당된 구간을 완공하고 19갱만을 바라보고 있던 동원부대인 각 군종, 병종 군부대 지휘관들은 물론 가까운 작업장들에서

일하고 있던 병사들이 19갱입구로 물밀듯이 모여 들었다.
그들은 지금 3주야동안 외부와 완전히 련계가 두절되였던 막장과 통화를 할수 있게 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야전전화기앞에 서 있는 심철범을 둘러 싸고 있었다.
심철범중장은 붕락이 있은 직후 순간적인 정황판단으로 붕락이 사갱의 근 200메터구간을 막아 버렸으며 그것을 밖과 안에서 동시에 파헤친다고 해도 4～5주야는 걸릴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러니)
그는 잔등이 서늘해 지는것을 느끼며 생각하였다.
(밀페된 갱안에 기아와 질식이 닥쳐 올수 있다. 적어도 3주야전에 공기와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수백명의 장병들이 생명을 잃을수 있다.)
심철범은 어지간히 당황하였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직접 전화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나 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던 관례를 깨뜨리고 최고사령부의 통신결속소를 찾아서 최고사령관동지와 련결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최고사령부와의 전화는 그가 밖으로부터 붕락을 파헤치기 위한 돌격전투를 조직하고 붕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련결되였다.
심철범은 19갱에서 큰 붕락이 있은데 대해서와 첫 순간에 판단한 정황을 보고 드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문제는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압축공기관이 막히고 통신선이 절단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가급적으로 필요한 공기를 공급해줄수 없으며 밀페된 갱안과 련계를 취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무엇보다 통신을 빨리 회복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신 다음 평양에 올라 가서 다시 련계를 가지자고 하시였다.
심철범은 그이께서 어느 전선지역에서 자기의 전화를 받고 계시는지는 알수 없어도 평양으로 올라 가시겠다는것으로 봐서 19갱의 붕락에 대하여 몹시 심려하신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얼마후 그이와의 두번째 전화가 련결되였다. 평양으로 올라 가

신 그이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 오신것이였다.
그때까지 갱안과 통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심철범은 깊은 죄책감속에 그이의 전화를 받았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동안의 형편을 문의하신 다음 구조전투진행정형에 대하여 시간별로 보고하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전화기앞에서 지키고 있겠다고 하시였다.
붕락이 있은 때로부터 3주야가 되던 날 깊은 밤중에 또 먼저 전화를 걸어 오시였다.
구조전투현장에 있던 심철범은 거기까지 걸어 놓은 통신선끝에 련결된 그이와의 직통전화를 받았다.
복잡한 작업소음가운데서도 그이의 목소리는 매우 똑똑하게 들리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하고 심철범은 죄책감속에 침울하게 말씀 올렸다.
《저희들때문에 장군님께서…》
《나는 일 없습니다.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전화를 합니다. 갱안으로 통한 전기선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전기선말입니까？》 하고 반문하고 나서 심철범은 힘 있는 어조로 대답을 올렸다.
《전기선은 살아 있습니다, 장군님.》
《거기에 전화를 련결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심철범이 미처 생각할 사이가 없이 수화구에서는 그이의 확신성있는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오！》
…
드디여 밀페된 갱과의 통신이 회복되였다.
심철범은 첫 통화에서 전호진에게 최고사령관동지의 은정을 전달한 다음 힘을 잃지 말고 대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만은 부지하라고 지시하였다.
몇시간후 밖으로부터 붕락을 헤쳐 들어 오던 돌격대원들이 쇠

돌같은 바위에 짓눌려 납작해 진 압축공기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원상대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질식상태에 처한 갱의 숨통을 열어 놓을수 있게 하였다.

붕락이 있은 첫 순간부터 낮에 밤을 이어 갱입구를 떠나지 않던 군인들은 송풍기가 퉁퉁거리며 압축공기를 갱안에 쏘아 넣는 것을 보고 금시 거기에 갇힌 전우들이 살아 나오기라도 하듯 서로 얼싸안고 돌아 갔다.

이때 누군가가 한가지 기발한 생각을 하였다. 경사지에 놓여 있는 압축공기관으로 갱안에 주먹밥을 굴려 넣을수 있으리라는것이였다.

이때 또다시 **김정일**동지의 전화가 걸려 왔다.

심철범은 압축공기관이 열렸다는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에서 **김정일**동지의 목소리가 울려 왔다.

《그 공기관이라는게 직경이 얼마입니까？》

《15센치메터입니다.》

《그것이 설치된 경사각은 몇도입니까？》

《30도이상 경사로 놓여 있습니다.》

《음…》

잠시 그이의 목소리가 끊기였다가 다시 이어 졌다.

《그렇다면 철범동무, 그 관으로 밥을 들여 보낼수 있지 않소？ 주먹밥을 말이요！》

심철범은 인차 응답하지 못했다. 그이께서 이곳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환히 꿰뚫고 계시며 더우기 이곳 전사들과 꼭 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사실에 놀라 잠시 굳어 졌다.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의 혼연일체를 새삼스레 느끼며 심철범은 한없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여기 병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소！》

갱안으로 주먹밥이 굴러 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다시 환호성을 올리였다.

그러나 심철범과 총참모부, 총정치국대표 등 책임적인 장령들의

불안은 가시여 지지 않았다. 압축공기관을 통해 들여 보내는 주먹밥을 가지고는 갱안에 갇힌 수백명 군인들의 기아를 극복할수 없을뿐아니라 그들앞에는 아직도 붕락으로 막힌 100메터구간이 남아 있었던것이다. 그것을 돌파하자면 앞으로도 3주야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기간에 갱에 묻힌 군인들이 질식은 면할수 있다 해도 기아를 면할수는 없는것이였다. 거기에다가 갱에 갇힌 군인들은 심리적압박감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기아에 못지 않게 그들을 쓰러뜨릴것이다.

전호진은 이미 전화로 일부 군인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여 주먹밥도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 또한 갱안에 있는 부상자들도 문제였다.

이때 심철범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였다. 그것은 전호진이 밥대신 압축공기를 들여 보내달라고 제기해 온 사실이였다.

전호진의 전화는 심철범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대표들과 19갱밖의 야전용지휘탁에 둘러 서서 붕락된 나머지 100메터구간을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안에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을 때 걸려왔다.

《뭐라구?!》

잠을 못 자서 두눈에 피발이 선 심철범은 전화에 대고 대바람에 어성을 높였다.

《그렇습니다.》 하는 전호진의 침착한 목소리가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렸다.

《압축공기관으로 주먹밥을 넣는 시간이면 압축공기를 더 보내달라는겁니다.》

《그것이 무엇에 필요한가 말이요?》

심철범은 여전히 성난듯 어성을 높였다.

《착암기를 돌리자는겁니다. 우린 벌써 3주야째 전진을 멈추었단 말입니다!》

《됐소!》

심철범은 송수화기를 전화통이 아니라 야전용지휘탁우에 내던지듯 탕 놓았다.

탁자우의 송수화기에서는 한동안 무어라는지 알아 들을수 없

는 전호진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 오다가 멎었다. 그러자 총정치국대표 차인중이 송수화기를 들어 전화통의 제자리에 놓았다.

그 순간 전화종이 다시 울렸다. 전화종소리는 몇번 다급하게 반복하여 울리였는데 아마도 상대방이 흥분하여 신호기를 마구 눌러 대는것 같았다.

《내버려 두시오!》

심철범은 펴놓은 사갱도면을 들여다 보면서 자르듯 말했다. 총정치국대표가 송수화기를 들고 귀에 가져다 대고 잠자코 있다가 그것을 심철범앞으로 말없이 내밀었다.

심철범은 할수없이 도면을 보느라고 탁자우에 구부렸던 긴 허리를 펴고 송수화기를 받아 귀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총정치국대표가 그랬던것처럼 한동안 잠자코 듣고 있었다.

처음에 심철범은 필사적으로 진행하던 굴진이 정지된데로부터 안달아 난 전호진이 그저 해보는 소리라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호진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다.

송수화기에서는 그의 마디마디 피가 떨어 지는듯 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저는 이 결심을 정치위원동무와 토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 그렇게밖에는 달리 결심할수 없습니다. 중장동지, 잠간 들어 보십시오…》

심철범은 전호진의 목소리가 멎은 수화구에서 노래소리, 함마소리, 고동구호소리 등이 한데 합쳐 진 지진때의 땅울림과도 같은 신비로운 메아리를 들을수 있었다.

이윽고 전호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왔다.

《지금 여기서는 희생된 두 군인의 시신우에 덮은 붉은기가 홰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희생된 전우의 혈조는 병사들의 심장속에서 활화산으로 타번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계획을 수행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지난 10여년 끊임없이 들어 온 그 구호가 지금처럼 저의 가슴을 칠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중장동지, 현재 우리는 여기 인원에 해당하는 365개의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시간전에 받은 생명수와도 같은 그 밥이 아직 165개나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수량은 정대를 놓지 않고 있는 군인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밥이 아니라 압축공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들에게 작업중지명령을 내릴수 있단 말입니까?》

심철범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혈전이 벌어 지고 있는 막장을 눈앞에 그려 볼수 있었다. 피와 땀과 함성을…

《됐소…》

심철범은 풀 죽은 어조로 말하고 나서 송수화기를 든 팔을 아래로 축 늘어 뜨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 자기가 무엇을 됐다고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잠시 고막이 잉— 울리고 온몸이 거세찬 선풍에 휩싸인듯 한 상태에 있던 심철범은 송수화기를 들고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이건 명령이요.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건…》

그는 마치 전호진에게 하는 말이 아닌듯이 말을 하는것이였다. 갑자르던 심철범은 동정하는 어조로 물었다.

《알겠소? 전호진동무, 우리야 수백명의 생명을 가지고 모험할수는 없지 않소?》

할 말을 다 했으나 그는 상대방에서 전화를 끊지 않은듯 하여 송수화기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

이윽고 수화기에서는 전호진의 목소리가 아닌 젊고 챙챙한 귀익은 다른 목소리가 들려 왔다.

《중장동지!》

《동문 누구요?》

심철범은 의아하여 물었다. 그리고 전사 김남철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동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소. 그래, 살아 났다지? 장하오! 그런데 무슨 일이요, 전사동무?》

이렇게 물으면서도 심철범은 자기가 부질 없는 질문을 한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전호진의 곁에는 숱한 병사들이 둘러서 있을것이며 김남철이도 그들중의 한사람일것이였다. 그는 지휘관이 말문이 막히자 자기가 나섰을것이였다.

《용서하십시오! 중장동지.》

흥분했으나 례의를 지키려고 애 쓰는 전사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말하시오. 전사동무, 말하라니까…》

심철범은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아픔을 느끼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아픔은 다만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바로 몇시간전 그는 최고사령부작전직일관으로부터 《경비함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통보는 경비함선원들에 대해서도 밝히였는데 그는 김남철의 아버지 김동환대좌가 그 함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지금 심철범은 남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하에 갇힌 아들과 적구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로 어울려 시련을 겪고 있는 조국의 모습처럼 여겨 지는것이였다.

수화기에서는 남철이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 왔다. 심철범은 그 노래가 그의 아버지 김동환이가 지은 노래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김남철이가 노래를 시작하면서 리광호분대장이 숨을 거두기전에 부른 노래를 하겠다고 하던 말과 그 노래가 바로 병사들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던 말은 거의나 기억에 남지 않고 《붉은 연기로 피여 오르리》, 《붉은 재로 남으리》라는 구절만이 뇌리에 새겨지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노래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송수화기를 총정치국의 장령에게 넘겨 주면서 고통스럽게 중얼거리였다.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진하라는 명령만을 안다고 합니다! 공사지도에 새겨 진 붉은 화살표식만을!》

송수화기를 귀에다 대고 저쪽의 말을 듣고 있던 총정치국의 장령은 심철범을 바라보면서 격동된 어조로 말했다.

《이 사실을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려야 하지 않을가요?》

공사장에서 최고사령부에 올리는 각종 문건들을 깐깐히 검토하고 그이의 문건부담을 덜어 드리려는데로부터 그중 많은것을 부결하는데 습관된 이 장령이 이러한 제기를 한다는것은 처음 있은 일이였다.

그러나 심철범은 그의 말을 듣지 못한듯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2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해당 국에 지시하여 적의 통신,방송과 남조선 《국방부》당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여 경비함 《101》호 군인들의 투쟁에 대한 상보를 만들었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삐앵 …삐앵— 하는 남조선제 소총소리가 울리였다. 푸릿푸릿한 해변가로 해일처럼 밀려 드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이 록청색과 황청색 그리고 검은색의 제복을 입은 남조선군과 민방위대,경찰대의 무리라는것이 미명속에 드러나는 순간 그들도 자기들이 적구에 들었다는것을 알았다.

해당화덩굴에 앉아서 날 밝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미처 정신차릴 사이도 없이 우박처럼 쏟아 지는 총탄의 세례를 받았다. 불가피하게 자위적조치로 대응사격을 해야 했으나 그들의 해병용소총에는 이미 총탄이 없었다.

최후의 자결을 위해 남겨둔 총탄이 김동환의 권총에 남아있었을뿐이였다.

적수공권의 그들은 적들과 대결할수 없었으며 또 그렇게 한다는것도 무의미한 일이였다.

자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그 막다른 순간에도 그들의 온넋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야 한

다는 그 일념에 넘쳐 있었다. 그들의 전투임무는 바로 그것이였다.
그들은 비호처럼 몸을 날려 해변가의 개활지대를 벗어 나 벼랑을 타고 내륙깊이로 몸을 숨기였다.
그들이 피신한 곳은 바위산이였다. 해변가치고는 비교적 험준한 산이였다. 그러나 한낮이 되자 바위산은 적들이 공식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수만명의 포위에 들었다.
산꼭대기우에 떠 있는 군용직승기에서 웨쳐 대는 소리가 들리였다.
〈투항하라！〉,〈투항하라！〉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기세등등했으며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였다. 적들은 촘촘히 횡대를 지어 산을 훑어 올라 오면서 우리 군인들이 은신한 곳을 향해 박격포와 무반동포, 지어는 로케트포까지 쏘아 대였다. 마치 상대가 요새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만명의 대적이기라도 한것처럼… 순식간에 3명의 우리 군인들이 살해 당하였다.
이러한 위급한 정황속에서 김동환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였을것이다. 그 최후의 수단이란 그가 일상적으로 자기의 심장에 장약하고 있었고 대원들을 교양해 온 자폭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준비된 10여명의 젊은 군인들을 따로 뽑아 세개조(적들은 〈죽음조〉,〈월북조〉,〈유인조〉라고 발표했다.)로 끝까지 북상하여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 갈데 대한 명령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던 초상화를 〈월북조〉에 넘겨 주었다.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자폭으로 적들에게 죽을지언정 항복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조선인민군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 주기로 결심하였다.… 드디여 최후의 순간이 닥쳐 왔다.
그들에게 누구도 명령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대렬검열을 받을 때처럼 1렬횡대로 섰다.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벗겨진 단추를 채우며 걷어 올렸던 팔소매를 내리우는 등 복장정돈을 하였다. 그들과 얼마 떨어 진 대렬앞에는 김동환이가 서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자폭수단은 그의 손에 쥐여 져 있는 두자루의 권총이였다.…》
…

이상의 상보는 《경비함사건》과 관련하여 편집한 적들의 록화물과 함께 최고사령관동지께 제공되였다.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대붕락이 있었다는 급보를 받고 평양으로 올라 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밤이 깊었지만 당중앙위원회청사로 향하시였다. 곽무선은 벌써 응접실에 와 있었다. 그는 그이께서 떠나오신 전선동부에서 먼저 올라 왔던것이다.

《무엇이 제기되였소?》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곽무선이 망설이였다.

《경비함사건》과 관련한 상보와 록화테프가 올라 와 있으나 어쩐지 얼른 내드릴수 없었다.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잘 알고 있는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다시 걱정을 드린다고 생각하니 무거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여 지금까지 선군의 길에서 하루도 발편잠을 자보지 못하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워오신 그이이시였다.

최근 며칠어간에만도 전연초소와 동서해의 함대들,항공부대들을 말 그대로 종횡무진하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천리길을 달려 오시였다.

곽무선이 망설이는것을 띠여 본 **김정일**동지께서는 금강산발전소건설장을 찾으라고 이르시고 집무실과 곁달린 방으로 들어 가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시찰에서 돌아 온 옷차림을 바꾸지 않은채 쏘파에 앉으시였다. 그리고 전화기옆에 놓여 있는 문건을 집어 드시였다. 곽무선이 황황히 따라 들어 왔다.

그 문건인즉 《경비함사건》과 관련한 상보였고 그이의 앞 록화기에는 테프가 걸려 있었던것이다.

《금강산발전소건설장을 찾아 주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만스러운듯 다시 말씀하고 나서 문건을 펼치시였다.

《방금 제가 전화를 했댔습니다.》

곽무선이 다급히 말씀 올렸다.

《붕락된 막장에 밥을 들여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참모부 리국현장령을 찾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선을 쳐들지 않고 다시 말씀하시였다.

곽무선은 다급히 총참모부를 찾기 시작했다. 리국현장령과 인차 련결되였다.

《적구에서 새 소식이 없소, 리국현동무?》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지금 우리에겐 두개의 적구가 있다고 할수 있소. 하나는 금강산발전소건설장의 붕락으로 막힌 구간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해병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쪽이요. 나는 그쪽에 대하여 묻는거요.》

곽무선이처럼 리국현장령도 망설이다가 보고를 드렸다.

《방금 그쪽에서 타전한 무전신호가 포착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로출된 상태에서 공개전파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 있단 말이요?》

《최고사령관동지.》

리국현이 여전히 망설이면서 말씀을 올렸다.

《그들은 겨우 두서너명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무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김정일동지께서도 방금 상보를 보시였다. 적들은 자기들의 전연무력의 거의 3분의 1을 동원하고 있으며 땅우에 있는 사람을 추적하여 잡을수 있는 적외선탐지기가 장비된 미국의 《카이오와》직승기까지 수색에 인입시켰다. 실로 응근 하나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출동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적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증오로 혈안이 되여 있단 말이요! 그러나…》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말씀을 끝 맺으시였다.

《그 몇명뒤에는 우리가 있소. 천만대군이 있단 말이요!》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리국현은 침착하게 답변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 올렸다.
《총참모부의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의하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무슨 제의요?》
김정일동지께서 다급히 물으시였다.
《적들에 대한 보복을 허락해 달라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그 보복이 공담이 되여서는 안되오. 그러니 좀 더 두고 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하시였다.
《나는 지금 적들의 록화테프를 돌리려던참이였소. 그것을 본 다음 다시 만납시다. 그때 이 사건과 관련한 판문점 조미군부접촉정형을 보고하시오.》
김정일동지께서 곽무선이 망설이고 리국현장령까지 꺼려하는 《경비함사건》에 굳이 관심을 돌리시는것은 이 문제가 정치화, 국제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셨기때문이였다. 방금전에 그이께서는 외교부로부터 미국의 추종을 받은 남조선당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갔다는 통보를 받으시였다. 이것은 이 사건에 미국이 개입하여 우리 군대에 도전하며 특히는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이께서는 총참모부의 보고를 통해 이 판단이 틀림이 없으리라는것을 확신하시였다.
총참모부에서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이께서는 앞탁우에 놓여있는 원격조종기로 비데오를 동작시키시였다.
화면에는 단풍이 붉게 물든 험준한 산발이 포착되고 있었다.
록화촬영기는 공중에서 그것을 훑고 있었다. 갑자기 화면이 앞으로 당겨 지면서 산중의 한 공지가 확대되였다.
북쪽방향으로 엎어 져 있는 열명의 시신과 사이 두고 하나의 시신은 엎딘채 두팔을 앞으로 쭉 뻗치고 있었는데 그의 두손에는 각각 권총이 쥐여 진채로 있었다. 외따로 있는 그 사람의 량쪽관자노리에서 총탄자리가 알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김동환임을 대뜸 알아 보시였다. 하나같이 북으로 향한 그들모두의 자세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 지시였다.

남조선장교들과 기자들이 이들을 발견하고 다가들다가 놀라는 모양이 비쳐 지다 말고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화면이 바뀌였다. 두서너명의 우리 군인들이 비호처럼 몸을 날려 화면을 지나갔다. 그중 한명의 군인을 촬영기가 가까이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참나무를 등지고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 무기도 쥐여 진것이 없었다. 총창을 꼬나든 수십명의 적들이 적수공권의 그에게 한걸음한걸음 다가들고 있었다. 몸이 다부지게 생긴 그의 두눈에서 증오의 불길이 뿜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참나무를 뿌리채 뽑아 다가오는 놈들을 후려 치려는듯 두손을 머리우로 쳐들어 뒤로 거머쥐더니 갑자기 홱 몸을 돌려 그러안았다. 그의 잔등을 뚫고 뾰족한 참나무등걸이 총창처럼 쑥 나왔다.

화면이 바뀌였다.

또 한명의 군인은 바위돌을 골짜기아래로 굴리고 있었다. 크고 작은 돌을 다 굴려 버린듯 돌을 찾아 이리저리 뛰던 그는 땅속에 뿌리 박힌 커다란 바위를 뽑아 내려고 애 쓰다가 등뒤에 적의 무리가 달려 든것을 느끼자 그 바위에 자기의 머리를 짓쪼았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적들은 하루에 수십만의 무력을 동원하고 〈안전기획부〉를 비롯한 심리전모략기관들이 하루에 10만여장의 삐라를 뿌리고 방송까지 불어대면서 회유공작을 벌렸으나 우리 군인들이 끄떡하지 않았으며 최후의 순간에도 〈자폭〉으로 영예로운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적들은 이미 〈사살〉이라고 보도한것도 흔적을 확인해 보면 자총,자폭이였다고 하면서 〈두려움없이 나란히 누워 죽음을 택하였다.〉, 〈최후의 순간에 대비한 완전한 세뇌교육을 받은것 같다.〉고 하였으며 군인들을 그이상 투항시키거나 체포할수 없게 되자 당초의 체포계획을 변경시켜 〈무조건사살〉이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설은 계속되고 있었다.

《제1라지오는 〈대병력에 의한 저예망식 수색작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착되지 않은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는 물음에 국방부

가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적군관계자들이 우리 군인들에 대해 〈위장술과 잠복술을 터득하고 있어 쉽사리 발견하기 어렵다.〉, 〈무거운 장구류를 지고 산속에서 시간당 10키로메터까지의 이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풀뿌리, 산열매, 뱀, 개구리 등으로 연명하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비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첫날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특파기자단을 보내여 실황을 취재하였으며 《대쎈세이슌》으로 파장과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남조선의 외무부장관이라는 자는 뉴욕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던 유엔총회연단에 나서서 범 잡은 포수처럼 우쭐해서 《북의 행위는 틀림없이 세계적 정의와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는바 국제공동체는 이에 대하여 응징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총리도 같은 연단에 나서서 《최근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하게 한다. 지난 4월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내놓은 4자회담을 실현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회에 나는 그 제안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하였다. 박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선문제를 조심히 다루어 오던 클린톤조차도 우리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 모든 사실을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였다. 그러나 록화물을 보시면서 그이께서 생각하신것은 《경비함사건》을 국제화하여 정치적으로 리용하려는 그들의 연설이거나 세계의 여론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비데오의 화면을 보고 해설을 듣고 계시였으나 사색은 화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희생된 우리 군인들의 가족들에게로 가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가족중 김동환의 아들 김남철이를 내놓고는 누구도 만나본 일이 없으시였다. 그들의 집이 어디며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지, 군관들은 가족이 몇인지, 그들이 남긴 피줄이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못하시였다. 그러나 희생된 군인들이 그들에게는 하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계시였다.

그이께서 김남철이를 만나보신것은 바로 얼마전이였다. 이때 아

버지 없는 그를 상상이나 하시였던가!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령도하시면서 **김정일**동지께서 믿으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의지였다. 그 사상과 의지에 의거하여 최후의 승리가 올것이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였다. 그랬기때문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그들을 고무하시였다. 그러나 그 웃음뒤에 있을 우리 인민의 고통과 희생, 무한한 헌신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통강냉이에 소금국을 먹고 있는 우리 인민의 처지를 아시였으며 배 고픈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어린이들이 어리둥절해서 허리띠를 조이는 모양도 눈앞에 그려 보시였으며 기차가 멎은 철길우로 려행자들이 줄을 지어 걸어다니는것도 잘 알고 계시였다. 그래도 그들은 아버지나 남편이라는 작은 하늘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희생된 군인들의 가족들은? 하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물론 당과 사회주의국가가 그들의 큰 하늘이 될것이다. 그들의 운명과 생활을 국가의 법과 사회적혜택으로 지켜 주고 보살펴 줄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없는 설음, 남편 없는 불행, 자식 잃은 부모들의 슬픔은 무엇으로 메꾸어 준단 말인가!

요즘 **김정일**동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웃으면서 살자는 구호를 제시하신 그이이시였으나 경비함 선원들이 적구에 떨어진 사실과 수백명의 군인들을 땅속에 가두어 놓은 금강산발전소건설장의 대붕락 그리고 자폭과 육탄으로 당의 호소를 받들어 나가는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에 대한 생각은 그이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갔다. 이것은 그이의 내심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수 있게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데오를 끄지 않은채 일어 서서 급히 집무실로 나오시였다.

곽무선이 그이께서 나오신 방으로 들어가 비데오의 스위치를 끄고 나와서 총참모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보고 드리였다.

《다시 찾으시오.》

그이께서는 짧게 지시하고 나서 곽무선이 총참모부를 찾아서 송수화기를 받쳐 드리자 역시 짧게 말씀하시였다.

《그래 보고하시오.》

《알았습니다.》 하고 리국현장령이 보고 드렸다.

《오늘 오후 접촉을 회피하던 미군측 비서장 옴스라는 대령이 회담탁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동지께서 그의 다음말을 기다리시였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병사들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군측이 그들에게 명령할수 있지 않는가고 했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이께서 다그쳐 물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

리국현의 주저하는듯 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들리였다.

《리국현동무, 어서 말하시오.》

역시 다그치듯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리국현이 보고를 계속하였다.

《우리 군인들이 투항하기만 하면 그 즉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접촉에서 요구한대로 희생된 군인들의 시체를 돌려 보내겠다는겁니다.》

《그러니》 하고 잠시후 그이께서는 고통스러운 어조로 물으시였다.

《우리더러 그들에게 투항하라는 명령을 하라는거겠소? 그렇소?》

《그렇습니다.》

리국현이 답변했다. 어조에 비꼈던 고통스러운 빛이 얼굴에도 옮아 간듯 그이의 얼굴빛이 컴컴해 지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자신에게 말하듯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명령 한마디면 살아 남은 그들을 데려 올수 있단 말이지요?》

리국현은 아무 말도 없었다.

이번엔 그이의 온몸이 고통으로 굳어 지신듯 하였다.

그이를 지켜 서 있던 곽무선은 그이의 이마에 내돋은 땀방울을 보았다. 그는 어쩔줄 몰라 망설이면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

렸다.

한동안 송수화기를 꽉 틀어 쥐고 계시던 그이께서 목소리를 누르며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우리 병사들을 너무도 모르고 있소! 설사 우리가 명령을 한다 해도 그들이 투항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이께서는 갑자기 뢰성을 터치듯 큰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것들에게 말해 주라고 하시오. 우리 병사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당장 중지하고 희생된 우리 군인들의 시신을 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천백배의 보복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고 말이요!》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놓고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시였다.

금강산발전소건설장에서 심철범의 전화가 걸려 온것은 바로 이때였다.

심철범은 총정치국 장령의 의견대로 갱막장에 갇힌 수백명 군인들의 영웅적소행에 대하여 보고한 다음 그 누구의 명령으로도 그들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는데 대하여 말씀 드리였다.

그의 말을 다 들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니》 하고 리국현의 전화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어조로 반문하시였다.

《나더러 명령하라는거겠소?》

《그렇습니다.》 하고 심철범이 계속하였다.

《혹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하시면 어떨지…》

그는 갑자기 말끝을 흐리였다. 그 순간 수화기에서 《음!》 하시는 그이의 음성을 들을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말을 끊은 심철범은 멀리 평양에서 들려 오는 그 음성에서 그이의 고통스러워 하시는 심중을 느끼였고 자기가 어린애처럼 부질없는 요구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이께서는 또다시 비데오의 화면을 볼 때와 같이 갱막장에 갇힌 군인들의 가족을 생각하시였고 우리 인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희생을 눈앞에 그려 보시였다. 한마디만 명령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할수도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

들과 안해들중 누구도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할수 있다.

0026호명령이 하달되였을 때 세계는 조선이 거액의 발전소건설자금, 자재, 설비지출은 불가능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와 몇명의 당 및 군사지도자들만이 알고 있는 또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의 근본리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액의 자금이였다. 그 일군들이 알고 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통강냉이에 소금국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손을 대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리라는것이였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사태발전과정을 결정하였다.

다른 사회제도에서는 돈을 주거나 또는 무기로 위협해도 사람들이 결코 해낼수 없는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능히 해내였다.

공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철근도 세멘트도 그것을 실어 나를 자동차도 연유도 심지어 정머리, 폭약과 도화선마저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얼마후에는 모든것이 풍족하였다. 그것은 우리 군인들이 자력갱생하여 이루어 놓은것이고 공사장을 전선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면서 보내준 결과에 이루어 진것이였다.

《모든것이 풍족하였다?》 하고 미래의 력사가들은 놀랍기도 하고 리해도 되지 않아 웨칠수 있다. 《제국주의의 봉쇄속에서, 기아의 위험에 직면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단 말인가?》 불과 2～3년후의 력사의 갈피속에서 그들은 인차 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것이였다. 그것은 나라가 자체의 자금과 기술과 자재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사실이였다.

군대와 인민이 발휘하고 있는 정치도덕적우월성뿐아니라 나라의 근본리익을 고수할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식이 그 어려운 시기에 의심할바없이 **김정일**동지께 인내력과 침착성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그 력사가들처럼 몇년후에는 모든것을 리해할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허리띠를 조인 인민이 오늘에 대하여 즐겁게 회상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희망속에 강심을 다지고 심철범의 전화에 말씀하시였다.

《0026호명령은 전진하라는 명령이였소. 그것은 시대와 사회주의 위업의 요구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였소! 누구도 그 명령을 취소할수도 어길수도 없는거요. 최고사령관도 병사도 말이요!》

말씀을 끝 마치는 순간에 그이의 얼굴에는 비장한 빛이 어리였다.

28

붕락에 묻혔던 19갱의 군인들은 구원되였다.

그러나 심철범은 유독성가스가 나온다는 전호진의 보고를 받았다.

또다시 엄중한 정황이 제기되였다.

심철범은 즉시 화학부장을 불러 그 가스를 검측할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19갱을 맡은 구분대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원 철수할것을 명령하였다.

송수화기를 놓으려는데 손가락이 경직이 와서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한참 신고해서 손가락을 펴니 땀이 물처럼 흘러 내렸다. 그는 맥을 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 앉으며 모자를 벗었다. 이마전에서도 땀이 줄줄 흘렀다.

(어찌할것인가?…)

유독성가스로 해명될 경우에는 하는수 없이 작업을 중지해야 했다. 수백명의 목숨을 놓고 모험할수는 없었다.

(마지막순간에 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심철범은 안절부절하다가 다시 화학부장을 찾았다.

《어떻게 됐소?》

《중장동지, 기술인원들을 태운 화학차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화학차가 도중에 정지 당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심철범은 성이 독같이 났다.

《그곳 병사들이 화학차를 가로 막고 돌아 가지 않으면 재미 적다고 위협하고 있답니다.》

《여보 상좌동무, 동문 대체 뭘하는 사람이요? 당장 그곳으로 나오시오.》

심철범은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송수화기를 던지듯 내려 놓았다. 그는 즉시 승용차를 타고 19갱쪽으로 달렸다. 화학부장의 말대로 19갱에서 몇백메터 떨어진 도로에 화학차가 서있었는데 수십명의 병사들이 차를 에워 싸고 있었다.

《여기서 뭣들 하고 있소?!》

장령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치자 그 병사들속의 유일한 군관인 애젊은 소위가 차렷구령을 내렸다.

《중장동지, 소대는 지금 휴식중에 있습니다. 소대장 소위 송진성.》

심철범은 이 애젊은 소대장이 남철이를 살리고 희생된 그 소대장의 후임이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휴식한다는게 지나가는 차는 왜 막는거야?》

장령의 어조는 거칠었다.

소위는 쭈밋거렸다.

《명령 받은 차를 가로 막으면 어떻게 된다는걸 몰라?》

《…》

《중장동지.》

병사들속에서 김남철이가 뛰여 나왔다. 이미 구면인 남철은 자기네 소대장보다 장령앞에서 더 당돌했다.

《한가지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말하오. 간단히!》

《19갱의 가스를 검측해서는 어쩌자는겁니까?》

《뭐라구?》

심철범의 누에 같은 짙은 눈섭이 꿈틀거렸다.

《가스가 유독성이라고 확인된다면 공사를 중지하자는겁니까?》

《…》

《공사를 중지하지 않을바에야 무엇때문에 검측을 한단 말입니까? 예, 중장동지?》

전사는 절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화학차를 가로 막았나?》

심철범은 마치 토론하는듯 한 어조로 반문했다.
《그렇습니다.》
《소대장！》 하고 장령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다.
《옛！》
《오늘부터 전사 김남철이를 2일간 작업정지처벌을 주시오！》
《예？！》
소위는 놀라며 장령을 쳐다보았다.
《들었는가？》
《알았습니다, 중장동지.》
이때 화학부장이 차를 타고 나타났다.
《화학부장동무, 동무가 직접 들어 가서 막장의 가스검측을 하시오.》
《알았습니다.》
화학부장은 화학차에 옮겨 타고 19갱으로 갔다.
건설의 폭음으로 소란스럽던 19갱이 자리 잡은 골안에는 10년만에 정적이 찾아 들었다.
19갱지휘부에 틀고 앉아 전체 인원들이 갱에서 나오는것을 확인한 심철범은 속을 옥죄이며 홀로 지휘부 좁은 방안을 왔다갔다 했다.
한시간만에 물참봉이 된 화학부장이 심철범앞에 나타났다.
《그래 어떻게 됐소, 상좌？》
《중장동지, 안되겠습니다.》
화학부장은 맥없이 대답했다.
《방사성가스입니다. 그 수치는 위험계선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뭐요？！》
심철범의 얼굴은 캄캄하게 질려 갔다.
반시간후에 19갱지휘부건물에서 나온 심철범은 구분대장에게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해빛을 받아서인지 힘없이 차에 올라 타는 그의 머리빛이 반백이 된것처럼 보였다. …

새벽 두시가 되였을무렵 정치위원 리완수가 심철범을 찾아 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움직일줄 모르는 심철범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책상옆 의자에 앉았다. 눈이 벌겋게 피진 심철범은 한참만에야 머리를 들고 정치위원을 보았다.

《19갱에서 우리 정치일군들이 저의 방으로 몰려 왔더군요.》

리완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

《작업을 계속할수 있게 해달라는거였습니다.》

《…》

《어찌나 끈질기게 달라붙는지. 허허…》

리완수는 빈웃음을 터뜨리며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래서 날 찾아 왔습니까?》

《아니, 아니지요. 답답해서 찾아 왔습니다. 그들도 나의 방에 답답해서 앉아들 있구요.》

심철범은 새삼스럽게 답답해 진듯 한숨을 쉬며 눈을 내리감았다.

《정치위원동무,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까?》 하며 심철범은 조용조용 노래를 불렀다.

태백산 험한 준령도 우리는 함께 넘었고
마라초향기 나누어 가며 고향을 그렸지
불 탄 집 뜨락에서 꽃나무 일으키며
영원히 이 불길 가시여 버리자
맹세를 다졌지

《전쟁때 나는 처음엔 겁쟁이였습니다. 탄알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지요. 그러다나니 첫전투에서 총도 한방 못 쏴봤습니다. 그런데 전투마감에 나와 함께 입대한 동무가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게 아니겠습니까. 동지의 피를 보는 순간에 정신이 훌 나가더군요. 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사들이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것

입니다. 이 공사에서 자기 전우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10년간 숱한 동지들이…》

《…》

《우리 병사들은 생사를 가리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휘관들이고 또 자식을 가진 아버지들입니다. 방사성에 감염되면 앞으로 그들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허용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령완수날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도를 찾아 봅시다.》 하고 말하는 심철범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날 새벽부터 해종일 심철범은 기술일군과 함께 지휘관회의를 진행했지만 신통한 대책안을 찾지 못하였다.

어두울무렵 회의를 휴회하려는데 직일관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중장동지, 당중앙위원회 허성렬부부장동지가 오셨습니다.》

《뭐요?》

심철범은 의아하여 자리에서 일어 섰다.

《지휘관동무들, 잠간 기다려 주시오.》

그는 정치위원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는 허성렬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부부장동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군님께서 보내시여 왔습니다.》

허성렬은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의 승용차를 따라 온 몇대의 군용화물차를 가리켰다.

《심철범동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참모부로부터 금강산발전소 물길굴의 마지막돌파전을 벌리고 있는 19갱에서 방사성가스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당에서 특수방독복과 방독면을 해결해 보내주라고 하시였습니다.》

《예?! 장군님께서…》

심철범은 목이 꺽 메여 와 뒤말을 잇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인민군군인들이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겠는데 당에서 잘 도와 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

저 멀리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심철범장령의 눈굽은 젖어 있었다.

장군님께서 걱정하실 일을 생각하여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 그였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 어느새 아시고 몸소 방독대책을 세워 주실줄이야!

《심철범동무, 빨리 현장으로 갑시다. 장군님께서는 19갱의 군인들이 방독복을 입고 안전하게 일을 하게 되였다는 보고를 기다리십니다.》

《예, 알았습니다.》

심철범은 리완수에게 회의에 모여 있는 지휘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허성렬의 차에 올랐다.

그들은 곧 19갱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직일관을 내놓고 갱밖에는 한명의 군인들도 없었다.

직일관 완장을 낀 상위는 갑자기 나타난 심철범을 보고 허둥거렸다.

《모두들 어디 갔소?》

《…》

《어디로 갔는가 묻지 않는가?》

《중장동지, 구분대는 지금 전투중입니다.》

《뭐요?!》

직일관의 그 말에 심철범도 허성렬이도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아침부텁니다.》

《그럼 하루종일?》

심철범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여 나왔다.

19갱지휘부에 들어 선 심철범은 송수화기를 들고 구분대장을 찾았다. 얼마후에 구분대장이 전화를 받았다.

《동무넨 거기서 뭘하고 있는가?》

장령의 노기띤 목소리에 지휘부건물이 흠칠흠칠 떠는것 같았다.
《…중장동지, 저어… 돌파전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구분대장은 처음엔 저어하다가 힘차게 대답했다.
《이봐 소좌, 동문 총살감이야. 명령을 어긴 죄로!》
분노한 심철범은 책상을 탕 치며 소리쳤다.
《누가 동무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가?》
《장령동지, 병사들이 스스로 뛰여 들었습니다. 저는 막을수 없었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와! 동문 지휘관 자격이 없어!》
《…》
《소좌, 들었는가?》
《장령동지, 못나가겠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야 총살을 당해도 당하겠습니다.》
《뭐라구?!》
심철범은 억이 막혀 입을 하 벌리고 얼굴을 부르르 떨었다.
《심철범동무.》
통화내용을 말없이 듣고 있던 허성렬이 젖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동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총살로 위협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장군님의 사랑이 담긴 특수방독복을 가지고 전투장으로 찾아 들어 갑시다.》
《예…》
심철범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대답하였다.

29

최고사령관동지의 제0026호명령이 하달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새벽에 붕락구간을 성과적으로 돌파하고 최후의 관통전투를 벌리고 있던 19갱의 군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알릴락말락하는 그 소리는 착암기소리가 약음기를 거쳐서 나

오는것처럼 들리는것이였다. 지하 수천척깊이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며 소리가 나는 경우는 많은 경우 붕락의 예후로 되는 법이다. 그러나 지금 그 이상한 소리에 놀라는 군인은 한명도 없었다. 그들은 묵묵히 그 어떤 환희를 예감하는것이였다.

몇분후 한 착암기의 정머리가 호박을 뚫듯 암벽을 푹 하고 뚫고 들어 가더니 파르르 떨며 공회전을 하였다. 그 착암기를 다루던 군인은 침착하게 착암기를 세우고 정대를 뽑은 다음 암반에 뚫린 구멍을 들여다 보았다. 푸르스름한 빛이 보이는 구멍안에서 갑자기 그의 눈앞으로 정머리가 불쑥 나왔는데 거기에는 연기가 몰몰 피여오르는 담배 한대가 가는 쇠줄로 비끄러 매여 져 있었다. 젊은 군인은 그 담배를 풀어 손에 들고 신기하게 들여다보더니 뒤로 자빠지듯 벌렁 누워 한모금 깊숙이 들이키는것이였다. 그리고는 히죽 웃으며 웨치였다.

《관통… 관통이다！》

그러자 막장은 미칠듯 한 환희로 들끓었다. 병사들이 버럭무지우에서 웃동을 벗어 제치고 춤을 추고 있는것이였다. 착암기를 한손으로 쳐들어 올리고 안전모를 벗어 공중에 던지며 그들은 기쁨과 흥분에 겨워 헐떡이며 고함을 쳤다.

《관통이다！》

《만세！》

…심철범은 막장지휘부에서 드디여 19갱이 관통되였다는 보고를 받고 리완수, 전호진 등 지휘관들과 함께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다.

19갱의 군인들과 그 반대쪽에서 굴진해 오던 군인들이 함께 대렬을 짓고 심철범을 맞이했다.

《부대 차렷！》

19갱을 맡은 려단의 려단장인 대좌가 한걸음 나서며 구령을 주었다.

《우로 봣！》

대좌는 석수를 차며 심철범을 향해 정보로 걸어 왔다.

《중장동지, 려단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제0026호명령을 제 기일내에 관철하여 오늘 열여섯시 현재로

19갱을 관통시켰습니다. 려단장…》

심철범은 그의 보고가 끝나기도전에 와락 달려 들어 그를 끌어안았다.

잇달아 보고하려는 다른 려단장도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정렬해 있는 두 려단의 군인들을 쭉 훑어 보고 나서 말했다.

《동지들! 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전체 동지들에게 감사를 줍니다.》

순간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하고 수백명 군인들이 웨치는 소리가 온 갱도안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어 《갱도열병식》이 진행되였다. 군악대가 부는 《유격대행진곡》에 맞추어 대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릎을 치는 석수를 차며 선두대오가 행진해 왔다.

맨 앞에는 려단장들이 서 있다. 19갱의 전 구간이 붕락된다고 어서 석비레모래를 쓰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던 그날이 어제 같다. 지나온 10여년은 얼마나 간고했던가. 아니다. 그보다 0026호명령관철을 위해 결사분투하던 그 나날들을 그 어디에 비길것인가.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철의 의지와 현명한 령도가 아니였더라면 오늘의 이 기쁨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그뒤로 대대를 이끌고 걸어 오는 대대장들의 얼굴들이 보인다. 가슴이 뜨거워 졌다. 방사성가스구간도 아랑곳 않고 뛰여 들었던 대대장들이다. 그들을 따라 서슴없이 한목숨을 내댄 병사대중이였다.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던 장군님의 혁명전사들이다. 얼마나 믿음직한가. 강철로 벼려 진 무적의 대오여!

대오는 만세를 힘차게 부르며 지나가고 있었다. 낯 익은 얼굴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발구름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철범은 숭엄한 마음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전사 김남철의 얼굴이 언뜻 눈에 띄웠다. 난관앞에 겁 먹고 공사장을 리탈하려던 그 신입병사가 무수한 죽음의 고비들을 이겨 넘기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영웅전사가 되였다.

(장하다, 전사 김남철, 더 힘차게 걸어라. 네가 석비레모래를

생각해 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빠질번 했는가. 너와 같은 병사들이 있어 우리 조선인민군이 위대한것이다！）하고 심철범은 속으로 웨쳤다.

두 려단의 구분대들이 다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군악대가 나팔을 불며 지나갔다.

그러나 심철범은 여전히 거수경례를 붙인채로 서 있었다. 그의 생각은 멀리 평양으로 달리였다. 물길굴이 드디여 관통되였다는 보고를 최고사령부에 올리고 나니 이 이채로운 《갱도열병식》을 최고사령관동지께 보여 드리고 싶은 강렬한 충동속에 자신을 잊고 서 있었다.

…

깊은 밤 천리마거리의 환하게 켜진 가로등밑으로 승용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차창밖으로 흘러 가는 수도의 밤거리를 내다보시였다. 이 밤에도 시민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분주히 걷는 사람들,《철야운행》표식판밑 전차정류소에 몰켜서있는 사람들모두가 서두르고 있었다.

이제 금강산발전소완공이 선포된다면 저들이 얼마나 기뻐 할것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1년전 심철범을 불러 금강산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어려운 결심을 말해 주던 일이며 나라가 대수해를 입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밀고 나갈데 대한 새로운 명령을 떨구던 일,심철범이 석비레모래문제로 하여 법적책임을 지게 되였던 일과 김동환의 당생활자료를 받고 그의 아들을 만나던 일을 돌이켜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변시키는 어려운 투쟁의 길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자신과 더불어 사상과 의지와 호흡을 같이 해준 유명무명의 군인건설자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벽에 안변땅에 이르시였다. 물길굴이 끝나서 락차를 이루는 곳이였다.

푸르스름한 미명속에 락차지점,준공을 앞둔 발전소의 흰 건물

이 보였다.

발전소건물앞 도로에는 몇명의 장령들과 지휘관들이 서 있었다. 심철범과 전호진, 리완수 등 공사장의 지도일군들이였다.

그들은 반달음쳐 차를 향해 마주 왔다.

김정일동지의 차가 멎어 섰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됐소! 됐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철범의 영접보고를 받으며 차에서 내리시였다.

《조용하시오, 병사들이 깨겠소.》

그러자 심철범은 관자노리에 붙였던 손을 내리워 바지혼솔에 대고 차렷자세를 취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두손을 끄당겨 덥석 잡으시였다. 그이의 목소리가 떨리였다.

《고맙소! 고맙소!…》

심철범은 물론 전호진이와 리완수도 그이께서 한사람한사람 손을 잡아 주시자 자기들의 마음이 끓고 있음을 느꼈으며 갑자기 오열이 터지려는것을 의식하였다. 그들의 뒤에는 관통된 물길굴이, 충진을 끝내고 청소까지 말끔히 해놓은 지하통로가, 자동차까지 씽씽 달릴수 있는 지하의 대도로가 있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심철범을 자신의 차에 태우며 다른 지휘관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뒤따르시오.》

자동차는 물길굴을 흘러 나온 물을 조절하여 락차시키기 위하여 건설한 조정지의 언제를 에돌아 아직 물을 채우지 않은 저수지바닥에 들어 섰다. 물길굴의 너렁청하고 시꺼먼 입구가 바라보였다. 그 입구로부터 검푸른 물이 출렁이며 흘러 나오고 있었다. 정식 취수를 하지 않았지만 석수가 모여서 흐르는 물이였다.

《다 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심철범은 운전사가 차를 세우기를 바라며 말씀 올렸다. 어째서인지 운전사는 그이를 뒤돌아 보고 차를 멈추었으나 발동은 끄지

않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물길굴을 바라보시며 아무 응답도 없으시였다.

심철범은 몇시간전 그이께서 오신다는 귀띔을 받은 때로부터 가슴 한구석을 불안으로 채웠던 그 일이 벌어 지리라는것을 예감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 내리셔야 합니다!》

그는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 올렸다.

《아니…》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지시하시였다.

《차를 모시오, 물길굴로!》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심철범은 다급히 말하며 운전사의 어깨를 꽉 잡았다.

《운전사동무, 차를 몰아서는 안되오!》

《일 없소, 심철범동무.》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하시였다.

《어서 들어 갑시다. 우리 군인들이 무엇때문에 이 굴을 뚫었겠소? 무엇때문에?》

《물론 최고사령관동지를 이 굴로 모신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는 병사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막으며 강렬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 없소. 그들이 피와 땀을 바친 곳인데 최고사령관이 응당 들어 가봐야 하오. 희생된 병사들의 유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나…》

심철범은 같은 말을 되뇌이고 나서 절망적으로 웨쳤다.

《위험합니다!》

그리고는 물길굴에는 가스방출구간이 있다는것과 그 가스가 유독성일수 있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 올렸다.

《차를 모시오! 운전사동무.》

그이의 단호한 음성이 차안에서 울렸다.

그러나 차는 떠나지 못하였다. 뒤따르던 장령들이 지금 차안에서 벌어 진 사태를 알아 차리고 차앞을 성벽처럼 막아 섰기때문이였다.

이러한 광경을 내다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하여 시선을 돌리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더니 손을 내밀어 운전사의 어깨너머로 조향륜의 경적기를 누르시였다. 연거퍼 울리는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장령들이 자동차앞에서 비켜 서자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다시 한번 단호히 되뇌이시였다.

《차를 모시오! 운전사동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리국현이 두팔을 벌려 차앞을 막아 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리국현은 그이더러 굴간에서 좀 더 안전할수 있는 군용승용차에 옮겨 타실것을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그이께서 옮겨 타신 바퀴가 높은 보위색의 승용차를 선두로 장령들이 나누어 탄 몇대의 같은 차들이 우중충한 굴속으로 들어 갔다.

자동차들은 밤길처럼 전조등을 켜고 달리였다. 강처럼 흐르는 물에 바퀴가 거의 잠기였다.

신비하고 무시무시한 지하의 정적을 깨뜨리는 자동차의 발동소리는 대형 확성기를 통해 증폭되여 들리는듯 굉음을 내고 있었는데 그 음파로 하여 사람도 자동차도 진동하는것 같았다.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가는 심철범은 시종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지하의 신비경도, 금방 충진을 끝낸 굴간의 위험도, 자동차의 바퀴까지 다 잠겨 버린 석수도 느끼지 못하시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오직 여기서 10년간 일했을 군인들의 모습만이 삼삼하시였던것이다.

석수에 떠내려 오는 하나의 나무토막도 콩크리트벽의 끄슬린 자리도 삐죽이 나온 철근에 걸려 있는 헝겊쪼박도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련관시켜 생각하시였다. 여기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언 몸을 녹였을가? 저 떠내려 오는 절두목은 무엇을 자른 나머지일가?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여기서 솜털이 보시시했던 어린 전사의 턱에 검실검실 턱수염이 자랐을것이고 그들의 청춘시절이 흘러 갔을것이 아닌가.

그이의 눈앞으로 량쪽 콩크리트벽에 붉은 뼁끼로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구호가 다가왔다.

오른쪽 벽에 새긴 《결사옹위！》라는 구호와 《결사관철！》이라는 왼쪽벽에 새긴 구호였다.

저 구호를 새긴 군인들앞에 고난과 역경,무시로 생명을 위협하는 시련의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어느 순간에 쏟아 져 내리는 돌사태에 깔리우게 될지 모르는 수백여개소의 수천메터에 달하는 붕락구간,수천척 지하막장안에 1년내내 가득 차 있는 가스와 돌가루먼지,쉼없이 쏟아 져 내리는 얼음장같이 찬 석수와 수시로 사품치며 터져 나오는 엄청난 땅속물… 아무리 담이 큰 사람도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끼치고 선뜻 그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위험한 곳에 우리 군인들은 조금도 주저 않고 뛰여 들었다.

지휘성원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웨치며 《군관돌격대》,《정치일군결사대》,《기술일군돌격대》를 뭇고 남 먼저 물이 허리 치는 막장에 뛰여 들어 30일,50일 지어 석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전투를 벌리며 공사를 지휘했다. 금강산발전소건설을 당앞에 책임졌다는 당적책임감을 안고 막장에서 1년 365일을 명절날, 휴식일도 없이 전투를 벌린 《365일지휘관》들, 《365일병사》들의 수를 천으로 만으로 헤아리겠는가！

지휘관들은 숨이 지는 순간까지 자기의 더운 피와 목숨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대오를 이끌었으며 병사들은 수시로 생명을 위협하는 가렬처절한 전투장에서 그대로 육탄이 되여 싸웠다. 그이의 눈앞에는 언젠가 보고 받으시였던 한 전사의 최후의 모습이 선하시였다.

수십메터 두께의 굴천정이 삽시에 무너져 앉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비켜라！》 하고 웨치며 번개같이 몸을 날려 동지를 밀쳐 살려내고 치명상을 입은채 쓰러진 나어린 전사,이윽하여 가까스

로 의식을 가다듬은 그는 한 전우의 손에 《완》자를, 또 다른 전우의 손에는 《공》자를 써서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드려 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런 전사들, 이런 군인들이 어찌 한두명만이겠는가!

뜻하지 않은 일로 경사굴을 따라 내려 꽂는 광차에 몸을 날려 수백명의 군인들을 구원한 어느 사관의 모습도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앞을 볼수 없는 몸으로 200여일간 막장을 뜨지 않고 초인간적인 헌신성을 발휘하여 줄곧 광차를 민 불사신의 전투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투대오를 떠나지 않은 수천명의 만기복무자들, 위훈을 세우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땀에 절은 입당청원서를 가슴속에만 소중히 품어 온 전사 그리고 불치의 병으로 숨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전투장에서 구령을 치고 착암기를 돌리며 메질을 하고 정대를 잡아 주던 지휘관들과 군인들!

긴장한 자재수송이 늦어 진다고 어깨에 멍이 들게 통나무를 메여다가 장마비에 패인 홈에 고이고 그우로 만재한 화물차를 통과시키던 그 모든 전사들, 그 모든 군인들이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당의 명령관철에 떨쳐나섰던 금강산발전소건설전투장의 용맹한 《사자》들이였으며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길에 한생을 바친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들이였으며 우리 시대의 참된 영웅들이였다.

변심을 모르는 일당백영웅전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전백승의 붉은기정신이야말로 우리 군인들의 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아니겠는가!

우리 군대, 나의 군대는 마침내 세계가 《80년대의 기적》이라고 했던 서해갑문건설의 근 2배에 달하는 금강산발전소건설의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바야흐로 완공을 할수 있게 하였다. 대형물길굴의 총 굴착량만 해도 수십만립방메터, 목재, 강재, 폭약만도 수십만톤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끝낼수 있게 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려고 《봉쇄》의 올가미를 조이고 있는 원쑤들과의 포성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갑자기 차행렬이 멈춰 섰다.

그이께서 또 하나의 구호앞에서 차를 멈추게 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리고 무릎까지 치는 물속에 서신채로 전조등에 비쳐 진 붉은 색갈의 글자를 한자한자 읽으시였다.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

그렇다. 조국은, 당은 병사들을 잊지 않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심철범이 자동차를 돌려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전조등빛이 지나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콩크리트담벽앞에 그냥 서계시였다. 마음속으로 그 구호를 거듭 새겨 읽으시면서 《고난의 행군》기간에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사상과 의지를 같이 해온 군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계시였다.

김정일동지께 있어서 눈앞에 다가온 금강산발전소 1계단공사의 완공은 실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것이였다.

바로 어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경비함사건》과 관련한 매우 느슨한 의장성명이 채택되였다. 우리를 《호전분자》라고 걸고 드는 내용이 거의다 빠진 이 성명은 떠들썩하던 세계여론(남조선당국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에 의하여 그렇게 된것이지만)을 누잦히는 계기로 될것이였다. 이러한 의장성명이 채택된것은 박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세가 악화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클린톤행정부가 유엔에 모종의 《압력》을 가한 결과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전에서 그들이 득세하고 보브 돌의 강경보수세력이 렬세에 빠졌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때 평화적건설에 참가한 인민군대가 대자연개조의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웠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 세계여론은 순식간에 변할것이며 우리를 《고립》하여 《질식》시키려는 불순계층들은 최후의 궁지에 몰리게 될것이였다. 이것은 1년전에 하달된 0026호명령의 전략적목표가 드디여 달성됐다는것을 의미했으며 《고난의 행군》에서의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지금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디찬 석수에 무릎까지 잠그고 서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로 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드리시는것이였다.

얼마후 굴밖으로 나와 조정지언제우에 올라 서신 그이께서는 언제밑에 줄 지어 선 수백명의 군인들을 보시였다. 그이의 자동차를 알아 보고 가까이에 주둔한 군인들이 달려 왔던것이다. 그들은 그이께서 언제우에 나타나시자 폭풍 같은 환호를 올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신 다음 굴안으로 같이 들어 갔던 장령들의 손을 다시 잡아 주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하시였다.

심철범이 먼저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이였다.

전호진이 그리고 리완수가 흑흑 소리내여 오열을 터뜨리였다.

10여년간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어혈이 졌던것인가.

좌절과 번민, 희생과 고통… 그것으로 하여 그들의 마음 한구석은 오죽이나 무거웠으랴. 그 어혈, 그 얼음장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녹여 주시는것이 아닌가. 그들은 서로 붙안고 눈물을 흘리였다.

《됐소, 됐소. …》 하고 그이께서는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전쟁과 같은 공사를 했는데 무슨 일인들 없었겠소. 그러나 이젠 그 모든 일이 뜨거운 추억으로 남게 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가슴에 걸리는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거요! 오진우동지랑…》

이때 언제아래에 줄을 지어 선 수백명의 군인들은 그이의 무릎까지 젖은 바지가랭이를 보고 울고 있었다. 지금 언제우에서 무슨 일이 벌어 지는지, 그이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피땀을 흘렸고 청춘시절을 바쳐 온 그 물길굴에 그이께서 들어 가 보시였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끓는 그들이였다. 끝없이 소박하고 끝없이 평범하며 끝없이 사랑스러운 조국의 아들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휴대용마이크를 들고 그들앞에 나서시였다.

《동지들! 나는 당의 명령을 받들고 금강산발전소 제1계단공사를 완공한 전체 병사, 군관, 장령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감사를 받은 그들은 군인의 례법대로 답례해야 했으나 그저 눈물을 흘리고 어깨를 들먹일뿐이였다. 그 어떤 환호도 함성도 없었다. 감격이 너무도 컸기때문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광경을 내려다 보며 연설을 하시였다.

《동지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 별다른 국가적보장도 없이 맨손으로 오로지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당의 명령을 관철하였습니다.

나는 방금 동지들이 굴간벽에 새겨 놓은 〈결사옹위〉, 〈결사관철〉이라는 구호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대의 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며 우리가 바라는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동지들이 쳐든 구호야말로 최대의 애국이며 최고의 충성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해놓은 일을 보면서 인민군대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는데서 선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는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전당, 전민의 귀감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게 될것입니다.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는 혁명군대가 있고 군대를 닮아 가는 로동계급과 인민이 있는 한 우리의 혁명위업은 백전백승할것입니다!》

연설은 짧았으나 군인대중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의도를 충분히 받아 들이였고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할수 있었다. …

같은 시각 **김정일**동지께서 안변땅에 오시였다는 소식이 전해 진 여기저기서는 기쁨의 눈물로 얼굴을 적신 군인들이 양지쪽 잔디밭으로, 등성이의 로송나무밑으로, 고지정점의 공지로 달려 가고 있었다.

거기에는 그들이 아침저녁으로 《눈물꽃》을 가져다 놓던 희생된 전우들의 묘소가 있었던것이다.

19갱의 김남철이도 중대군인들과 함께 김철종중대장과 문학수, 리광호분대장, 김학철소대장의 무덤을 찾았다.

《중대장동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중대장동지가 그렇게 바라던 완공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중대장동지—》

《분대장동지!》

《철삼아…》

여기저기서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 메인 소리가 들리였다.

얼마후 **김정일**동지께서 금강산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전체 군인건설자들을 수도 평양으로 불러 주시였다는 소식이 또다시 전해 지자 그들은 기쁨속에, 눈물속에 부르짖는것이였다.

《동무들, 일어 나라! 우리 함께 평양으로 가자!》

30

가을하늘은 가없이 높고 푸르렀다. 한달에 40일간 비가 내린다고 하던 이해 여름의 장마구름은 어디론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흩어진 쪼각구름조차 한점 없는 청청하늘이였다. 그 하늘밑으로 뻗은 도로의 량쪽 길섶에는 산뜻한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렸다. 그뒤의 산비탈에는 또한 울긋불긋한 단풍… 어데를 둘러 보아도 마음이 즐거워 지는 계절이였다.

수백대의 대렬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차들마다에는 훈장과 메달이 번쩍이는 가슴들을 쭉 내민 군인들이 가득가득 타고 있었다. 수도 평양으로 《입성》하는 《개선장군》들이였다.

세계가 들끓었다. 안변청년발전소(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롭게 명명해주시였다.) 1계단준공식이 진행된것이다.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 중국의 신화, 로씨야의 이따르—따스에 이어 프랑스, 영국, 도이칠란드, 카나다, 체스꼬, 슬로벤스꼬, 메히꼬, 인디아, 알제리, 파키스탄, 수리아, 에짚트, 뉴질랜드, 스웨리예, 남조선의 그리스도교방송, 문화방송… 세계의 모든 신문, 통신 방송이 일제히 떠들어 대는 가운데 미국의 CNN텔레비죤은 며칠전 안변에서 진행된 준공식소식을 화면에 비치면서 《안변땅에 타오른 제2의 보천보의 홰불》이라고 평하였다. 그렇다. **김정일**동지께서 예견하신대로 이 땅에 90년대의 《보천보의 홰불》이 타올랐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은 살아 있다, 조선은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았으며 결코 버리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실로 장엄한 선포였다. 경악과 공포, 불안과 절망, 열띤 론쟁, 연설, 성명, 지지자, 동정자들의 성

원,무수한 전문들… 이러한 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한 일정표를 짜놓고 그것을 강경고압로선의 표대로 쳐들고 있던 미국의 보브 돌에 대한 선거자들의 지지률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박두한 때에 와서 여지없이 폭락하였다.

조선은 승리하였다. 야조브원수는 모스크바에서 신문 《빠뜨리오뜨》에 낸 기사에 다음과 같이 썼다.

《안변땅에서의 승리는 제2차대전에서 붉은군대의 꾸르스크의 승리와 맞먹는다. 이제 평양의 하늘에 축포가 오를것이다. 조선인민군장병들은 〈개선장군〉으로 수도에 〈입성〉할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위훈이 세계적의의를 가지는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군인건설자들의 심정은 극히 소박하였다. 평양으로 가면서 그들이 눈앞에 그려 본것은 그리운 부모형제들과의 상봉,사랑하는 학우들과 선생님들과 나누게 될 회포,정다운 모교와 다정한 고향집창가에 다시 서게 될 기쁨,어머니가 차려 주는 식탁을 마주하게 될 즐거움,따끈한 아래목에서의 단잠 그리고 극장과 영화관으로 달려 가는것 등이였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내고 위훈으로 빛내이는 사회주의는 그들의 소박한 신념과 생활속에 있는것이였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 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려 총을 멘지 삼년석달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도
공 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공 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노라

자동차들마다에서 노래소리가 진동하였다. 마식령을 꿰지른 무지개동굴을 빠져 나오자 시작된 그 노래소리는 평양준평원에 들어 서면서 더욱 우렁차게 열정적으로 누리를 들었다 놓았다.

김남철이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앞가슴에는 금별메달이 빛났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떠나왔던 그길로 영웅이 되여 돌아 가고 있었다. 그의 소원은 아버지를 만나는것이였다. 아버지

의 용서를 받고 떳떳하게 자기집으로 들어 서는것이였다. 치욕을 들쓰고 정신없이 뛰여 내렸던 아빠트의 계단을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올라 가는것이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도 안기리라. 아,그 이상 더 큰 기쁨이 어데 있으랴.

멀리 주체사상탑의 붉은 봉화가 바라보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평양거리에 들어 설것이였다.

그 순간 김남철은 갑자기 이상한 향수에 마음이 젖어 들었다. 그것이 어데서,무엇때문에 오는것이였던가? 그것도 이 기쁜 날에? 길 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두손을 흔들어 축복해 주고 길가의 들꽃들도 승리자에 대한 축복으로 설레이는 이 행복한 순간에?

이무렵 《경비함사건》에 대한 소문이 한입 두입 건너 파다하게 퍼졌다. 그 소문이 남철의 귀에 들어 온것은 평양출발을 앞두고 잠 못들던 지난 밤이였다.

중대의 소식통인 평양내기 상등병이 그의 귀에 대고 한 말은 동해에서 우리 경비함이 적과 조우했을 때 전체 성원들이 자폭했다는것이였다. 남철은 흥분했다. 자폭이야말로 병사로서 그가 꿈꾸어 온 최후의 장식이였고 리상이였다. 거기에는 병사의 신념과 의지, 본분과 의무,맹세와 열정,영예와 영광이 있는것이였다. 그는 상등병과 이마를 맞대고 밤새 소곤거렸다. 그 자폭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였을가? 그들의 이름과 나이는? 고향과 부모들은? 그는 그저 자폭용사들에게 깊이 감동되여 있었고 너무도 크게 흥분해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나게 되리라는 꿈 같은 기쁨에 휩싸여 있을뿐이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갈마드는 향수는 무엇때문인가?…

꿈 같은 며칠이 흘렀다.

남철이네들은 수십만 수도시민들의 연도환영을 받았고 만수대언덕에 올라 어버이수령님 동상에 인사를 올리였으며 금수산기념궁전을 참관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남철은 기념촬영장에 나오신 **김정일**동지께 군인건설자들을 대표하여 꽃다발을 드리였다. 오늘 오후에는 수

도의 이름있는 각들과 식당들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의로 차린 연회에 참가하기로 되여 있었다. 사회주의수도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주었다. 남철은 영광과 감격의 선풍에 휩싸여 있었다.

오후 6시 남철이가 자기네 중대가 가기로 된 시내의 어느 식당으로 떠나려고 대렬에 들어 서려는데 눈에 익은 승용차가 숙소의 뜨락에 들어 섰다. 승용차에서는 정치위원 리완수가 내렸다. 그는 대렬을 세우고 있는 중대장에게 한두마디 무어라고 하더니 남철을 불러 냈다.

남철은 영문을 모르고 리완수의 차에 올라 탔다. 그는 의혹과 기대, 긴장감으로 하여 자기가 어느 거리를 지나왔는지 몰랐다. 차에서 내리니 장령의 군사칭호가 한급 더 올라 간 심철범상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새 령장이 석양에 금빛으로 번쩍했다.

남철은 리완수와 함께 오면서 그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읽으려고 애 썼다. 그러나 리완수는 앞좌석에 꿋꿋이 앉은채 한번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다. 차에 오른 첫 순간에 어디 아픈데가 없는가고 물었을뿐이다.

리완수가 심철범앞에 서서 거수경례를 하고 도착보고를 하자 장령은 그의 뒤에 선 남철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 현관안으로 들어 가는것이였다. 남철은 병사에 지나지 않은 자기를 데리러 온것이 정치위원이고 보면 틀림없이 심철범상장이 불렀으리라고 짐작했다. 석비레모래를 발견했을 때와 궐기모임때 몇번 정치위원이 와서 심철범앞으로 그를 불러 간적이 있었던것이다. 그럴 때면 장령은 앉은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하군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장령자신이 현관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했고 어디론가 안내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가?

심철범을 따라 그들이 들어 간 방은 어느 한 연회장의 휴계실이였다. 방은 크지 않았으나 우아했다. 쏘파와 앞탁, 차대들이 규모있게 놓여 있었고 산수화가 한쪽벽을 차지했다. 그러나 남철은 그런것에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고 두 상급의 표정만을 번갈아 살피였다. 그들과 함께 류다른 장소에 있게 된것이 병사인 그로서

는 도무지 리해할수 없는 일이였다.

방에는 그들 세사람뿐이였다.

남철이를 가운데 놓고 두 상급이 량옆에 앉았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남철은 리완수쪽으로 더 많이 시선을 보냈다. 심철범보다는 그가 더 가까운 상급이였으므로 그에게서 무언가 알아 내고 싶었던것이다.

남철의 시선을 받은 리완수도 남철이를 데리고 몇시까지 이곳으로 오라는 장령의 지시를 받았을뿐 더 아는것이 없었다. 그가 아는것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 시내의 각들과 식당들에서와 거의 같은 시각에 당과 국가의 간부들과 고위장령들의 참가하에 안변청년발전소 1계단준공을 경축하는 연회가 있다는 사실뿐이였다. 이 연회에는 관리국적으로 심철범외에 그와 전호진 두사람이 참가하게 되여 있다. 지금 그의 앞주머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리완수는 남철이 못지 않게 궁금하여 그의 어깨너머로 심철범장령의 표정을 힐끗 살피군 했다. 심철범은 묵묵히 상념에 잠겨 있는듯 했다. 표정은 별로 엄숙하고도 숙연해 보였다. 그는 차대우에 놓여 있는 담배갑을 집어 앞뒤로 굴리고 있었다. 미구에 담배 한대를 뽑아 탐스럽게 냄새를 들이키더니 도로 갑에 밀어 넣은 다음 차대우에 놓았다. 그리고는 손목시계를 한참 들여다 보았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것이 분명했다. 시계는 지금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윽고 몸을 움씰하며 무슨 말인가 하려고 이쪽을 돌아 보았다.

이날 오전 기념촬영이 끝난 다음 **김정일**동지께서 그를 따로 부르시였다.

《심철범동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여 있습니까?》

《예, 오후 6시부터 연회가 있게 되고 그것이 끝난 다음 외출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하루밤 가족, 친척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이께서는 확인하듯 반문하고 나서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김남철이를 만나겠습니다.》

《예?》

심철범은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아까 그 동무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순간에 그의 아버

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철범동무도 〈경비함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철범은 금시 엄숙한 자세를 지었다.

《그 동문 오늘 밤 아버지가 없는 집으로 가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았으니 그는 불안과 의혹속에서 하루밤을 뜬 눈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알려 주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맡길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심철범은 그저 뜨거운것을 삼키고 있었다.

《우리의 귀중한 병사들이 만나게 될 가족이나 친척들중에서도 무슨 불행이나 변고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출을 시키지 않은것만 못할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지휘관이 병사들과 동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면 슬픔을 같이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심철범은 그이의 당부에 규정의 요구대로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친어버이가 되시여 매 병사들의 신상을 돌봐 주기 위해 왼심을 쓰시는 그 모습에서 이 며칠간 군인건설자들에게 베풀어 지는 꿈과도 같은 환대의 진면모를 비로소 알게 되는듯 하여 가슴이 마냥 달아 올랐다.

병사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은 《대통령급》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표창소나기에 몸을 적시고 있었다. 최고사령관의 전신감사, 안변청년발전소기념메달과 기념주화, 국가수훈과 표창, 선물, 꽃보라, 환호에 환호… 이 모든것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발기하고 조직하고 지휘하신것이였다. 군인들을 웃고 울게 한 그 모든 사랑의 세부들에는 그이의 한량없는 관심이 미치고 있는것이다.

《남철동무.》

심철범은 드디여 입을 열었다. 이제 곧 **김정일**동지께서 들어 서실것이다. 그이에 앞서 남철에게 무엇인가 말해 주어야 하며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했다.

《옛!》

남철은 상관의 부름소리에 규정대로 벌떡 일어 섰다. 그리고 장령의 류다른 눈길에 흠칫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불의에 덮쳐 든 해일처럼 온몸을 휩싸는것을 느꼈다.

《마음을 든든히 가지시오!》

장령의 목소리는 속삭임과도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남철은 금방 몸을 흠칫 떨었으나 그 말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장령이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마음을 든든히 가지시오. 알겠소, 남철동무?》

《알았습니다.》

남철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아마 그는 장령의 말을 그 어떤 명령으로 받아 들인듯 했다.

심철범은 《동무는 이제…》 하고 말하려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이제 여기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신단 말이요.》

남철은 이 순간 가슴이 터질듯 한 환희를 느꼈다.

바로 그때에 **김정일**동지께서 들어 서시였다.

벌떡 일어 선 남철은 그이께 어떻게 인사를 올렸으며 그이의 손에 이끌리여 어떻게 자리에 앉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비통한 소식을 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아버지의 최후에 대하여 슬픈 어조로 매우 세세히 말씀하시였다.

남철은 고막이 윙 울리고 가슴이 내려 앉는 공허를 느꼈을뿐 이러한 순간에 흔히 있게 되는 비명도 오열도 터뜨리지 않았다. 바다에는 무서운 풍랑이 일고 있으나 자신은 방파제뒤에 앉아 있는듯한 느낌이였다. 번개, 우뢰, 파도… 분명 천지는 진동하고 있으나 그의 마음은 이상스레 평온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슬픈 어조가, 그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남철의 슬픔을 대신해 주었는가. 그렇다. 지금 남철의 바로 곁에는 눈물이 가장 많으신분이 앉아 계시였다. 전사들의 희생에 대하여 가장 가슴 아파 하시는분이, 그 일때문에 근 100일째 남 모르게 밤잠을 못 이루시는분이, 그러면서도 유가족들의 슬픔을 막아 주기 위해 누구보다 마음 쓰시는 가장 위대한분이

앉아 계시였다.

《고맙소, 고맙소…》

그이께서는 남철이가 슬픔을 참고 견디자 팔결이너머로 그의 손을 당겨 쥐고 한참 쓸어 주시였다. 이윽고 대동하고 들어 오는 고위장령들을 둘러 보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군인건설자들을 평양에서 맞이하고 보니 희생된 경비함영웅들 생각이 더 납니다. 단 한명이라도 살아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당이, 전체 인민이 그들을 안아 줄것입니다. 나는 오전에 기념사진을 찍으면서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만나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생각하니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온 수도가 떨쳐나서 건설의 영웅들을 환영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적구에서 돌아 오지 못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심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다시 남철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남철동무, 동무는 아버지가 받아야 할 환영도 받고 있는셈이요. 나는 지금 동무의 아버지를 만난 심정이요. 어디 봅시다. 이리 가까이 오라구!》

남철은 갑자기 불뭉치를 삼킨것처럼 가슴이 확 달아 올랐다. 눈굽이 뜨끔해 지며 금시 눈물이 쏟아 질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비보를 들은 순간에도 참아 냈던 그 눈물이 참을수 없이 쏟아지려 했다.

이때 심철범이 일어 나서 굳어 진듯 앉아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 **김정일**동지의 앞에 내세워 주었다. 그의 눈굽도 축축히 젖은듯 했다. 그는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수도의 환대가 왜 그처럼 성대하고 열렬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남철의 등뒤에서 그이를 우러러 보았다. 방안에는 수도의 거리에 넘치는 환영의 열풍이 그대로 옮겨진듯 뜨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쏘파에서 몸을 일으켜 남철을 껴안을듯 하고 그의 금별메달이며 훈장들을 하나하나 만져 보고 계시였다.

(김동환동무가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자문하며 그 답변을 찾듯 남철이를 품에서 놓고 방 한가운데로 나서서 허공으로 시선을 던지시였다.

이윽고 누구에게라 없이 혼자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의 최후에 대한 록화자료들을 보았소. 그것은 몇순간이였소. 그는 이 짧은 순간에 병사의 제식동작처럼 행동했소. 필림을 봐서는 그의 표정도 생각도 결의도… 념원도 알수 없었소. 그러나 조국과 인민, 사랑하는 모든것과 리별하면서 목석처럼 그저 떠나갔겠는가. 그는 최후에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또다시 자문하시면서 이번에는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그이의 눈길에는 뜨거운 열망이 깃들어 있었다. 장령들은 묵묵히 그이의 말씀을 기다릴뿐이였다.

《나는 줄곧 그것을 생각했소. 그의 희생이 애석하면 할수록 못견디게 그의 마지막생각을 알고 싶었소. 하지만 록화필림을 몇번이고 곱씹어 봐도 거기에는 그 어떤 시사도 없었소!》

그이께서는 별안간 말씀을 끊고 남철이를 방 한가운데로 이끌어 내더니 그의 손을 잡아 허공중에 쳐드시였다. 그리고 열정적인 어조로 단언하듯 계속하시였다.

《그러나 나는 알수 있소. 알구말구. 그는 최후의 순간에 아들을, 그가 참다운 군인정신의 체현자가 되기를 희망했을거요. 영웅이 되기를 바랐을거란 말이요!》

그이께서는 공중에 쳐드시였던 남철의 손을 놓고 그의 주위를 천천히 거니시며 침착한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남철은 여직 울음을 삼키며 그이께서 거니시는데 따라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소. 군인정신이야말로 참다운 시대정신이며 당이, 최고사령관이 바라는것이기때문이요.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정신이요. 그는 아들이 그 정신으로 살기를 바랐소. 그렇소.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나는 그의 마음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소. 그는 시대가 바라는 곳에, 우리가 바라는 곳에 최후의 소원을 두었을거요. 그건 틀림 없소! 동환이… 그가 누구라구…》

그이의 목소리가 떠듬거리더니 뚝 멎었다. 남철은 말씀을 끊고 새하얀 손수건으로 눈굽을 누르고 계시는 그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귀전에 회오리가 이는듯 하더니 아버지가 지

은 노래구절이 빠르게 틀어 놓은 록음기에서처럼 획획 지나갔다. 그 순간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무너지듯 주저 앉아 참아 오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그것이 너무도 급작스럽고 세찬것이여서 장령들은 어쩔줄 몰라 했다. 심철범과 리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기까지 했다.

《놔두시오！》

김정일동지께서 조용히 이르시며 그의 슬픔, 그의 울음을 지켜주기라도 하시려는듯 곁에 다가가 서시였다.

《실컷 울게 놔둡시다！》

그이께서는 병사의 오르내리는 어깨에 시선을 주신채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이때 심철범은 또다시 눈굽이 젖어 들었다. 남철에게 아버지의 비보를 직접 알려 주겠다고 하신 **김정일**동지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상등병 김남철, 울지 말아. 너의 뒤에는 더 큰 아버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애로운 인간이 서계신다. 너는 벌써 그 품속에서 시대의 영웅이 되지 않았느냐. 너의 금별은 영원히 빛나리라. …

《자, 그만하라구！ 남철이…》

김정일동지의 목소리에 심철범은 생각에서 깨여 났다.

그이께서 남철이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눈에 대였던 그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계시였다. 남철은 어찌된 일인지 어려움도 잊고 눈물로 즐벅해 진 얼굴을 그이께 내맡기고 있었다.

《내가 이제부터 남철의 아버지요, 친아버지—》

그이의 갈리였으나 다정하신 음성.

《아버지—》

남철의 열 띤 부르짖음.

전사와 최고사령관의 포옹, 혈육의 포옹이 오래도록 계속되였다.

그다음 최고사령관과 전사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무얼 제기할게 없느냐？》

《없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아버지로서 묻는거다.》

《없습니다, 아버지.》

《왜 없겠느냐? 아버지라면서.》

《희생된 우리 중대장동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

《음, 네 심정을 알만 하다. 그 애의 친아버지로 돼달란 말이지. 암, 그렇구말구.》

김정일동지께서 마치 남철의 얼굴을 처음 보기라도 하듯 찬찬히 들여다 보신다. 그는 어떤 병사인가?

남철이, 남철이… 순간 그에게서 자신을 보는듯 하시였다. 오늘의 승리가 아무리 크고 소중해도 그 승리를 위해 희생된 전사들을 잊지 못하시는 그이이시였다.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 인민들때문에 노상 마음을 쓰시는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록화자료를 보던 때를 상기하시였다. 물길굴에서 희생된 전사들의 넋앞에 걸음을 멈추던 일을 다시 돌이켜 보시였다. 그들이 남긴 안해와 아이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상실을 무엇으로 메꾸어 주어야 했던가… 지금 남철이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이께서는 그러한 남철이가 끝없이 고맙고 대견하시였다.

그이의 눈빛이 펑끗 하고 빛났다. 그이께서는 시선을 돌리여 장령들을 바라보시였다.

《보시오. 우리의 병사들이 어떤 병사들인가. 그들은 의리를 귀중히 여길줄 아는 병사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이께서는 장령들앞으로 한발 나서시였다. 그러나 시선은 그들의 등뒤 벽화의 아늑한 산발에 가 있었다. 조국의 천리방선을 지켜선 병사들, 자신과 사상과 의지, 감정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는 끝없이 미더웁고 자랑스러운 수십만 초병들을 생각하시는가.

이번에는 뢰성과 같은 음성이 터졌다.

《우리와 사상과 감정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군대를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없소. 적들이 무엇을 모르는가. 우리 군대에 **김정일**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수만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소. 천만의 **김정일**이 있다는것을! 하하하!》

김정일동지께서는 크게 웃으시였다. 통쾌하고 호걸스러운 웃음이시였다. 장령들은 저도 모르게 일어 서서 일제히 박수를 쳤다.

여기에 모인 장령들치고 김남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모두 **김정일**장군형의 군인이 되자, 사상도 의지도 풍모도 **김정일**장군님을 닮자. … 그의 말은 전군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장령들은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철이가 한 말을 상기하였고 사상과 의지, 풍모의 일체가 된 전군을 보았고 깨뜨릴수 없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를 보았다.

그들은 격동과 환희, 무적의 힘을 온몸에 느끼며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남철에게로 시선을 보내시였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의지가 낳은 또 하나의 산아를 다시금 보시였다. 그렇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였다. 남철은 동환이를 꼭 닮았다. 미중앙정보국이 조선의 《종말》을 예측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든것이 《**김정일**령도자가 **김일성**주석이 가질수 있었던 핵심팀을 더는 가질수 없을것》이라고 한것이였다. 놈들은 오산했다. 오진우, 최광, 김동환, 김철종… 그들은 갔어도 후대는 굳건히 이어 지고 있다. 충실성의 전통은 무성하는 숲처럼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떠나간 오중흡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전군의 모든 련대들에 이어 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로 되였다. 이 힘을 이길자는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

장령들의 박수가 끝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철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였다.

《남철동무,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오자고 하오. 적들은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을거요. 그렇소. 그들은 우리를 당하지 못할것이요. 우리는 이미 판문점대표부를 통해서 만일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보복할것이라는것을 통고했소. 지금 그들은 우리의 의지를 가늠해 보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만 우리의 영웅들은 반드시 돌아 올것이요!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혁명정신은 우리 군대의 대오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거요! 그러니 저녁에 집으로 가면 어머니를 잘 위로해 드리시오.》

남철은 말없이 구두뒤축을 딱 소리가 나게 모아 붙이며 바지혼솔에 두손을 가져다 대였다. 그 동작이 어찌나 탄력이 있었던

지 수만마디의 대답소리보다 더 힘 있고 믿음직하게 보였다.

《자, 연회장으로 나갑시다. 우리 영웅들의 넋을 위하여, 그들의 영생을 바라며 잔을 듭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령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문쪽으로 힘 있게 걸음을 떼시였다.

31

평양의 거리들이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환영의 꽃물결로 설레던 그때 최중권장령은 전선동부의 한 야전지휘소에 있었다.

전선동부를 포괄하여 군사분계선일대의 전 전선은 매우 긴장되여 있었다. 판문점에서 우리측 대표가 보복선언을 한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의 모든 무력을 전진배치하고 초경계태세에 들어 갔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측도 전투진지를 차지했다. 전선의 긴장성은 어제 평양에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인건설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기 몇시간전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하여 더욱 팽팽해졌다.

전선동부 무명고지정점으로부터 정남쪽 직선 8키로메터 되는 지점에서 수십만의 포위를 뚫고 북상하던 2명의 우리측 경비함성원들이 자폭하였다. 이들은 그때까지 살아 남아 있던 최후의 두명이였다. 투항하라는 적들의 요구를 들을수 없었던 그들은 50메터의 절벽에서 뛰여 내려 자신의 몸을 박산내는것으로써 대답하였다. 그들의 죽음은 적들에 의한 타살이였다. 적들은 끝까지 그들을 침투간첩으로 치부하면서 투항을 강요하였던것이다. 간첩도 아니요, 투항도 할수 없었던 우리 군인들이 과연 죽음외에 다른 무슨 길을 택할수 있었겠는가. 이 소식이 적들의 화선방송을 통해 우리 군인들에게 전해 지자 전선은 증오와 격분, 복수의 일념으로 불 타올랐다.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리고 그것이 거대한 폭발로 번져 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최중권장령은 평양의 소식에 귀를 기울일 형

편이 못되였다. 전선형편이 그렇지 않다면야 그는 텔레비죤앞에 앉아서 수도의 환영을 받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바라보았으리라. 그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심철범장령에게 인계하였으나 하루 한시도 그것을 잊은적이 없었다. 그는 그 공사의 전략적의의가 명백해진 때에 지휘권을 넘겨 주었다. 넘겨 주었다기보다 내놓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는 최고사령부에서 보낸 직승기를 타고 오면서 건설지휘에 대한 자신의 무능을 통탄했었다. 자책과 번민은 일흔을 눈앞에 둔 나이때문에 더했다. 그는 소환되는 자기에게 최고사령부가 직승기를 보내준데서 어느 정도의 위안을 받긴 했으나 제대라는 어쩔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고사령부에서 그를 맞이하신분은 뜻밖에도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중권에게 전선동부의 군부대를 맡겨 주시였고 상장으로부터 대장으로 승격시켜 주시였다. 이 놀랄만한 영전속에서도 그는 철령산줄기의 물길굴을 잊지 않았다. 자기가 내놓고 온 거기서 군인건설자들이 한치한치 조국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것을 그가 어찌 한시인들 잊을수 있었으랴. 드디여 그 공사가 완공된것이다.

하지만 최중권은 지금 그 기쁨을 누릴 경황이 못되였다. 그는 거의 반세기간 군복을 입고 있는 오랜 군사일군의 감각으로 자기의 관할구역에서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 지리라는것을 느끼고 있었다. 만일 그 느낌이 현실로 된다면 운명은 그를 안변땅과 다시 련결시켜 놓게 될것이다.

사실 이때 안변땅에서 있은 장엄한 선포의 연장선우에서 미국에서는 모종의 음모, 음모라기보다 빌 클린톤과 보브 돌 두 대통령경쟁세력, 다시 말해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합세한 대대적인 국론이 벌어 지고 있었다.

안변땅의 소식은 일찌기 야조브원수가 자기의 일기에 썼던것처럼 조선에서 핵시험을 한것만치나 큰 충격을 주었다. 적들은 조선의 잠재력,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파국상》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나라,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에 큰 물길굴에 쏟아 부을만 한 막대한 자금과 자재가 있었을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은 《지하핵의혹》에 못지 않는 《지하경제의혹》이였다.

여기로부터 서로 앙앙불락하던 강경파와 온건파들은 잠시 조선문제에서 의견을 합치기로 하였다. 조선은 미국에 도전하였다. 조선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자기의 의지를 시위하였다. 판문점에서 울려 나오는 보복설이 과연 공담이겠는가. 최후의 시험을 해보자. 결판을 지어 보자.… 이러한 토의끝에 적들은 극비밀리에 《마운트웨저》를 개방하였다.

미국 버지니아주에는 지도에서는 찾을수 없는 이름 모를 고장이 있다. 수도 워싱톤으로부터 7.2키로메터 떨어진 이 고장은 지명도 없거니와 정부예산지출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다. 이 신비로운 고장에 《마운트웨저》(기상산)라는 이름을 달아 놓았는데 이곳은 미국이 일단 전쟁에 들어 가는 경우 지하수도의 사명을 수행한다. 아이젠하워집권시기인 1958년에 건설된 이래 한번도 개방한적이 없다는 이곳을 개방했을 때에야 적들도 최후대결을 해볼 심산이 아니겠는가. 분명 모종의 도발,서로의 생사를 판가름하게 될 그러한 도화선에 불이 달린것이였다.

물론 최중권대장은 극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적들의 음모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였다. 상급참모부의 통보도 없었다. 적들은 저들 모략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모양이였다. 하지만 최중권장령은 느끼고 있었다. 피부로,육감으로 어떠한 도발이 있으리라는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38경비대시기부터 전쟁시기,전후의 수십년간을 1211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선동부에서 군사복무를 해오고 있었다. 100리전선의 풀 한포기,나무 한그루,바위 하나도 그가 모르는것이 없었다. 강과 골짜기,고지와 비탈,갱도와 포진지,화점과 철조망 등 방어시설물들을 그는 손금 보듯 하고 있었다. 그 모든것은 그의 육체의 한 부분,피부의 한쪼각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자기 전선에서 벌어 지는 모든 일들과 예견되는 징후에 대하여 자기 몸에서 벌어 지는 일처럼 빤히 알고 또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다. 뿐아니라 그 모든 정황에 대하여 상급참모부의 지시가 없어도 독자적인 판단

과 결심에 의하여 능숙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찌기 38경비대시절에는 분대장, 전쟁시기에는 중대장, 그후 체계적으로 군단참모장까지 하였으며 1948년도 남조선청룡부대의 양양의 설악산도발사건과 1952년 아이젠하워의 《신공세》 등 크고 작은 무수한 도발에 맞서 온 그의 군사적능력은 거의 본능적인것이였다. 그에게 중요한것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수십년의 기나긴 세월 순간의 해이도 없이 군사임무를 수행해 온 로병으로서의 성실성,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기개가 중요한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그 점을 귀중하게 보시였다. 그를 한 전선의 군부대 사령관으로 파견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최중권동무와 같은 전쟁시기 1211고지에서 싸운 로병이 필요하다, 전선동부는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시였다. 그런데 그는 모두가 공인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평가하신 자기의 장점을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았고 느끼지도 못했으며 그저 군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것을 갖추고 있을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선동부를 믿는다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만은 깊이 명심하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얼마전까지 락동강전투영웅인 김상오장령이 전선동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말밖에는 듣지 않던 충실한 동무였습니다. 그런 동무가 병으로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동무도 락동강전투에 참가하고 특히 1211고지에서 싸운 로병이 아닙니까. 난 전선동부를 믿겠습니다.》

김상오는 그의 선임자이며 병사시절의 상관이였다. 그는 락동강전투에 참가하여 영웅이 되였으며 1211고지방어전투에서도 영웅대대장으로 명성을 떨치였다. 호랑이와도 같은 싸움군으로서 모든 전투에서 패배를 모르는 승리자였다. 그후 련대, 사단, 군단을 지휘하면서 전쟁세대의 믿음직한 대표자로 되였다. 1211고지가 자리 잡고 있는 전선은 항일전쟁의 참가자인 최현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이름과도 련결되여 있었다. 그는 **김정일**동지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을 받아 왔다.

최중권은 자기를 임명하면서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쟁세대인 로병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였다.

전선동부, 전선의 길이만 해도 수백리, 작전구역도 수천평방키로메터, 거기에 비하면 신장 175센치메터의 자기의 몸은 몇만분의 하나라도 되지 않았다. 그러한 자기가 수많은 전쟁영웅들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는 방대한 전선을 지켜야 했다.

이 밤도 그는 야전지휘소에서 밝히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런 정황도 없었다. 포대경이 설치된 감시창으로 푸름푸름 려명이 흘러들고 있었다. 장령은 야전용의자에서 몸을 일구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침 5시 10분전이였다. 그는 감시창으로 다가가 포대경을 들여다 보았다.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은데다가 산골짜기마다 안개가 끼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전선은 고요하였다. 어찌된 일인지 새벽부터 벅적대던 적들의 확성기조차 잠잠하였다.

이 시각 다섯명의 우리 군인들이 1렬종대로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250호 근방에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대장과 분대장, 두명의 사관과 한명의 전사였다.

앞에서 걸어 가던 분대장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리였다. 맨 뒤에서 따라 오던 소대장이 앞에 대고 낮은 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오?》

《표식물이 없어 졌습니다!》

《없어 지다니?!》

소대장이 다급히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분대장의 말대로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250호가 없어 졌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두명의 사관과 한명의 전사에게 선 자리에서 적을 감시하게 하고는 분대장과 함께 지뢰원을 주의하면서 없어 진 표식물을 찾기 시작했다. 표식물은 없어 진 위치에서 5메터가량 떨어 진 우리측 지역에 들어 와 번호를 써놓은 대밑까지 꽉 박혀 있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표식물을 옮겨 놓은것이 분명했다. 적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비무장지대안에 들어 와 이러한 엄청난 《장난》을 할 사람이 적이 아니고 또 누가 있겠는가?

다섯명의 우리 군인들은 바싹 긴장했다. 그들은 메고 있던 자

동보총을 벗어 들고 전투태세를 취하는 한편 사태의 진상을 하나하나 밝혀 보기 시작했다. 표식물은 그들이 걸어 가던 순찰로의 북쪽 5메터 지점에 있었다. 그러니 그 표식물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순찰로는 적측 지역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군인들이 만일 본래의 순찰로를 따라 계속 전진한다면 적들의 지역을 《침범》하는것으로 되며 표식물이 세워 진 북쪽을 우회한다면 5메터의 우리의 땅을 양보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전진이냐? 우회냐? 지키느냐? 내주느냐? 적들은 바로 우리 군인들의 의지와 결심을 시험해 보려는것이였다. 사태의 진상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하고 소대장은 마음속으로 뇌이며 명령을 하달하였다. 《계속 전진! 동무들, 날 따랏!》

단호하고 지체 없는 명령이였다. 소대장은 손에 무선전화기를 들고 있었으나 상급에 전화를 걸어 자기의 결심을 문의할 사이도 없었다. 조국의 촌토가 순간이라도 짓밟히고 있는 이상 문의고 뭐고 할것이 없는것이다.

그는 대원들을 이끌고 순찰로를 따라 계속 전진해 나갔다. 적의 총구가 자기들을 겨누고 있으리라는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군인들은 등골이 오싹해 지는것을 느끼지도 못했다. 군인의 신념과 의지, 의무감만이 그들의 온몸을 활활 불 태웠다.

훤히 밝은 덤불속에서 삐죽삐죽 내밀고 있는 90미리 무반동포와 12.7미리 대구경기관총 등 적의 총구가 눈에 띄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너머에서 이 모략사건을 위해 남조선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륙해공군참모총장 등 120명의 《전군주요지휘관》들이 다 모여 있으며 전방부대는 물론 해외에서 날아든 미제의 추격습격기편대들과 남조선강점 미공군, 남조선공군소속 800여대이상의 전투폭격기, 습격기, 관측기들이 투입되고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지하백악관인 《마운트웨저》에서 미군총사령관 클린톤의 위임을 받은 강경보수세력 두목중의 하나인 합동참모본부부의장 등 미군수뇌들이 각급 참모부들을 거쳐 오는 보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군사분계선우에 떠 있는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자기들의 일거일동을 직접 지켜 보고 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다섯명

의 우리 군인들은 계속 걸어 가고 있었다. 열병식을 하듯 보무당당히 조국의 성스런 촌토에 발자국을 찍어 가고 있었다. 드디여 적의 총포탄이 그들을 쓸어 눕히기 시작했다.

불과 1～2분후에 전화보고가 들어 왔다. 군부대 작전방향에서 직속상관인 작전부장이나 참모장을 거치지 않고 사령관인 최중권에게 직접 전해 온 보고는 매우 갑작스럽고 무거운것이였다. 무겁다는것은 정황처리를 하기가 힘들다는것을 의미했다.

이 보고가 있기 방금전에 최중권은 총참모부의 통보를 받았다. 거기에는 분계선일대에서 모종의 도발사건이 예견된다는데 대해서와 그의 군사정치적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되여 있었다. 지어는 예견되는 도발사건에 대한 모의가 미극동군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나 워싱톤의 펜타곤이 아니라 《마운트웨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까지 밝혀 져 있었다. 통보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문구로 끝나고 있었다.

《우리가 〈고립〉과 〈봉쇄〉속에서도 안변청년발전소와 같은 사회주의적창조물을 일떠세운데서 공포와 전률을 느낀 적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시험해 보려 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것이며 우리 군대는 그것을 끝까지 지킬것이다. 〈경비함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보복의지가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각급 참모부들과 지휘관들은 적들의 그 어떠한 도발도 우리의 사회주의운명과 관련되여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최중권에게는 모든것이 명백했다.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놈들은 한개 전선에서뿐아니라 분계선 전 지역에서 우리와의 전면전쟁도 불사하려 하고 있었다. 적들이 저들 작전지역의 모든 곳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미군부의 최고수위들이 《마운트웨저》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었다. 최중권은 자기의 명령 한마디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를수 있다는것을 의식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그에게는 오래 생각할 시간적여유도 없었다.

전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방금 받은 보고에 의하면 다섯

명의 우리 군인들중 네명이 희생되고 전사 한명이 살아서 교전하고 있었다. 그마저 잃을수 없었다. 아니, 그보다는 조국의 촌토가 잠시라도 적들의 발밑에 짓밟히는것을 허용할수 없었다. 바로 우리 전사들이 그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분계선표식물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걸어 나가지 않았던가. 그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최중권은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은채 짧은 한순간 최고사령관동지를 생각했다.

그이께서는 전선동부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단호한 결심이 섰다.

(어디 해보자!)

그는 도발을 걸어 온 한정된 적이 아니라 그리고 수십년간 벼르고 별러 온 자기 전선의 타격대상만이 아니라 미국땅덩어리 전체를 눈앞에 그려 보며 아니, 그것을 한줌에 틀어 쥐듯 송수화기를 으스러지게 틀어 쥐였다. 그리고 두눈에 퍼런 불찌를 날리며 뢰성을 터쳤다.

《타격하시오! 백배, 천배로 보복하시오!》

최중권은 전화보고를 해온 일선사단장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 송수화기를 내려 놓은 다음 손등으로 이마의 땀발을 문대며 등뒤에 주런이 서 있는 장령들가운데서 한사람에게 갈린 목소리로 지시했다.

《통신부장동무, 총참모부를 찾으시오!》

자기의 정황처리에 대하여 보고하려는것이였다.

타격은 무자비하였다. 보복은 백배, 천배의것이였다. 각종 저격무기와 포들이 울부짖었다. 드세찬 타격수단에 의하여 적 콩크리트장벽이 종이장처럼 날아 나고 화점과 반땅크차단물, 철조망들이 콩가루가 되였다. 적의 헌병초소는 물론 화선방송과 1선보병 병실들이 흔적없이 사라졌다. 그 타격이 어찌나 불의적이고 맹렬하고 폭발적인것이였던지 군사위성을 통해 현장을 살펴 보고 있던 《마운트웨저》의 장성들은 입이 얼어 붙어서 현지장성들에게 아무러한 지시도 떨굴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모

든것은 끝나고 말았다. 현장의 적병들이 서둘러 흰기를 들었으며 숨소리 하나 없이 침묵을 지키는것으로써 자기들의 항복을 인정하였기때문이다. 5분동안에 미합중국의 힘과 의지를 걸고 달려들었던 클린톤과 보브 돌련합세력의 기도는 완전히 꺾어지고 말았다.

고령의 최중권장령이 전선동부 군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였을 때 미군과 남조선군의 모사진은 적지 않은 의혹을 품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있은 다음 그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탄복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이 부하를 쓰는걸 보면 과시 명장은 명장이다!)

32

미래의 력사가들은 20세기 마지막년대들에 우리 인민이 진행한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신 **김정일**동지의 위훈에 대하여 동시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알게 될것이다. 오늘의 신문, 방송들은 그이께서 진행하신 회의와 담화, 현지시찰을 실지보다 적게 보도했기때문이였다. 현재로서는 많은것이 비밀이였다. 지면과 파장에 실린것보다 리면이 더 많았으며 거기에 더 중요한 본질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것이 비밀로 되지 않을 때 력사가들은 그토록 간고했던 고난의 년대들에 그이께서 보여 주신 무비의 담력과 의지,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일관된 빛나는 위훈을 사실대로 알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아는것이 전부였다. 그 고난의 년대들에 엮어 진 위훈의 리면사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현재 나돌고 있는 《쪽잠》이라든가 《줴기밥》에 대한 혁명일화가 어느 정도 그 진면모를 가늠해 볼수 있게 했지만 그것으로써는 부족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시가 창작되였다.

지금은 어데 계실가
그 어느 북변마을의 동구밖
밭이랑의 찬 눈을 헤집고
파아란 밀보리를 보살피시지 않는지
천리 먼 전연초소
병사들의 온실을
돌아 보고 계시지나 않는지

자신의 집을 떠나
풍찬로숙하신 우리 어버이
인민을 찾고 찾으시여
온 한해 인민의 집에 계신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

예로부터 하루라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 했더라
한걸음 제 집 뜨락을 나서면
봄바람도 차다 했더라

허나 하루도 한달도 아닌
긴긴 해와 달
자연에는 춘하추동 사계절이 있건만
가고 가시는 전선길우에는
계절이 따로 없었으니
우리 장군님 고생중의 고생을
어이 다 헤아리랴
…

시인의 풍부한 환상력이 **김정일**동지의 위훈의 세계에로 어느 정

도 육박했다고 할수 있었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의 세계, 사랑의 세계였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희생의 세계였다. 《쪽잠》과 《줴기밥》, 《불돌》에 대한 일화도 그래서 생겨 난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시인의 환상력으로써도 미치지 못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이께서 생명의 위협이 뒤따르는 사선을 넘나드신 때도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해에 있은 최전연고지들에 대한 시찰은 적의 저격무기의 사격권내에서 진행되였다. 이것은 현지에서 그이를 맞이했던 장령들과 전사들이 손에 땀을 쥐였던 일로서 더러 일부 알려 져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4일에 진행된 판문점시찰은 안개라는 《보호신》에 의해서 무사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로만 전해 졌을뿐 그 놀랄만한 리면에 대해서는 알려 진것이 거의 없었다. **김정일**동지의 판문점시찰은 안변땅에서의 위대한 선포에 이어 《고난의 행군》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한몸을 내대이신 일대 거사였다.

이 시찰은 분계선에서의 충돌이 있은 직후에 있었다.

최중권장령으로부터 된타격을 받은 적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놈들은 안변의 선포가 결코 허장성세이거나 정치적제스츄어가 아니라 조선을 떠받들고 있는 제일기둥인 인민군대의 실질적인 의지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조선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까지 짜놓고 있던 적들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인민군이 진실로 강력한가? 그렇다. 강력하다는것을 검증할수 있는 사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바다에서 좌초된 인민군군인들의 집단적인 자폭만도 그렇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산다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어린 철부지들이 아니였다. 그들이 자폭한 위치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그들의 가정과 생활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모든것을 버리였다. 그러니 인민군군인들속에 폭발적으로 일고 있는 자폭정신, 육탄정신을 무엇으로 막는단 말인가!

분계선충돌이 있은 직후인 10월 18일 미국에서는 대통령후보들의 텔레비죤공개론쟁이 있었다. 대통령선거가 박두한 때였으므로 서로 분계선충돌에서의 실패의 책임을 전가시킨 이 론쟁에서 클린톤이나 보브 돌이 다같이 인정한것은 조선인민군이 상상밖으로

강했다는 사실이였다.

체육선수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화면에 나타난 클린톤은 자기의 언변과 젊음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는 보브 돌씨를 비난할 마음이 없다. 그것은 대통령인 나자신이 북조선군을 잘못 보았기때문이다.》

련이어 화면에 나타난 보브 돌도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는 곧 머리를 싸쥐였다. 실언을 했던것이다. 그는 대조선정책에서 강경고압,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정치리념, 선거공약의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 버린것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렬세에 빠져 있는 선거전에서 실패를 가져 올수 있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클린톤을 누르고 대통령이 됨으로써 미국을 힘의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될 자기의 결심과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얼마전에는 상원의원직을 버리였다. 자기앞에는 두길, 백악관이냐 고향이냐 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이였다.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치무대에 나서지 않겠다는것이였다. 그는 이러한 비장한 결심으로 미국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쟁자에 대한 최후의 공격을 들이대였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잃어 버린 지도력회복》이란 45분간의 연설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클린톤에 대한 공격에 바쳤다. 《클린톤정부의 과오는》 하고 그는 말했다. 북조선에 굴복하고 양보하는 정책을 펴온것이다, 클린톤행정부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제네바기본합의문을 통해 미국은 1. 핵협정의 정상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북조선을 어루만져 주었다, 2. 북조선의 현존핵무기계획과 핵물질보유량을 과대평가하였다, 3. 북남대화를 정지시켰다, 4. 북조선의 장래발전을 위한 수십억딸라의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것을 약속하였다, 5. 핵무기 및 핵물질을 생산할수 있는 수십억딸라의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것을 약속하였다, 6. 북조선군의 전진배치로 조성된 위협을 무시하였다, 7. 북조선에 계속적이며 직접적인 관대정책을 확인해 주었다.

보브 돌은 열도를 높여 계속했다. 클린톤은 미국과 중국, 북남조선이 참가하는 《4자평화회담》제안을 발표했는데 그의 제안에 북조선은 응대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클린톤의 대북조선정책은 아무런 전략적안목이나 작전계획, 전술적인 조정도 없이 단순히 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것이다, 행정부는 북조선이 현존무기통제조약들을 뻔뻔스럽게 —나는 뻔뻔스럽다는 말을 강조하는바이다—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지도자들과 《미싸일전파방지》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공격과 동시에 클린톤의 도덕성문제를 들면서 인신공격까지 가해 나섰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렬세는 만회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치명적인 실언까지 하였으니 머리를 싸쥘만도 하였다.

그날 밤 미중앙정보국의 《Z》자가 붙은 밀실에는 돌과 그의 모사진이 모이였다.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최후의 모의였다. 이 도발적인 모의에서 그들은 분계선충돌을 기본으로 조선인민군의 전쟁의지, 보복의지를 다시금 따져 보고 마지막도발을 해볼 심산이였다.

보브 돌과 함께 《마운트웨저》에 가 있던 호케르는 충돌지역 상공에 떠 있는 군사위성이 보내온 화면을 다시금 눈앞에 그려 보면서 말했다.

《보십시오. 다섯명의 북조선군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인정된 곳으로 주저없이 걸어 갔습니다. 거의 본능적이지요.》

《동물들에게는 본능밖에 없소! 호케르선생.》

보브 돌이 성난 어조로 부르짖었다. 호케르가 그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물었다.

《무식하다는건가요?》

《그렇소.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전면전쟁으로 번져 질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소. 그러니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요. 물론 나도 그들의 군인정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소.》

《그렇다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고 호케르가 침착하게 응수했다. 《이 전선군을 지휘한 조선의 최중권장성의 명령도 무식하

다고 해야겠는지요?》
《그렇소.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 무분별할수밖에 없었소.》
《무분별했다구요?》 호케르가 반문하고 나서 역시 조용히 자기의 의견을 전개했다. 《우리가 포착한것처럼 그는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결론이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이건 그가 용감할뿐아니라 리성적인 사고력과 가장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걸 말해 줍니다. 그랬기때문에 우리가 패한거구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요!》 돌이 목에 피대를 세워 부정하며 말했다. 《그 우둔한 장성보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은 퍽 현명하단 말이요. 만일 그가 알았더라면 그 장성을 제지시켰을거요. 그는 우리 미국의 국력을 알고 있을거요. 미국과의 전쟁이 무분별하다는것을 알고 있을거란 말이요. 〈아는 자, 이는 약자이여라.〉 성서의 가르침이요. 이번에 그를 알아 보자던것이 유감스럽게도 실패하고 말았소. 그에게 보고되기전에 모든 일이 끝나고 말았거든. 그에게 진정 전쟁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미국을 무서워 하는가 안하는가, 만일 미국을 무서워 한다면 우리의 강경고압로선은 승리하는거요. 미리 손을 들면 좋고 손을 안 들어도 치면 되는거니까. …》
아전인수격의 어리석은 망발이였다. 두뇌진들이라고 하는 모의참가자들이 그것을 모를리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돌의 말을 반박하거나 막지 않았다. 그들로서도 다른 수가 없었다. 그들은 대통령이 되려는 돌의 열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리해했다. 리해했다기보다 그에 동조했다. 왜냐하면 그들모두가 힘에 의한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고 싶었기때문이다.
후에 세상에 로출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격분시킨 《5027작전계획》은 그때 당시 그들에 의하여 극비밀리에 작성되고 있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참패 당한것을 《복수》한다는 이른바 제2의 조선침략계획인 《5027작전계획》은 조선전쟁을 모두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1단계는 《억제》단계로서 그 누구의 행동을 억제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미제침략군무력을 집결시켜 놓고

공화국북반부의 공중과 해상 국경을 봉쇄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는 단계였다.

2단계는 《무력화타격》단계로서 방대한 야전군무력과 비행대, 순항유도무기들로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공중타격전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무력화》시킬것을 노린 작전단계였다.

3단계는 《지상공격작전》단계로서 공화국북반부의 동서 량해안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과 항공륙전작전, 직승기륙전작전, 특공대작전을 배합한 전면적인 지상공격작전으로 우리 혁명의 심장인 평양에 대한 작전포위를 실현하고 청천강계선까지 《점령》하는 작전단계였다.

4단계는 《전쟁성과확대》단계로서 청천강이북의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점령하며》 5단계는 《종결》단계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으로 되여 있었다.

보브 돌과 그의 강경보수세력은 이 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침략군 54만 5천명과 남조선군 63만여명, 항공모함전단 5～7개, 스텔스전투폭격기 《F—117》, 《F—111》,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폭격기 《B—1》, 《B—2》, 《B—52》를 비롯한 현대적인 첨단장비들과 대형타격수단들을 투입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는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는 방법이 3가지로 규정되여있는바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다가 그 연장선우에서 타격을 가하는 방법, 우리의 《핵의혹시설》들에 대한 《외과수술식》타격을 가하는 방법 그리고 정세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다가 정세악화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단행하는 방법 등으로 전면전쟁을 유발시키게 되여 있었다.

놈들은 이 작전계획을 이미 성문화하였으며 합참의장을 비롯한 펜타곤의 우두머리들과 미태평양군사령관, 륙해공군 구성군사령관들, 1, 3군단장과 미 7함대 사령관, 1, 3해병원정부대 사령관들을 비롯하여 조선전선에 투입하게 되여 있는 군사령관들과 합의하고있었다.

대통령이 되려는 보브 돌의 열망은 바로 이 작전과 관련되여 있었다. 강력한 미국건설의 제창자인 그에게 있어서 《5027작전계

획》은 얼마나 현란한것인가. 피를 물고 싸워서라도 대통령이 되자, 그리하여 《5027작전》을 실천에 옮기자, 죠지 워싱톤이나 아브라함 링컨처럼 보브 돌의 이름도 백악관과 함께 영원히 빛날것이다. 측근들은 그의 이 결심을 지지했고 추동했으며 부추겼다.

그리하여 이날 밤 또 하나의 최후발악적인 도발계획이 작성되였다. 미군측은 희생된 경비함성원들의 시체를 무조건 돌려 보낼데 대한 인민군측의 요구에 《사죄》라는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응하려하지 않았다. 자기측 바다에서 좌초된 우리 경비함이 《불법침입선》이므로 남조선군과 미군, 국제공동체앞에 《사죄》하기전에는 단 한구의 시체도 돌려 보낼수 없다는것이였다.

전선동부에서의 대규모적인 충돌이 있기 이틀전에 조선인민군총참모부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이 있은후 두번째로 되는 통신사성명이였다.

이미 알려 진바와 같이 조선중앙통신사는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지역바다에서 좌초되여 가까운 륙지에 올랐던 우리 군인들과 희생자들과 함정을 무조건 즉시 돌려 보낼데 대한 립장을 밝힌바 있다는것,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선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외면하고 2개월 가까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것,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50여일동안 무려 200만명에 달하는 륙해공군병력과 현대적인 군사장비를 투입하여 우리측 생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륙작전을 벌리였는바 이것은 몇명의 우리측 인원들을 상대로 벌린 하나의 큰 전쟁과 같은것이라는것, 자신을 지킬 소총조차 휴대하지 않은 20여명의 우리측 비무장인원들을 상대로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대병력과 군사장비들을 동원하고 있다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취약한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는것, 그러면서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보복을 한다면 하고 피값을 받아 낸다면 받아 내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할 이번 사건이 다르게 번져 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남조선당국자들과 미국은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하며 우리의 요구에 즉시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것 등등이였다.

이에 대하여 적들은 전선동부에서의 도발로 대답하였다. 우리의 보복의지,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시험이라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때문에 놈들에게 된타격을 안긴 최중권장령의 단호한 결심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이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이 도발이 있은후 적들이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우리를 걸고 들면서 새로운 도발을 해온것이다. 《경비함사건》에 대한 사죄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하라는 것이였다.

판문점접촉에 참가한 미군대표 에쥐톤 에이취 옴스 미룩군대령은 인민군측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여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다.

《당신측은 대한민국 지상지역을 비무장지대 남쪽 5메터 가까이 침범함으로 해서 한국정전협정 제12항, 14 및 15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위반행위들이 악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침투가 고의적이였다는 사실을 검증할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측은 전 전선에서 보복함으로써 정전협정 12항의 또 다른 위반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국제련합군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책임은 물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침략을 격퇴하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국제련합군은 당신측의 보복을 정전협정상의 합의된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련합군의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이무렵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 성진제강소를 련이어 찾아 가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의 불씨를 심어주어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새로운 봉화가 타오르게 하시려는것이였다.

하지만 선차적인 관심은 언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자강도와 함경북도의 성진제강소를 찾아 수천리를 달리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이번엔 서해의 이름 없는 섬초소를 찾아 또 시찰길에 오르시였다.

인민군대는 나라의 군사력에서 기본력량이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필승강군으로 만들려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전군에 혁명적인 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하며 전군을 오늘의 《오중흡7련대》가 되도록 하여야 했다. 군부대뿐아니라 대대,중대,이름 없는 섬초소까지 찾으시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이께서는 서해의 섬초소에서 적들과 항시적으로 대치한 조건에서 모든 군인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의 령토와 령공,령해를 0.001미리메터라도 침범한다면 추호의 용서도 없이 단호히 징벌하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이건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안겨야 한다는 멸적의 신념을 안겨 주시였다.

돌아 오시는 길은 풍랑 사나운 새벽이였다.

그이께서는 수행원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있건만 갑판우에 끄떡없이 서계시였다. 그 모습은 그대로 무비의 담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륙지에 상륙하시자 판문점으로 가자고 하시였다. 이젠 평양으로 돌아 가시려니만 했던 수행원들은 깜짝 놀랐다.

판문점은 가랑잎 흩날리는 소리에도 자동소총의 격발기를 풀어놓는 곳이고 적측 헌병들이 총총히 늘어 서서 눈을 밝히고 있는 삼엄한 곳이였다.

수행원들이 앞을 막아 서서 만류했으나 그이께서는 결심을 바꾸지 않으시였다. 갑자기 후날 세상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 보낸 《보호신》이라고 말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연막과도 같은 안개는 판문점회의장구역에 들어 서자 더욱 짙어졌다. 모든것을 가리웠다. 공동경비구역은 물론 통일각도,적의 《자유의 집》도 보이지 않았다. 안개는 신통히도 중앙분리선을 지경으로 차일치듯 했는데 그것은 우리쪽을 바라보는 적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 마가을로서는 처음 보는 자연현상이였다.

아침 9시경 판문점 인민군대표부 성원들은 통일각에 **김정일**동지를

모시였다. 그들은 안개의 보호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으나 불안을 감추지 못한채 서둘러 판문점공동경비구역정황과 조미군부접촉정형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접촉이 결렬된 상태에서 차후의 활동방향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후 통일각의 로대로 나가시였다.

안개가 짝 껴서 거기서도 적측은 보이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로대에 설치해 놓은 포대경을 만져 보며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란간을 두손으로 짚고 안개속을 응시하시였다.

수행원들은 안개가 낀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으나 정작 그이께서 아무것도 보실수 없게 되자 모두들 안타까와 하였다. 그렇게 된 바에는 그이께서 해당한 가르치심을 주고 빨리 자리를 뜨실것을 간절히 바랐다.

판문점대표부 오창식장령이 모두의 심정을 대표하여 말씀을 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가르치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대결해보겠습니다.》

《허허… 덤빌건 없습니다.》

그이의 판문점시찰은 길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비를 돌아 보신 다음 판문점대표부성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그들에게 금시계를 선물로 채워 주고는 곧 떠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창식에게 《나도 동무들이 올려 보낸 조미군부접촉정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라고 한마디 남기시였다.

그때로부터 사흘후.

우리 나라의 통신, 방송이 아침보도시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판문점에 대한 시찰소식을 일제히 발표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무슨 리유로 그 보도를 사흘이나 늦추어 발표하게 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오전 10시.

판문점군사대표부 우리 측 당직군관은 미군측 당직장교의 긴급전화를 받았다. 보도가 나간지 3시간뒤였다.

미군당직장교는 조미군부접촉을 속개할데 대한 자기측 통고내용을 전하였다.

뒤미처 미군측 비서장 옴스대령이 헐레벌떡 회의장에 등장하였다. 뜻밖에도 그는 싱글벙글하는 표정이였다.

《박대좌, 축하합니다!》

옴스는 우리 측 비서장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 그는 저으기 흥분하여 우리 측 비서장이 미처 답례할 사이도 없이 계속 떠들어 댔다.

《당신네 최고사령관이 1선참호까지 나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일**장군은 정말 배짱이 대단하십니다. 나는 처한테서 당신측 최고사령관이 판문점을 찾으셨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처는 한국 녀자이니까 제꺽 포착하였는데 나는 아직 조선말을 잘 듣지 못하기때문에 혹시 잘못 듣지 않았나 하여 판문점이 어디라고 여기까지 나오시겠는가, 조선인민군에 사령관이 많은데 정말 최고사령관이라고 하던가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처가 옳게 들었소.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측 비서장이 한마디 하였다.

그러자 옴스는 자기측 성원들이 듣지 않게 우리 측 비서장의 귀에 대고 말하는것이였다.

《당신네 최고사령관이 전선부대를 시찰할 때마다 은근히 긴장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당장 발밑에 북조선의 원자탄이 떨어 지는것만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령관(미8군사령관)이 나를 불러 당신이 그날 판문점에 나가 있었는데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고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개가 꼈다고 말했더니 더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사령관이 도술을 쓴것 같습니다.》

우리 측 비서장은 미군측이 무슨 리유로 긴급접촉을 요구했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었으나 싫지 않은 대화여서 좀 더 끌려고 팔소매를 걷어 보였다.

《오, 금시계!》

옴스가 자기측 성원들이 듣건말건 큰소리로 웨쳤다. 그는 우리측 비서장의 팔목을 잡고 들여다 보면서 자기측 성원들도 들으라는듯이 내놓고 말하였다.

《이런 금시계는 보통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백만장자들도 몇번 재보고 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시계를 당신들에게 주신것을 보면 당신들이 최고사령관의 안중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판문점에서 당신들과 두번째로 일하고 있지만 대통령표창은커녕 사령관의 선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옴스가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떠들어 대자 그의 수원들도 우리 수원들의 손목을 잡고 저마끔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미군중령 베이커(미군측 정책장교):

《최고사령관이 최전선에 나오신것만도 그런데 기념사진을 찍고 금시계까지 주시였으니 처음 목격하는 일입니다. 김영삼은 판문점에 나올 생각도 못하고 클린톤대통령이 1993년에 나왔지만 겁이 나서 운동샤쯔바람에 잠간 들렸다가 갔습니다.》

미군소령 흘리쯔(미군측 공동직일관):

《당신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내가 간수하게 해줄수 없습니까? 서울의 친구들과 미국방성의 동료들에게 **김정일**사령관의 직하부하들과 같이 일했다는것을 자랑하고 싶어 그렵니다.》

프랑스군 대령 그루너:

《최고사령관이 나오신것을 보면 당신네는 전쟁준비가 완성된것같은데 여기에 있다가 돌아 가지 못할가봐 겁이 납니다. 우리 련합군위원들속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고사령관이 판문점을 찾으신 덕에 당신들에게는 행운의 보검이 차례지고 나에게는 지옥의 열쇠가 쥐여 진셈입니다.》

회의장은 흥성거리였다. 이 회의장이 생긴 이래, 조미군부접촉이 진행된 이래 처음 있은 일이였다.

우리측 비서장이 옴스에게 물었다.

《미군측의 용건은 무엇인가요?》

《용건이 무언가구요?》

옴스는 이렇게 반문하며 어리둥절해 하다가 비로소 자기들이 회담장에 나와 있으며 적군앞에 있다는것을 의식한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는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빨리 접촉을 속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뿐입니다. 그는 지금 워싱톤과 련계를 취하고 있는중입니다. 미안합니다. …》

사흘전부터 보브 돌은 미국회상하원 합동청문회에 불리워 나와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우리 나라 전선동부에서 있은 충돌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진행되였다.

당신은 북조선군에 대해 어떠한 응징을 념두에 두고 있는가? 전면전인가? 국부전인가? 그러한것이 전국선거 이전에 있게 되는가? 이후에 있게 되는가? 그것이 미국민에 어떠한 리익을 가져다주리라고 생각하는가?

이 충돌소식에 접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벼락을 맞은것만치나 놀라서 질문소나기를 퍼부었다. 그들은 이 충돌에서 미국이 실제적인 타격을 받고 손실을 본것만큼 보브 돌에게 인정사정없이 따지고 들었다.

보브 돌은 자기가 선거에서의 렬세를 만회하려는 열망에 들떠서 서뿔리 일을 저질렀다는것을 뼈 저리게 뉘우쳤다. 사실 그는 현행정부의 공식동의 없이 강경보수파로서 그의 측근인 합동참모본부 부의장과 군부의 일부 호전세력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과 남조선군 장성들을 부추겨 음모적인 방법으로 이런 도발을 감행하였던것이다. 도발이라고 해야 그때로서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하나를 옮겨놓고 북조선군의 전쟁의지를 시험하자는것이였다. 물론 《5027작전계획》을 짜고 있던 그로서는 그 연장선우에서 전쟁도 불사할 결심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있을 일이였고 당장은 북조선군이 대응하는 경우 그것을 들고 자기의 선거공약의 기초이기도 한 강경보수적주장의 명분을 세우려 했던것이다. 그런데 사태가 급전직하로 번져 지고 보니 쩔쩔 매지 않을수 없었다.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최종적인 대답을 해야 하는 날이

다. 청문회는 례외로 저녁 7시까지 계속되였다.

이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판문점시찰소식이 전해 졌다. 그러자 청문회장은 갑자기 벌둥지를 쑤셔 놓은듯 했다. 미국회의원들은 조선이 선전포고를 해온것만치나 놀라서 소동을 일으켰다.

보브 돌,대답하라. 당신은 북조선군과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가? 대답하라. 대답하라!…

고함소리,휘파람소리,발을 구르는 소리에 넋이 나간듯 서 있던 호전광이며 반공광신자인 늙은 대통령후보는 그만 비칠하였다. 그의 뇌졸증증상을 알고 따라 와 있던 담당의사가 얼른 연락으로 달려 나와 그를 데리고 나갔다.

국회의원들은 긴급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현 대통령 클린톤에게 넘기였다.

《미합중국대통령 빌 클린톤은 미군 총사령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즉시 조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며 대통령전국선거가 있기전까지 국내국외적으로 어떠한 분쟁도 없게 할것이다.…》

그로부터 몇시간후 워싱톤과의 통신을 련결해 놓고 있던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긴급전보를 받았다.

《북조선군인들의 시체를 즉시 돌려 주며 북측에 휴전선충돌과 관련한 책임을 일체 묻지 말것이다. 미군 총사령관 빌 클린톤의 위임에 의하여 합동참모본부 타전. 워싱톤 1996년 11월 27일 23시 05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적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판문점시찰을 《결판을 내기 위해 나온》것으로 판단하고 공포에 질려 황급히 타전한 항복문건이였다.

후에 전해 진데 의하면 **김정일**동지께서는 경비함성원들의 시신을 찾아 오지 않으면 설(1997년)을 쇠지 않겠다고 하시였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의 시신은 그 설을 하루 앞둔 1996년 12월 그믐날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리측에 인도되였다.

총검을 들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던 준엄한 력사의 리면에는 수많은 사랑의 일화도 있었으니 이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때의 판문점시찰은 단순한 사랑의 일화로만 볼수는 없었다. 그것은 적들의 태도여하에 따라 그들을 단호히 징벌하며 조선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쟁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진행한 시찰이였기때문이였다.

적들에게 과연 전쟁의지가 있는가. 현재로서는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시였다.

적들도 바보는 아닌 이상 조선전쟁이 스스로 자멸을 청하는 길임을 알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판단을 적의 시점에서, 다시말하여 미국방성과 합동참모본부가 종합하고 있는 객관적자료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리시였다.

그에 의하면 첫째로, 미원정군이 조선에서 살아서는 돌아 못 간다는것이다. 둘째로, 제국주의의 생존의 기초인 경제가 파탄되므로 미국은 운명적인 치명상을 입을것이라는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심장부에 불벼락이 떨어 지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만일 미국의 호전분자들이 이것도 불사하고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결사의 각오로 맞받아 나가 침략자들을 끝까지 소멸할것이다.

이날 적의 코앞인 판문점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내리신 최종결심은 이러하였다.

이것은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의 무한한 정신력, 정예의 무장장비와 빈틈 없는 싸움준비, 한마디로 그이자신이 《고난의 행군》기간 매일과 같이 전선길을 걸으시면서 마련하신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 내리신 결심이시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보브 돌은 주저앉았다.

그는 얼마후에 진행된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락선되고 말았다. 이로써 조선의 《종말》을 운운하던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좌절을

당하였다. 《고난의 행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

1998년 드디여 우리 인민이 그처럼 기다리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고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였다.

이 력사적인 회의에서 새롭게 수정보충한 헌법이 전체 대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 국가기구에서 국방위원회의 권능과 역할이 훨씬 높아 지게 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수위에 다시 추대하였다.

몇해후에 발표한 로작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 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이라고 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인민군대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을 때 우리의 령도는 선군령도이고 우리의 정치는 선군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그 어떤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 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정치, 군사가로서의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적수완이 가져 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33

모스크바 백로씨야거리에 있는 아동공원의 벗나무숲속을 두 늙은이가 걷고 있었다.

령장을 뗀 퇴색한 장령외투를 입고 모표가 없는 군모를 쓴 늙은이는 이전 쏘련원수 야조브이고 검의 색갈의 승냥이털깃을 댄 두툼한 외투에 역시 승냥이털모자를 쓴 키가 구척장신의 늙은이는 미국인 대통령락선자 돌이였다.

그들은 두툼하게 깔린 락엽을 밟고 있었다. 그들이 벌써 여러 고패 돌고 있는 그루가 한아름이나 되는 거목의 정수리에 꺼멓게 색이 죽고 쪼들쪼들 말라 버린 이파리 두잎이 초겨울의 삭풍에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것은 이 숲속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여름의 유산인듯 하였다.

지구의 동서반구에서 랭전시대를 살아 온 두 늙은이가 어떠한 연고로 초겨울의 숲속에서 나란히 락엽을 밟고 있는가?

그것은 보브 돌의 요청에 의한것이였다.

돌의 정신적파산은 인생의 파산이였다. 생리적수명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만신창이 된 희망이 없는 몸을 검질기게 파고 드는 하나의 생각때문에 편안히 눈을 감을것 같지 못했다. 그처럼 믿고 소원했던 북조선의 종말은 왜 오지 않았는가? 몽유병자처럼 중얼거리면서 락향할 이사짐을 꾸리던 그는 급기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무소속국회의원단에 속하여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회의원단의 목적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재생운동에 대한 고찰에 있었다. 그것은 미국정치에 필요한것이였다. 세계적으로 동유럽사회주의는 붕괴되였지만 랭전시대의 여파로 하여 미국의 정객들은 그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공포심에서 벗어 나지 않고는 미국정치는 자기의 대로씨야전략, 대동유럽권전략, 나아가

서 세계전략을 세울수 없었다.

모스크바에 온 국회의원단은 제각기 흩어 져서 주로 좌익정당 출신의 로씨야국회의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재생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좌익계 국회의원들의 견해와 립장, 실력을 직접 알아 보고 싶었던것이다.

하지만 돌의 목적은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다. 고압적이며 독선적인 정치자세로 한생을 살아 온 그는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재생운동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알고 싶어 한것은 자기에게 강타를 안기고 패배를 가져다 준 살아 있는 조선의 사회주의였다. 그가 모스크바에 온것은 조선과 어제도 가깝게 지냈고 오늘도 가깝게 지내고 있는 로씨야의 공산당원을 만나면 필요한 것을 알수 있으리라는데서였다.

마침 어제 로씨야련방공산당지도자 겐나지 쥬가노브가 미국회대표단을 공식접견한 자리에서 조선에 대하여 격찬하면서 류다른 흥미를 표시하고 있는 보브 돌에게 야조브를 소개해 주었다.

《그는 최근에만도 조선을 여러번 방문했으며 조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로씨야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조선의 사회주의를 이끌고 계시는 **김정일**동지와도 가까운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

백로씨야거리에 있는 실각한 대국의 원수였던 야조브의 두칸짜리 집은 같은 실각자인 돌로 하여금 동정과 련민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쏘파 한두개와 침대, 볼품 없는 부엌세간… 게다가 야조브의 생명이고 생활이였던 사회주의제도가 없어 진 반면에 돌에게는 번성하는 자본주의가 있었고 이제 가서 살게 될 고향 쌘프랜씨스코에는 수십명의 하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려한 독립가옥이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야조브의 집을 좀 더 깐깐히 살펴 보던 돌은 깜짝 놀랐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한쪽벽면에 조선의 **김정일**령도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짝 차 있었던것이다.

그이와 포옹하는 사진, 나란히 앉아 무언가 관람하는 사진, 잔을 찧는 사진… 그 모든 사진들에서 **김정일**령도자가 자기에게 눈총을 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얕잡아 보는듯도 하여 보브 돌은 대

번에 기가 질리고 주눅이 들었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는 승냥이털깃외투에 승냥이털모자를 쓰고 있지만 퇴색한 군복차림의 야조브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리고 야조브가 도리여 자기를 동정과 련민의 눈으로 바라보는듯 하여 호화한 몸차림이 거북스럽기까지 했다.

돌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북조선이 붕괴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국정전반에 걸쳐 대폭 강화한후 **김정일**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것은 선군령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킨것이다. 지금 워싱톤에서는 그것을 곧 전쟁공세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조선견제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깔려 있다.》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고수의지가 담겨 져 있는것이다. 즉 사회주의기본원칙을 고수하는데서 기본보루는 군대이며 따라서 비사회주의적인 모든것을 군대로 무자비하게 쓸어 버릴것이라는 뜻이 담겨 져 있다. 다시말하여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킬것이라는 평양의 의지가 담겨 져 있는것이다.》

돌이 머리를 끄떡이였다.

《응당한 일이다. 또 말하라는가?》

야조브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오랜 군인의 투박한 어조로 계속했다. 다정다감한 그의 어투는 원래 오랜 군인생활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포와도 같이 퉁탕거리는 어조로 말하는것은 이 미국인을 환영하지 못할 인물로 보고 있기때문이였다.

《둘째로, 군대에 대한 령도, 전국에 대한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가 담겨 져 있는것이다. 오늘 조선에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정치세력에서 기본은 군대라고 보아야 한다. 그처럼 곤

난한 형편에서도 제일 앞장에서 **김정일**동지를 받들고 있는 세력은 사실상 조선인민군이다. 그이의 령도가 조선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것은 바로 군대가 그이를 옹위하여 나서고 있기때문이다. 셋째로, 미국과 서방세계와 변질되여 가는 사회주의세력에 강하게 도전하려는 뜻이 담겨 져 있는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직접 도전하는것은 이 지구상에서 조선 하나뿐이다. 1960∼1970년대 우리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존재하던 시기에도 미국을 위협하면서 도전한것은 사실상 조선뿐이였다. 그 누구도 감히 미국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오늘에도 워싱톤을 굴복시키려 하는것이 조선이므로 이 나라를 총칼로 받들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이전 붉은군대는 물론 지금의 그 어느 나라 군대와는 대비도 안되는 강력한 반제반미보루라는것을 알수 있다. 또 말하라는가?》

보브 돌은 그저 얼 나간 사람처럼 그를 멍청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야조브는 계속했다.

《당신네 미국에 있어서 조선인민이 가장 위협한 상대로 될수 있은것은 이 군대를 령도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가 계시기때문이다. 1950년 조선이 미국과 전쟁을 할수 있었던것은 **김일성**주석이 계셨기때문이며 오늘 미국과 힘을 겨루려 하고 있는것은 **김정일**동지와 같은 특이한 위인이 계시기때문이다. 우리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된 오늘 조선이 살아 남은것도, 경제적난국과 대국들의 포위로 숨도 쉬기 힘든 형편인 조선이 의연히 건재하고 있는것도 **김일성**동지의 계승자이시며 사회주의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위력한 사회주의정치가이시고 군사가이신 **김정일**동지가 계시기때문이다. 따라서 그이의 선군령도, 군중시사상을 대남선제타격 시도로만 보는 견해는 사실상 조선의 위협에 주눅이 들어 그 진정한 의미도 가려 보지 못하는 자들의 헛소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때 보브 돌은 몸을 흠칠 떨었다. 그는 야조브의 말에 여기가 질렸던것이다. 바로 자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생애의 말년에, 최근의 선거유세에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내지른 모

든 연설과 담화, 구호가 구경은 헛소리가 아니였던가.

야조브의 열 띤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이 없이 삶에 대한 희망마저 버리고 있는 때에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인민, 자기 제도에 대한 믿음을 안고 사는 유일한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인민과 조선군대이다.

당신도 조선인민군 경비함성원들의 순국정신을 알고 있을것이다!》

보브 돌은 또 한번 몸을 떨었다. 그는 법정에 나선 죄인처럼 머리를 푹 떨구었다. 하다면 야조브는 법관이였다. 그는 이 미국인을 황황 불 타는 눈으로 쏘아 보며 대답을 기다리는듯 하였다.

황혼이 깃든 공원안에는 이들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전 사회주의시기라면 일터에 갔던 근로자들, 학교에 갔던 삐오네르들로 붐비였을 이 경치 좋고 계절에 따라 정서가 각각이던 도시속의 숲속에 지금은 이 세상을 다 산 두 늙은이만이 락엽을 밟으면서 서로 부르짖고 있었다.

그렇다. 부르짖는것은 야조브만이 아니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초대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열망에 떠서 위세를 뽐내며 거드름을 피우던 늙은이, 방금전에는 퇴색한 군복을 걸친 사회주의신봉자를 얕잡아 보며 동정과 련민의 눈길을 보내던 승냥이털로 온몸을 감싼 늙은이의 가슴속에도 회오와 절망, 탄식과 비애의 부르짖음이 울리고 있는것이다.

아, 사랑하는 부모와 안해와 아들딸, 동료들을 지척에 두고 있는곳에서 군인들이 절대로 포로가 되여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신념을 안고 이름 없는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실을 왜 보지 못했던가.

조선인민군 경비함성원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지휘한 련합군사령부와 《한국》군 전방군단사령부의 모든 고위장성들과 장교들, 사병들이 이 놀라운 광경앞에서 전률하였으며 지금은 이 작전에 나섰던 숱한 《한국》군 장교들, 경찰들, 민방위대원들과 그들을 밀고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밤중에 소스라치며 깨여 나 식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려고 안했던가. 수십수만의 추격부대를 뒤에 달고 다니면서 순전히 풀뿌리로 목을 추기면서 수십,수백발의 총탄을 온몸에 밤송이처럼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저항한 조선인민군의 육탄정신,자폭정신을 왜 외면했던가!

《아,아!… 하느님 맙시사…》

보브 돌은 비명을 울리며 비척비척 몇걸음 걸어서 구새 먹은 아름드리 봇나무 그루터기를 쓸어 안고 죽은듯이 한참 있더니 갑자기 홱 몸을 돌리였다.

《원수각하…》

그는 야조브를 우러르며 그가 현직원수이기나 한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랭전이 시작되던 초시기에 우리의 덜레스씨가 말하기를 미국이 쏘련과 경쟁하느라고 괜히 맥을 뽑을 필요가 없다,2차대전에 참가한 세대가 끝나면 그들은 스스로 붕괴될것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에 그의 말이 현실로 되였습니다. 한세대가 끝나면 조선에서도 그러한 일이…》

《망상입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야조브는 대답했다. 《내가 알기에는 당신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안변청년발전소를 건설한것은 10대,20대의 조선의 젊은 군인들입니다. 그들속에는 당신들이 전률한 경비함영웅의 아들도 있습니다. 한해전에 분계선을 침범한 미군직승기를 단방에 요정낸 군인도 아직 20살도 못되는 애젊은 군인이였고 조선의 자폭영웅 길영조도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던 군인이였습니다. 조선에서 혁명의 대는 꿋꿋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끊어 지지 않습니다! 쏘련과 같으리라고 생각했다간 오산입니다.》

《아니요,아니란 말이요!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소. 그것은 북조선에 비할바없이 강하고 무한한 재부에 의해 끊임없이 보충되고 있단 말이요!》라고 보브 돌은 거의 발작적으로 웨쳐 댔다.

《그러나 어림 없는 일이요!》

야조브는 느슨히 미소 지으며 비양하듯 미국이 자랑하는 핵과

미싸일, 총대에는 사상의지가 없는데 반하여 자기의 최고사령관과 사회주의조국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인민군에는 그것이 있다고 말하고 나서 갑자기 보브 돌을 향해 마치 육박하듯 다가가면서 《그들의 총대는 바로 붉은 총대란 말이요！》 하고 한마디 냅다 쏘았다.

보브 돌은 《붉은 총대？！》 하더니 갑자기 밑둥 잘린 나무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뇌졸중이 재발한것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야조브는 한마디 더 하였다.

《그 붉은 총대에 의거한 조선의 선군정치는 그 어떤 대적도 짓부시고 그 어떤 위업도 다 수행할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란 말이요！》

보브 돌은 병세때문인지 아니면 야조브의 말에 대한 충격때문인지 얼굴이 백지장이 되여 앉아 있었다. 이때 거목의 봇나무정수리에 있던 두개의 마른 잎사귀가운데서 하나가 삭풍에 견디지 못하고 끝내 흩날려 떨어 졌다.

마지막 한개의 잎사귀는 석양빛을 받아 봉화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

또다시 새해가 밝았다.

20세기 마지막해였다. 21세기, 새 천년기를 맞이하는 인류는 아직 옹근 1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법석이였으며 수천만 사람들이 그날에 무엇을 할것인가를 흥분에 떠서 궁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남태평양상의 한 이름 없는 섬을 찾기로 하고 려권을 마련하고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그 섬이 천문학상 21세기의 태양을 제일 처음으로 볼수 있는 곳이기때문이였다. 누구의 관심속에도 없었고 어느 나라 지경인지도 불명확한 그 섬에 관광려관이 일떠서고 비행장이 개설되였으며 여러 나라 관광회사들이 비집고 앉아 손님맞이준비로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진보적인류의 마음은 조선으로 쏠리고 있었으

니 이 땅우에 21세기 인류의 태양이 솟아 사회주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고 있기때문이였다.

미국의 이름 있는 정치학교수 부쳐는 사회주의는 조산아이다, 100년후에 출생했더라면 살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썼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불가피하다는것이였다.

허나 조선은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보루로 굳건히 서 있다.

총검을 들고 사회주의를 수호했으며 세기를 주름 잡아 놓으신 **김정일**동지,영광을 안았도다 21세기 태양을 맞이한 조선이여!

새해의 첫눈이 내린다.

백설의 대지에 선군령도의 자국이 또다시 찍혀 진다. 로고에 찬 그 길이 언제면 끝날지… 인민의 마음이 눈물에 젖는다.

어데선가 노래소리가 들려 왔다.

불 밝은 이 저녁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 넘쳐 나니
이 밤도 전선길 걷고 계실
장군님생각 간절해라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